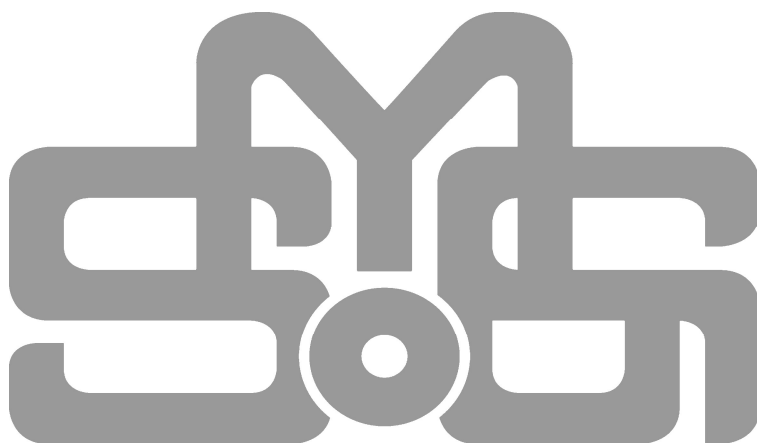


현대문법학회 · 대한언어학회 · 언어과학회 ·
한국언어정보학회 · 한국현대언어학회 2023년 봄 공동학술대회

언어 이론과 응용: 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 (Linguistic Theories and Applications for Asian Languages)



일시: 2023년 5월 20일(토) 08:50 ~ 19:00

장소: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 357, 354, 340, 339호
비대면 ZOOM

주최: 현대문법학회, 대한언어학회, 언어과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

주관: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후원: 계명대학교

현대문법학회 · 대한언어학회 · 언어과학회 ·
한국언어정보학회 · 한국현대언어학회 2023년 봄
공동학술대회 조직 및 운영위원회
(2023.2.17.~2023.05.20)

대회장: 박분주(대구가톨릭대), 송민영(동국대), 엄홍준(계명대), 우수정(건양대),
이희철(전북대)

조직위원장: 김용하(안동대)

조직위원:

곽면선(대전대), 김정수(경희대), 김희태(계명대), 박명관(동국대),
박지윤(우석대), 백주현(부산교대), 심재우(전북대), 윤홍옥(제주대),
장경철(부산대)

운영위원장: 김기태(계명대)

운영위원:

강아름(충남대), 구경연(계명대), 김경민(전주교대), 김기유(계명대),
남윤주(한양대), 박세진(영남대), 양정연(건양대), 윤수원(서울시립대),
이경미(경북대), 이윤경(경북대), 이지현(군산대), 정혜인(충남대),
조은정(경상국립대), 조진우(전북대), 허광미(우송대), 허세문(홍익대)

I. 일정표

* 발표시간: 초청특강-50분 발표(10분 토론), 워크숍-40분 발표(10분 토론), 논문발표-25분 발표(5분 토론)

* 비대면 발표자와 토론자 및 참가회원은 ZOOM 회의실에 접속하시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ZOOM ID: 515 853 9642 PW:2020 / <https://us02web.zoom.us/j/5158539642?pwd=WEh4RU1hb3pHSzdz6YmM3NHGxaXpadz09>)

08:30 08:50	등 록[비대면 발표자 파란색 표기]			
08:50 09:00	개회사 엄홍준(계명대·현대문법학회 회장)			
	제1 발표장 언어이론	제2 발표장 응용언어학	제3 발표장 언어교육	제4 발표장 언어이론
09:00 ~ 11:00	사회: 김대익(영산대) 논문발표: 1. 김희태(계명대) 2. 한진희(창신대) 3. 박명관(동국대) 4. 류병래(충남대) 토론: 임익희(한국외대) 최영식(순천향대) 최동환(안동대) 김옥기(경희대)	사회: 허광미(우송대) 논문발표: 8. 박분주(대구가톨릭대) 최성목(경북대) 9. 박혜선(계명대) 10. 강아름·이용훈(충남대) 11. 윤수원(서울시립대) 토론: 제갈민(대구가톨릭대) 김신혜(계명대) 이지민(계명대) 송상현(고려대)	사회: 김기태(계명대) 논문발표: 19. 이윤경(경북대) 20. 이정원(충남대) 21. 문경만·김수연(세종대) 22. 김해정·응엔티프영 (광주여대) 토론: 최경미(진주교대) 이해경(공주교대) 박세진(영남대) 심재우(전북대)	사회:이경미(경북대) 논문발표: 29. 김기유·엄홍준(계명대) 30. 송민영(동국대) 31. 이두원(한국교통대) 토론: 전해원(부경대) 허세문(홍익대) 양용준(제주대)
11:00 11:10	Coffee Break			
11:10 ~ 12:10	제1 발표장			
	특강 1: Wei-Tien Dylan Tsai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사회: 박명관(동국대)			
12:10 13:10	Lunch			
	제1 발표장 언어이론	제2 발표장 응용언어학	제3 발표장 언어교육	제4 발표장 화용론
13:10 ~ 15:10	워크숍 사회: 엄홍준(계명대) 1. 최기용(광운대) 2. Manabu Mizuguchi (Kokugakuin Univ.)	사회: 안병길(경상국립대) 논문발표: 12. Zunshuai Li(전북대) 13. 조은정(경상국립대) 14. 심현주(계명대) 15. 김기태(계명대) 토론: 이희철(전북대) 변정희(경상국립대) 김정수(경희대) 심은영(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사회: 박지윤(우석대) 논문발표: 23. Miaoqing Wang (전북대) 24. Lin Su·심재우· 이희철(전북대) 25. 오수연(경상국립대) 26. 하중범(금오공대) 토론: 구경연(계명대) Cheng Hu(Binzhou Univ.) 백주현(부산교대) 김동현(금오공대)	사회: 송민영(동국대) 논문발표: 32. 양신간·이상철(충남대) 33. Hazirdinov Ihtiyorjon· 이상철(충남대) 34. Sun, Yaoyao· 이상철(충남대) 35. 김대영(경상국립대) 토론: 허광미(우송대) 우수정(건양대) 안정근(전북대) 조진우(전북대)

15:10 15:20	Coffee Break			
15:20 ~ 16:20	제1 발표장			
	특강 2: Mamoru Saito (Notre Dame Seishin University) 사회: 김용하(안동대)			
16:20 16:30	Coffee Break			
	제1 발표장 언어이론	제2 발표장 응용언어학	제3 발표장 음성학	
16:30 ~ 18:00	<p>사회: 조진우(전북대)</p> <p>논문발표: 5. 허세운·임동식(홍익대)·박유경(서울대) 6. 윤홍욱(제주대)·김회경(Binghamton Univ.)·이상근(고려대) 7. 김용하(안동대)</p> <p>토론: 이해윤(한국외대) 남윤주(한양대) 손광락(경북대)</p>	<p>사회: 김정수(경희대)</p> <p>논문발표: 16. 구경연·트영티멘·마요니가택 인다·주마백크즈글잔(계명대) 17. 김광수(경상국립대) 18. Gurel Buse Simge·이상철(충남대)</p> <p>토론: 장경철(부산대) 조은정(경상국립대) 곽면선(대전대)</p>	<p>사회: 김은주(계명대)</p> <p>논문발표: 27. 임진아(전남대) 28. 하형지(동국대)</p> <p>토론: 하연희(경북대) 권민영(영남이공대)</p>	
18:00 18:10	폐 회 사 이희철(전북대·대한언어학회 회장)			
18:10 18:30	연구윤리 연수 손광락(경북대·현대문법학회 편집위원장)			
18:30 19:00	종 합 토 론			

II. 발표 세부내용

특강1

사회: 박명관(동국대)

제1 발표장 (11:10 ~ 12:10)	
발표자	발표 제목
Wei-Tien Dylan Tsai (National Tsing Hua Univ.)	Causality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특강2

사회: 김용하(안동대)

제1 발표장 (15:20 ~ 16:20)	
발표자	발표 제목
Mamoru Saito (Notre Dame Seishin Univ.)	Wh-movement as Focus Movement

언어이론 워크숍

사회: 엄홍준(계명대)

제1 발표장 (13:10 ~ 15:10)	
발표자	발표 제목
최기용 (광운대학교)	한국어의 지시사는 진정 명사구의 기능 핵이 아닌가: 어순에 대한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
Manabu Mizuguchi (Kokugakuin Univ.)	XP-YP in English, Japanese and Other Languages

연구 발표

1. 언어이론 세션

사회: 김대익(영산대)

제1 발표장 (09:00 ~ 11:0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 김희태 (계명대)	임익희 (한국외대)	English and Korean Object Control
2. 한진희 (창신대)	최영식 (순천향대)	Phase-Based Analyses of Korean ECM Constructions
3. 박명관 (동국대)	최응환 (안동대)	'Mwel': Grammatic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rprise-disapproval" Constructions in Korean
4. 류병래 (충남대)	김옥기 (경희대)	"사건의 참여개체화" 환유로서의 한국어 내핵관계절

사회: 조진우(전북대)

제1 발표장 (16:30 ~ 18:0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5. 허세문·임동식 (홍익대)·박유경 (서울대)	이해윤 (한국외대)	On the Assertive Nature of Sentence Final Particle - <i>ney</i> : Direct Evidentiality and at-issue Variability
6. 윤홍옥(제주대)· 김희경 (Binghamton Univ.)· 이상근(고려대)	남윤주 (한양대)	The Use of <i>ku</i> Modulated by the Strength of Contextual Constraint
7. 김용하 (안동대)	손광락 (경북대)	위험한 문법화: 한국어 종결어미 융합형 어미의 문법

사회: 이경미(경북대)

제4 발표장 (09:00 ~ 10:3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9. 김기유·엄홍준 (계명대)	전혜원 (부경대)	운율구조와 통사구조의 상호작용 - 한국어의 사동구문과 피 동구문을 중심으로 -
30. 송민영 (동국대)	허세문 (홍익대)	The Semantics of Biscuit Conditionals in English
31. 이두원 (한국교통대)	양용준 (제주대)	한국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의 결손 주어

2. 응용언어학 세션

사회: 허광미(우송대)

제2 발표장 (09:00 ~ 11:0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8. 박분주 (대구가톨릭대) 최성목(경북대)	제갈민 (대구가톨릭대)	시선추적을 통해 본 영어학습자들의 통사구문 점화 효과
9. 박혜선 (계명대)	김신혜 (계명대)	Syntactic Causative Construction in L2 English
10. 강아름·이용훈 (충남대)	이지민 (계명대)	기계 번역과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한정 명사구 연구
11. 윤수원 (서울시립대)	송상헌 (고려대)	The Landscape of Emotive Terms in Korean: a Big Data-based Semantic Analysis

사회: 안병길(경상국립대)

제2 발표장 (13:10 ~ 15:1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2. Zunshuai Li (전북대)	이희철 (전북대)	A Comparative Survey of Vision Conceptual Metaphor Mechanism: Based on the Corpus in English and Chinese
13. 조은정 (경상국립대)	변정희 (경상국립대)	A Study on the English Counterparts for Korean '-aseo/-oeseo'
14. 심현주 (계명대)	김정수 (경희대)	구어말뭉치 기반 한국어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 연구
15. 김기태 (계명대)	심은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Positioning of South Asian Patients in Intercultural Medical Discourse: Preliminary Observations

사회: 김정수(경희대)

제2 발표장 (16:30 ~ 18:0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6. 구경연· 트영티멘· 마요니가텍 인다· 주마벡크즈굴잔 (계명대)	장경철 (부산대)	A Focus on Serial Verbs
17. 김광수 (경상국립대)	조은정 (경상국립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수요자 요구 조사
18. Gurel Buse Simge·이상철 (충남대)	곽면선 (대전대)	A Contrastive Analysis of Compliment Responses in English and Turkish

3. 언어교육 세션

사회: 김기태(계명대)

제3 발표장 (09:00 ~ 11:0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9. 이윤경 (경북대)	최경미 (진주교대)	Study on Epistemic Modality: Korean EFL Learner Corpus and Native Speaker Corpus
20. 이정원 (충남대)	이혜경 (공주교대)	Analysis of EFL Learners' Argumentative Writing Using the Adapted Toulmin Model
21. 문경민·김수연 (세종대)	박세진 (영남대)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오류 분석
22. 김혜정· 응엔티프영 (광주여대)	심재우 (전북대)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베트남 빈을 중심으로

사회: 박지윤(우석대)

제3 발표장 (13:10 ~ 15:1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3. Miaoqing Wang (전북대)	구경연 (계명대)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Enjoyment in English learning among Chines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24. Lin Su·심재우· 이희철 (전북대)	Cheng Hu (Binzhou Univ.)	A Study of Chinese Undergraduates' Motivation to Learn L2 English and L3 Korean
25. 오수연 (경상국립대)	백주현 (부산교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의 양상-학문목적 학습자의 교재를 중심으로-
26. 하종범 (금오공대)	김동현 (금오공대)	Maximizing Student Engagement i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with Nearpod

4. 음성학 세션

사회: 김은주(계명대)

제3 발표장 (16:30 ~ 17:3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7. 임진아 (전남대)	하연희 (경북대)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
28. 하형지 (동국대)	권민영 (영남이공대)	The Impact of Korean Nasalization on English Production by Korean EFL Speakers: Examining Nasal and Vowel Duration

5. 화용론 세션

사회: 송민영(동국대)

제4 발표장 (13:10 ~ 15:10)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32. 양신건·이상철 (충남대)	허광미 (우송대)	Translating Humors between Chinese and English
33. Hazirdinov Ihtiyorjon· 이상철 (충남대)	우수정 (건양대)	Functional Adaptation of Pragmatic Borrowings from English into Uzbek
34. Sun, Yaoyao· 이상철 (충남대)	안정근 (전북대)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35. 김대영 (경상국립대)	조진우 (전북대)	사회적 친밀감 조성/증대를 위한 담화전략으로서의 아이러니 사용과 그 원리, 그리고 적합성

III. 발표 제목

특강

Wei-Tien Dylan Tsai(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Causality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1
Mamoru Saito(Notre Dame Seishin University) Wh-movement as Focus Movement	16

워크숍

최기용(광운대학교): 한국어의 지시사는 진정 명사구의 기능 핵이 아닌가: 어순에 대한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	28
Manabu Mizuguchi (Kokugakuin University): XP-YP in English, Japanese and Other Languages	72

일반논문

1. 김희태(계명대): English and Korean Object Control	85
2. 한진희(창신대): Phase-Based Analyses of Korean ECM Constructions	89
3. 박명관(동국대): ‘Mwel’: Grammatic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rprise-disapproval” Constructions in Korean	93
4. 류병래(충남대): “사건의 참여개체화” 환유로서의 한국어 내핵관계절	106
5. 허세문·임동식(홍익대)·박유경(서울대): On the Assertive Nature of Sentence Final Particle <i>-ney</i> : Direct Evidentiality and at-issue Variability	112
6. 윤홍옥(제주대)·김희경(Binghamton Univ.)·이상근(고려대): The Use of <i>ku</i> Modulated by the Strength of Contextual Constraint	123
7. 김용하(안동대): 위험한 문법화: 한국어 종결어미 융합형 어미의 문법	128
8. 박분주(대구가톨릭대)·최성묵(경북대): 시선추적을 통해 본 영어학습자들의 통사구문 점화 효과	129
9. 박혜선(계명대): Syntactic Causative Construction in L2 English	135
10. 강아름·이용훈(충남대): 기계 번역과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한정 명사구 연구	143

11. 윤수원(서울시립대): The Landscape of Emotive Terms in Korean: a Big Data-based Semantic Analysis	147
12. Zunshuai Li(전북대): A Comparative Survey of Vision Conceptual Metaphor Mechanism Based on the Corpus in English and Chinese	153
13. 조은정(경상국립대): A Study on the English Counterparts for Korean '-aseo/-oeseo'	162
14. 심현주(계명대): 구어말뭉치 기반 한국어 학습자의 '-았/였어서' 사용 양상 연구	167
15. 김기태(계명대): Positioning of South Asian Patients in Intercultural Medical Discourse: Preliminary Observations	173
16. 구경연·트영 티 멘·마요니 가택 인다·주마벡크즈 굴잔(계명대): A Focus on Serial Verbs	177
17. 김광수(경상국립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수요자 요구 조사	180
18. Gurel Buse Simge·이상철(충남대): A Contrastive Analysis of Compliment Responses in English and Turkish	186
19. 이윤경(경북대): Study on Epistemic Modality: Korean EFL Learner Corpus and Native Speaker Corpus	190
20. 이정원(충남대): Analysis of EFL Learners' Argumentative Writing Using the Adapted Toulmin Model	191
21. 문경민·김수연(세종대):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오류 분석	196
22. 김혜정·응옌티프엉(광주여대):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베트남 빈을 중심으로	201
23. Miaoqing Wang(전북대):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Enjoyment in English learning among Chines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207
24. Lin Su·심재우·이희철(전북대): A Study of Chinese Undergraduates' Motivation to Learn L2 English and L3 Korean	210
25. 오수연(경상국립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의 양상-학문목적 학습자의 교재를 중심으로 -	212
26. 하종범(금오공대): Maximizing Student Engagement i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with Nearpod	217
27. 임진아(전남대):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	223
28. 하형지(동국대): The Impact of Korean Nasalization on English Production by	

Korean EFL Speakers: Examining Nasal and Vowel Duration	234
29. 김기유·엄홍준(계명대): 운율구조와 통사구조의 상호작용 -한국어의 사동구문과 피동 구문을 중심으로-	240
30. 송민영(동국대): The Semantics of Biscuit Conditionals in English	244
31. 이두원(한국교통대): 한국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의 결손 주어	254
32. 양신건·이상철(충남대): Translating Humors between Chinese and English ·	259
33. Hazirdinov Ihtiyorjon·이상철(충남대): Functional Adaptation of Pragmatic Borrowings from English into Uzbek	266
34. Sun, Yaoyao·이상철(충남대):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270
35. 김대영(경상국립대): 사회적 친밀감 조성/증대를 위한 담화전략으로서의 아이러니 사 용과 그 원리, 그리고 적합성	275

환영사

대한언어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언어과학회와 현대문법학회가 공동으로 '2023년 봄 공동학술대회'를 현대문법학회와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의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마침내 엔데믹으로 향하는 즈음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운 것은, 모든 학자분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 그 소중함의 하나가 학자 간의 만남과 소통일 것입니다. '언어 이론과 응용(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그 만남과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두 분의 특강과 두 분이 이끌어주시는 언어이론 워크숍이 중국,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35편의 논문이 발표될 것입니다. 발표해 주시는 학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회자, 토론자, 그리고 학문적인 열의로 이곳에 참석해주신 여러 학자분들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모여 학문을 더욱 더 풍성하게 꽃피울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계명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박혜선 인문국제학대학 학장님, 총무를 맡고 계신 김기태 교수님과 이경미 교수님 그리고 5개 학회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20일

현대문법학회 회장 엄 홍 준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희철 교수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만물은 연두색 물이 올라 싱그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멋진 풍광을 즐기시면서 상춘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연구자들에게 연구와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학회가 우리 연구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연구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특강을 해주신 분들, 발표를 해주신 분들과 좌장, 사회자, 토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신 분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연합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현대문법학회 회장님과 임원진의 수고하심에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언어학회 회장 이희철

환영사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 5월에 멋지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계명대학교에서 현대 문법학회·대한언어학회·한국언어정보학회·한국현대언어학회·언어과학회가 공동으로 2023 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학회는 ‘언어 이론과 응용: 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 (Linguistic Theories and Applications for Asian Languages)’의 주제로 국내외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관련 학자들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며 토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명하신 해외학자이신 Wei-Tien Dylan Tsai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교수의 Causality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주제의 특강과 Mamoru Saito (Notre Dame Seishin University) 교수의 Wh-movement as Focus Movement 주제의 특강과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에 언어과학회 회원들은 공동학회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학회의 개별일정에 따라 단독개최를 통해서 각 학회 회원들간에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학회 개최를 통해서 타학회와의 회원들간의 교류 및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종합적 학술적 논의의 장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계명대학교에서의 주관과 세부적인 공동학회 운영방안을 준비해주신 현대문법학회 엄홍준 회장님과 김기태 총무이사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총괄 조율해주신 이경미 총무이사님과 각 학회 조직·운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발표와 토론 및 참여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20일

언어과학회 회장 박 분 주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짙어져 가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한국언어정보학회를 비롯하여 현대문법학회, 대한언어학회, 한국현대학회와 언어과학회가 공동으로 2023년 봄 학술대회를 계명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으로 학술대회가 열리지만 그나마 대면 발표가 허용되었다는 점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논문발표와 토론의 분위기와 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에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여러 회원 선생님들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 더 좋은 성과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와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학술대회에 흔쾌히 논문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힘을 써주신 현대문법학회 이경미 총무님과 한국언어정보학회 김정수 총무님을 비롯하여 공동 참여한 학회의 총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 송 민 영

환영사

존경하는 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변함없이 5개 학회(대한언어학회, 한국생성문법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한국현대언어학회, 현대문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애써 주신 각 학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이론과 응용: 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언어이론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 언어교육, 음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 학술대회를 통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분야에서 온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증진시키고 각 학회가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기 중 바쁜신 가운데에도 논문발표를 준비하시고 토론을 맡아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연구자로서는 학문적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나아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학회 간 공동 협업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고 언어학과 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계명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각 학회의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20일

한국현대언어학회 회장 우 수 정

Causality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Wei-Tien Dylan Tsai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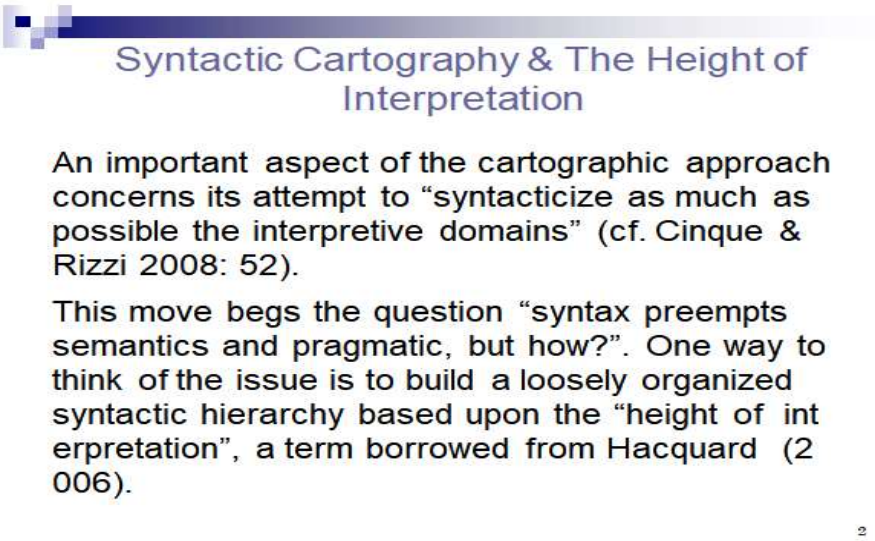


Linguistic Theories and Applications for Asian Languages
SMOG Conference 2023

Causality Hierarchy and The Problem of Internalization

Wei-Tien Dylan Tsai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May 20, 2023

1



Syntactic Cartography & The Height of Interpretation

An important aspect of the cartographic approach concerns its attempt to “syntacticize as much as possible the interpretive domains” (cf. Cinque & Rizzi 2008: 52).

This move begs the question “syntax preempts semantics and pragmatic, but how?”. One way to think of the issue is to build a loosely organized syntactic hierarchy based upon the “height of interpretation”, a term borrowed from Hacquard (2006).

2

The Syntax of Causality

As Ramchand and Svenonius (2014) shows, the traditional C-T-V split of a sentence structure may well reflect the ontological arrangement of proposition-situation-event (see also Platzack 2000; Wiltschko 2014).

On the other hand, the cause-process-result hierarchy encoded by the first phase syntax in Ramchand's (2008) sense is often extended beyond the vP periphery, manifesting itself up to the CP domain in Chinese, presumably due to its robust analyticity (cf. Huang 2015, Tsai 2015).

3

The Syntax of Causality

We are interested in combining the insights from both proposals, and see how the notion of causality can be projected along the clausal spine. This in turn may well provide us a window into how "internalization" works to encode our conception and perception of this world into syntactic cartography in the form of structural hierarchy.

One of the revealing cases comes from the four types of *how*-construals in Chinese:

4

The Syntax of Causality

- (1) zhe-jian shi, ta chuli-de zenme.yang?
this-Cl matter he handle-Res how.manner
'How (well) did he handle this matter?' [resultative: predicate]
- (2) zhe-jian shi, ta hui zenme(yang) chuli?
this-Cl matter he will how(manner) handle
'How will he handle this matter?' [instrumental: bare PP]
- (3) zhe-jian shi, ta zenme(*yang) hui zhe.yang chuli?
this-Cl matter he how(manner) will this.manner handle
'How come he would handle this matter in such a manner?' [causal: adverb]
- (4) zhe-jian shi, zenme(*yang) ta hui zhe.yang chuli?!
this-Cl matter how(manner) he will this.manner handle
'How could he handle this matter in such a manner?!' [disapproval: adverb]
≈ 'He shouldn't handle this matter in such a manner!'

5

The Syntax of Causality

We may thus sketch a coarse-grained hierarchy of *zenme(yang)* 'how(manner)':

- (5) **The height of interpretation** for *how-construals*:
(>: c-command, scope over)

disapproval *how* > **causal** *how* > **instrumental** *how* >
resultative *how*

6

Three Types of Causation

Another core issue to explore here concerns how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perception-driven) causal relations can be accommodated in our model of internalization (cf. Shen 1985; Reinhart 2003):

- (6) a. X **Causes** Y if X is the **sufficient condition** (or biconditional) to Y.
b. X **Enables** Y if X is an **external event**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to Y.
c. X **Motivates** Y if X is the **mental state**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to Y.

7

Shifting from Purpose to Cause

A purpose *why* like *wei(-le) shenme* 'for what' in (7) best embodies the **Motivate** relation, while a **reason why** such as *weishenme* in (8) instantiates the **Enable** relation. As for the **Cause** relation, *how come* and **causal zenme** 'how' in (3) seems to fit the description very well.

- (7) renmen hui **wei(-le) shenme** tingerzouxian?
people will for(-LE) what take.a.risk
'For what (purpose) will people take a risk?'
[purpose: PP]
- (8) renmen **weishenme** hui zishao?
people why will self.kill
'Why would people kill themselves?'
[reason: adverb]

8

Grey area in-between Cause and Instrument

An often overlooked aspect of this picture is that there is a gray area between the left periphery and the vP periphery (cf. Belletti 2005; Paul 2005; Tsai 2015). As illustrated in (9), with a non-agentive subject, it is impossible for *zenme(yang)* ‘how(manner)’ to be construed as instrumental. On the other hand, it is under the cleft-focus (i.e., within the scope of the **assertion/focus marker** *shi* ‘be’), and not subject to the causal interpretation.

- (9) tianli shi **zenme(yang)** zhang-chu zacao de?
field.in be how(manner) grow-out weed DE
‘How is it that weed grew in the field?’ [process/way]

What is at issue here is “the process/way by which weed grew in the field”. This type of construals lends substantial support to an active domain of Tense/Situation in Chinese in terms of an **Assertion Phrase (AstP)**.

9

Imprinting Causality

We propose to liken internalization to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imprinting, which is of both nature and nurture. In other words, the causality hierarchy in syntax may well be a reflection/imprint of the causal-effect relationship in the real world perceived by children.

Since the eventuality causation is to be internalized in terms of syntactic hierarchical arrangement, inter-modular considerations such as Interface Economy play an important role (cf. Reinhart 1995, 1996).

10

Internalizing and Parametrizing Causality

The actual encoding of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in individual languages may well be stretched or contracted according to the macro parameter-setting of analyticity, e.g., clausal, phrasal, or lexical/compounding. As a result, the syntactic projection of cause, process and result is implemented not only according to their ontological arrangement, but also by means of the morpho-syntactic setup of individual languages.

Question:

Can we separate the perceptual causality from the logical necessity based upon the notion of internalization? The latter may well be innate, just like merge and recursion.

11

Internalization & Parameter-setting

As a first approximation, I would like to hypothesize that both causality-encoding and parameter-setting constitute part of the internalization/imprinting process.

It follows that the cause-process-result hierarchy is established in syntax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d linguistic capacity, namely, when children learn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through their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e.g. kicking a ball results in its rolling to stop at some distance).

12

Cross-linguistic Evidence from English

A cross-linguistic parallel can be found in English short questions (10a,b), where the inversion appears to trigger peripheral construals such as **causal** or **disapproval**, expressing some negative attitude of the speaker:

- (10) a. For **what?** [purpose, reason] [causal]
 b. **What** for?! [causal, disapproval]

Furthermore, the usage of (10b) is reminiscent of a rather mysterious construction such as (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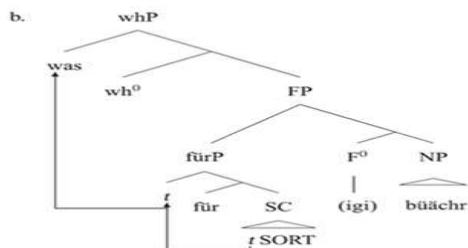
- (11) a. **What** can I do you **for?** [negative/abusive attitude]
 b. What can I do for you? [neutral interrogative]

13

Cross-linguistic Evidence from English

Question: Is this a case of simple ellipsis, or there is some peripheral construal involved in the fine structure of PP, more in line with Leu's (2018:22) analysis of *was für* questions?

- (42) a. was für SORT (-igi) büächr
 what for SORT (ADJ) books



14

A Causal PP analysis

A working hypothesis: It seems possible that *what for* questions in English have a silent component of causality, starting with the basic structure [pp for *what* CAUSE]:

(12)

15

Cross-linguistic Evidence from English

Furthermore, *how* can be used as a complementizer merged directly to the CP domain, scoping over a proposition, as exemplified by (13) (cf. Legate 2010; Liefke 2020).

(13) They told me *how* the tooth fairy doesn't really exist.
 ≈ They told me *that* the tooth fairy doesn't really exist.

The height of interpretation again blocks the adjunct reading, and ensure an interpretation like “*the way it is*” is in place.

The way it is: not an instrument/manner, not a process, not even a cause, but *selfhood of the highest order* (自然 *zi-ran* ‘self-so; nature’ in Chinese)

16

Internalization of *Dao*

Another way to understand this kind of ontology is to consider a famous quotation from Daoism (*法 fa* means ‘follow, model oneself upon; *道 dao* means ‘way, road’):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老子·道德經》

Human beings model themselves on the earth. The earth models itself on the heaven. The heaven models itself on the Way. And the Way models itself on selfhood.

Lao Tzu, *Tao Te Ching*

17

Self of Nature

It is worth mentioning that, in (13a), Chinese outer *self* may trigger predication on a cause event in the discourse, producing a “by nature” reading. The SELF operator binds the abstract event variable, as in (13b), while functioning as a λ -operator responsible for licensing a topic-comment construal (cf. Chierchia 1986), predicating the flower-blossoming event as the effect of the time being due, as in (13c).

- (13) a. shijian dao-le, hua ziji hui kai.
time due-INC flower self will blossom
'When the time is due, flowers will blossom by nature.'
- b. [shijian dao-le], [SELF [hua hui kai(E)]]
time due-INC flower will blossom
- c. $\lambda x \exists e$ (CAUSE (x, e) & blossom(e) & Theme (flower, e)) (due time)

18

The Way of How Come

Collins (1991) on *how come* questions:

- a) It merges directly to the CP domain.
b) It does not trigger subject-Aux inversion.

Tsai (2008, 2015):

Outer *zenme*, as well as *how come*, is hosted by a **Causati on Projection** in the left periphery, i.e., a **Causative Phrase (CauP)**, as they presuppose an external cause:

- (14) a. *How come* the sky is blue? [causal question]
 ≈ *How* does this event *come* around?
 b. *Why* is the sky blue? [epistemic question]

Shlonsky & Soare (2011):

Why (and presumably *weisheme*) is merged directly to the Spec of **ReasonP** in the left periphery.

19

Zenme ... fa Construction

There is no *how*-clause like (10) in Chinese, but we do manage to find some comparable cases in nominalization, namely, the following *zenme ... fa construction* (see also Tang 2019):

- (15) ta shi [zenme ge zuo fa]?
he be how CI do method 'B
y what means did he do it?'
- (16) zhe gongzhu shi [zenme ge renshi fa]? t
his princess be how CI capricious degree
'To what degree is this princess capricious?'
- (17) zhe hua shi [zenme ge zhang fa]? th
is flower be how CI grow process
'Through what process does this flower grow?'
- (18) zhe niu shi [zenme ge si fa]?
this cow be how CI die way
'In what way did this cow die?'

20

Evidence from the *wh-self* correlation

We single out a defining property of this robust analyticity for the purpose of our investigation: Simplex expressions such as *zenme* ‘how’ and *ziji* ‘self’ may participate in a quantificational/referential dependency either as the operator or as the variable, more or less according to their “**height of interpretation**”.

21

The Role-playing Nature of *Wh* and *Self*

Her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intuition that an operator-variable pair functions as a single syntactic object, just like an expletive-argument pair (Chomsky 1986, 1995), while tracing back to Chomsky’s (1977, 1981) original insight that *wh*-question formation, relativization and topicalization share a basic design, i.e., all involving an operator-variable dependency. The gist of our proposal is that **Chinese *wh* and *self* may role-play in an operator-variable dependency**, and by doing so, create a plethora of quantificational and predicational usages along the clausal spine.

22

The inner-outer dichotomy of operator *how* (Tsai 2015, 2019)

inner how

at the peripheral area of **vP**, introducing an **applicative** argument

⇒ ***with***-relation with the event argument

outer how

at the peripheral area of **CP**, introducing a **causative** argument

⇒ ***cause***-relation with the event argument

23

The inner-outer dichotomy of operator Self (Tsai 2015, 2019)

inner self

at the peripheral area of **vP**, reducing an **applicative** argument in terms of focus construals
⇒ **anti-comitative** relation with the event argument

outer self

at the peripheral area of **CP**, reducing a **causative** argument in terms of focus construals
⇒ **anti-causal** relation with the event argument

24

The CP-vP dichotomy of Self as operator

- (2) a. tamen hui **ziji** chuli zhe-jian shi. [modal > inner self]
they will self handle this-CI matter
'They will handle this matter alone/in person.'
- anti-comitative selfhood
They will handle this matter without anyone else.
- b. tamen **ziji** hui chuli zhe-jian shi. [outer self > modal]
they self will handle this-CI matter
'They will handle this matter on his own initiative/voluntarily.'
- anti-causal selfhood
No one makes them to handle this matter but themselves.
- c. **ziji** qishi ye bu xiang qu. [logophoric self, cf. Huang & Liu 2000]
self actually also not want go
'(I) myself actually don't want to go, either.'
- logophric selfhood
The speaker himself actually doesn't want to go, ei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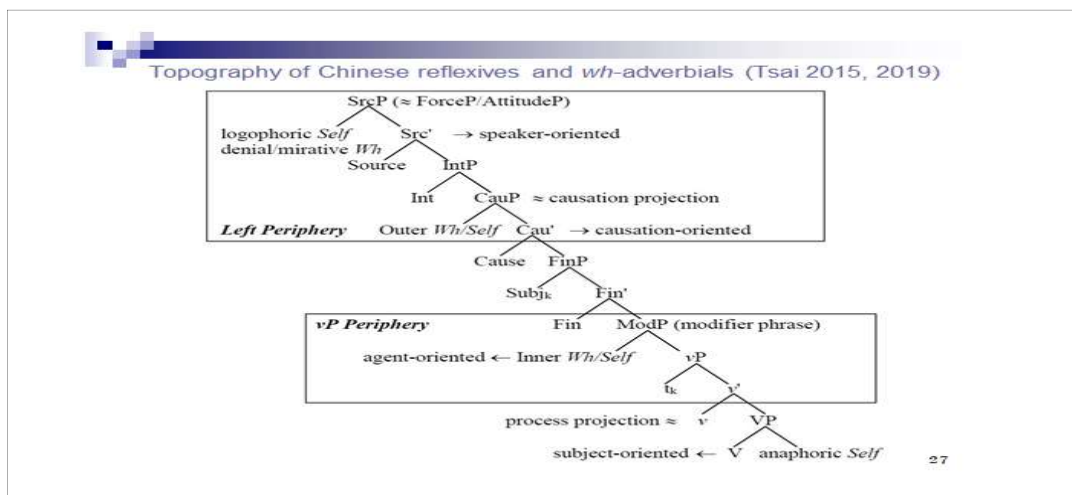
25

The CP-vP dichotomy of *Wh* and *Self*

First, the so-called **first phase syntax** in Ramchand's (2008) sense should be extended to the "**second phase**" along the clausal spine, as dictated by the typological setup of Chinese in relation to its robust analyticity (cf. Huang 2015).

Second, in the absence of agglutinative morphology, **unselective binding** is employed extensively in constructing **operator-variable pairs on a sentential scale** (Tsai 1999a,b).

26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There is a conceptual connection between a **causal question** such as (1) and a **source question** such as (2): Both construals involve a cause-effect relationship, with which the speaker is asking for the origin of the at-issue content:

(19) **How come** you said something like that? [causal question]

(20) **Where** does that come from?! [source question]

As it turns out, a cause/source *wh*-construal often shifts its force from in interrogative to denial/refutatory. A nice demonstration comes from *nār* 哪兒 'where' in Mandarin Chinese (cf. Tsai 2011):

(21) *Nín zhè shì nār de huà?* 您這是哪兒的話?
 you this be where DE dialect
 a. Lit. 'Where's dialect is this (speech) of yours?' [question]
 b. 'Don't mention it!' [polite objection]

28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Even more interestingly, the expression *nālǐ* 哪裡 'where' has evolved into a fully grammaticalized expression to mark out a disagreement among interlocutors rather than the run-of-the-mill sentential negation (cf. Cheung), as shown below:

(22) *Tā nālǐ qù-le Shénhū!* 他哪裡去了神戶!
 he where go-Prf Kobe
 'There is no way he went to Kobe!' [denial/refutatory *wh*]

We propose that this "force shift" applies when the cause-effect relation in question is disrupted. In other words, since the cause/source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discourse, there is no way that the at-issue proposition can be true.

Morpho-syntax-wise, we also have quite suggestive evidence showing the causal usage of locative expressions across languages:

therefore/wherefore ⇒ *because of that/what* *h* cf. *suǒyǐ* 所以
ence/whence ⇒ *from here/where, as a result* cf. *yīncǐ* 因此

29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Following Cinque & Rizzi's (2010) initiative, we pursue the issue as to how the interpretive domains can be syntacticized to the full potential of the cartographic approach. In particular, we are interested in examining the various non-canonical usages of *where*-expressions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hrough which we should be able to map out the topography of *đâu* 'where' in Vietnamese, from the lexical layer right up to the left periphery, even bordering on the so-called "interactional domain" in the sense of Wiltschko (2021).

It seems that a source question, when construed within the "cause-effect" scheme, may well develop a life of its own along the clausal spine, quite distinct from a plethora of *what*- and *how*-constructions investigated in Phan (to appear) and Phan & Tsai (2022).

30

Phan & Tsai (2023)

Syntactic & interpretive attributes of *đâu* as two SFPs: G-*đâu* encodes speaker's attitude towards a proposition; R-*đâu* signals an obligation exerted on addressee, as illustrated in the following topography:

The diagram illustrates the syntactic and interpretive attributes of *đâu* as two SFPs (Speaker-Focus Phrases) in Vietnamese. The tree structure shows the following components and their corresponding examples:

- RespondP**: R-*đâu* (Respond) and G-*đâu* (Ground).
- GroundP**: G-*đâu* (Ground).
- ForceP**: *đâu* ADV (Force).
- Force**: *đâu* emphatic (Force).
- PolP**: ...PolP (Force).
- Pol'**: Pol' (Force).
- Pol**: Pol (Force).
- ...ApplP**: ...ApplP (Force).
- Appl'**: Appl' (Force).
- Appl**: Appl (Force).

Examples and translations:

- Tí thích ai **đâu**? 'Who does Tí like?' (Show me!)
- Đâu** mà Tí khóc?! 'It's not the case that Tí's crying!'
- Tí (đâu) thích ai **đâu**. 'Tí does not like anyone. (Contrary to what is believed.)'
- Tí **đâu** (có) khóc! 'Tí's not crying (at all)!'
- Tí khóc **đâu** mà khóc?! 'It's not the case that Tí's crying!'

31

投影片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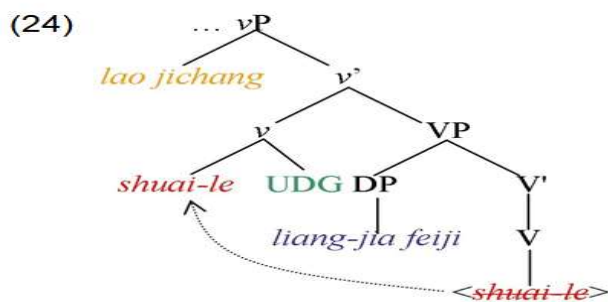
TNP1 Fran N. Phan, 2023/3/18

Double Unaccusatives in Action

Another argument for a causative projection in the left periphery comes from **the inner-outer dichotomy of unaccusative predicates**. First consider the following double unaccusative construction,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old airfield suffered from two airplane crashes’, and given an light verb treatment (with **UDG (undergo)**), an implicit light verb that introduces an Affectedee as its external argument):

- (23) **lao jichang shuai-le liang-jia feiji! ai**
 old airfield crash-Prf two-Cl airplane
 'Two airplanes crashed ON the old airfield!'
老機場摔了兩架飛機！

Double Unaccusatives in Action



Stringing up Inner and Outer Light Verbs

Now we can deal with a more complicated case in (25), which may well involve **multiple light verb constructions** in that it can be decomposed into ‘this typhoon caused the old airfield to suffer the crash of two airpla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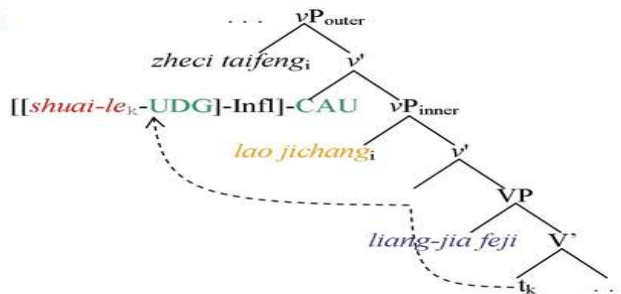
- (25) **zhe-ci taifeng shuai-le lao jichang liang-jia feiji!**
 this-Cl typhoon crash-Prf old airfield two-Cl airplane
 ‘This typhoon caused the old airfield to suffer the crash of two airplanes.’
這次颱風摔了老機場兩架飛機！

Stringing up Inner and Outer Light V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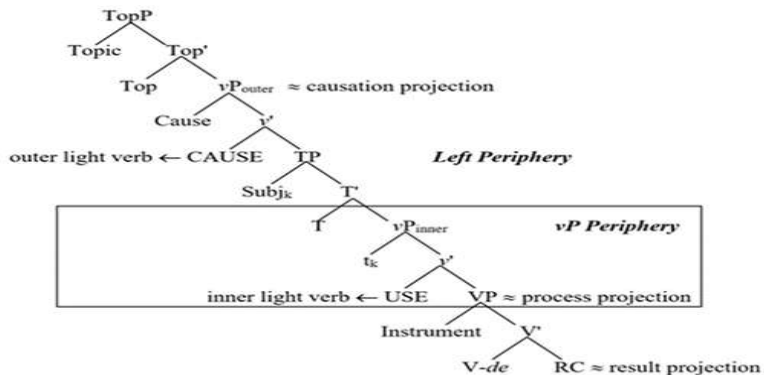
On the technical side, this interpretation suggests that there is yet another layer of outer light verb projection on the top of the inner affective light verb **UDG**. Hence a chain reaction of (**light**) verb-raising all the way up to the left periphery, as sketched below (**CAU**(se) stands for an implicit outer causative light verb).

Stringing up Inner and Outer Light Verbs

(26)



Extending the Projection of Outer Light Verbs (Tsai 2015)



CAUSE as an Outer Light Verb in the Left Periphery

(27) na-ba dao qie-de wo hen lei.
 that-C1 knife cut-Res I very tired
 Lit. 'That knife makes I cut (with it) till I am very tired.'

Syntactic Voids and Iconicity

Yafei Li's (2022) new book *Universal Grammar and Iconicity* addresses the issue how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Grammar leaves some "voids"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ore principles of UG. He compares these deficiencies to holes in Swiss cheese.

He proposes that these voids should be filled through the interface interaction between UG and iconicity.

Solving the Cheesy Problem

The most prominent case for these "functional deficiencies of UG" comes from verb seri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mporal sequence (cf. Tai 1985). Furthermore, the semantic relations between the verbs involved is quite restricted: resultative, instrumental, purposive and consecutive (cf. Chao 1946; Li 2022).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Li's concerns can be addressed by internalizing an ontological hierarchy in cartographic terms. This arrangement in turn may be linearized via antisymmetry (Kayne 1994), hence the surface iconicity.

Internalization as Psychological Imprinting



41

Conclusion

All these observations point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many facets of this internalization process of encoding causality in both conceptual and perceptual terms. It may not be part of UG, but surely lays grounds for semantic composition and pragmatic reasoning by providing guidelines and backbones for sentence-building.

42

Selected References

- Belletti, Adriana. 2005. Extended doubling and the VP periphery. *Probus* 17. 1: 1-35.
- Haegard, Valentine. 2006. *Aspects of Modality*. MIT: PhD dissertation.
- Huang, C.-T. James. 2015. On Syntactic Analyticity and Parametric Theory. In *Chinese Syntax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Li, Y.-H. Audrey, Andrew Simpson, and W.-T. Dylan Tsai (eds.), 1-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gate, Julie. 2010. On how *howis* is used instead of *tha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8: 121-134.
- Leu, Thomas. 2008. *What for Internally*. *Syntax* 11. 1: 1-25. Legate, Julie. 2010. On how *howis* is used instead of *tha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8: 121-134.
- Liefke, Kristina. 2020. Two kinds of English non-manner how-complements.
- Paul, Waltraud. 2005. Low IP and Left-Periphery in Mandarin Chinese.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33: 111-134.
- Phan, Tran and Wei-Tien Dylan Tsai (2023) "On the Non-canonical Uses of Vietnamese ĐẤU," paper presented in, Konan University, Japan, March 2023.
- Platzack, Christer. 2000. Multiple Interfaces. In *Cognitive Interfaces: Constraints on Linking Cognitive Information*, Nikanne, U. and van der Zee, E. (eds.), 21-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mchand, Gillian. 2008. *Verb Meaning and the Lexicon: A First-phase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chand, Gillian and Peter Svenonius. 2014. Deriving the Functional Hierarchy. *Language Sciences* 46 B: 152-174.
- Reinhart, Tanya. 2003. The Theta System: An Overview. *Theoretical Linguistics* 28. 3: 229-280.
- Shen, Yeshayahu. 1985. *The Structure of Action in the Short Narrative Text*. Tel Aviv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Tsai, Wei-Tien Dylan. 2008. Left-Periphery and How-Why Alterna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 83-115.
- Tsai, Wei-Tien Dylan. 2015. A Tale of Two Peripheries: Evidence from Chines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no object fronting. In *The Cartography of Chinese Syntax*, Wei-Tien Dylan Tsai (ed.), 1-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tschko, Martina. 2014. *The Universal Structure of Categories: Towards a formal ty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

Wh-movement as Focus Movement

Mamoru Saito (Notre Dame Seishin University)

1. Introduction

- (1) Rizzi and Bocci 2017 (cf. Saito 2012)
 - a. [Force/Report [Top* [Int [Top* [Foc [Top* [Fin [IP ...]]]]]]]] (Italian)
 - b. [[[[[[[IP ...] Fin] Top*] Int] Top*] Force/Report] (Japanese)
- (2) I argue in this paper that Foc head is present in Japanese. This makes the Japanese right periphery precisely the mirror image of the Italian left periphery.
- (3) The presence of Foc head in Japanese is argued for in Hiraiwa and Ishihara 2002, a pioneering work on the cartographic structure of Japanese. The argument is based on their ingenious analysis of Japanese clefts. But the analysis is difficult to maintain as it is.
- (4) On the other hand, independent evidence for their conclusion can be found in sentences with bare wh-phrases. It has been assumed that a wh-phrase in Japanese must accompany a quantificational particle.
- (5) a. Taroo-wa [[dare-ga sore-o tabe-ta] ka] sit-te i-ru.
Taroo-TOP who-NOM it-ACC eat-Past *ka* know-Pres.
'Taroo knows who ate it.'
b. [[[Dare-ga kai-ta] hon] mo] omosiro-i.
who-NOM write-Past book *mo* interesting-Pres.
'For every person, the book that she or he wrote in interesting.'
- (6) However, there are examples in which wh-phrases occur without quantificational particles.
- (7) a. Hanako-wa [[**doko**-ni ik-u] to]-wa it-ta ga, [[**itu** ik-u] to]-wa iw-ana-katta.
Hanako-TOP where-to go-Pres. *to*-TOP say-Past though when go-Pres. *to*-TOP say-not-Past
'Hanako said where she is going, but didn't say when she is going there.'
b. [[**Itu** taisyokusu-ru] to] sinkokusu-reba, moosikomi-tetuzuki-wa syuuryoo des-u.
when retire-Pres. *to* declare-if application-procedure-TOP end be-Pres.
'If you declare when you will retire,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complete.'
c. Kono risuto-no uti, huta-tu tyuumon-deki-mas-u.
this list-GEN within two-Classifier order-do.can-Pres.
[[Nani to nani-o kiboosu-ru] to] kai-te kudasai.
what and what-ACC want-Pres. *to* write please
'You can order two items from this list. Please write which two you want.'

- (8) I argue that those bare wh-phrases move covertly to Spec, FocP. I suggest further that this is the landing site for covert wh-movement in questions.
- (9) a. Section 2: A review of Hiraiwa and Ishihara's 2002 analysis of cleft sentences
 b. Section 3: Basic properties of bare wh-phrases: They are operators but not question operators.
 c. Section 4: Analysis of bare wh-phrases as Focus oper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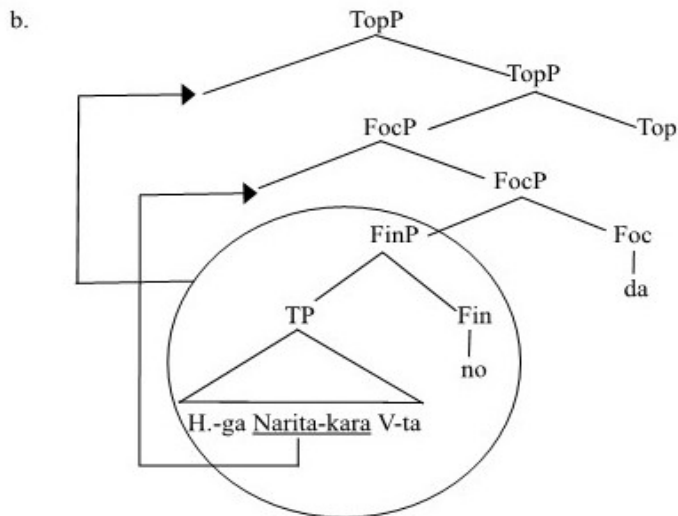
2. Hiraiwa and Ishihara 2002 on Focus

(10) Hiraiwa and Ishihara 2002 is the pioneering work that argued for Topic, Focus and Finite heads in Japanese. The argument is based on their analysis of cleft sentences in Japanese.

(11) IP - FinP - FocP - TopP

(12) [CP [IP Hanako-ga _ syuppatusi-ta] no]-wa Narita-kara da.
 Hanako-NOM depart-Past no-TOP Narita-from Cop.
 'It is from Narita that Hanako took off.'

(13) a. Hanako-ga Narita-kara syuppatusi-ta no da.
 Hanako-NOM Narita-from depart-Past no Cop.
 'It is that Hanako took off from Narita.'



(14) [CP [IP Hanako-ga _ syuppatusi-ta] no]-wa Narita-kara dat-ta. (Tsuyoshi Sawada, p.c.)
 Hanako-NOM depart-Past no-TOP Narita-from Cop.-Past
 'It was from Narita that Hanako took off.'

(15) a. Taroo-wa yature-ta /yasasi-i /baka da wa. (wa is a sentence-final particle.)
 Taroo-TOP become.haggard-Past/kind-Pres./fool Cop. wa
 'Taroo became haggard/is kind/is a fool.'

- b. *Taroo-wa ukar-u daroo/ mai wa
 Taroo-TOP pass-Pres. will will.not wa
 ‘Taroo will/will not pass (the exam).’
- (16) [_{CP} [_{IP} Hanako-ga _ syuppatusi-ta] no]-wa Narita-kara da wa. (cf. (12))
 Hanako-NOM depart-Past no-TOP Narita-from Cop. wa
 ‘It is from Narita that Hanako took off.’
- (17) Taroo-wa [_{CP} [_{CP} [_{IP} Hanako-ga _ syuppatusi-ta] no]-ga Narita-kara dat-ta] no]-o
 Taroo-TOP Hanako-NOM depart-Past no-NOM Narita-from Cop.-Past no-ACC
 wasure-te i-ta.
 forget-Past
 ‘Taroo had forgotten that it was from Narita that Hanako took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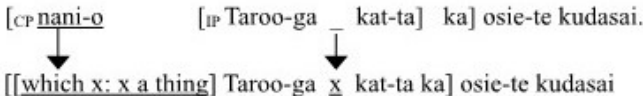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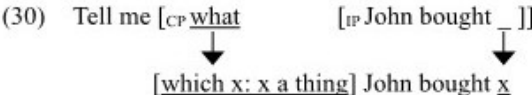
3. Interrogative Wh-phrases and Bare Wh-phrases

3.1. Covert Movement in Wh-questions

- (18) Kuroda 1965 and Nishigauchi 1990 argued that Japanese wh-phrases are interpreted as variables.
 But there is evidence against this hypothesis.

<Wh-phrases in Chinese and Japanese >

- (19) a. If a man sees a panda, he chases it.
 b. [Every_{x,y}] [[x is a man, y is a panda and x sees y] → [x chases y]] (Heim 1982)
- (20) a. John saw a cat.
 b. [Some x] [x is a cat and John saw x] (∃ closure)
- (21) a. Shei xian lai, shei jiu keyi xian chi ne. (Tsai 1999)
 who first come who then can first eat Q_{wh}
 ‘For which x, x a person, if x comes first, then x is allowed to eat first.’
 b. Shei xian lai, shei (jiu) xian chi.
 who first come who then first eat
 ‘For every x, x a person, if x comes first, then x eats first.’
- (22) Akiu bu xiang chi shenme.
 Akiu not want eat what
 A. ‘What does Akiu not want to eat?’
 B. ‘Akiu doesn’t want to eat anything.’ (= ¬ [Some_x] [x is a thing] [Akiu wants to eat x])
- (23) a. Gakusei-ga ku-reba, baku-wa pro a-u.
 student-NOM come-if I-TOP meet-Pres.
 ‘For every x, x a student, if x comes, I will meet x.’

- b. *Dare-ga ku-reba, boku-wa *pro* a-u.
 who-NOM come-if I-TOP meet-Pres.
- (24) a. Taroo-wa hito-ni aw-ana-katta.
 Taroo-TOP person-DAT meet-not-Past
 ‘Taroo did not see anyone.’ (= \neg [Some_x] [x is a person] [Taroo saw x])
- b. *Taroo-wa dare-ni aw-ana-katta.
 Taroo-TOP who-DAT meet-not-Past
 ‘Intended. Taroo did not see anyone.’
- (25) Wh-questions in Japanese exhibit wh-island effects. (Nishigauchi 1990, Watanabe 1992)
- (26) [_{CP} [_{IP} Taroo-ga [_{CP} [_{IP} dare-ga nani-o kat-ta] ka] tazune-ta] ka] osiete kudasai.
 Taroo-NOM who-NOM what-ACC buy-Past *ka* ask-Past *ka* teach please
 a. Tell me whether Taroo asked who bought what
 b. ??Tell me who is the person x such that Taroo asked what x bought
 c. *Tell me what is the thing y such that Taroo asked who bought y
 d. ??Tell me who is the person x and what is the thing y such that Taroo asked whether x bought y
- (27) a. Ni xiang-zhidao [Akiu mai-bu-mai shenme] (ne). (Huang 1982)
 you wanto-to-know Akiu buy-not-buy what Q_{wh}
 ‘Lit. What do you want to know whether Akiu will buy?’
- b. Ni xiang-zhidao [shei mai-le sheme]. (ambiguous)
 you wonder who buy-Asp what
 a. What is the thing x such that you wonder who bought x
 b. Who is the person x such that you wonder what x bought
- (28) Covert wh-movement applies to Japanese wh-phrases.
 (Huang 1982, Lasnik and Saito 1984, Richards 2001)
- (29) a. [_{CP} [_{IP} Taroo-ga nani-o kat-ta] ka] osie-te kudasai.
 Taroo-NOM what-ACC buy-Past *ka* teach please
 ‘Please tell me what Taroo bought.’
- b. [_{CP} nani-o [_{IP} Taroo-ga kat-ta] ka] osie-te kudasai.

 [[which x: x a thing] Taroo-ga x kat-ta ka] osie-te kudasai
- (30) Tell me [_{CP} what [_{IP} John bought]]

 [which x: x a thing] John bought x

3.2. Clauses with Bare Wh-phrases are not Questions

- (31) Japanese complementizers: *to* for paraphrase of direct discourse, *no* for events, *ka* for questions.
(Saito 2012, cf. Plann 1982 on Spanish *que*)
- (32) a. Hanako-wa [CP [IP Taroo-ga soko-ni i-ru] to] omot/it/kanzi/syutyooosi-ta.
Hanako-TOP Taroo-NOM there-at be-Pres. *to* think/say/feel/insist-Past
'Hanako thought/said/felt/insisted that Taroo was there.'
- b. Hanako-wa [CP [IP soko-ni it-ta] no]-o kookaisi/wasure-te simat-ta.
Hanako-TOP there-to go-Past *no*-ACC regret/forget-Past
'Hanako regretted/forgot that she went there.'
- c. Hanako-wa [CP [IP Taroo-ga heya-ni hair-u] no]-o mi/mokugekisi-ta.
Hanako-TOP Taroo-NOM room-to enter-Pres. *no*-ACC see/witness-Past
'Hanako saw/witnessed Taroo enter the room.'
- (33) a. Taroo-wa Hanako-ni [CP [CP [IP kare-no imooto-ga soko-ni i-ta] ka] to] tazune-ta.
Taroo-TOP Hanako-DAT he-GEN sister-NOM there-at be-Past *ka to* ask-Past
'Taroo asked Hanako if his sister was there.' (Like Spanish *que*, Plann 1982)
- b. Hanako-wa [CP [ModaIP kanozyo-no ie-de mat-e] to] Ziroo-ni meizi-ta.
Hanako-TOP she-GEN house-at wait-Imperative *to* Ziroo-DAT order-Past
'Hanako ordered Ziroo to wait at her house.' (Like Spanish *que*, Rivero 1994)
- (34) Lahiri 2002: Selection is strictly local.
- (35) a. Hanako-wa [CP [IP dare-ga sono kaigi-ni syussekisu-ru] ka] tazune-ta.
Hanako-TOP who-NOM that meeting-to attend-res. *ka* ask-Past
'Hanako asked who would be attending the meeting.'
- b. Hanako-wa [CP [CP [IP dare-ga sono kaigi-ni syussekisu-ru] ka] to] tazune-ta.
Hanako-TOP who-NOM that meeting-to attend-res. *ka to* ask-Past
'Hanako asked who would be attending the meeting.'
Tazune 'ask' selects *ka* or *to*. *To* embeds a paraphrase of the question Hanako asked.
- c. *Hanako-wa [CP [IP Taroo-ga sono kaigi-ni syussekisu-ru] to] tazune-ta.
Hanako-TOP Taroo-NOM that meeting-to attend-res. *to* ask-Past
'Lit. Hanako asked Taroo would be attending the meeting.'
- (36) a. Taroo-wa [CP [IP zibun-ga soko-ni ik-u] to] syutyooosi-ta.
Taroo-TOP self-NOM there-to go-Pres. *to* insist-Past
'Taroo insisted that he himself would go there.'

- b. *Taroo-wa [_{CP} [_{IP} dare-ga soko-ni ik-u] ka] syutyoosi-ta.
 Taroo-TOP who-NOM there-to go-Pres. *ka* insist-Past
 ‘Lit. Taroo insisted who would go there.’
- c. *Taroo-wa [_{CP} [_{CP} [_{IP} dare-ga soko-ni ik-u] ka] to] syutyoosi-ta.
 Taroo-TOP who-NOM there-to go-Pres. *ka to* insist-Past
 ‘Lit. Taroo insisted who would go there.’
Syutyoos ‘insist’ selects to. To embeds a paraphrase of what Taroo insisted on.

(37) (38)-(39) show that clauses with bare wh-phrases are not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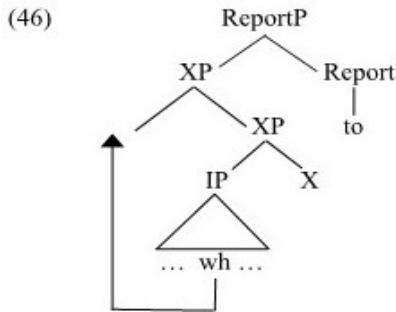
- (38) a. *Saiban-de Taroo-wa [_{CP} [_{IP} dareka-o tasuke-ta] to] syutyoosi-ta ga,
 trial-in Taroo-TOP someone-ACC rescue-Past *to* insist-Past though
 [_{CP} [_{CP} [_{IP} dare-o tasuke-ta] ka] to]-wa syutyoosi-na-katta.
 who-ACC rescue-Past *ka to*-TOP insist-Neg-Past
 ‘Lit. In the trial, Taroo insisted that he rescued someone, but didn’t insist who he rescued.’
- b. Saiban-de Taroo-wa [_{CP} [_{IP} dareka-o tasuke-ta] to] syutyoosi-ta ga,
 trial-in Taroo-TOP someone-ACC rescue-Past *to* insist-Past though
 [_{CP} [_{IP} dare-o tasuke-ta] to]-wa syutyoosi-na-katta.
 who-ACC rescue-Past *to*-TOP insist-Neg-Past
 ‘Lit. In the trial, Taroo insisted that he rescued someone, but didn’t insist who he rescued.’
- (39) a. Hanako-wa Taroo-ni [_{CP} [_{CP} [_{IP} itu zibun-no ie-ni ki-ta-i] ka] to]
 Hanako-TOP Taroo-DAT when self-GEN house-to come-want-Pres. *ka to*
 tazune-ta.
 ask-Past
 ‘Hanako asked Taroo when he wants to come to her house.’
- b. *Hanako-wa Taroo-ni [_{CP} [_{IP} itu zibun-no ie-ni ki-ta-i] to] tazune-ta.
 Hanako-TOP Taroo-DAT when self-GEN house-to come-want-Pres. *to* ask-Past
 ‘Hanako asked Taroo when he wants to come to her house.’

3.3. Bare Wh-phrases are Operators

(40) As already seen, wh-questions exhibit wh-island effects. (cf. also Lasnik and Saito 1984)

- (41) a.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doko-ni i-ru to] omot-te i-ru ka] hakkiri
 Taroo-TOP all-NOM Hanako-NOM where-at be-Pres. *to* think-Pres. *ka* clearly
 iw-ana-katta.
 say-Neg-Past
 ‘Taroo didn’t say clearly where everyone thought [Hanako was _].’

- b.??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doko-ni i-ru kadooka] sir-i-ta-gat-te i-ru ka]
 Taroo-TOP all-NOM Hanako-NOM where-at be-Pres. whether know-want-Pres. *ka*
 hakkiri iw-ana-katta.
 clearly say-Neg-Past
 ‘Lit. Taroo didn’t say clearly where everyone wanted to know [whether Hanako was _].’
- (42) a.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naze kubi-ni nat-ta to] omot-te i-ru ka]
 Taroo-TOP all-NOM Hanako-NOM why dismissal-to become-Past *to* think-Pres. *ka*
 hakkiri iw-ana-katta.
 clearly say-Neg-Past
 ‘Taroo didn’t say clearly why everyone thought [Hanako was fired _].’
- b.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naze kubi-ni nat-ta kadooka]
 Taroo-TOP all-NOM Hanako-NOM why dismissal-to become-Past whether
 sir-i-ta-gat-te i-ru ka] hakkiri iw-ana-katta.
 know-want-Pres. *ka* clearly say-Neg-Past
 ‘Lit. Taroo didn’t say clearly why everyone wanted to know [whether Hanako was fired _].’
- (43) Wh-island effects are also observed with bare wh-phrases.
- (44) a.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doko-ni i-ru to] omot-te i-ru to] hakkiri
 Taroo-TOP all-NOM Hanako-NOM where-at be-Pres. *to* think-Pres. *to* clearly
 iw-ana-katta.
 say-Neg-Past
 ‘Taroo didn’t say clearly where everyone thought [Hanako was _].’
- b.??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doko-ni i-ru kadooka] sir-i-ta-gat-te i-ru to]
 Taroo-TOP all-NOM Hanako-NOM where-at be-Pres. whether know-want-Pres. *to*
 hakkiri iw-ana-katta.
 clearly say-Neg-Past
 ‘Lit. Taroo didn’t say clearly where everyone wanted to know [whether Hanako was _].’
- (45) a.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naze kubi-ni nat-ta to] omot-te i-ru to]
 Taroo-TOP all-NOM Hanako-NOM why dismissal-to become-Past *to* think-Pres. *to*
 hakkiri iw-ana-katta.
 clearly say-Neg-Past
 ‘Taroo didn’t say clearly why everyone thought [Hanako was fired _].’
- b. *Taroo-wa [_{CP} minna-ga [_{CP} Hanako-ga naze kubi-ni nat-ta kadooka]
 Taroo-TOP all-NOM Hanako-NOM why dismissal-to become-Past whether
 sir-i-ta-gat-te i-ru to] hakkiri iw-ana-katta.
 know-want-Pres. *to* clearly say-Neg-Past
 ‘Lit. Taroo didn’t say clearly why everyone wanted to know [whether Hanako was fired _].’



- What is X?

4. Wh-Phrases as Focus Operators

(47) Semantics: From focus semantic value to ordinary semantic value

(48) Rooth 1992 on focus

- John saw MARY.
- {Bill, Susan, Mary, ...} ... the set of alternatives for Mary
- {John saw Bill, John saw Susan, John saw Mary, ...} ... focus (alternative) semantic value
- John saw Mary. ... ordinary semantic value

(49) Daigaku-wa asu [CP [IP (sotugyoosiki-de) RM-SAN-GA kooens-ru] to] university-TOP tomorrow commencement-at RM-NOM lecture-Pres. to happyoosu-ru. announce-Pres.
'The university will announce tomorrow that RM is the (commencement) speaker.'

- {RM, Jin, Suga, ...} ... the set of alternatives
- {RM is the speaker, Jin is the speaker, ...} ... focus (alternative) semantic value
- RM is the speaker. ... ordinary semantic value

(51) Daigaku-wa asu [CP [IP (sotugyoosiki-de) dare-ga kooensu-ru] to] happyoosu-ru. university-TOP tomorrow commencement-at who-NOM lecture-Pres. to announce-Pres.
'The university will announce tomorrow who the (commencement) speaker is.'

- {RM, Jin, Suga, ...} ... the set of alternatives for *dare*
- {RM is the speaker, Jin is the speaker, ...} ... focus (alternative) semantic value
- Not specified ... ordinary semantic value

What the university is announcing tomorrow is the ordinary semantic value of the sentence.

(53) This is similar to Kotek's 2017 analysis of wh-questions in Japanese.
(cf. also Shimoyama 2006)

(54) Taroo-wa [_{CP}[_{IP}(sotugyoosiki-de) dare-ga kooensu-ru ka] tazune-ta.
 Taroo-TOP commencement-at who-NOM lecture-Pres. *ka* ask-Past
 ‘Taroo asked who the (commencement) speaker is.’

- (55) a. {RM, Jin, Suga, ...} ... the set of alternatives for *dare*
 b. {RM is the speaker, Jin is the speaker, ...} ... focus (alternative) semantic value
 c. Undefined ... ordinary semantic value

Kotek: *Ka* shifts the alternative semantic value to the ordinary semantic value. This yields the reference of the question in Hamblin 1973 semantics.

What Taroo is asking for is the ordinary semantic value of the sentence.

(56) A unified analysis for bare wh-phrases and question wh-phrases should be pursued.

(57) Rizzi and Bocci 2017 argue that argument wh-phrases move to Spec, FocP in Italian matrix questions.

(58) a. A GIANNI dovresti dare questo libro, non a Piero.
 ‘To GIANNI you should give this book, not to Piero.’

- b. *A GIANNI che cosa dovresti dare, non a Piero?
 ‘TO GIANNI what you should give, not to Pi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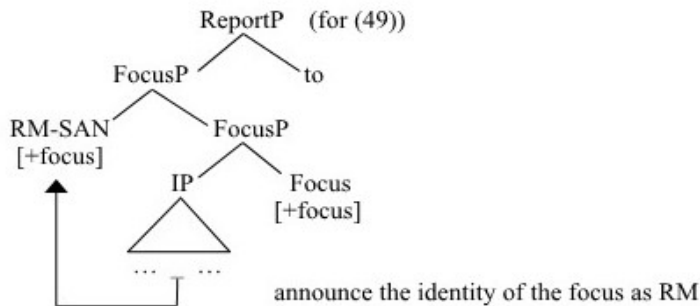
(59) a. A GIANNI dovresti dare il libro, non a Piero.
 ‘TO GIANNI you should give the book, not to Piero.’

- b. IL LIBRO dovresti dare a Gianni, non il disco.
 ‘THE BOOK you should give to Gianni, not the record.’

c. *A GIANNI IL LIBRO dovresti dare, non a Piero il disco.
 ‘TO GIANNI THE BOOK you should give, not to Piero the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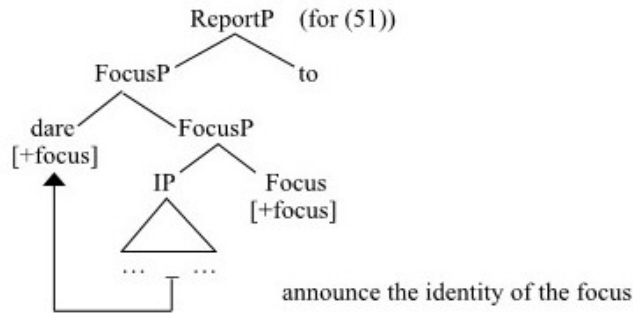
(60) Suppose *f* is a function that maps the set of alternatives *D* to one of its members, that is, Reinhart’s 1997 choice function.

(6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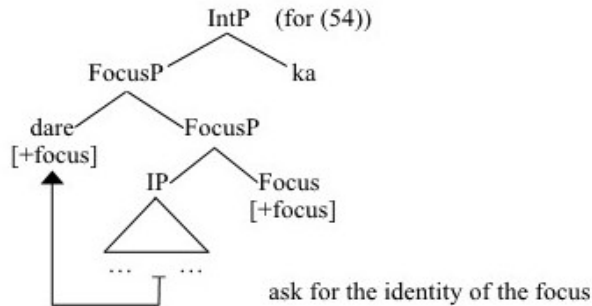
$f(D) = RM$ for *f* such that the (commencement) speaker is $f(D)$

b. ReportP (for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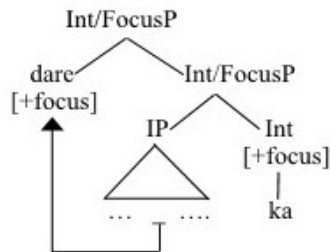
the $f(D)$ for f such that the (commencement) speaker is $f(D)$
 the f for f such that the (commencement) speaker is $f(D)$

c. IntP (for (54))



which $f(D)$ for f such that the (commencement) speaker is $f(D)$
 which f for f such that the (commencement) speaker is $f(D)$ (Reinhart 1997)

c.ʹ



4. Conclusion

- (62) a. Covert wh-movement applies in Japanese wh-questions.
- b. There are bare wh-phrases. They are also subject to covert wh-movement.

- (63) a. The landing site of bare wh-phrases is Spec, FocP. This implies that Foc head is present in the Japanese right periphery.
- b. Wh-phrases in questions may also move to Spec, FocP, just like argument wh-phrases in Italian matrix questions.

- (64) The structures of the clausal periphery
- a. [Force/Report [Top* [Int [Top* [Foc [Top* [Fin [IP ...]]]]]]]] (Italian)
 - b. [[[[[[[[[IP ...] Fin] Top*] Foc] Top*] Int] Top*] Force/Report] (Japanese)

References

- Hamblin, Charles L. (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 41-53.
- Heim, Irene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iraiwa, Ken and Shinichiro Ishihara (2002) 'Missing Links: Cleft, Sluicing, and 'no da' Construction in Japanese', in Tania Ionin, Heejeong Ko, and Andrew Nevins (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3: 35-54.
-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Ph.D. dissertation, MIT.
- Kotek, Hadas (2018) *Composing Ques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Kuroda, S.-Y. (1965) *Generative Grammatical 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 Ph.D. dissertation, MIT.
- Lahiri, Utpal (2002) *Questions and Answers in Embedded Contex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snik, Howard and Mamoru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235-289.
- Nishigauchi, Taisuke (1990) *Quantification in the Theory of Grammar*. Dordrecht: Springer.
- Plann, Susan (1982) 'Indirect Questions in Spanish', *Linguistic Inquiry* 13: 297-312.
- Reinhart, Tanya (1997) 'Quantifier Scope: How Labor is Divided between QR and Choice Func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 335-397.
- Richards, Norvin (2001) *Movement in Language: Interactions and Archite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vero, Maria Luisa (1994) 'On Indirect Questions, Commands, and Spanish Quotative *Que*', *Linguistic Inquiry* 25: 547-554.
- Rizzi, Luigi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iliane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Springer, 281-337.
- Rizzi, Luigi and Giuliano Bocci (2017) 'Left Periphery of the Clause: Primarily Illustrated for Italian', in Martin Everaert and Henk van Riemsdijk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Second Edition*. Hoboken, NJ: John Wiley & Sons, 1-30.
- Rooth, Mats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Saito, Mamoru (2012) 'Sentence Types and the Japanese Right Periphery', in Günther Grewendorf and Thomas Ede Zimmermann (eds.), *Discourse and Grammar: From Sentence Types to Lexical Categories*. Berlin: De Gruyter Mouton, 147-175.
- Saito, Mamoru (2017) 'Japanese Wh-Phrases as Operators with Unspecified Quantificational Force', *Language and Linguistics* 18: 1-25.

- Shimoyama, Junko (2006) 'Indeterminate Phrase Quantification in Japanes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4: 139-173.
- Tsai, W.-T. Dylan (1999) 'On Lexical Courtes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 39-73.
- Watanabe, Akira (1992) 'Subjacency and S-structure Movement of Wh-in-situ',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255-291.

한국어의 지시사는 진정 명사구의 기능 핵이 아닌가: 어순에 대한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

최 기 용 (광운대학교)

1. 서론

한국어의 지시사 ‘이/그/저’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최대 투사 즉 구(phrase)의 성격을 갖는 관계절 및 속격 표현 등의 명사구 수식어와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 즉 명사구에 대한 왼쪽 부가어로 설정되거나(Kang2016), 혹은 명사구에 대한 직접 수식어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명사구 내 기능 핵으로 설정되기보다는 임의의 영형 기능 핵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는 성분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홍용철2006, 2010가, 나, 김용하 외 2018:140, Kim2019). 이런 입장들이 갖는 공통점은 지시사를 명사구 내 기능 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용철2006, 2010가, 나, Kim2019:18). 이런 입장은 관사와 지시사가 같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로망스어의 지시사에 대한 연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Bernstein1997, Cinque1994, Brugè2002, Giusti1997, 2002 등), 기존 연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래 예에서 보듯이 지시사가 다른 명사구 수식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왼쪽에 나타나기 때문이다(홍용철2006, 2010가, 나 등).¹⁾

- (1) 가. [철수의] 가방/*가방 [철수의]
나. [철수가 어제 산] 가방/*가방 [철수가 어제 산]
다. [그] 가방/*가방 [그]

즉 지시사를 명사구 내 기능 핵으로 보면 지시사와 같이 나타나는 명사구는 지시사의 보충어가 되므로 한국어의 다른 핵들이 보충어에 대해 보이는 어순인 핵-후행의 성격이 예견되나, (1다)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강명운(2001)에서처럼 핵-보충어 간의 어순을 지시사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념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시사도 한국어의 다른 핵처럼 명사구 보충어에 대해 핵-후행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경험적으로도 지시사가 다른 명사구 수식어와는 달리 구의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²⁾

1) 이 외 지시사와 다른 수식 성분 간의 어순이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접속 표현과 지시사와의 어울림 양상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홍용철2006, 2010가, 나 등 참고). 전자는 지시사의 위치 문제와 함께 2절에서 그리고 후자는 3.4.1에서 논의된다.
2) 지시사가 대부분의 경우 지시사 홀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홍용철(2006, 2010나)에서 지적되었듯이 ‘거기’, ‘저기’, ‘여기’ 등의 표현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용철도 이 점을 토대로 지시사를 핵으로 하는 지시사구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제시된다.

본고는 한국어의 지시사를 명사구 즉 DP 내에서 NP를 보충어로 갖는 기능 핵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시사와 NP 간의 “기저 어순”은 핵-후행의 원리를 따라 NP > Dem이라고 본다.³⁾ 이런 본 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이다. 즉 한국어의 핵-후행 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시사 자체가 핵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연구들로 하여금 이런 장점을 포기하게끔 했던 문제 특히 (1다)의 어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본고는 이런 문제적 양상이 어순에 대한 Kayne(1994)의 선형 대응 공리(LCA: 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따랐기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 이 공리에 의하면 어순은 비대칭 성분-통어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값’이 ‘을’을 비대칭 성분-통어하면 ‘값>을’의 어순으로 결정되는데, (1)의 왼쪽 성분은 오른쪽 성분을 구조적으로 비대칭 성분-통어하는 위치에 와야 하며, 이로써 지시사는 한국어에서 DP 내 개별 핵이 될 수 없고 핵이 아니므로 최대 투사/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 Kayne의 선형 대응 공리를 버릴 것을 제안한다.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순이 음형 층위상의 핵-매개변인 그리고 어순의 변동을 이끌어내는 여러 이동에 의해 결정됨을 제안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에 대한 가정 그리고 어순에 대한 본고의 제안을 소개한다. 이어 관계절,⁵⁾ 속격 표현, 지시사 등의⁶⁾ 명사구 수식어가 보이는 어순

3) 여기서 “기저 어순”이란 음형 층위(PF: Phonetic Form)상에서 어순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의 어순을 말한다. 사실 어순이 음형 층위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선형 대응 공리적(LCA) 입장과 다르게 핵-후행/선형 여부가 통사부에서 결정되지 않으므로 “기저 어순”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통사 구조를 보이는 나무 그림에 어순 정보가 포함되는 관행 하에서 구조에 대해 아무런 변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갖게 되는 최종 어순 정보를 편의상 “기저 어순”이라고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같은 취지의 연구로 Abels&Neeleman(2009) 등을 참고할 것.
5) 관계절 외에 명사구 보문이라 불리는 아래와 같은 절은 논외로 한다.

(i) [철수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문

또한 관계절 중 아래와 같은 무공백 혹은 연계 관계절(김지은2002, 박소영2022) 그리고 내부 핵 관계절도 논외로 한다.

(ii) 가. [간장을 달아는] 냄배 나. [전쟁이 일어날] 징조

(iii) 가. 경찰이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 나. [어제 신문 온 것이] 어디에 있니?

6) 한국어에는 이 외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명사 관련 성분들이 있다(홍용철2006, 2010가, 김선호2011, 목정수2011, Kim2019 등 참고).

- (i) 가. ‘-적’ 표현: 공격적, 민주적, 방어적, 운명적, ...
- 나. 양화 표현: 모든, 온갖, 갖은, 어느, 무슨, 어떤, ...
- 다. 명사성 형용사(혹은 형용사적 명사): 한국 국민, 유명 배우, 고급 요리, ...
- 라. 수사/수관형사: 하나, 둘, 셋, 넷, .../한, 두, 세, 네, ...
- 마. 관형어: 새, 흰, 옛, ...

홍용철(2010가: 29쪽 이후)은 관계절, 속격 표현, 지시사 및 (i나)의 양화 표현을 함께 묶어 “명사 외곽 수식어”로 보고 (i)의 나머지는 “명사 인접 수식어”로 보아 구분하였는데, 본고는 명사에 보다 더 인접한 특성을 보이는 명사 인접 수식어는 논외로 한다. 이 인접성은 이들이 외곽 수식어와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는데, 정확한 구조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한편 Kim(2019:20)은 형용사 어간과 관형형 어미 ‘-은’으로만 되어 있는 ‘유명한’, ‘값비싼’ 등과 같은 표현

양상을 제약의 형태로 정리하고 이 제약들이 본고의 제안에 의해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를 보인다. 이를 통해 앞의 명사구 수식어들과 관련된 한국어의 기본 어순 현상들이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 하에서 성공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한편 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에 입각한 주요 기존 연구들이(홍용철2006, 2010가, 나, Kang2016, Kim2019 등) 2절에서 정리된 어순 현상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기본 어순 현상에만 국한한다면 본고의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은 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정리된 어순 양상들이 홍용철, 김민주 등의 연구에서 어떻게 포착이 되는가를 정리하고 본고의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본고의 제안이 대안의 성격을 넘어서서 여러 개념적, 경험적 장점들이 있음을 보인다.⁷⁾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고의 제안이 갖는 이론적 암시를 제시한다.

2. 어순 정보와 구조 정보의 분리

2.1. 어순에 대한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 핵 매개변인과 이동

구조적 정보에 의해 어순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는 Kayne의 입장에서는 음형 층위에서 어순을 정하는 별도의 제약 혹은 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어순 정보가 통사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인데, 해서 구조적 정보와 어순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어순이 SM(sensory-motor) 접촉부에 의해 언어에 부과되는 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Chomsky2020:16), 이는 그리 자연스러운 입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연스러운 혹은 최소주의적 관점은 구조 정보와 어순 정보를 분리하여 구조에는 어순 정보가 없고 어순 정보는 전적으로 음형 층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어순 정보는 음형 층위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 우리는 문장을 형성하는 성분들 간의 어순이 무질서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이 결정에 성분들의 구조적 관계 혹은 성격이 관여함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물론 핵 매개변인이다. 핵 매개변인은 핵과 보충어 간의 어순에 관한 원리로 이에 의하면 이들 간의 어순은 언어별로 다음 중 하나로 정해진다: 핵-후행 혹은 핵-선행.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가 핵-후행 언어임을 알고 있다.

그럼 다른 성분 즉 핵과 지정어, 핵과 부가어 간의 어순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리고 핵과 핵이 병합되거나 혹은 최대투사와 최대투사가 병합되는 경우의 어순은 어떻게 결정되나? 문제는 이들 간의

을 관계절과 다른 것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AP(Adjectival Phrase)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절과 AP의 구분이 어떤 본질적 차원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다 갖춘 경우를 AP로 보고 있다. 첫째, 술어는 상태성 자동 술어이다. 둘째, ‘-은’을 제외한 다른 가시적 시제, 상, 서법 표지가 없다. 셋째, 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김민주도 지적하였듯이 단지 분류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필자는 김민주가 AP로 분류한 표현도 홍용철(2010가)과 마찬가지로 관계절로 본다. 그리고 그 이들 AP가 갖고 있는 술어의 범주는 형용사(adjective)로 본다. 즉 김민주의 AP는 형용사를 술어로 갖는 관계절이다.

7) Kayne의 선형 대응 공리는 언어의 보편적 성격으로 제안되었고 또한 경험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이 많다. 이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어순을 결정하는 별도의 제약이 필요한가의 여부인데, 본고는 핵-보충어의 경우에만 핵-매개변인이 적용되고 다른 경우는 별도의 제약이 없다고 본다. 즉 후자의 경우 서로 간에 두 가지 어순이 다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를 한국어의 각 경우별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⁸⁾

- (2) 가. 핵-보충어: 핵 매개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어의 경우 핵-후행 원리가 적용된다(김용하 외 2018:105) 참고).
- 나. 핵-지정어/부가어; 지정어/부가어의 위치는 두 경우뿐이다. 즉 [핵-보충어]의 오른쪽 혹은 왼쪽.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두 위치 다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즉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 언어의 자료가 어느 한 위치만 허용하는 자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 다. XP-YP:⁹⁾ 최대 투사끼리의 병합에 의한 부가 구조의 경우로,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제약이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구성을 이루는 개별적 요인에 의해 언어별로 또는 구문별로 어순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국어 관계절은 CP와 NP의 병합인데 한국어에서는 CP > NP의 어순만이 허용된다.

(2)의 내용은 핵-보충어 간의 어순이 개별 언어별로 정해진다는 점을 빼고는 음형 층위상에서 가능한 왼쪽/오른쪽의 어순이 다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영 가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2나)를 위한 독자적 증거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어의 동사구 부사구는 아래와 같이 목적어의 뒤 혹은 앞에 올 수 있다.

- (3) 가. 철수가 영미를 집에서 만났다. 나. 철수가 집에서 영미를 만났다.

통상 부사구가 수식어로서 왼쪽 지정어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및 목적어가 동사의 보충어라는 점에 근거하여 (3가)의 어순은 목적어의 이동으로 분석되어 왔다(Yoon1991 등). 그러나 (2나)에 의하면 그런 임의적 이동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즉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이 C까지 핵 이동한다는 분석 하에서(최기용2002, 2003, 김용하 외 2018) (3가)가 ‘집에서’가 VP의 오른쪽 지정어에 병합된 경우라면, (3나)는 왼쪽 지정어에 병합된 경우로 파악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입장에 의하면 (3)에서 부사구의 위치와 무관하게 부사구와 목적어 성분 간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에서 부사구 내에 오는 ‘자기’는 동사의 보충어 위치에 오는 목적어인 ‘철수’에 의해 성분-통어되지 못해 비문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수’가 부사구 앞에 오는 (5)도 여전히 비문법적이다.

- (4) 가. 영미가 자기_i/*_j 집에서 철수를 만났다.
나. 영미가 자기_i/*_j 칼로 철수를 찔렀다.

8) 핵과 핵이 병합되는 경우, 전체의 어순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논의는 이런 병합의 특성을 보이는 많은 사례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각주 6에서 언급된 명사 인접 수식어를 위시하여 특수조사 구성, 장형부정 구문, 상태성술어명사 구문 등이 그것인데, 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9) 지정어/부가어의 병합이 궁극적으로 XP-YP의 병합과 다르지 않다면 (2나)와 (2다)는 함께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 (5) 가. 영미가 철수를 자기_{i/1} 집에서 만났다.
- 나. 영미가 철수를 자기_{i/1} 칼로 찼다.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4)와 (5)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동일하다. 즉 (4, 5)에서 ‘자기 집에서’가 공히 VP에 부가되는 위치에 있어 ‘철수’에 의해 성분-통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⁰⁾

둘째, [경험주]와 [대상]의 두 의미역을 배정하는 심리 술어도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 예들은 [경험주]가 [대상] 논항의 앞에 오나, 뒤에 오나 [대상] 논항 내부에 오는 ‘자기’를 결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2나)에 의하면 이런 어순 차이는 음형 층위 상의 결과일 뿐이며, 구조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에서 [경험주] 성분이 [대상] 성분을 성분-통어하는 위치에 오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¹¹⁾

- (6) 가. 영미는/?영미에게 자기_i가 자기_i를 돌보는 것이 쉬웠다.
- 나. 영미는/?영미에게 자기_i 동생이 실망스러웠다.
- 다. 영미는/?영미에게 자기_i 건강이 걱정스러웠다.
- (7) 가. 자기_i가 자기_i를 돌보는 것이 영미는/?영미에게 쉬웠다.
- 나. 자기_i 동생이 영미는/?영미에게 실망스러웠다.
- 다. 자기_i 건강이 영미는/?영미에게 걱정스러웠다.

이에 반해, (6, 7) 간의 어순 차이를 이동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6)의 어순을 기본으로 할 때, (7)에서 주격 성분이 이동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6, 7)의 결속 양상을 위해서는 재구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결국 이동 위치를 비논항 위치로 규정해야 하는데, 통상 주격 성분의 이동 위치를 논항 위치로(예를 들어, IP의 지정어 위치) 본다든 점에서(김용하 외2018:) 이 경우만을 위한 별도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아래와 같이 대격 성분이 주어 앞에 오는 한국어의 단거리 뒤섞기 논의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김용하1999, Kim1993, Lee1994, Mahajan1990, Park1994, Saito1989, Weibelhuth1992, Yoon1991 등).

- (8) 가. 철수가 영미를 만났다.
- 나. 영미를 철수가 만났다.

(8)이 보이는 어순 차이에 대한 일반적 입장은 (8나)에서 ‘영미를’이 주어인 ‘철수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 이동이 논항 이동은 물론이요, 비논항 이동의 성격을 함께 보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여러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바 있다. 먼저 (9)의 대비는 이동한 목적어가 ‘자기’를 결속할 수 있으며 재구될 경우 오히려 결속 양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논항 이동의 성

10) 반면에 (4)에서 ‘철수’가 이동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동한 ‘철수’가 ‘자기’를 결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구가 필요하며 결국 ‘철수’가 이동한 위치를 비논항 위치로 규정해야 한다.

11) 이를 위해 심리 술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i) [AP 경험주 [A' 대상 [A]]]

격을 갖는 증거로 지적되어 왔다.

- (9) 가. *자기_i 형이 철수를 심하게 몰아 세웠다.
나. ?철수를 자기_i 형이 심하게 몰아 세웠다.

반면에 (10)은 결속 양상을 위해서는 이동한 목적어 성분의 재구가 필요하며 해서 비논항 이동의 증거로 지적되어 왔다.

- (10) 가. 철수가 자기_i 형을 세계 비판했다.
나. 자기_i 형을 철수가 세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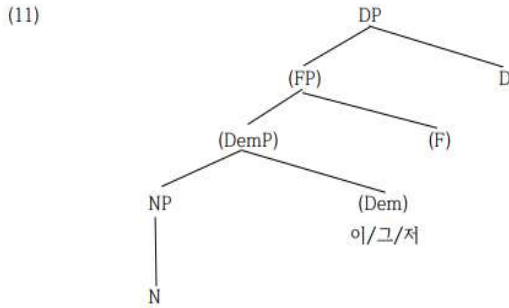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9, 10)에서 이동한 위치를 두 가지 성격을 갖는 특이한 위치로 보거나(Webelhuth1992), 아니면 이동한 위치를 서로 다르다고 보거나(Mahajan1990) 하는 제안들이 그것이다. 이들 제안의 공통 가정은 (9, 10) 모두에서 목적어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에 반해 (2나)의 입장을 따르면 그와 같은 가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즉 (10)이 보이는 현상은 주어인 ‘철수’가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즉 VoiceP의 지정어) 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해서 목적어의 이동을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으로 남는다. 그러나 (9, 10)이 보이는 모순적 상황의 해소를 위해 필요했던 여러 부가적 제안들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의 제안과 관련해서 (2)의 각 영역에서 결정된 어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은 아마 각 영역에서 결정된 어순은 통사적 이동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구조의 각 위계에서 (2)에 의해 결정된 어순은 단계별로(아마도 phase 별로) 전체 구조가 형성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핵 이동을 포함한 여러 통사적 이동이 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동한 성분은 이동 전의 위치가 아니라, 최종 구조적 위치에서 (2)에 의해 어순이 결정된다.

2.2. 한국어의 DP 구조와 N 이동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연 언어의 어순이 (2)와 같이 음형 층위에서 적용되는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통사부에서 생성되는 통사 구조 그리고 그 통사 구조 상에 적용되는 여러 통사적 이동의 결과물에 적용되어 최종 어순을 만들어내는데, 해서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 그리고 어떤 이동을 가정하는가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 구조를 제안한다.¹²⁾

12) 이 구조에는 편의상 한국어의 특징인 핵-후행성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명사 뒤에 오는 각종 조사 및 복수 표현 ‘-들에’ 대해서는 김용하 외(2018), 홍용철(2006, 2008)에 반하여 이들을 별도의 통사 핵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격 조사 및 특수 조사 표현에 대해서는 최기용을 따라 N 부가 구조 내부에 실현되는 요소로 보



이 구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DP 가설의 정신을 받아들여 한국어 명사구도 N 위에 추가 가능 핵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위 구조에는 N 위로 Dem, F, D의 세 가지 기능 핵이 설정되어 있는데, Dem과 F의 소괄호는 이 성분이 수의적임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D는 논항 명사구의 필수적 성분으로 가정하며¹³⁾ 한국어의 D가 고유의 음성적 정보는 없으나, 기본 의미적 특성은 [지시성]으로 본다.

Dem의 설정은 바로 본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어의 지시사는 NP를 보충어로 가지며 그 의미적 특성은 담화 상의 특정/한정 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의의 핵 F의 설정은 속격 표현을 위한 것이다. 명사구 내 속격 표현의 위치는 대체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DemP의 지정어 위치는 홍용철(2006, 2010년)의 논의를 받아들여 속격 성분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본다. 즉 아래 예에서 보듯이 지정어는 강화사인 ‘여기’, ‘저기’, ‘거기’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성분이 지시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들어 DemP의 지정어는 이들 강화사를 위한 위치로 본다.

- (12) 가. 여기 이 책
 나. 여기 이 낯선 땅
 다. 저기 저 서른 다섯 살의 문학청년 임명빈

한편 명사와 의미역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명사구는 NP 내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세 명의’, ‘여름의’와 같이 수식어적 성격을 갖는 속격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 위치는 NP를 Dem의 보충어로 본 이상 Dem과 N 사이의 기능 핵의 지정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은 위치는 Dem과 D 사이의 기능핵의 지정어이며 이를 위해

며, 복수 표현 ‘-들’에 대해서는 독립된 핵이 아니라, nP 부가 성분으로 보는 Kim&Melchin(2015)의 입장을 수정하여 N 부가 성분으로 본다. 이 입장에 의하면 이들 명사 후행 표현들은 구조적으로 모두 N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13) 문장의 모든 논항 명사구가 DP로 구현되는 것으로 보지만, 문장의 모든 명사구가 DP로 구현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서술 명사구 그리고 동작성 술어 명사 구문의 한자어는 NP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들 표현의 공통적 특성은 [지시성]이 없다는 점이다.

- (i) 가. 철수가 매사에 긍정적이다.
 나. 철수가 자기의 선거 공약을 발표를 했다.

임의의 핵 F를 설정한다.¹⁴⁾

이어 어순을 위해 어떤 이동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 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에서는 문장은 물론이요 명사구 내 성분들의 여러 어순 양상을 위해 여러 종류의 이동을 설정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이동만 설정한다.

- (13) 한국어의 N은 D로 이동한다.

Dem이 없는 경우 이 이동의 적용 여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Dem이 실현되는 경우 이 이동의 결과로 지시사와 N 간의 어순이 바뀌므로 이 이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된다.¹⁵⁾ 그리고 이 이동은 격 이론적 이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한국어에서는 논항뿐 아니라, 비논항 명사구(서술 명사 및 의미역 정보를 갖는 동작성 술어 명사 등) 등도 구조격 조사를 취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갖는 공통점은 범주적으로 N이라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격 자질을 갖는 성분을 단순히 DP가 아니라, N으로 보고 있는데(최기용2009 참고) N이 갖는 격 자질이 (11)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면 불침투 조건(PIC)에 의해 DP 외부의 격 인가자들에 의해 인가가 되지 못한다. DP의 경계 중 하나인 D로의 이동을 통해 비로써 DP 외부의 격 인가자들에 의한 격 인가가 가능해진다고 본다.¹⁶⁾

2.3. 구체적 사례들

이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절, 속격 표현 및 지시사 등이 보이는 어순 양상이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를 살펴 보자. 먼저 위 표현들 중 하나가 명사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는 (1)에서 보듯이 항상 명사가 이들 표현의 오른쪽에 나타나며 왼쪽에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논의의 편의상 각각을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기술하기로 하자.

속격 제약

- (14) 속격 표현은 명사의 앞에 온다.

Gen > N, *N > Gen

관계절 제약

- (15) 관계절은 명사의 앞에 온다.

14) 속격 조사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김용하1999, 김용하 외2018, 박소영 2014, 안덕호2012, 최기용2009, 홍용철2013, 2016, An2014 등), 어떤 입장도 본고의 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논외로 한다.

15) 2.3의 관계절 논의는 이 이동이 항상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즉 관계절 내부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DP에서는 N-to-D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관계절 표제 명사구가 갖는 격조사가 관계절 내부와 관련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2.3을 참고할 것.

16) 이 이동의 정확한 성격에(부가 혹은 대체 여부)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혹자는 Dem이 있을 경우의 N-to-D 이동이 Dem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핵 이동 제약을 어기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long head movement를 인정하는 Roberts(2010)의 제안을 받아들여 핵 이동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본다.

Rel > N, *N > Rel

지시사 제약

- (16) 지시사는 명사의 앞에 온다.

Dem > N, *N > Dem

선형 대응 공리 기반의 기존 연구에서 이들 제약들은 모두 관계절, 속격 표현 및 지시사들이 N을 비대칭 성분-통어하는 위치에 오기 때문에 파악된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들 제약 모두는 (2)의 원리와 N의 D로의 필수적 이동의 결과로 파악된다.

먼저 속격 제약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우리는 속격 표현의 위치를 NP 내부 또는 FP의 지정어로 보았다. 이들 위치는 N이 D로 이동한 후의 관점에서 보면 D의 보충어인 FP 내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는 관계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계절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은 관계절이 NP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위치 역시 FP 내부인 것이다. 그리고 (11)에서 보듯이 지시사도 FP 내부에 위치한다. 결국 FP 내부에 위치하는 관계절, 속격 표현 및 지시사 모든 성분은 핵-후행 원리에 의해 D로 이동한 N보다 항상 앞에 혹은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어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보기로 하자. 먼저 관계절, 속격 표현, 지시사의 세 성분 중 둘이 명사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의 양상이다. 명사를 포함한 네 성분이 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24이나, 이를 모두 검토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N의 D로의 필수 이동에 의해 세 자리 중 맨 오른쪽은 항상 N으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해서 나머지 두 자리가 명사를 제외한 세 성분으로 채워질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모두 여섯 가지 경우뿐이다.

- (17) 가. Gen Rel N
 나. Rel Gen N
 다. Gen Dem N
 라. Dem Gen N
 마. Rel Dem N
 바. Dem Rel N

그리고 다음 예들은 이들 가능성이 대부분 실제로 허용됨을 보여준다.

- (18) 가. 철수의 [반갑지 않은] 목소리
 나. 철수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꿈
 다. 두 명의 [건강한 체격을 갖춘] 장정들
- (19) 가. [반갑지 않은] 철수의 목소리
 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철수의 꿈
 다. [건강한 체격을 갖춘] 두 명의 장정들
- (20) 가. 세 권의 이 책
 나. 철수의 그 가방
 다. 박 선생님의 그 강의

- (21) 가. 이 세 권의 책
나. 그 철수의 가방
다. ?그 박 선생님의 강의¹⁷⁾
- (22) 가. [회기적인] 이 책
나. [값이 비싼] 그 목거리
다. [미나가 사온] 그 물건들
- (23) 가. 이 [회기적인] 책
나. 그 [값이 비싼] 목거리
다. 그 [미나가 사온] 물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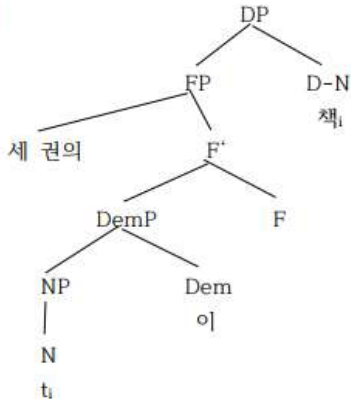
먼저 관계절이 관여하지 않는 (20, 21)의 경우를 보자. 먼저 각 예의 N인 ‘책’, ‘가방’, ‘강의’는 (13)에 따라 D로 이동을 하며 해서 맨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속격 성분의 위치는 예 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11)의 구조에서 속격 성분의 위치를 명사와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두 자리로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강의’는 의미역 정보를 갖고 있는 명사이므로 ‘박 선생님’ 위치는 NP의 지정어 혹은 FP 지정어 그리고 ‘세 권’ 및 ‘철수’는 ‘책’, ‘가방’이 의미역 정보를 갖지 않는 명사이므로 F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¹⁸⁾

그럼 (20가, 나)와 (21가, 나)의 어순 차이는 어떻게 포착이 되나? 이는 이동과 같은 별도의 기제 없이 설명된다. (2나)에서 지정어의 위치로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각각의 가능성이 실현된 예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20가, 나)는 속격 성분이 FP의 왼쪽 지정어에 나타나는 경우이고 (21가, 나)는 FP의 오른쪽 지정어에 나타나는 경우로 파악된다. 구조 정보와 어순 정보를 분리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둘의 대비가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 차이를 나무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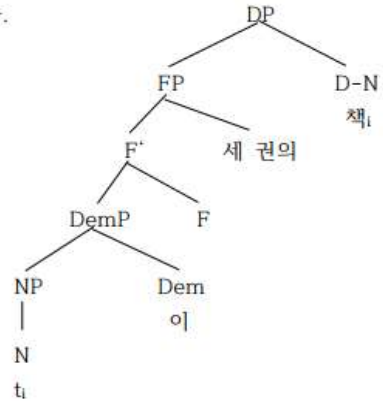
17) (21)과 같이 지시사가 속격 표현의 앞에 오는 예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21다)는 강명윤(2001)에서 처음 나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홍용철2006, 2010가, 나, Kang2016 등) (21가, 나)와 같은 예들이 좋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두 연구의 판단이 다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명사의 의미역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책’, ‘가방’과 같이 의미역적 성격이 없는 명사의 경우 속격 표현의 위치는 (11)의 FP 지정어 한 군데로 고정되나, ‘강의’와 같이 의미역적 성격을 갖는 명사의 경우는 NP 내부 혹은 FP 지정어 두 군데가 다 가능하다고 본다.

18) (21다)를 나쁘다고 보는 판단은 ‘박 선생님’이 NP 내부에 오는 경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 선생님’이 NP 내부 성분이라면 지시사가 그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24) 가.



나.



이제 관계절의 경우를 보자. 우선 위의 예들은 관계절도 속격 표현과 마찬가지로 지시사와의 어순이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계절의 양상이 속격 성분과 마찬가지로 포착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본고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관계절의 위치를 NP 부가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의하면 관계절은 NP 내부 성분이므로 일단 (23)과 같은 어순이 허용될 수 없다. 필자는 여기서 한국어 관계절에 대한 Choi(2022)의 제안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필자는 Choi(2022)에서 한국어 관계절이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이동을 거쳐 형성됨을 주장한 바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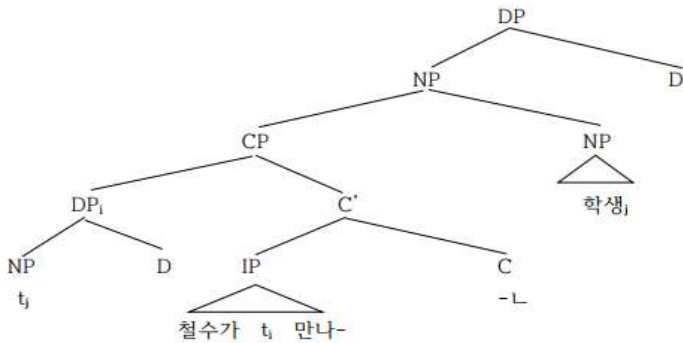
(25) 가. 관계절 내 DP가 관계절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나. 지정어에 위치한 DP 내부의 NP가 관계절 바깥으로 이동하여 관계절 CP와 부가 병합을 통해 CP-NP 구조를 이룬다.

이 제안에 의하면 (26가)는 (26나)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26) 가. [철수가 만난] 학생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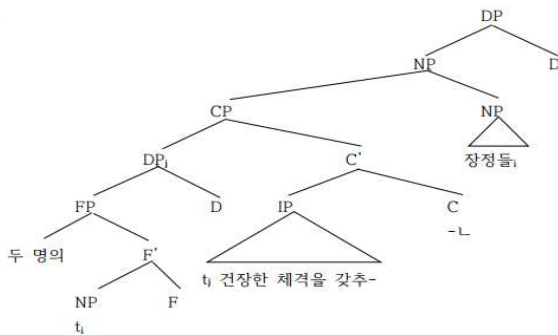


19) 영어 관계절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안에 대해서는 Bhatt(2002)를 참고할 것.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개별 근거는 Choi(2022)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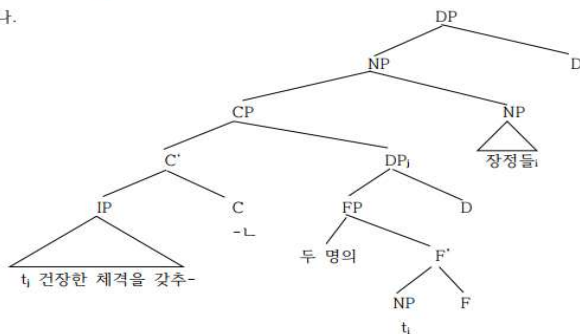
관계절 형성에 대한 이 제안에서 주목할 점은 1단계 이동에서 DP가 관계절 내 지정어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26나)는 그 이동이 왼쪽 지정어로 이루어졌음을 보이나, (2나)의 제안에 의하면 오른쪽 지정어로 향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²⁰⁾ (18, 19, 22, 23)의 예들은 이 두 가능성이 모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

(25)의 관계절 제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동이 DP 이동 및 NP 이동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DP가 왼쪽 지정어로 이동할 경우 이어지는 NP 이동에 의해²²⁾ DP 내 다른 성분과 NP가 표면적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바로 (18, 23)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19, 22)는 이동한 DP가 오른쪽 지정어 위치에서 실현된 경우로 본다. (18, 19, 22, 23)의 각 경우에 대한 이상의 도출을 아래의 나무 그림들이 보여 준다.

(27)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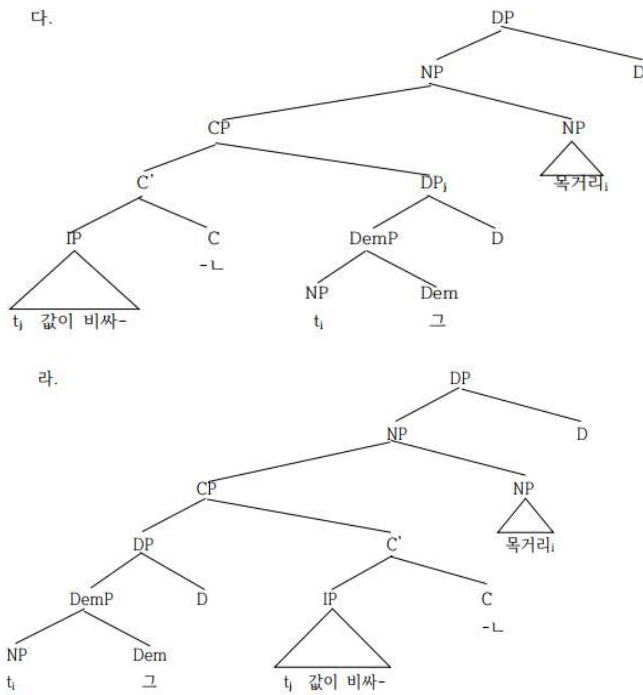
나.



20) 엄밀히 말하면 구조적으로는 단 하나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다만 음성적 실현에 있어 C' 기준 왼쪽, 오른쪽의 두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의 나무그림에서 계속 제시되는 왼쪽, 오른쪽 위치의 차이도 구조적 차이가 아니라, 음성적 실현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21) 각주 15에서 지적하였듯이 (26나)에서와 같이 DP가 관계절 CP 지정어로 이동하는 경우는 DP 내부의 N이 D로 이동하지 않고 관계절 형성을 위해 NP가 관계절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왜 관계절 형성의 경우 (11)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26나)와 같은 구조에서는 N이 D로 이동해도 N이 갖는 격 자질이 인가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본다.

22) (26나)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이동한 NP가 CP 오른쪽에서 실현된다. 필자의 이론에서는 부가어가 왼쪽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26나)와 같은 실현을 강제하는 별도의 제약을 두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주목할 점은 NP의 부가 위치와 무관하게 일단 N이 D로 이동하게 되면 항상 관계절 표제 명사가 관계절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 세 개의 명사구 수식어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먼저 이 경우도 (13)의 핵이 동으로 인해 맨 오른쪽 성분이 명사로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결국 세 수식어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은 아래 여섯 경우로 국한하는데, (29-34)의 예들은 이들 가능성이 같은 정도의 수용성은 아니더라도 모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8) 가. Gen Rel Dem N
 나. Gen Dem Rel N
 다. Rel Gen Dem N
 라. Rel Dem Gen N
 마. Dem Gen Rel N
 바. Dem Rel Gen N
- (29) 가. 철수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꿈
 나. 두 명의 [건강한 체격을 갖춘] 그 장정들
 다. 두 채의 [새로운] 그 건물 An(2014:(42d))
 라. 철수의 [획기적인] 이 책 홍용철(2010가):(23f)
- (30) 가. ?철수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꿈
 나. ?두 명의 그 [건강한 체격을 갖춘] 장정들
 다. 두 채의 그 [새로운] 건물 An(2014:(42d))
 라. 철수의 이 [획기적인] 책 홍용철(2010가):(23e)
 마. 미나의 그 [많은] 옷들 Kim(2019:133 각주29)²³⁾

- 바. 칠팔 명의 그 [곤색잠바를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물려와 ...
- (31) 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철수의 그 꿈
 나. [건강한 체격을 갖춘] 두 명의 그 장정들
 다. [새로운] 두 채의 그 건물 An(2014:(42f))
 라. [획기적인] 철수의 이 책 홍용철(2010가: (23:d))
 마.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이 책 홍용철(2006: (14c))
- (32) 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철수의 꿈
 나. [건강한 체격을 갖춘] 그 두 명의 장정들
 다. [새로운] 그 두 채의 건물 Ahn(2014:(42e))
 라. [획기적인] 이 철수의 책 홍용철(2010가:(23c))
 마.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 철수의 책 홍용철(2006:(14b))
- (33) 가. ?그 철수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꿈
 나. ?그 두 명의 [건강한 체격을 갖춘] 장정들
 다. 그 두 채의 [새로운] 건물 An(2014:(42a))
 라. 이 철수의 [획기적인] 책 홍용철(2010가:(23b))
- (34) 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철수의 꿈
 나. ?그 [건강한 체격을 갖춘] 두 명의 장정들
 다. 그 [새로운] 두 채의 건물 An(2014:(42b))
 라. 이 [획기적인] 철수의 책 홍용철(2010가:(23a))
 마. 이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책 홍용철(2006: (14a))
 바. ??그 [많은] 미나의 옷들 Kim(2019:133 각주 29)

위의 예에서 지시사가 다른 명사구 수식어와 관련하여 보이는 이런 다양한 어순 양상은 홍용철 (2010가, 나)에서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포착이 될 수 없다는 주장 하에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대 논증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이런 어 순 가능성은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더라도 문제없이 포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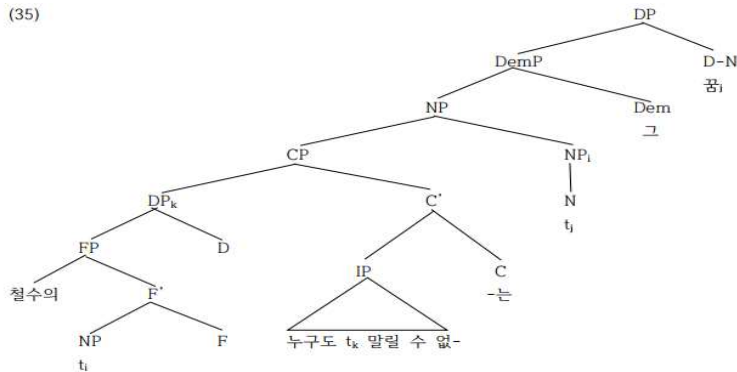
먼저 지적할 점은 본고의 입장에서는 (28)의 각 예에서와 같이 관계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 어 순이 한 가지 도출의 가능성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속격 성분을 놓고 보더라도 관 계절 CP내 지정어로 이동한 DP 내부에 속격 성분이 위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절 표제 명사를 핵으로 하는 상위 DP 내부에 또 다른 속격 성분이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시사가 관계절의 오른쪽에 올 경우에는 그 지시사가 관계절 CP 내부의 성분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절 NP 바깥의 지시사일 가능성도 있다.²⁴⁾ 여기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 어느 하나만 본 이론 하에서 가능한 도출임을 보여²⁵⁾ (28)의 다양한 어순이 본 고의 이론 하에서 성공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음을 차례로 보이고자 한다.

23) 김민주는 지시사와 속격 간의 어순은 논하고 있지 않다. 단지 두 성분이 LocP 지정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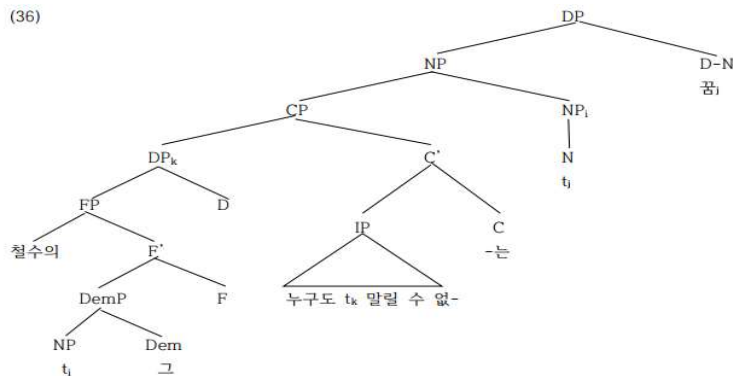
24) 지시사가 관계절의 왼쪽에 올 경우에는 그 지시사가 관계절 NP 바깥의 것일 가능성은 (11) 구조와 한국어 의 핵-후행 원리에 의해 배제된다.

25) 각 경우별로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도출 가능성은 각주로 처리하기로 한다.

먼저 (29가)를 보자. 관계절에 대한 필자의 제안에 의하면 관계절 왼쪽, 오른쪽에 오는 표현이 사실은 관계절 내 DP의 구성원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29가)의 ‘철수의 그 꿈’이 관계절 CP 지정어로 이동하는 DP일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 이유는 일단 지시사가 관계절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시사가 관계절 내부 DP의 한 구성원이라면 (25) 하에서는 또 다른 한 구성원인 속격 표현이 관계절의 왼쪽에 올 수 없다. 즉 (29가)의 한 가능성은 관계절 CP의 왼쪽 지정어에 출현하는 DP를 ‘철수의 꿈’으로 보고 ‘꿈’이 관계절 바깥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철수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꿈’이라는 NP를 지시사 ‘그’가 보충어로 취하는 구조이다. 이 도출이 아래 제시되어 있다.²⁶⁾



(30가)에서는 지시사가 속격 표현과 왼쪽에 같이 있으므로 ‘철수의 그 꿈’이 관계화의 대상이 된 경우가 된다. 즉 이 DP가 관계절 CP의 왼쪽 지정어에 출현하고 이어 그 내부의 NP인 ‘꿈’이 관계절 형성을 위해 이동한 경우로 가능하다.²⁷⁾ 이를 (36)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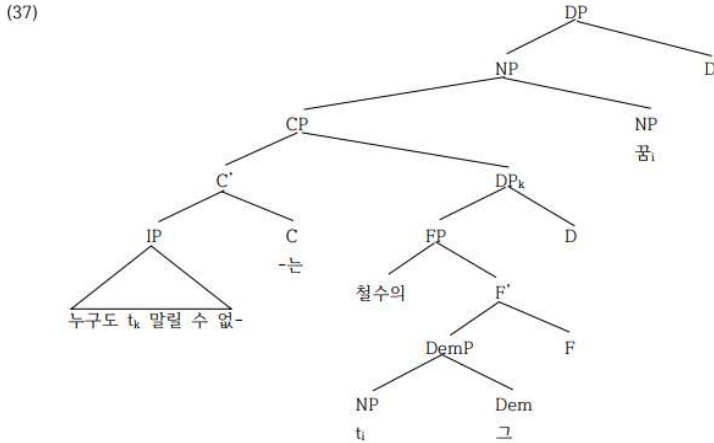


(31가)는 지시사 ‘그’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도출이 가능하다. (37)은 그 중 지시사가 관계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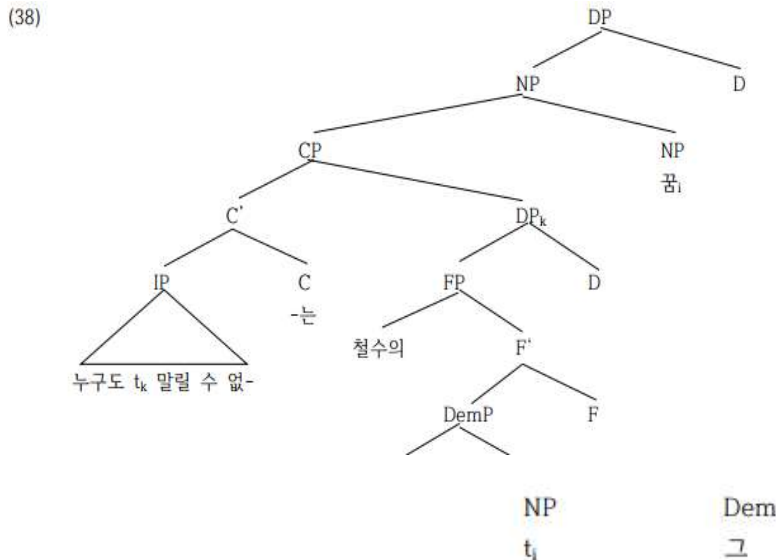
26) 두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 하나는 속격 표현 및 지시사 ‘그’가 각각 관계절 외부 성분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속격 표현만 관계절 외부 성분이고 지시사 ‘그’는 관계절 내부 성분인 경우이다. 즉 전자는 관계화된 표현이 ‘꿈’이고 후자는 관계화된 표현이 ‘그 꿈’이다.

27) ‘그 꿈’만 관계화의 대상이고 ‘철수의’가 관계절 외부 성분일 가능성도 있다.

부 성분인 경우이다. 즉 ‘철수의 그 꿈’이 관계화의 대상이 되어 관계절의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이다.²⁸⁾



(32가)도 여러 도출의 가능성을 갖는다. 하나만 소개한다면 ‘그 철수의 꿈’이 관계화의 대상 DP로 관계절 CP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이다.²⁹⁾ (38)이 도출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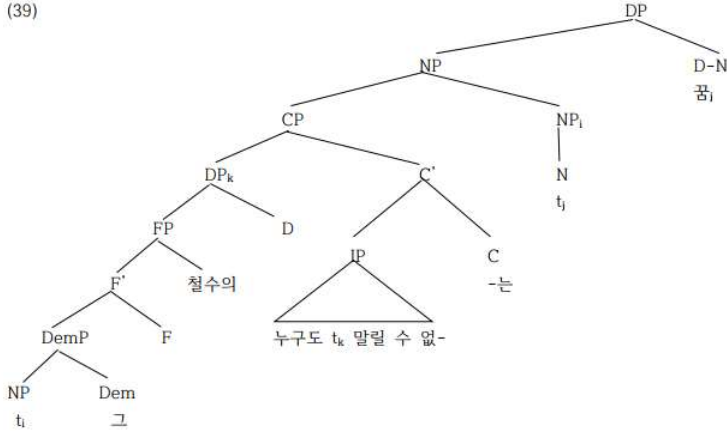


(33가)는 (32가)와 달리 ‘그’와 ‘철수의’가 관계절 왼쪽에 위치한 경우인데, 이로 인해 (32가)가 갖고 있는 가능성 중 한 경우만 가능하다. 즉 ‘그 철수의 꿈’ 전체가 관계화의 대상 DP가 되어 관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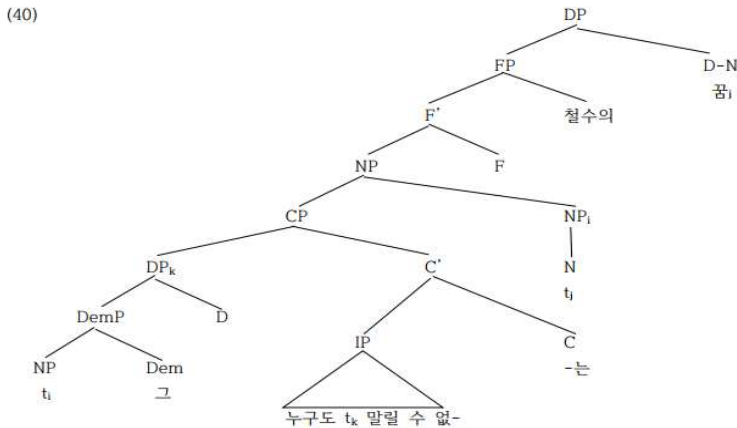
28) 다른 가능성은 지시사 ‘그’가 관계절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29) 두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 하나는 관계화 대상은 ‘꿈’이고 ‘그’, ‘철수의’ 모두 관계절 외부 성분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화 대상이 ‘그 꿈’이고 ‘철수의’가 관계절 외부 성분인 경우이다.

CP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 위치에서 NP인 ‘꿈’이 관계화를 위해 관계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어 ‘꿈’의 핵 N이 D로 핵 이동을 하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34가)는 한 가지 도출의 가능성만 갖는다. 지시사 ‘그’와 속격 표현 ‘철수의’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의 핵으로서의 성격상 이는 관계화의 대상 DP에 속격 표현보다는 ‘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관계화의 대상이 ‘그 꿈’이고 이 DP는 관계절 왼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철수의’는 관계절 외부 속격 표현으로 가능하다. (40)이 자세한 도출을 보여준다.



2.4. 요약

지금까지 어순 결정에 대한 지배적 이론이었던 Kayne의 선형 대응 공리를 버리고 구조 정보와 어순 정보를 분리하는 최소주의적 입장 하에서 한국어의 세 명사구 수식어가 보이는 어순 양상이 어떻게

포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어순 관련 가정은 보충어에 적용되는 핵 대개변인뿐이라는 점이다. 그 외 지정어, 부가어 성분의 어순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정 없이 일종의 영 가설(null hypothesis)의 성격을 띠는 왼쪽, 오른쪽 출현의 두 가능성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분석이 관계절 형성에 대한 특정 분석 그리고 N의 D로의 필수 이동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분석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독자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어순에 대한 반-선형 대응 공리적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핵-후행 언어로 알려져 있는 한국어에서 지시사를 DP 내 기능 핵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여 홍용철(2010가, 나)이 내세웠던 주요 근거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하나는 지시사가 명사구의 핵인 N의 오른쪽에 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시사를 핵으로 보면 앞에서 확인된 지시사와 다른 명사구 수식어 간의 다양한 어순 양상이 포착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N의 D로의 필수 핵 이동, 관계절 형성에 대한 head-NP 상승 분석 그리고 어순 결정에 대한 (2)의 일반 이론에 의해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았다. 그럼 본고의 반-선형 대응 공리적 접근법을 위한 경험적 근거들은 없는가? 다음 절에서는 지시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경험적 근거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홍용철(2010가, 나), Kim(2019)을 중심으로

그럼 지시사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본 절에서는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기존 이론 중 홍용철(2010가, 나), Kim(2019)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본다.³⁰⁾ 먼저 3.1에서는 지시사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어 3.2에서는 한국어의 명사구 수식어 간의 어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어순 양상에 관한 한 본고의 입장이 개념적으로 부담이 덜함을 보인다. 이어 3.3에서는 관계절과 관련된 지시사의 양상을 소개하고 이 양상이 이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어렵거나 설명에 있어 작위적 조건이 필요한데 반해, 본고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 분석이 맞다면 이는 물론 본고의 입장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3.4에서는 본고의 분석에 문제가 될 만한 예들, 즉 각주 1에서 언급한 접속 양상 그리고 기타 양상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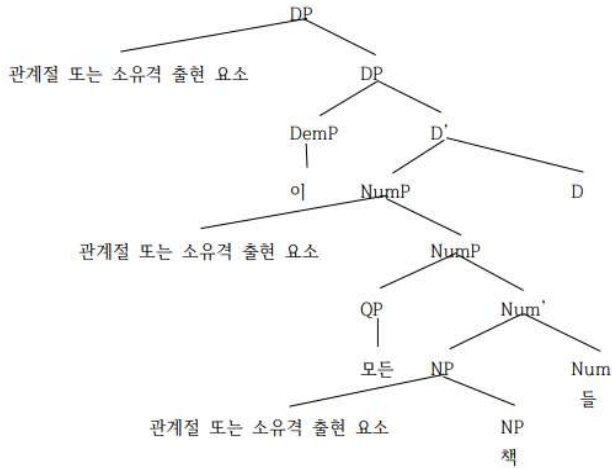
3.1. 기존 연구 소개

지시사를 DP 내 기능핵으로 보지 않는 홍용철(2010가:(41))과 Kim(2019:132쪽 (74))의 입장은 DP의 자세한 내부 구조 설정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다. 즉 (41, 42)에서와 같이 지시사가 DP 내 임의의 영형 핵의³¹⁾ 지정어 위치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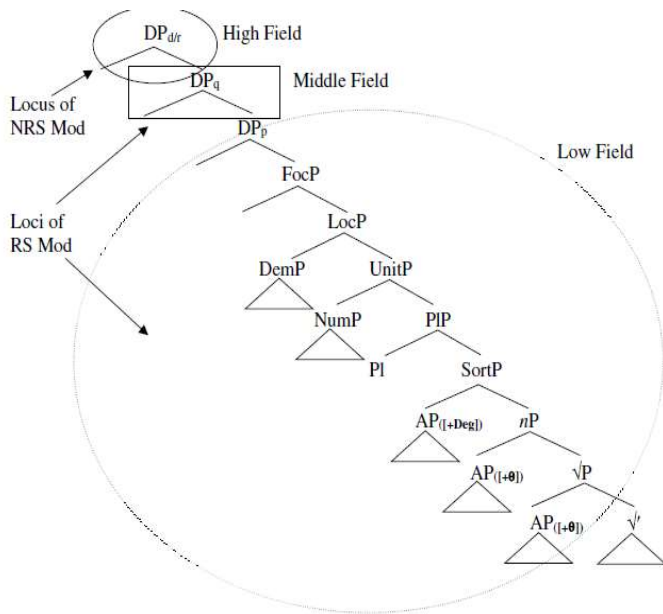
30) 명사구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다룬 Kang(2016)은 지시사를 단순히 명사구 부가 성분으로 보고 있을 뿐이며 지시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어 보인다. 해서 논외로 한다.

31) 이 영형 핵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홍용철(2010가)에서는 [특정성]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김민주는 Loc로 보고 있다.

(41)



(42)



두 연구의 이런 설정은 물론 한국어에서 지시사가 명사 왼쪽에 온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³²⁾ 그리고 이는 물론 지정어가 핵 그리고 보충어를 비대칭 성분-통어하므로 이들은 물론 이들의

32) 그러나 각 구조에서 보듯이 지시사구를 갖는 영형 핵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서는 두 연구가 서로 다르다. 즉 홍용철에서는 영형 D가 N의 오른쪽에 위치한 반면, 김민주에서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물론 Kayne의 이론을 어디에까지 적용하느냐의 차이이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Kayne의 이론을 전적으로 채택한 김민주의 제안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 지시사를 N의 상위 핵에 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왜 배제되는지에 대한 김민주의 논의는 없다. 아마도 지시사구를 지정어 위치에 오는 것으로 보는 연구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관할 영역에 오는 모든 표현보다 왼쪽에 위치한다는 Kayne의 입장이 반영된 제안이다. 그럼 이런 지시사와 다른 명사구 수식어, 즉 관계절, 속격 표현과의 어순 양상은 어떻게 포착이 되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 본다.

3.2. DP 내 명사구 수식어의 어순 양상

우리는 2절에서 명사구 수식어 간의 어순이 기본적으로 아주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런 사실이 홍용철의 주장과 다르게 한국어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같은 사실이 지시사 혹은 지시사구를 지정어 위치에 오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착이 될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한 홍용철과 김민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다음에서 개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3.2.1. 홍용철(2010가, 나)의 입장

2절에서 (17) 그리고 (21)로 확인된 명사구 수식어 간의 어순에 대한 홍용철의 입장은 관계절 및 속격의 기본 위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용철(2010가,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제시되는데, (41)로 소개된 (2010가)의 입장에 의하면 관계절, 속격은 DP 내 여러 지정어 위치에서 자유롭게 기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홍용철(2010나)에서 지적되었듯이 관계절의 기본적 해석인 제한적 해석 및 핵 명사와의 의미적 관계를 포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제한적 해석은 결국 명사의 속성적 해석이 관계절 수식에 의해 제한되는 성격이므로 관계절의 기본 위치를 DP 내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오는 NP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그리고 속격 표현의 경우도 NP와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NP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하겠다. 이럴 경우 지시사, 관계절 그리고 속격 성분 간의 기저 어순은 (43가)가 된다.³³⁾ 그리고 (43나, 다)의 어순은 이 구조로부터 해당 성분의 이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즉 (43나)는 ‘철수의’ 및 ‘이’의 DP 지정어로의 이동, (43다)는 ‘누구나가 좋아하는’의 이동으로 분석된다.

- (43) 가. 이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책
 나.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이 책
 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 철수의 책

이 이동의 성격과 관련해, 홍용철은 이동의 수의성을 들어 이 이동을 자질 이동이 아닌 일종의 뒤섞기로 보고 있다.³⁴⁾ 그러나 이런 규정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이동 성분이 수식어

33) 관계절과 속격 성분 간의 어순은 임의로 선정되었다.

34) 즉 세 문장 간에 뚜렷한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 문장 간에 ‘누구나가 좋아하는’ 관계절이 다 제한적 해석을 갖는 것으로 봐, 제한적 해석 여부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은 다르다. 우선 세 문장이 모두 비제한적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가 가리키는 ‘책’이 ‘누구나가 좋아하는’이라는 속성을 갖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제한적 해석은 (43나)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철수의 책’ 중에서 ‘누구나가 좋아하는’에 의해 제한되는 해석이 나오고 그런 책을 ‘이’로 가리키는 해석은

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으로 이동 기제를 수식어 성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통상 이동 기제가 논항 및 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동 기제를 이와 같이 수식어 성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그에 반해, 수식어 혹은 지정어 성분의 자유로운 출현을 책임지는 2절의 (2나)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구조 형성 기제 하에서 수식어/지정어의 왼쪽 혹은 오른쪽 출현이 가능한 것은 영 가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시사와 명사구 수식어의 어순 양상이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지시사구를 영형 핵의 지정어 성분으로 보는 입장에 개념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³⁵⁾

3.2.2. Kim(2019)의 입장

한국어 명사구 수식어 전반에 대한 아주 치밀한 최초의 이론적 연구라 할 수 있는 Kim(2019) 역시 명사구 수식어 간의 어순 양상에 대한 많은 관찰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비교언어학적 검토 그리고 여러 이론적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주 관심사인 관계절, 지시사, 속격 표현 그리고 명사 간의 어순 양상을 따로 떼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 물론 명사구를 구성하는 여러 다른 표현들 간의 전체적인 위계에 대한 김민주의 제안을 토대로 기본적인 어순 관련 제안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본고가 관심을 갖는 세 표현 간의 어순 양상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어 그보다는 지시사 관련 논의에서 언급된 내용들 위주로 관련 어순 양상에 대한 김민주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김민주의 지시사 관련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지시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론적 일반화이고 다른 하나는 김민주가 “인지 지시사(CogDem: cognitive demonstrative)”라 부르는 표현에 대한 것이다. 이중 전자만이 어순 논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절에서는 전자를 다루고 후자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 (44) DEM, NUM, ADJ, N 간의 상대적 어순에 대한 일반화³⁶⁾
DEM > NUM > ADJ > N

먼저 (44)와 관련된 김민주의 논의를 검토해 보자.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들 표현 간의 어순이 (44)와 같은 일반화를 따른다는 것은 다음 예들이 보여준다.

- (45) 가. these three Chinese vases

(43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35) 동일한 비판이 지시사와 같이 나타나는 강화사의 다음과 같은 분리 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에 반해 내 이론에서는 (2)에 의해 이동 설정 없이 포착이 된다.

- (i) 가.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여기 이 책
나. 여기 [누구나가 좋아하는] 철수의 이 책

먼저 (i)는 관계화의 대상이 DP ‘철수의 여기 이 책’으로 ‘철수의’는 이 DP 내 FP의 왼쪽 지정어에 위치하고 ‘여기 이’는 FP 내부의 DemP 성분으로 ‘철수의’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은 ‘이’의 보충어 NP로 관계화의 2단계에 의해 관계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i나)에서는 관계화의 대상이 ‘철수의 책’이고 ‘여기 이’는 (i)와 달리 관계절 바깥의 성분으로 파악된다.

36) 이 일반화가 선형 대응 공리에 의해 포착이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로는 Cinque(2005), Abel&Neeleman(2009) 등을 참고할 것.

나. disse tre berømte bøk-e-ne
 these three famous book-PL-DEF

그럼 한국어의 양상은 어떨까? 중요한 것은 NUM, ADJ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김민주가 어떤 표현을 검토했는가인데 Kim(2019:87)은 속격형 수-분류사 그리고 관형형어미 ‘-ㄴ’을 취하는 형용사를 대응 표현으로 보아 한국어에서도 다음과 같이 (44)의 일반화가 준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46) 가. 그 세 명의 키 큰 학생들
 DEM NUM ADJ N
 나. 그 세 권의 재미있는 책들
 DEM NUM ADJ N

그러나 한국어가 한 가지 다른 점은 Kim(2019:88)도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이 다른 어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³⁷⁾

- (47) 가. 그 키 큰 세 명의 학생들
 나. 키 큰 그 세 명의 학생들
 다. 세 명의 그 키 큰 학생들
 라. 그 키 큰 학생들 세 명

(46)의 기본 어순으로부터 (47)의 각 어순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에 대한 명시적 분석은 (47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어가 DP 내부 및 외부에서 뒤섞기를 허용한다는 Kim(2019:17)의 일반적 파악에 의하면, 각각은 ‘키 큰’, ‘세 명의’의 DP 구조 내부의 적정 위치로의 뒤섞기 이동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crambling is common, both DP internally and externally, ..

그러나 이런 이동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할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³⁸⁾ 이동 성분들이 수식어라는 점 그리고 특히 김민주의 분석에서 ‘그’는 지시사구를 이루어 Dd/r이 갖는 [+REF, +DEF, +DEIC, +SPEC] 자질의 점검을 위해 DPd/r의 지정어로 가지적 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예들은 그런 지시사구보다 더 위로 ‘키 큰’, ‘세 명의’ 등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 그 해석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세 명의’의 경우는 물론이요, ‘키 큰’의 경우 각각 (46가)과 (47다)의 대비 그리고 (47가)와 (47나)의 대비에서 보듯이 DP 내 여러 위치로의 이동이 가능한데 이

37) 이 외에도 다음 어순도 가능하다.

(i) 가. 키 큰 세 명의 그 학생들 나. 세 명의 키 큰 그 학생들
 38) 이것이 바로 Kayne을 추종할 때 생기는 일반적 문제이다. 즉 Kayne을 추종하면 올바른 어순을 만들어내는 위계를 위한 이동이 설정되는데, 해서 Chomsky(2004:110)는 이와 같이 위계만 형성하기 위한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inque(2023: 17 이후)를 참조할 것.

런 이동이 갖는 효과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³⁹⁾ 이런 의문은 물론 (47)에서와 같은 다양한 어순이 이동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을 낮게 하는데, 이런 동기가 불분명한 이동의 설정 없이도 다양한 어순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개념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라 할 것인데 우리는 앞서 2절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⁴⁰⁾

마지막으로 (47라)를 검토한다. 필자는 최기용(2001)에서 (47라)와 같이 속격을 취하지 못하는 수량사 구성을 비속격형이라 부르고 속격을 취하는 (46), (47가-다)와는 다른 구조임을 주장했는데, 김민주는 (47라)가 (46가)로부터 하나의 구성체(constituent)를 이루는 ‘그 키 큰 학생들’이 DPd/r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수-분류사가 갖는 속격을 일종의 허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속격 조사 ‘-의’ 자체를 고유 의미가 없는 허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속격 인가 및 실현과 관련된 (47라)와 다른 속격형 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46) 및 (47가-다)에서는 속격 조사가 안 나타나면 아주 나빠지는데 반해, (47라)에서는 반대로 속격 조사가 나타나면 아주 나쁘다.

- (48) 가. *그 세 명 키 큰 학생들
나. *그 키 큰 세 명 학생들
다. *키 큰 그 세 명 학생들
라. *세 명 그 키 큰 학생들
- (49) *그 키 큰 학생들 세 명의

이 차이는 속격형에서는 적어도 속격이 인가되지만, 비속격형에서는 속격이 인가조차 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으로 (46, 47)의 모든 경우에서 ‘세 명’의 구조적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김민주의 입장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최기용(2001)의 제안을 따라, 속격형과 비속격형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 분석이 옳다면 명사구 수식어 간의 어순 분석에서 수(-분류사)가 명사 뒤에 오는 비속격형의 경우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3. 지시사의 중복 출현

3.3.1. 중복 출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세 명사구 수식어 중 관계절, 속격 성분은 기본적으로 대상 명사에 대해 다음 예에서 보듯이 하나 이상의 수식이 가능하다.⁴¹⁾

- (50) 가. [철수의] [세 권의] 책
나. [세 권의] [철수의] 책

39) 이 외에도 관계절의 해석적 성격과 관련한 김민주의 분석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한다.

40) (46, 47)이 보이는 어순 양상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이 어순 양상과 (44)로 정리된 Greenberg(1963)의 보편성 20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 논의는 3.4.2에서 이루어진다.

41) 하나의 명사에 대해 관계절이 둘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항상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Kim(2019: 5.3.4)을 참고할 것.

- (51) 가. [철수가 어제 만난] [꿈이 많은] 소녀
나. [철수가 작년에 만든] [아주 획기적인] 작품

그러나 지시사의 경우는 홍용철(2010가), Kim(2019:211)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그렇지 못하다.

- (52) 가. *이 이 이 모자
나. *그, 그, 그 모자

이 차이는 관계절, 속격 성분은 부가어 혹은 지정어 성분이나, 지시사는 기능 핵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된다. 부가어나 지정어는 의미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는 한 다중 수식이 가능하지만, 핵과 보충어 간의 관계는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시사 성분을 DP 내 임의의 영형 핵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는 지시사구로 보는 홍용철(2010가, 나), Kim(2019)의 분석에서 이 차이는 설명될 수 있을까? 사실 설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52)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한 대상을 반복 수식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정도의 제약으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며, (53)와 같이 서로 다른 지시사의 반복의 경우는 이들 지시사의 의미적 내용의 충돌로 인해 배제된다는 정도의 제약으로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3) 가. *이, 그 모자
나. *이, 저 모자
다. *이, 그, 저 모자

그러면 한 명사에 대한 지시사의 중복 출현이 항상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예들이 보인다.

- (54) 가. 저기 저 [어제 면회온] 저 사람이 누구니?
나. 그 [오만불손한], 그 남자 아이는 바로 철수의 동생이었다. Kim(2019: 230쪽 (146b))

(54)의 각 문장에서 지시사 ‘저’, ‘그’는 각각 ‘사람’ 그리고 ‘남자 아이’를 한정하는 해석을 갖고 있다. (54)의 특징은 지시사의 두 출현 중 앞 지시사가 그 뒤에 오는 관계절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인데, 다음 예는 이런 중복 출현이 속격 표현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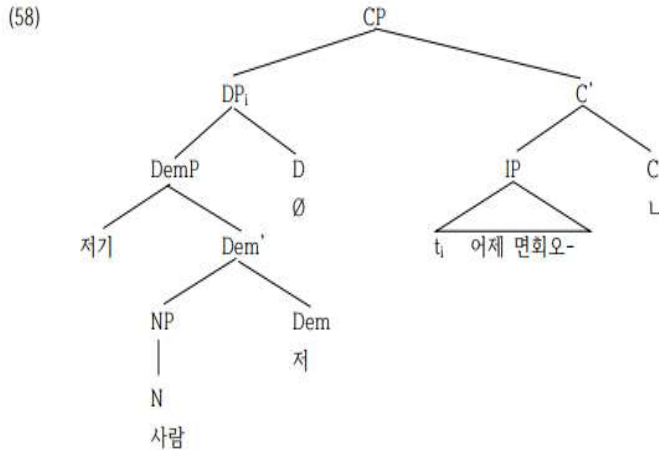
- (55) 가. 철수의 저 책
나. 세 권의 저 책
- (56) 가. *저기 저 철수의 저 책
나. *여기 이 세 권의 이 책

이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얻을 수 있다.

(57) 한 명사에 대한 지시사의 중복 출현은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이 관계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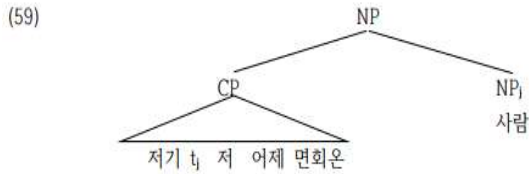
문제는 이 일반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인데, 흥미롭게도 김민주는 관계절과 같이 나타나는(김민주의 분석에서는 AP) 지시사는 인지 지시사(CogDem)라 하여 일반 지시사와는 다른 성격의 지시사로 보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성격의 지시사이므로 기본적으로 (54나)와 같은 표면상의 중복 출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인지 지시사가 AP를 보충어로 선택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이 설정 자체가 (57)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6)에서 보듯이 다른 수식어인 속격 표현이 왜 배제되는지는 미해결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앞서 소개한 관계절 형성에 대한 Choi(2022)의 제안 및 지시사에 대한 본고의 (1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25)에 의하면 관계절 형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54가)를 예로 들면, 먼저 ‘저기 저 사람이 어제 면회온’이라는 CP에서 ‘저기 저 사람’이라는 논항 DP가 CP의 왼쪽 지정어로 이동한다(구조적으로는 CP 지정어로 이동할 뿐이다. 단지 (2)의 제안에 의해 그 위치가 왼쪽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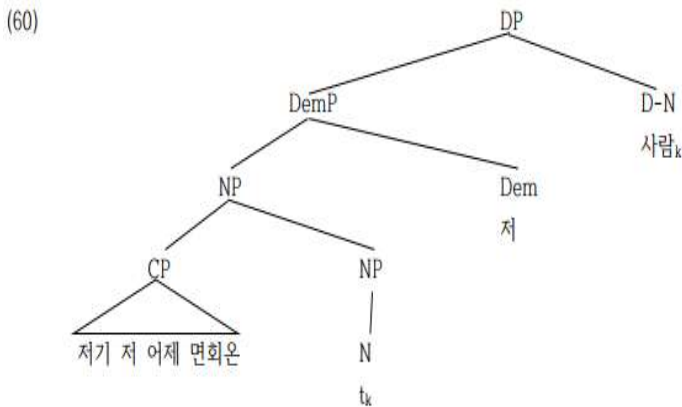


이러 관계절 형성의 두 번째 단계는 관계절 CP와 NP의 병합인데, 그 NP가 관계절 내부 성분인 경우는 이동의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는 NP가 CP의 오른쪽에 병합되는데, (54가)는 (58)에서 CP 내부의 NP인 ‘사람’이 관계절을 벗어나 CP와 병합한 결과이다. 이를 (59)가 보인다.

42) ‘저’와 같이 나타나는 강화사 ‘저기’의 위치는 홍용철(2006)을 따라 지시사를 핵으로 하는 지시사구(DemP)의 지정어로 본다.



이렇게 관계절 바깥으로 이동한 NP는 (11)에 의해 추가 성분과 함께 DP를 형성할 수 있으며 (54가)는 바로 이 단계에서 관계절 외부의 지시사와 (59)가 병합하고 이어 NP의 핵인 N이 영형 D로 이동한 결과이다. (54가)의 최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관계절 앞에 오는 지시사는 관계절 내부에서 기인하고 명사 앞에 오는 지시사는 관계절 외부 성분이라는 점이다.⁴³⁾ 즉 관계절 형성과 관련된 (25)와 (11)의 DP 구조 제안에 의해 하나의 명사에 대해 기원이 다른 지시사와의 병합이 가능하게 된다. 그에 반해, (11)의 제안에 의하면 속격 표현은 내부적으로 관계절과 같은 두 단계의 이동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지시사의 중복 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3.3.2. 인지 지시사와 관련된 관계절의 해석적 특성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관계절 형성에 대한 (25)의 제안이 지시사의 중복 출현 관련 (57)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았다. 본 절에서는 (25)을 토대로 하여 관계절의 제한적/비제한적 해석 여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토대로 명사구 수식어에 대한 본고의 입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 증거는 김민주의 인지 지시사와 관련된 관계절의 해석적 양상에 대한 것으로 이 해석적 양상에 대해 김민주가 제시하는 분석이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 문제의 해석적 양상들이 본고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지 지시사에 대한 김민

43) 이 제안에 의하면 관계절 앞에 오는 지시사와 뒤에 오는 지시사는 서로 다르지 않다. 단지 구조적 위치만 다를 뿐이다. 전자를 인지 지시사라 하여 다른 것으로 본 김민주에 대한 검토는 나중에 한다.

주의 제안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통해 인지 지시사가 기본적 성격에 있어 일반 지시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어 인지 지시사 관련 관계절의 해석적 특성이 김민주의 분석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는데 반해, 본고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인다.

3.3.2.1. 인지 지시사 검토

인지 지시사와 일반 지시사의 주요 표면적 차이는 지시사 뒤에 김민주가 AP로 규정한 표현 즉 형용사 어근과 관형형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런 AP를 가진 다음 예들의 ‘그’가 바로 인지 지시사이다.⁴⁴⁾

- (61) 가. 그 [오만불손한] 철수
나. 그 [값비싼] 목거리
다. 그 [귀한] 목거리

김민주는 이런 인지 지시사와 일반 지시사의 차이점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본고는 둘 간에, 나타나는 구조적 위치상의 차이 외에는 기본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므로⁴⁵⁾ 김민주가 제시한 근거들 중 통사 관련 차이들만 검토하기로 한다.⁴⁶⁾

김민주의 첫 번째 근거는 고유 명사 수식 여부이다. Kim(2019:210쪽)은 다음 예를 들어 일반 지시사는 고유명사와 같이 할 수 없으나, 인지 지시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맥락: 화자와 청자가 미나를 친구로 두고 있다. 미나는 철수와 데이트하고 있다. 철수는 오만불손한 놈으로 알려져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그녀가(=화자) 우연히 철수와 지난 밤 저녁을 했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청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 누구와 저녁을 했다고 말했니?” 이에 대한 답의 양상은 다

44) Kim(2019: 208쪽)이 이 지시사를 일반 지시사와 다르다고 본 큰 이유는 지시사로 인해 화자의 심적 영역 상에서 AP가 가리키는 개체가 실제 담화 상에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되는 효과를 가지고 추가로 어떤 화자의 영향(애정)을 나타내는 화용적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이’, ‘저’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지시사 ‘그’의 경우도 가리키는 개체가 실제 담화 상에 없어도 화자, 청자가 알고 있다는 생각되는 경우 쓰이는 용례들이 많다.

concretely, I claim that computing the meaning of such a DEM involves locating the property of individuals denoted by its complement in the mental domain of the speaker and then pointing to it as if it were visible even though it is not in the actual discourse context. We will see that such occurrences of *ku* encode a type of *speaker affect* and the split-DP analysis advanced here provides a way to formally derive it even though it is a largely pragmatic phenomenon.

45)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일반 지시사는 DP 내에서 NP를 보충어로 가지는데 이 특성은 인지 지시사도 공유하며, 인지 지시사가 다른 점은 인지 지시사가 그 뒤에 오는 형용사를 술어로 갖는 CP 즉 관계절의 지령어에 위치한다는 점뿐이다.

46) 통사적 성격의 차이 외에 화용적 차이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일반 지시사는 가리킴 맥락에서 허용되나, 인지 지시사는 그렇지 않다. 둘째, 인지 지시사는 화자의 감정적 암시를 동반하나, 일반 지시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화용적 차이가 대상 표현의 근본적 차이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논외로 한다.

음과 같음.

- (62) 가. 철수/*그 철수
나. 그 오만불손한 철수

그러나 말뭉치 상의 자료들은 지시사가 고유명사와 함께 하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 (63) 가. 이 김영삼이나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으나,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나. 설마 그 정은주?
다. 준희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내가 아는 그 준희인가 해서 따라와 봤지.
라. 근데 예, 그 이상용씨나 그 김병조한테 피해 입은 거 있어요?

두 번째 근거는 지시사의 반복 여부이다. 아래 예는 일반 지시사는 반복이 허용 안 되나, 인지 지시사의 경우는 반복을 허용함을 보인다.

- (64) 가. *이 이 이 모자
나. *그 그 그 모자
- (65) 가. [그 오만불손한], [그 욕심많은], [그 성질 고약한] 철수
나. [그 값비싼], [그 귀한], [그 예쁜] 목거리

Kim(2019:211-212)은 이 차이를 토대로 인지 지시사만을 위한 위치로 DPd/r의 지정어에 다중 부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P를 관계절로 그리고 그 앞에 오는 지시사를 관계절 CP 왼쪽 지정어에 남겨진 지시사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65)와 같은 구문은 일종의 병렬 구문으로 이런 병렬(parallel) 구문은 아래 예에서 보듯이 인지 지시사가 없이도 그리고 일반 관계절의 경우도 가능하다.

- (66) 가. [오만불손한], [욕심많은], [성질 고약한] 철수
나. [가벼운], [노란], [비싼], [작은], [기이한] 책
다. 나는 [학업 성적이 좋은], [타의 모범이 되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찾고 있다.

이런 병렬 구문의 뚜렷한 특징은 맨 마지막 표현의 앞에 ‘그리고’의 삽입이 수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위 예들도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 (67) 가. [그 오만불손한], [그 욕심많은], 그리고 [그 성질 고약한] 철수
나. [오만불손한], [욕심많은], 그리고 [성질 고약한] 철수
다. [가벼운], [노란], [비싼], [작은] 그리고 [기이한] 책
라. 나는 [학업 성적이 좋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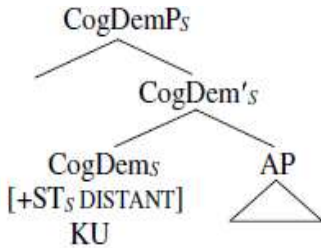
이런 분석이 맞다면 (64)와 (65)의 차이는 병렬 구성 운용의 차이이므로⁴⁷⁾ 두 지시사를 달리 볼 확실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구성체 여부에 대한 것으로 김민주는 ‘그’와 AP가 구성체를 이룸을 보이는 근거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만 이동하거나 AP만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68) 가. [그 욕심많은], [그 오만불손한], t_i [그 성질고약한] 철수
 나. *그_i [그 오만불손한], [t_i 욕심많은], [그 성질고약한] 철수
 다. *[욕심많은]_i, [그 오만불손한], [그 t_i], [그 성질고약한] 철수

그러나 인지 지시사의 내부 구조에 대한 Kim(2019: 222쪽의 (134))의 다음 제안에 의하면 AP의 이동이 왜 허용이 안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68가)의 ‘그 욕심많은’의 이동을 뒤섞기(scrambling)의 결과고 본다고 할 때, 그 자체로 하나의 구성체인 ‘욕심많은’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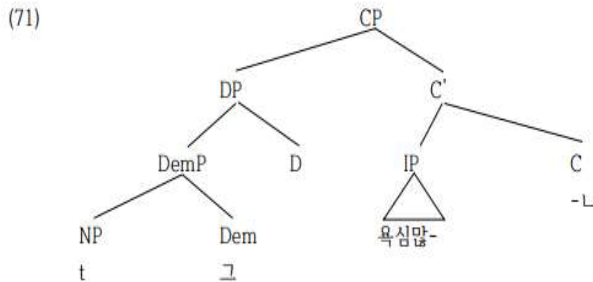
그에 반해, 본고의 분석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선 본고의 분석에도 지시사와 AP는 CP이므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기는 한다. 그러나 (65가)와 (68가)의 관계를 이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병렬 구성은 구성원들끼리의 어순은 아래에서 보듯이 자유롭다. 이를 이동의 결과로 보는 것보다는 병렬 구성의 허용 조건(즉 구성원들 간의 자유 어순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병렬 구성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70) 가. [욕심많은], [오만불손한], [성질 고약한] 철수
 나. [성질고약한], [욕심많은], [오만불손한] 철수
 다. [성질고약한], [오만불손한], [욕심많은] 철수

47) 일반 지시사도 영형 핵의 지정어에 오는 지시사구로 보는 입장에서 (64)와 (65)의 차이를 이와 같은 병렬 구성의 운용 여부로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지시사를 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해결책이 가능하다.

(i) 핵에 대해서는 병렬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68나, 다)의 비문법성은 포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지 지시사 성분의 구조를 다음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간단하다.



먼저 (71)의 구조 하에서 (68나)와 같은 ‘그’의 이동은 핵 이동이어야 하는데, 이 이동은 한국어의 핵-후행 성격에 의해 배제된다. 한편 (71)의 구조에서 ‘욕심 많은’은 ‘그’를 배제한 채로 구성체를 이루지 못하므로 배제된다.

사실 김민주에서도 일반 지시사와 인지 지시사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표현으로 파악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구조적 처리에서 보면 두 지시사는 LocP의 지정어라는 위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인지 지시사의 경우만 DPd/r 지정어 위치가 하나 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물론 (65)과 같은 인지 지시사구의 반복 출현 그리고 DP의 맨 앞에 오는 것으로 알려진 비제한적 관계절보다 앞에 올 수 있다는 특성을 위한 작위적 설정의 성격을 갖는데, 반복 출현 그리고 해석적 특성이 다른 독자적 원리에 의해 포착이 된다면 인지 지시사만을 위한 그런 특정 위치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인지 지시사와 일반 지시사의 차이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가지 남은 것은 인지 지시사가 AP를 필수로 취한다는 성격이나, 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이른바 인지 지시사가 나타나는 환경(즉 관계절 내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일반 지시사와 다르다고 볼 중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김민주의 인지 지시사를 일반 지시사와 다른 별개의 어휘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⁴⁸⁾ 이것이 물론 인지 지시사가 보이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지 지시사가 나타나는 구조적 위치의 차이인데 이로 인해 김민주가 지적한 여러 화용적 성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3.2.2. 인지 지시사와 같이 나타나는 관계절의 해석적 특성

인지 지시사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김민주는 관계절의 해석적 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하고 있다. 먼저 다음 예를 보자.

- (72) 가. [미나가 사귀던], 그 오만불손한 철수
 나. [경제를 살릴], 그 새로운 합리적 정책

Kim(2019:163쪽 (14))

48) 그러나 나타나는 환경 차이는 분명하므로 둘을 구분하는 데 있어 인지 지시사, 일반 지시사의 용어는 그대로 쓰기로 한다.

다.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그 값비싼 목거리

Kim(2019:224쪽 (136a))

김민주의 관찰에 의하면 (72)에서와 같이 인지 지시사의 앞에 오는 관계절은 비제한적 해석만 갖는다. 즉 관계절이 표제 명사의 집합을 제한하는 해석은 갖지 못하고 표제 명사의 속성만을 기술하는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⁴⁹⁾ 문제는 왜 이런 양상을 보이느냐는 것인데, Kim(2019)에서처럼 비제한적 관계절과 인지 지시사 간의 위계 그리고 그에 따른 어순으로만 포착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우선 인지 지시사가 안 나타나면 관계절은 제한적으로만 해석이 된다.⁵⁰⁾

(73) 가. [경제를 살릴], 새로운 합리적 정책

나.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값비싼 목거리

물론 김민주의 분석에서도 (73)의 관계절이 제한적 해석을 가지는 양상을 포착할 수는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새로운’ 같은 AP는 DPp의 하위 영역에 있게 되고 제한적 관계절의 위치는 DPp의 상위 영역이므로 두 성분간에 (73)과 같은 어순이 포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민주의 분석에서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DPd/r의 지정어에 올 수 있으므로 (73)에서 관계절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72)과 (73)의 비교에서 보듯이 관계절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지는 데 있어 지시사의 출현은 필수적인데, 김민주의 이론에서는 이 점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시사가 출현하기만 하면 비제한적 해석은 필연적으로 보장이 되는가? 일단 다음 예들은 지시사가 (72)와 다소 다른 위치에 나타나더라도 관계절이 비제한적으로 해석이 됨을 보여준다.

(74) 가. [미나가 사귀던], 오만불손한 그 철수

나. [경제를 살릴], 새로운 그 합리적 정책

다.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값비싼 그 목거리

(75) 가. 그, [미나가 사귀던], 오만불손한 철수

나. 그, [경제를 살릴], 새로운 합리적 정책

다. 그,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값비싼 목거리

라. 그, [미나가 사온], 값비싼 물건들

Kim(2019:231쪽 (107a))

그러나 다음 예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49) 제한적/비제한적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Kim(2019:11, 12)을 참고할 것

purposes, being a restrictive N modifier will mean that the ADJ at hand reduces the size of the set denoted by the nominal it modifies, and being a non-restrictive N modifier means that it does not. Given this, one may think that the restrictive

50) (72가)에 대응하는 예는 제시하지 않는다. 표제 명사가 ‘철수’이어서 제한적 해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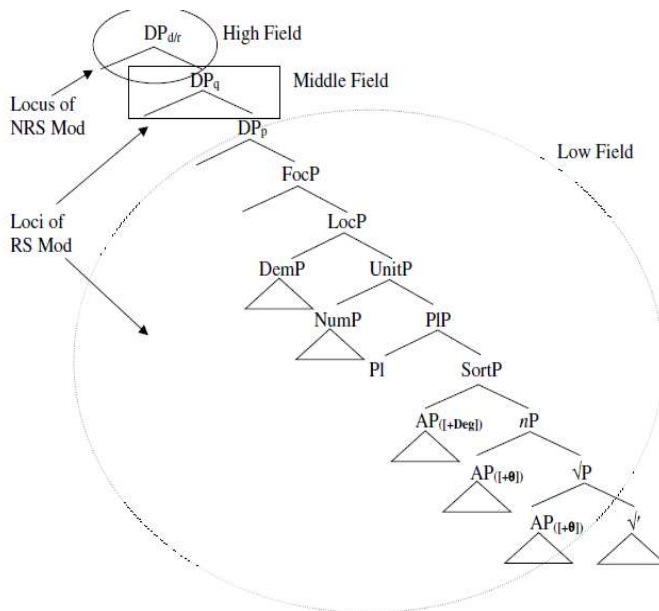
- (76) 가. 그 값비싼,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목거리
- 나. 그 새로운, [경제를 살릴] 합리적 정책
- 다. 그 값비싼, [미나가 사온] 물건들

Kim(2019:231쪽 (107b))

김민주는 (75라)와 (76다)를 비교하면서 (75라)에서 ‘미나가 사온’은 비제한적 해석을 가지지만, (76다)에서는 제한적 해석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76가, 나)에서도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경제를 살릴’ 관계절은 각각의 표제 명사에 대해 제한적 해석만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예에서 지시사 ‘그’가 표제 명사를 가리킨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결국 지시사 ‘그’가 관계절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관계절의 비제한적 해석이 보장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지시사 및 DP에 대한 김민주의 이론에서 제대로 포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기 위해 아래 김민주의 DP의 기본 구조를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77)



이 구조상에서 일반 지시사, 인지 지시사, 비제한적 관계절, 제한적 관계절, AP 등의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다.

- (78) 가. 비제한적 관계절: DPd/r의 가장 상위
- 나. 인지 지시사: DPd/r의 지정어 또는 LocP의 지정어
- 다. 제한적 관계절: DPp의 지정어
- 라. 일반 지시사: LocP의 지정어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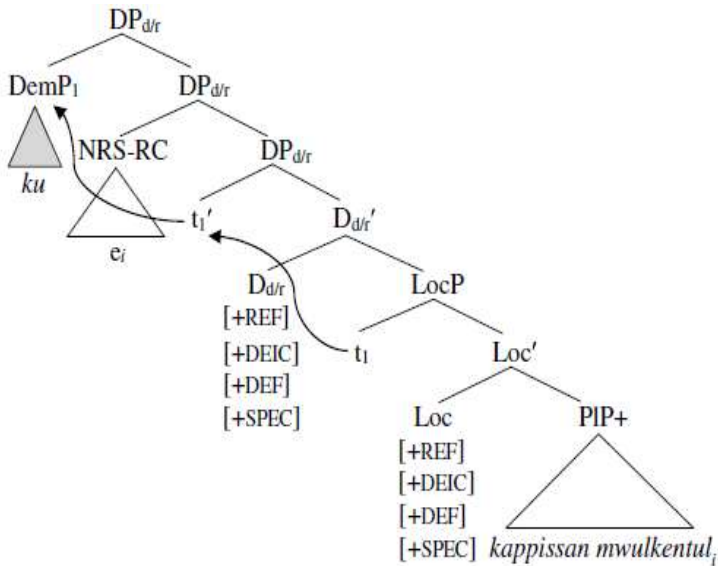
51) 그러나 김민주는 이 지시사구가 자질 점검을 위해 DPd/r의 지정어로 필수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마. AP: SortP의 지정어

먼저 (72)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77)의 구조상 비제한적 관계절이 인지 지시사보다 상위에 오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73)은 지시사가 없는 ‘새로운’이라는 AP가 구조적으로 제한적 관계절보다 아래에 오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비제한적 해석의 가능성이 왜 배제되는지는 미해결로 남는다).

(74, 75)의 경우는 어떤가? 앞에서 이들 예의 관계절은 비제한적 해석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물론 (77)의 구조에서 관계절이 DP_{d/r}의 지정어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해서 (74)의 경우는 결국 AP가 DP_{d/r}의 지정어가 위치한 일반 지시사 ‘그’ 위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이동은 물론 뒤섞기의 결과로 취급된다. 그럼 (75)는 어떤가? 중요한 점은 김민주의 이론에서 (75)의 지시사는 인지 지시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지 지시사는 AP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 즉 (75)에서와 같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지시사의 최종 위치는 (78)에 의하면 비제한적 관계절보다 아래인 DP_{d/r}의 지정어인데 (75)와 같은 어순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 경우도 역시 뒤섞기 이동이 설정되고 있다. Kim(2019:232쪽의 (148))의 다음 도출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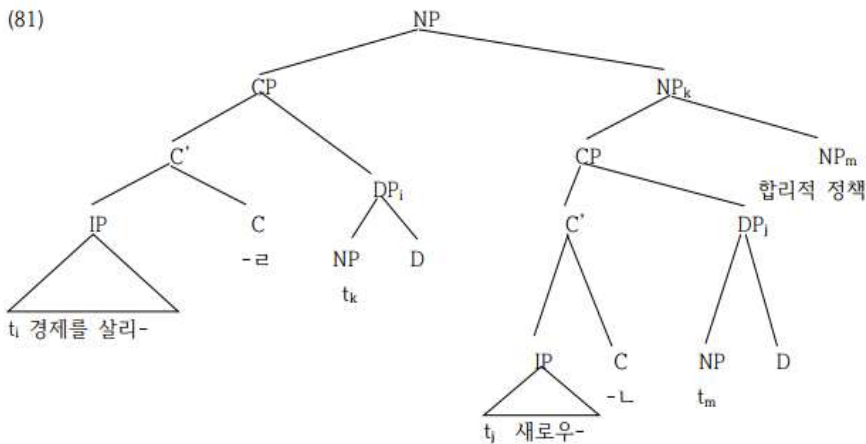
그럼 마지막으로 (76)은 어떤가? 관계절이 제한적 해석만을 갖는 (76)에 대해서는 (77)의 구조에서 인지 지시사는 DP_{d/r}의 지정어 그리고 제한적 관계절이 DP_p 지정어에 온다는 설정으로 포착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뒤섞기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김민주의 분석에서는 비제한적 관계절 아래에 오는 인지 지시사가 (75)에서와 같이 비제한적 관계절 위로의 뒤섞기 이동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해서 (76)의 관계절도 비제한적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 지시사와 같이 나타나는 관계절의 해석적 특징이 김민주의 이론에서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는가를 보았다. 분명 (77)과 같은 구조적 제안을 토대로 한 각 성분들간의 구조적 위치의 차이로 해석적 특징 대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제안이 허용되지 않는 해석까지 허용하는 과잉 생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구조적 제안과 함께 과도한 뒤섞기 이동의 허용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파악한 해석적 특징이 본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를 제시하기로 한다. 주의할 점은 인지 지시사 그리고 AP에 대한 본고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는 점이다.

- (80) 가. 인지 지시사도 일반 지시사와 다르지 않다.
- 나. AP도 관계절이며, 지시사와 함께 하는 AP는 관계절 C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DP의 내부 성분이 다.

즉 (80)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한 (72-76)의 모든 예들은 이중 혹은 중복 관계절의 예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73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⁵²⁾



즉 '새로운 정책'은 (82가)에서 '정책'에 대한 관계화의 결과로 생긴 DP이고 이 DP를 논항으로 갖는 (82나)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계화의 결과로 생긴 표현이 (73가)이다.⁵³⁾

- (82) 가. 합리적 정책이 새로운
- 나. 새로운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

이제 본고의 관계절 형성 기제에 입각하여 관계절의 해석적 특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52) 아래 구조에서 DP들이 모두 CP의 오른쪽 지정어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73가)의 특성상 왼쪽 지정어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

53) (81)의 구조에서 '새로운'과 '정책'이 함께 NP이므로 관계절 바깥으로의 이동시 함께 이동한다.

같다.

- (83) 관계절 형성 1단계 이동, 즉 관계절 CP 지정어로 이동하는 DP 표현이 고유명사, 지시사+명사와 같이 한정성일 경우 관계절은 비제한적 해석을 갖는다.

이 제안에 의하면 관계절 내부에서 이미 한정성을 띠는 표현인 경우는 관계절이 비제한적 해석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에 입각하여 앞의 각 경우를 검토해 보자.

먼저 (72). 이들 명사구는 각각 다음 문장에서 ‘그 오만 불손한 철수’, ‘그 새로운 정책’, ‘그 값비싼 목거리’에 대한 관계화의 결과로 이들은 이미 지시사를 가진 표현이므로 한정성을 가지며 해서 관계절은 비제한적 해석만 갖게 된다.⁵⁴⁾

- (84) 가. [미나가 그 오만불손한 철수를 사귀던]
- 나. [그 새로운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
- 다. [민수가 그 값비싼 목거리를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이어 (73). 이 경우 각 명사구의 표제 명사구는 다음 관계절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관계절 내부에서 해당 명사구는 한정성을 띠지 않으므로 관계절은 제한적 해석을 갖게 된다.

- (85) 가. [새로운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
- 나. [민수가 값비싼 목거리를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이어 (74)를 보자. 이 경우도 각각 다음 문장에서 ‘오만불손한 그 철수’, ‘새로운 그 정책’, ‘값비싼 그 목거리’에 대한 관계화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표현이 관계절 내부에서 한정성을 가지므로 (83)에 의해 해당 관계절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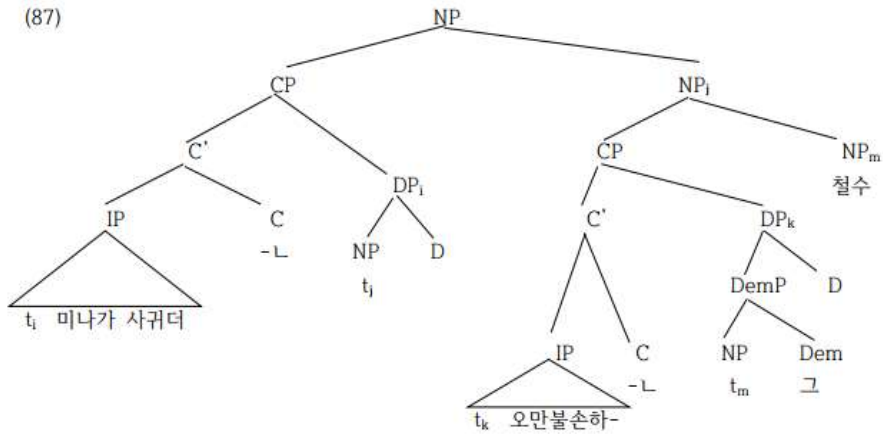
- (86) 가. [미나가 오만불손한 그 철수를 사귀던]
- 나. [새로운 그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
- 다. [민수가 값비싼 그 목거리를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참고로 ‘오만불손한 그 철수’를 포함한 (74가)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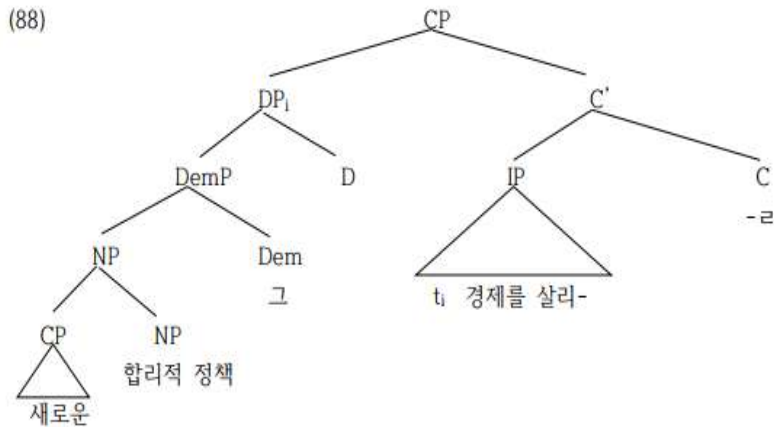
54) 김민주의 AP를 관계절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AP의 해석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72)의 경우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진다. 그리고 이는 ‘그 새로운 정책’이 ‘그 정책’이 ‘새로운’ CP의 왼쪽 지정어로 이동하고 그로부터 ‘정책’의 관계절 외부로의 이동에 의해 도출된다는 분석에 의해 설명이 된다. 즉 ‘그 정책’이 다음 관계절의 논항이므로 (83)에 의해 ‘새로운’도 비제한적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i) [그 합리적 정책이 새로운]

그에 반해, 김민주의 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 미해결로 남는다.



이어 (75)를 보자. 이들 예에서 주목할 점은 지시사와 AP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김민주는 동기가 불분명한 뒤섞기 이동을 상정하였지만,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동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본고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시사의 위치는 관계화의 1단계 이동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말해준다. 즉 (75)에서는 (84)에서 관계화 대상이 되는 DP가 해당 관계절 CP의 왼쪽 지정어에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75나)의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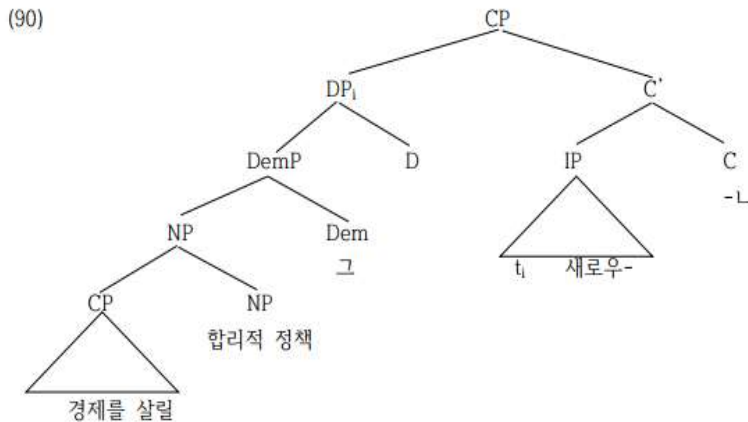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관계화의 2단계인 NP이동은 ‘새로운 정책’이 대상이 되는데, 이 NP의 관계절 외부(더 정확히는 오른쪽)로의 이동에 의해 지시사와 ‘새로운 정책’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관계화의 1단계에서 ‘경제를 살릴’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표현인 ‘새로운 정책 그’는 지시사를 갖고 있으므로 한정성을 띠는 점이다, 해서 (83)에 의해 이 경우도 비제한적 해석만 갖게 된다.⁵⁵⁾

55)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75나)의 DP 구조로 (88)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88)과 달리 지시사가 ‘새로운’ CP

마지막으로 (76)을 보자. 문제의 핵심은 지시사가 있는데도 AP 뒤에 오는 관계절들이 비제한적 해석을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72)와 비교해 볼 때, 단순히 관계절과 그 뒤에 오는 인지 지시사 표현 간의 순서를 바꾼 것이 왜 관계절의 해석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제 (76)의 도출을 생각해 보자.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76)은 다음 문장에서 각각 ‘그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목거리’, ‘그 경제를 살릴 정책’, ‘그 미나가 사온 물건들’에 대한 관계화의 결과이다.

- (89) 가. [그 민수가 브라질에서 사왔다고 하는 목거리]가 값비싼
- 나. [그 경제를 살릴 정책]이 새로운
- 다. [그 미나가 사온 물건들]이 값비싼

즉 (88)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화 대상 DP는 ‘값비싼’, ‘새로운’ CP의 왼쪽 지정어로 이동한다. (89나)를 예로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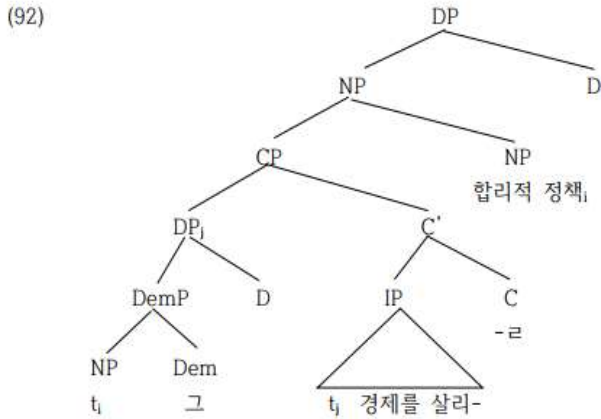


여기서 관계화 2단계에서 NP인 ‘경제를 살릴 정책’이 전체 CP와의 병합을 위해 외부로 이동한 결과가 (76나)이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지시사가 ‘경제를 살릴 정책’의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를 살릴’ 관계절 내부에는 지시사 ‘그’가 없으며 이 관계절은 애초에 다음 구조에서 관계화가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83)에 의해 ‘경제를 살릴’ 관계절은 제한적 해석만 가지게 된다.

- (91)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

내부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경제를 살릴’ 관계절의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새로운’ 관계절의 해석 차이를 유발한다. 즉 (88)에서는 지시사가 ‘새로운’ 관계절 바깥에 있으므로 ‘새로운’이 ‘합리적 정책’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가지는데 반해, 다른 구조에서는 ‘새로운’이 ‘합리적 정책’에 대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내부에 오는 구조에서는 상위 NP가 ‘그’를 포함하므로 ‘그’를 배제한 채로의 ‘새로운 합리적 정책’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즉 본고는 (75나)에서 ‘새로운’이 제한적 해석만을 가질 것을 예측하는데,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75나)에서 ‘새로운’은 비제한적 해석을 갖지 못한다.

앞서 필자는 각주 54에서 (88)을 예로 들면서 지시사가 관계절의 왼쪽에 오는 경우 그 위치가 관계절 외부뿐 아니라, 관계절 내부도 가능함을 지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89나)에도 있다. 즉 (90)의 구조 대신 ‘그’가 관계절 ‘경제를 살릴’ 내부에 오는 구조이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편의상 (90)의 DP 부분만 따로 보인다).



이 구조에서 (76나)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릴 합리적 정책’이 상위의 관계절로 이동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이동은 NP 이동이어야 하는데 ‘그’를 배제한 채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위 구조에서 ‘그’를 배제한 채로 ‘경제를 살릴 합리적 정책’이 구성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92)의 구조가 가능하다면 ‘그 합리적 정책’이 ‘경제를 살릴’의 논항이므로 (83)에 의해 ‘경제를 살릴’이 비제한적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조가 본고의 이론하에서 배제됨을 보았다.

3.3.3.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김민주는 인지 지시사와 같이 나타나는 관계절의 해석적 특징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하고 나름의 분석을 시도했으나, 동기가 불분명한 뒤섞기 이동의 과도한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과잉생성의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그에 반해,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본고의 제안, 관계절 형성에 대한 (25)의 제안, 그리고 어순 결정에 대한 (2)의 제안에 의하면 관계절의 해석적 특징의 성공적 설명에 필요한 조건은 (83)뿐임을 보았다.

3.4. 남은 문제들

3.4.1. 접속 양상

2절의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홍용철(2006, 2010가)에서 지적된 문제는 모두 세 가지였는데, 우리는 2절에서 그 중 두 가지 즉 지시사와 명사 간의 상대적 어

순 그리고 지시사와 명사구 수식어들 간의 어순 양상이 지시사를 기능 핵으로 보는 입장에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였다. 여기서는 접속 양상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이다.⁵⁶⁾

(93) 철수가 저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어제 지하철에서 만났어.

이 문장에서 ‘저’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까지 가리키는 해석을 가지는데, ‘저’를 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홍용철(2006, 2010가)의 구조적 제안에서도 포착이 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우선 홍용철의 구조 (41)에 의하면 (93)에서 ‘-와’로 연결된 성분의 범주는 DP가 아닌 NP가 된다. NP의 의미적 특성이 “지시성”이 아니라, “속성” 혹은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3)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과연 그런 해석을 가지는지의 의문이다. 그보다 (93)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개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가지며 이는 ‘-와’에 의해 연결된 성분이 NP가 아니라, DP임을 나타냄을 의미하므로 홍용철의 구조적 제안 (41)에서도 (93)의 양상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와’에 의해 연결되는 표현이 NP가 아니라, DP임을 보이는 독립적 근거들이 꽤 있다. 우선 ‘-적’ 표현을 들 수 있다. 이 표현은 계사 구문에서 다른 서술 명사와 마찬가지로 계사 ‘-이’와 함께 서술어로 가능한데, 이는 이 표현이 명사적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명사 표현과 다르게 “지시성”을 항상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 표현이 언제나 NP로서의 성격만 가짐을 의미한다.⁵⁷⁾

(94) 가. 철수가 과 대표이다.
나. 철수가 공격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적’ 표현이 ‘-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⁵⁸⁾

(95) 가. *철수가 공격적과 호전적이다.
나. 철수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56) 홍용철은 이 문장의 ‘남학생’이 ‘-들’의 영향권에 들어 복수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서 ‘-들’을 독립적 핵으로 설정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남학생’은 복수 해석을 가지지 못한다.

57) 즉 DP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표현이 다른 서술 명사와 다르게 논항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

58) 이는 ‘과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 가. *철수가 과 대표와 총학생회장이다. 나. 철수가 과 대표이자 총학생회장이다.

그러나 ‘과 대표’가 DP의 성격을 가질 때에는 ‘-와’ 접속이 가능하다.

(ii) 과 대표와 총학생회장이 철수를 만났다.

이어 ‘-와’에 의해 연결되는 표현이 DP라는 점은 다음의 여러 예문들로도 확인이 된다.

- (96) 가. 철수가 영미와 미애를 만났다.
나. 나는 이 아가씨들과 내가 격이 같다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 저 남자와 신철이가 마주 서서 무슨 얘기를 재미나게 하고 있다.

그럼 (93)의 양상은 어떻게 포착이 될 수 있나? 하나의 잠정 해결 방안으로 생략 분석을 제시한다. 즉 ‘-와’가 DP 연결 표현이라고 볼 때, (93)의 뒤 접속항에도 ‘저’가 있고 이 표현이 앞 접속항에 나오는 ‘저’와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생략된다고 보는 방안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뒤 접속항에도 ‘저’가 오는 문장이 동일 해석을 갖는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⁵⁹⁾

- (97) 철수가 저 남학생과 저 여학생들을 어제 지하철에서 만났어.

3.4.2. Greenberg(1963)의 보편성 20

3.2.2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지시사 및 김민주에 의해 NUM, ADJ로 파악된 세 성분 간에 DEM>NUM>ADJ의 한 어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순도 가능성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어의 이 양상과 이들 성분 간의 보편적 어순 양상으로 제시된 Greenberg(1963)의 보편성 20을 둘러싼 Cinque(2005), Abels&Neeleman(2009) 등과의 관련 논의를 살펴 보려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Greenberg(1963)의 보편성 20의 원래 내용은 다음과이다.

- (97) 가. DEM, NUM, ADJ 성분이 명사 앞에 올 경우 그 순서는 DEM>NUM>ADJ이고
나. 이들이 명사 뒤에 올 경우에는 DEM>NUM>ADJ이거나 혹은 ADJ>NUM>DEM이다.

그러나 Cinque(2005)는 그 후의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가능한 어순 24가지 중 14가지만 자연 언어에서 실현되며, 나머지 10가지의 어순은 자연 언어에서 실현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다음이 이를 보인다.

- (98)

59) (97)에서 앞의 ‘저’가 생략되는 다음 문장은 (93)과 해석이 다르다. 이는 물론 생략 현상이 두 ‘저’ 표현의 어순 정보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 (i) 철수가 남학생과 저 여학생들을 어제 지하철에서 만났어.

(1) a. (i)	DEM NUM A N	<i>attested</i>
	these five young lads	
	(ii) DEM NUM N A	<i>attested</i>
	(iii) DEM N NUM A	<i>attested</i>
	(iv) N DEM NUM A	<i>attested</i>
b. (i)	DEM A NUM N	<i>unattested</i>
	(ii) DEM A N NUM	<i>attested</i>
	(iii) DEM N A NUM	<i>attested</i>
	(iv) N DEM A NUM	<i>attested</i>
c. (i)	NUM DEM A N	<i>unattested</i>
	(ii) NUM DEM N A	<i>unattested</i>
	(iii) NUM N DEM A	<i>unattested</i>
	(iv) N NUM DEM A	<i>unattested</i>
d. (i)	NUM A DEM N	<i>unattested</i>
	(ii) NUM A N DEM	<i>attested</i>
	(iii) NUM N A DEM	<i>attested</i>
	(iv) N NUM A DEM	<i>attested</i>
e. (i)	A DEM NUM N	<i>unattested</i>
	(ii) A DEM N NUM	<i>unattested</i>
	(iii) A N DEM NUM	<i>attested</i>
	(iv) N A DEM NUM	<i>attested</i>
f. (i)	A NUM DEM N	<i>unattested</i>
	(ii) A NUM N DEM	<i>unattested</i>
	(iii) A N NUM DEM	<i>attested</i>
	(iv) N A NUM DEM	<i>attested</i>

Abels&Neeleman(2009: 61-62)

흥미로운 점은 김민주의 규정에 따라, ‘세 명의’와 ‘키큰’을 각각 NUM, ADJ로 볼 때, Kim(2019)이나 An(2014)이 한국어에서 가능하다고 한 다음과 같은 어순의 예들이 모두 Cinque(2005), Ables&Neeleman(2009)에서는 unattested로 판정된 경우라 하는 점이다.

- | | | |
|------|------------------|----------------|
| (99) | 가. 그 키큰 세 명의 학생들 | *DEM ADJ NUM N |
| | 나. 키큰 그 세 명의 학생들 | *ADJ DEM NUM N |
| | 다. 세 명의 그 키큰 학생들 | *NUM DEM ADJ N |
| | 라. 키큰 세 명의 그 학생들 | *ADJ NUM DEM N |
| | 마. 세 명의 키큰 그 학생들 | *NUM ADJ DEM N |

그러나 각주 6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는 명사와 보다 더 인접한 속성을 갖는 속격을 안 갖는 수사 그리고 형용사적 성격을 띠는 명사 표현들이 있는데, 이들은 An(2014)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99)에 해당하는 어순은 다 안 좋고 단지 (44)의 어순만 좋다.

- (100) 가. *그 새 두 건물
 나. *새 그 두 건물
 다. *두 그 새 건물
 라. *새 두 그 건물
 마. *두 새 그 건물
 바. 그 두 새 건물
- (101) 가. *그 남자 세 배우
 나. *남자 그 세 배우
 다. *세 그 남자 배우
 라. *남자 세 그 배우
 마. *세 남자 그 배우
 바. 그 세 남자 배우

이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편성 20의 논의 대상인 NUM, ADJ에 ‘세 명의’, ‘키 큰’ 같은 표현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이 각각 속격 표현 그리고 관계절로 파악되는 것이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어는 DEM>NUM>ADJ>N의 어순을 보이는 언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이런 양상 즉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두 표현 중 한 유형만 보편성 20의 이론적 논의에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편성 논의에서 각 언어의 대상 표현이 좀 더 면밀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99)의 표현과 (100, 101)의 표현 간의 통사적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두 표현 간에 보이는 표면적 차이는 일단 (99)의 표현이 XP의 성격을 가진다면 (100, 101)의 표현들은 X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101)에서 ‘남자’와 ‘배우’ 그리고 ‘세’와 ‘남자 배우’ 간의 병합이 X-YP 식의 병합이 아니라,⁶⁰⁾ X와 Y의 병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시사가 맞다면 Greenberg의 보편성 20을 포함한 어순 관련 보편성들을 선형 대응 공리와 제한된 형태의 XP 이동만으로 포착하려 한 Cinque(2005, 2023)의 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참고문헌

- 강명운. 2001. DP와 국어의 명사구: 지시사 ‘그’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1: 15-51.
 김선효. 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서울: 역락.
 김용하. 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김용하, 박소영, 이정훈, 최기용. 2018. *한국어 생성 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60) An(2014)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지은. 2002. 관형절의 한 유형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7, 157-185. 애산학회.
- 목정수. 2011.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 *언어학* 61: 131-159.
- 박소영. 2014. 한국어 속격 '의'의 실현과 DP 가설. *생성 문법 연구* 24: 613-629.
- 박소영. 2022. 연계절 수식의 통사-의미론. *국어학* 102: 93-121.
- 안덕호. 2012.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유격: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37*: 607-621.
- 최기용. 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어학 연구* 37: 445-482.
- 최기용. 2002. 한국어의 용언 반복 구문(Echoed verb construction): 용언의 가시적 이동을 위한 또 하나의 근거. *생성 문법 연구* 12: 139-167.
- 최기용. 2003. 한국어와 핵 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 문법 연구* 13: 119-142.
- 최기용. 2009. 한국어 격과 조사의 생성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 홍용철. 2006. 한국어의 명사 확장 범주. *언어* 31: 657-684.
- 홍용철. 2008. 한국어의 후치 요소와 명사 확장 범주. *생성 문법 연구* 18: 743-768.
- 홍용철. 2010가.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생성문법연구* 20: 549-576.
- 홍용철. 2010나. 지시사구. *프랑스어문교육* 35: 229-257.
- 홍용철. 2013. 소유격 표지 '의'의 분포와 본질. *생성 문법 연구* 23: 321-345.
- 홍용철. 2016. 고유 명사와 "의"의 의무적 출현: "의"가 수식어 표지라는 한 증거. *언어* 41: 761-779.
- Abels, Klaus and Ad Neeleman. 2009. Universal 20 without the LCA. In A. Gavarró, J.M. Brucart & J. Sola eds., *Merging features: computation, interpretation, and acquisition*, 60-7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n, Duk-Ho. 2014. Genitive case in Korean and its implications for noun phrase structure. *Journal of East Asian Languages* 23
- Bernstein, J. 1997. Demonstratives and reinforcers in Romance and Germanic languages, *Lingua* 102: 87-113.
- Bhatt, R. 2002. The raising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Evidence from adjectival modific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0: 43-90.
- Brugè, L. 2002. The position of demonstratives in the extended nominal projection. In *Functional structure in DP and IP: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1, ed. by G. Cinque, 15-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Kiyong. 2022. The head-NP raising analysis of a relative clause in Korean. In Tae Sik Kim and Jungu Kang eds., *Proceedings of SICOGG 24*, 192-201.
- Chomsky, Noam.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Belletti, A.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2020. *The UCLA lectures with an introduction by Robert Freidin*. Ms.
- Cinque, G. 1994. On the evidence for partial N-movement in the Romance DP. In C. Cinque, J. Koster, J.-Y. Pollock, L. Rizzi, and R. Zanuttini, eds., *Paths towards Universal Grammar*, 85-110.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inque, G. 2005. Deriving Greenberg's Universal 20 and its exceptions. *Linguistic Inquiry* 36: 315-332.
- Cinque, G. 2023. *On linearization: Towards a restrictive theory*. Cambridge, Mass.: MIT Press.
- Giusti, G. 1997. The categorial status of determiners. In L. Haegeman ed., *The new comparative syntax*, 95-123. Longman.
- Giusti, G. 2002. The functional structure of noun phrases: A bare phrase structure approach. In G. Cinque ed., *Functional structure in DP and CP*, 54-90.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osep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 elements. In J.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73–113. Cambridge, Mass: MIT Press.
- Kang, Sang-Kyun. 2016. DP internal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Research* 52: 323–368.
- Kayne, Richard S.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im, Dae-Bin. 1993.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Seoul: Taehaksa.
- Kim, Kyumin and Paul B. Melchin. 2015. Pluralizer as a nP modifiers: evidence from Korean -tul. In *The Proceedings of the 2015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 Kim, Min-Joo. 2019.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oun modifiers and the theory of Universal Grammar: A Korean perspective*. Springer.
- Lee, Rangheyoon K. 1994. *Economy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Mahajan, Anoop Kumar. 1990. *The A/A-bar distinction and movement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MIT.
- Park, Soon-Hyuck. 1994. *A- and A-bar dependencies and minimalism in movement theories: Scrambling and bind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Roberts, Ian G. 2010. *Agreement and head movement: clitics, incorporation, and defective goals*. Cambridge, Mass.: MIT Press.
- Saito, Mamoru. 1989. Scrambling as semantically vacuous A'-movement. In Mark Baker and Anthony S. Kroch, eds., *Alternative conceptions of phrase structure*, 182–2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belhuth, Gert. 1992.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ctic satur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on, Jeong-Mi. 1991. *The syntax of A-chains: A typological study of ECM and scrambling*.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XP-YP in English, Japanese and Other Languages

Manabu Mizuguchi (Kokugakuin University)

1. XP-YP Puzzles

- (1) a. John will arrive at the station.
b. *Will arrive John at the station.
- (2) a. *Who do you think that <who> will arrive at the station?
b. Chi credi che verrà?
who think-you that will-come
'Who do you think will come?' (Rizzi 1982)

XP-YP is required in (1) while it causes ungrammaticality in (2a). (2b) shows that when XP-YP is not created, grammaticality does follow. In Italian, the subject can be null. It is possible for the subject wh-phrase not to form XP-YP with an inflectional phrase (TP for convenience) on its way to the matrix Spec,CP (Rizzi 1982, Rizzi and Shlonsky 2007).

- (3) [__ [Taroo-ga niwa-de sono hon-wo] yon-da] (koto)
Taroo-Nom yard-in the book-Acc read-Past fact
'(the fact that) Taroo read the book in the yard.'
- (4) __ Compra un libro.
buy-3Sg a book
'He/she buys a book.'
- (5) Mary read [the book].
- (6) a. Mary made John out [to be a fool].
b. Mary made out [John to be a fool]. (Lasnik 1999, 2001)

XP-YP faces variations: it is obligatory in some cases but optional in others, which is observed within a single language as well as cross-linguistically.

XP-YP puzzles posed by the above examples have been treated under EPP and ECP in the Principles & Parameters framework (Chomsky 1981, 1986).

In this talk, I propose an account of XP-YP in the framework of "genuine explanation."

2. Genuine explanation

Science devises theory after theory for striving toward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premises of the theory as a whole (Einstein 1950).

Three factors involved in the Faculty of Language (FL)

- UG, which is genetically determined (innate), and universal (uniform) across species
- the data available for language acquisition, which are generally impoverished
- efficiency principles, which are not specific to language

Considering the learnability (the property is acquired by individuals), evolvability (the property could have been acquired by the species) and simplicity (nature is simple, designed perfectly) of language, FL can receive a genuine explanation if i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just the first and the third factors.

The Basic Property of FL: I-language generates an infinite array of hierarchically structured expressions, each with an interpretation at the CI interface and optionally external manifestation at the SM interface.

- (7) Language is optimized relative to the CI interface alone, with externalization a secondary phenomenon. (Chomsky 2014; also Chomsky 2023)

UG consists of the simplest computational operation, Merge.

- (8) Merge: $WS = [X, Y] \rightarrow WS' = [\{X, Y\}]$

Merge applies to the Workspace (WS), not to lexical items, mapping one WS into another WS (WS') in a strictly Markovian manner (Chomsky 2019 et seq., Chomsky, Gallego and Ott 2019).

The Strong Uniformity Thesis: given that UG is universal, uniform across species, it is not subject to parameterization; nor is it affected by lexical parameters (Boeckx 2011, Chomsky 2001, Miyagawa 2010).

The locus of linguistic variations: externalization (external manifestation) is where a number of realizational options are available for syntactic objects across languages, with variation confined to the peripheries of UG (Berwick and Chomsky 2011, 2016, Boeckx 2011, 2016, Chomsky 2020).

- (9) All “parameters” reduce to realizational options (i.e., PF decisions rendered necessary by the need to externalize structures constructed by an underspecified syntactic component). (Boeckx 2016)

3. Ungrammaticality caused by the absence of XP

UG applies only within the bounds of third-factor principles, suggesting that creation of XP-YP is free. Then why is it forced in (1)?

Forced XP-YP (aka the Spec requirement) in generative grammar

-the EPP (Chomsky 1981, 1982), the edge feature (Chomsky 2000)

-Spec-head agreement (Bošković 1997, 2002, Castillo, Drury and Grohmann 2009, Epstein and Seely 2006).

-labeling (Chomsky 2013, 2015)¹

Lasnik (2003) on the EPP: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 has been ... a pervasive mystery since it was first formulated by Chomsky (1981).”

On Spec-head agreement: a Spec is simply designated as an agreement/checking position.

On labeling: Chomsky (2015) argues that XP-YP is reducible to Label Weakness (LW).

- (10) a. $[_{YP} Y [\dots]]$ ($Y \neq \text{a label}$)²
 b. $[_{XP} [_{YP} Y [\dots]]]$ ($Y = \text{a label}$)

- (11) The book was written by the professor.

- (12) a. [_{YP} T [be written the book by the professor]] (YP = ?)
 b. [[_{XP} The book] [_{YP} T [be written t by the professor]]] (YP = TP)

The problems with LW: no strong/weak distinction as labels.

Labeling is due to Minimal Search (MS), which is a third-factor element Search abiding by the condition of least effort (Chomsky 2021).

With principles of UG not affected by lexical parameters, MS should be able to designate T as the label by locating the head in (12a).

Proposal: XP-YP from externalization

- (13) [_{XP} [_{YP} Y_φ [_α ... (t) ...]]] (φ with canonical externalization)

XP in XP-YP works as a syntactic instruction to externalization at the SM level that agreement is realized canonically at Y_φ.

Canonical agreement: agreement morphologically expresses the φ-features of XP in a mandatory way (as far as the language is armed with the relevant morphology); otherwise, it is non-canonical.

T bears φ-features. In (14), T_φ corresponds to Y_φ in (13).

- (14) a. [_{YP} T_φ [be written the book by the professor]] (φ = ?)
 b. [[_{XP} The book] [_{YP} T_φ [be written t by the professor]]] (φ = 3Sg)

If the morphological component of a language allows only canonical externalization of φ on T, English being one such language, then failure to create XP-YP will lead to externalization failure, with the result that the SM requirement that φ be morpho-phonologically externalized will not be satisfied.

(14a) is ungrammatical in violation of Full Interpretation on the side of SM caused by externalization failure.

For languages with the “only non-canonical agreement” option, (13) is not generated, Welsh (Celtic) being one such example (Fassi Fehri 1993, Baker 2002).

- (15) Darllenodd / *Darllenasant y plant y llyfr
 read-Past-3Sg / read-Past-3Pl the children the book
 ‘The children read the book.’ (Rouveret 1991)

A number of languages argue that XP-YP holds a key to canonical externalization of φ on Y.

- (16) a. ṭ-ʔaalibaat-u ʔakal-na / *ʔakal-at.
 the-students.Fem.PI-Nom eat.Past-3.Fem.PI / eat.Past-3.Fem.Sg
 ‘The students ate.’
 b. ʔakal-at / *ʔakal-na ṭ-ʔaalibaat-u.
 eat.Past-3.Fem.Sg / eat.Past-3.Fem.PI the-students.Fem.PI-Nom (Benmamoun 1992)
- (17) a. Le ragazze l’hanno telefonato.
 the girls LE have_(3,Pl,Fem) phoned
 ‘The girls have phoned.’

- b. Gl'ha telefonato le ragazze.
 GLI has_(3.Sg.Masc) phoned the girls (Campos 1997)
- (18) a. Dois meninos chegaram / *chegou.
 two boys came-Pl / came-Sg
- b. Chegaram/chegou dois menios.
 came-Pl / came-Sg two boys (Guasti and Rizzi 2002)

In these languages, unlike in English, non-canonical agreement is morphologically possible for ϕ on T.

The subject wh-phrase does not move via Spec,TP (e.g., Bošković 2016, 2022, 2023, Erlewine 2016, Legate 2011, 2014, Messick 2020, Mizuguchi 2014, Ouali 2008; cf. Chomsky 2008).

- (19) [subject [_{CP} C [_{TP} T [_{VP} ... t ...]]]]
-

Some evidence

-Scope relations

The subject shows different scope relations with an object quantifier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wh-phrase (or operator) or not (May 1985; see also Diesing 1992).

- (20) a. Who loves everyone? (*wh* > *every*; **every* > *wh*)
 b. Someone likes everyone. (*some* > *every*; *every* > *some*)
- (21) a. [_{CP} who [_C [_{TP} everyone [_{TP} T [_{VP} <who> [_{V*}-likes <everyone>]]]]] (*wh* > *every*)
 b. [_{CP} [_{TP} everyone [_{TP} someone [likes <everyone>]]]] (*every* > *some*)
 cf. c. [_{CP} [_{TP} someone [_{TP} everyone [_{TP} <someone> [likes <everyone>]]]]] (*some* > *every*)

Given that quantifiers raise to take scope at the edge of TP, (20a) would be ambiguous if a copy of *who* were produced in Spec,TP.

-Quantifier float

In a West Ulster variety of English, quantifiers like *all* can be stranded in the object position in wh-movement but not in subject raising (McCloskey 2000).

- (22) a. *They were arrested all last night.
 b. *They were spoken to all after class.
- (23) a. Who was arrested all in Duke St.?
 b. What was said all at the meeting?

Given that the subject raises to Spec,TP in (22), (23) suggests that subject movement to the Spec does not take place (also McCloskey 2000:77): if it did, (23) would be ungrammatical just like (22) since *all* can float due to movement to Spec,TP.

-Phrase Merger

In Yiddish, a phrase can be merged in Spec,TP in subject wh-movement (Diesing 1988, 1990, 2004).

- (24) a. Ikh veys nit [_{CP} ver [_{TP} es hot gegesn a brukve]].
 I know not who Expl has eaten a turnip
 'I don't know who has eaten a turnip.'
 b. Zi iz gekumen zen [_{CP} ver [_{TP} frier vet kontshen]].
 she has come see who earlier would finish
 'She has come to see who would finish earlier.'

If the subject wh-phrase should move to Spec,TP, the position would be filled, and *es* and *frier* would not be merged in that position.

With (19) in mind, the following agreement contrasts support (13).

- (25) a. Quante ragazze gl'ha telefonato?
 how-many girls GLI has phoned
 'How many girls have phoned?'
 b. *Quante ragazze l'hanno telefonato?
 how-many girls LE have phoned
 c. Le ragazze l'hanno telefonato. (= (17a))
 the girls LE have_(3,Pl.Fem) phoned
 'The girls have phoned.' (Campos 1997)
- (26) a. iyondi yo u-alangira Marya
 who that Anti.Agr-saw Mary
 'Who saw Mary?'
 b. *iyondi yo a-alangira Marya
 who that Agr-saw Mary
 c. Kambale a-alangira Marya.
 Kambale Agr-saw Mary
 'Kimbale saw Mary.' (Schneider-Zioga 2007)
- (27) a. Achike x-ø-tj-ø ri wäy?
 who Com-B3.Sg-eat-**AF** the tortilla
 'Who ate the tortilla?'
 b. *Achike x-ø-u-těj ri wäy?
 who Com-B3.Sg-A3.Sg-cat the tortilla
 c. Iwir x-ø-u-těj ri wäy ri a Juan.
 yesterday Com-B3.Sg-A3.Sg-eat the tortilla Juan
 'Yesterday Juan ate the tortilla.' (Erlewine 2016)

Non-canonical agreement appears when the subject wh-phrase moves. The absence of Spec,TP (XP) leads to non-canonical agreement.

Dadan (2019) on XP-YP: it satisfies externally imposed, interface properties that go beyond the X-YP (head-phrase) structure.

(13) is supported by what Dadan (2019) proposes on XP-YP: it allows ϕ -features on Y to be canonically externalized,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 on the SM side that cannot be met by X-YP.

Variations with XP-YP

If the morphology of a language allows ϕ -features on Y not to be canonically realized or not to be realized at all, XP is not necessary; no need to canonically externalize ϕ -features allows XP not to be created (i.e., XP is optional).

-Languages without ϕ -features

- (3) [__ [Taroo-ga niwa-de sono hon-wo] yon-da] (koto)
 Taroo-Nom yard-in the book-Acc read-Past fact
 '(the fact that) Taroo read the book in the yard.'

- (28) [Op [John-ga [Bill-ga t katta no]-ga mondai da to] itte iru] yorimo Mary-wa
 John-Nom Bill-Nom bought fact-Nom problem be C say than Mary-Top
 takusan hon-o katta.
 many book-Acc bought
 Lit.: 'Mary bought more books than John says that the fact that Bill bought is a problem.'
 (Ishii 1997)

The comparative deletion construction involves movement of an empty operator (Op) (Kikuchi 1987, Takezawa 1987). In (28), OP moves out of the subject phrase.

A moved phrase is frozen for extraction (Chomsky 1986, Huang 1982, Stepanov 2007; cf. Bošković 2018).

- (29) *Who was [a picture of t] taken by Bill?

In Japanese, morphological agreement does not appear at all on the verb.

- (30) [__ [Taroo-ga / Watashi-ga / John to Mary-ga niwa-de sono hon-wo] yon-da] (koto)
 Taroo-Nom / I-Nom / John and Mary-Nom yard-in the book-Acc read-Past fact

The explanation given to Japanese can also account for the absence of XP in English.

- (31) The linguist seems [YP to be in a bad mood].

In (31), YP, whose head is T, can stand without XP. Why? Because ϕ -features on non-finite T, unlike those on finite T, are not externalized at all.

Assumption: A-movement is not successive cyclic (Chomsky 2021, 2023, Castillo, Drury and Grohmann 2009, Epstein and Seely 2006; cf. Mizuguchi 2020b).

-Null-subject languages

- (4) __ Compra un libro.
 buy-3Sg a book
 'He/she buys a book.'

It has been reported that some XPs (phrases) have been diachronically reanalyzed as Xs (heads) (Dadan 2019, van Gelderen 2004, 2011 among others): e.g., the complementizer *that* in English.

Full pronoun to agreement ($NP_{\phi} > T_{\phi}$) is also one illustration of this diachronic change (van Gelderen 2011, Hale 1990).

In null-subject languages, morphological forms of agreement are not due to externalization of syntactically valued ϕ -features at the SM level.

-Optional XP-YP in VP

- (32) a. Mary made John out [to be a fool]. (= (6a))
 b. I believed Nixon, incorrectly, [to be interested in ending the war]. (Postal 1974)
 (33) a. *Who did Mary steal [[that picture of t]_i [t_{steal} t_i]]?
 b. *Who did Mary make [[most movies about t]_i [t_{make} t_i]]? (Mahajan 1992)

- (34) Who did Mary see [a picture of t]?

- (35) Mary made out [John to be a fool].

Like T, V bears unvalued ϕ -features for syntactic agreement and Case valuation of the NP.
 → V corresponds to Y in (13) along with T.

ϕ -features on V are not morpho-phonologically realized in English: there is no need to canonically externalize the ϕ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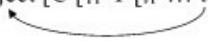
Summary: The obligatoriness of XP in XP-YP and its optionality follow from (13).

4. Ungrammaticality caused by creation of XP

- (2) a. *Who do you think that [_{CP} who]_> [_{YP} will arrive at the station]]?
 b. Chi credi che [_{YP} verrà]?
 who think-you that will-come
 ‘Who do you think will come?’ (Rizzi 1982)

Recall that XP-YP causes ungrammaticality in (2a) (see Mizuguchi 2020a, 2023 for one proposal), which is evidenced by Italian (2b), where XP-YP is not formed.

Once again, consider subject wh-movement, the derivation of which is illustrated in (19).

- (19) [_{CP} subject [_{TP} T [_{VP} ... t ...]]]
- 

XP-YP is not created in (2a), which causes ungrammaticality: ϕ -features on T (Y_ϕ) cannot be canonically externalized in the absence of the subject (XP). (2a) is ungrammatical for the same reason that (1b) is ungrammatical (unification of EPP and ECP cf. Chomsky 2015, Mizuguchi 2008).

The problem is (36): it has been argued that (36) is derivationally no different from (2a); the subject wh-phrase undergoes the derivation illustrated in (19) in the embedded clause.

- (36) Who do you think will arrive at the station?

Proposal: De-activation of T

- (8) Merge: $WS = [X, Y] \rightarrow WS' = [\{X, Y\}]$

Merge subsumes two types: set-Merge and pair-Merge, which are formally distinct and can be considered descendants of substitution and adjunction, respectively (Chomsky 2004, Chomsky, Gallego and Ott 2019).

- (37) Merge: $WS = [X, Y] \rightarrow WS' = [<X, Y>]$

Pair-Merge is the next simplest operation after set-Merge (Chomsky 2020).

A pair-merged element is put on a different plane or in a separate dimension, behaving as if it were not there. It is invisible and inaccessible to the computation (Chomsky 2004, 2020, 2021): $<X, \underline{Y}>$, where Y is pair-merged to X, is on a par with X.

- (38) John [_{α} [_{VP} read the book] [_{AdvP} very carefully]]. ($\alpha = \checkmark$ VP, *AdvP, *VP/AdvP)
 (39) John [read the book very carefully] and [wrote the paper].

In (36), T is externally pair-merged to C.

- (40) a. $\langle C, \bar{T} \rangle$
 b. [subject [$\langle C, \bar{T} \rangle$ [_{VP} ... t ...]]]
-

C (a phase head) is the locus of ϕ -features (Chomsky 2019a), which are inherited onto T (a non-phase head) in the phase domain.

The inheritance fails in (40) for the invisibility and inaccessibility of T. The result is that C keeps ϕ and hence $\langle C, T \rangle$ bears the features ($C_\phi = \langle C, T \rangle_\phi$).

(13) is created in (40b): the subject corresponds to XP, Y_ϕ to $\langle C, \bar{T} \rangle_\phi$ and YP to [$\langle C, \bar{T} \rangle_\phi$ [_{VP} ...]], with which the subject is internally merged. Unlike in (2a), ϕ can be canonically externalized thanks to XP-YP.

- (41) [[_{XP} subject] [_{VP} $\langle C, \bar{T} \rangle_\phi$ [_{VP} ... t ...]]] ($\phi = 3Sg$)

Under free Merge, pair-Merge is freely available. This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Why is pair-Merge not employed in (2a)?

The answer to the question: externalization.

Mizuguchi (2018, 2019) on complementizers: C is externalized as different morphological forms depending on how C is merged in the derivation.

(42)

Syntax	Externalization
$\langle C, T \rangle_{\text{tensed}}$	\emptyset
C_{tensed}	<i>that</i>

Mizuguchi’s proposal is empirically endorsed by Irish examples in (43), in which C is realized as distinct complementizers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Spec,CP (= XP).

- (43) a. Caidé aL shileann Seán [$\langle \text{caidé} \rangle$ [aL iarrann sé ar Nollaig]]?
 what C thinks John C asks he on Noel
 ‘What does John think he asks Noel for?’
 b. Deir siad [goN síleann an t-athair [goN bpósfaidh Síle é]].
 say they C thinks the father C will-marry Sheila him
 ‘They say that the father thinks that Sheila will marry him.’ (McCloskey 1979)
- (44) a. [XP [_{CP} C [...]]] ($C \rightarrow aL$)
 b. [_{CP} C [...]] ($C \rightarrow goN$)

C is externalized as *aL* when XP-YP is yielded while it is realized as *goN* when X-YP is created. Chung and McCloskey (1987: 223): “we interpret the appearance of *aL* as a morphological signal that the gap has a local binder available in (the specifier position of) Comp.”

(43) endorses the proposal that morphological forms of C are due to syntactic structures.

The proposed solution also accounts for long-distance A-movement in Bantu.

- (45) a. *Mikaeli a-lolekhana [a-li a-si-kona]. Lubukusu
 Michael 1Sa-seem that 1Sa-Pres-sleep
 ‘Michael seems to be still sleeping.’
 b. Babaandu ba-lolekhana [mbo ba-kwa].
 2people 2Sa-seem that 2sa.Past-fall
 ‘The people seem like they fell/The people seem to have fallen.’
 (Carstens and Diercks 2013)
- (46) a. *uZinhle u-bonakala [uku-(zo-)xova ujeqe]. Zulu
 Aug.1Zinhle 1Sa-seem Inf-(Fut-)make Aug.1steamed.bread
 ‘It seems that Zinhle will make bread.’
 b. uZinhle u-bonakala [ukuthi u-zo-xova ujeqe].
 Aug.1Zinhle 1Sa-seems that 1Sa-Fut-make Aug.1steamed.bread (Halpert 2016)

On the assumption that canonical agreement is required in the languages in question, (45a) and (46a) are ungrammatical due to (19) while (45b) and (46b) are grammatical thanks to (41).

Various external manifestations of C in (45) and (46) are due to externalization (Mizuguchi 2018)

(47)

Syntax	Externalization
$\langle C, T \rangle_{\text{tensed}}$	<i>mbo / ukuthi</i>
C_{tensed}	<i>-li / \emptyset</i>

Consequences

-No additional position in the clausal architecture

Bošković (2022, 2023) argues that *who* in (48b) is lower than *what* in (48a) but higher than *Amy* in (48c) (*what* > *who* > *Amy*): there are two wh-positions, the lower position reserved for a locally moved wh-subject.

- (48) a. I wonder [_{CP} **what** [_{TP} Amy said]].
 b. I wonder [_{CP} [_{αP} **who** [_{TP} left]]].
 c. I think (that) [_{TP} **Amy** [left]].
- (49) Margir bílar hafa verið seldir á þessu uppboði. Icelandic
 many cars have been sold at this auction
 ‘Many cars have been sold at this auction.’ (Jonas 1996)

The lower wh-position is a mixed A/A'-position. Bošković writes αP as A/A'P.

- (50) a. Who seems to himself to be intelligent?
 b. Who seems to his professor to be hard working?
 (51) a. *Which students did each other's professors criticize?
 b. *Who does his mother love?

van Urk (2015) on A-properties: if movement is accompanied by ϕ -feature agreement with the head X, then movement to the Spec of XP is A-movement.

Movement to the Spec of $\langle C, \bar{T} \rangle$ is accompanied by ϕ -feature agreement with $\langle C, \bar{T} \rangle$.

- (52) [[_{XP} subject] [_{YP} $\langle C, \bar{T} \rangle_{\phi}$ [_{vP} ... t ...]]] ($\phi = 3\text{Sg}$)

-No deletion in subject extraction

Deletion of C solves the problem of subject extraction (Chomsky 1986, Pesetsky 2019).

- (53) a. [[... [VP V [CP C [TP T [VP V [...]]]]]]]]
 *
 b. [[... [VP V [TP T [VP V [...]]]]]]

(54) The No-Tampering Condition

Merge of X and Y leaves the two syntactic objects unchanged.

(Chomsky 2008)

Subject extraction is grammatical even when overt complementizers are present, which argues that C is not deleted.

- (55) a. Babaandu ba-lolekhana [mbo t ba-kwa]. (= (45b))
 2people 2Sa-seem that 2sa.Past-fall
 ‘The people seem like they fell/The people seem to have fallen.’
 b. uZinhle u-bonakala [ukuthi u-zo-xova ujeqe]. (= (46b))
 Aug.1Zinhle 1Sa-seems that 1Sa-Fut-make Aug.1steamed.bread
 ‘It seems that Zinhle will make bread.’

-All complementizers are phasal.

Grammatical extraction in (55) suggests that some complementizers are not phasal (Carstens and Diercks 2013).

- (56) a. [subject [... [CP C [TP t ...]]]] (CP = non-phase)
 *
 b. [subject [... [CP C [TP t ...]]]] (CP = phase)

Movement from the phase edge back to the non-phase edge is improper movement.

- (57) [subject [... [CP <subject> [C [TP t ...]]]]]
 *
 *

5. Conclusion

XP-YP puzzles observed in (1) through (6) are solved by (13).

- (13) [XP [YP Y_φ [_α ... (t) ...]]] (φ with canonical externalization)

If the morphology of a language has canonical agreement as the only realizational option for φ on Y, failure to create XP-YP will result in failure of externalization, with the SM requirement not satisfied.

It follows from (13) that if non-canonical agreement is available or φ-features are not realized at all, XP will be optional.

The first factor, UG or Merge, applies in compliance with the third factor while variations reduce to externalization options of φ in each language. The proposal here adheres to the framework of explanation outlined in section 2, giving a genuine explanation to XP-YP puzzles.

References

- Baker, Mark C. 2002. Building and merging, not checking: The nonexistence of (Aux)-S-V-O languages. *Linguistic Inquiry* 33:321-328.
- Benmamoun, Elabbas. 1992. *The feature struc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 comparative study of Arabic diale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wick, Robert C. and Noam Chomsky. 2011. The biolinguistic program: The current state of its development. In *The biolinguistic enterprise: New perspectives on the evolution and nature of the human language faculty*, ed. by Anna Maria Di Sciullo and Cedric Boeckx, 19-4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wick, Robert C. and Noam Chomsky. 2016. *Why only us: Language and ev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 Boeckx, Cedric. 2011. Approaching parameters from below. In *The biolinguistic enterprise: New perspectives on the evolution and nature of the human language faculty*, ed. by Anna Maria Di Sciullo and Cedric Boeckx, 205-2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eckx, Cedric. 2016. Considerations pertaining to the nature of logodiversity. In *Rethinking parameters*, ed. by Luis Eguen, Olga Fernandez-Soriano and Amaya Mendikoetxea, 64-10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šković, Željko. 1997. *The syntax of nonfinite complementation: An economy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 Bošković, Željko. 2016. On the timing of labeling: Deducing comp-trace effects, the subject condition, the adjunct condition, and tucking in from labeling. *The Linguistic Review* 33:17-66.
- Bošković, Željko. 2018. On movement out of moved elements, labels, and phases. *Linguistic Inquiry* 49:247-282.
- Bošković, Željko. 2002. A-movement and the EPP. *Syntax* 5:167-218.
- Bošković, Željko. 2022. On wh and subject positions and the EPP. Paper presented at Generative Linguistics in the Old World (GLOW) in Asia XIII.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ugust 4.
- Bošković, Željko. 2023. The comp-trace effect and contextuality of the EPP. To appear in *Proceedings of the 39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Campos, Héctor. 1997. On subject extraction and the antiagreement effect in Romance. *Linguistic Inquiry* 28:92-119.
- Carstens, Vicki and Michael Diecks. 2013. Parameterizing case and activity: Hyper-raising in Bantu. In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NELS) 40*, ed. by Seda Kan, Claire Moore-Cantwell and Robert Staubs, 99-118.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Graduate Linguistics Student Association (GLSA).
- Castillo, Juan Carlos, John E. Dury and Kleanthes K. Grohmann. 2009. Merge over Move and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MOM and the EPP revisited. *Iberia: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Linguistics* 1:53-114.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Pisa lectures*.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1986.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by Roger Martin, David Michaels and Juan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by Michael Kenstovicz, 1-52.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3: Structures and beyond*, ed. by Adriana Belletti,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2008. On phases. In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ed. by Robert Freidin, Carlos. P. Otero and Maria Luisa Zubizarreta, 133-166.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33-49.
- Chomsky, Noam. 2014. Minimal recursion: Exploring the prospects. In *Recursion: Complexity in cognition*, ed. by Tom Roeper and Margaret Speas, 1-15. Dordrecht: Springer.
- Chomsky, Noam.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In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ed. by Elisa Di Domenico, Cornelia Hamann and Simona Matteini, 3-16. Amsterdam: John Benjamins.

- Chomsky, Noam. 2019a. Puzzles about phases. In *Linguistic variation: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ed. by Ludovico Franco and Paolo Lorusso, 163-167. Berlin: Mouton de Gruyter.
- Chomsky, Noam. 2019b. Some puzzling foundational issues: The Reading program. In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2019: Generative syntax. Questions, crossroads, and challenges*, ed. by Àngel J. Gallego and Dennis Ott, 263-285. Barcelon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Chomsky, Noam. 2020. The UCLA lectures, with an Introduction by Robert Freidin. Lecture transcripts.
- Chomsky, Noam. 2021. Minimalism: Where are we now, and where can we hope to go. *Gengo Kenkyu* 160:1-41.
- Chomsky, Noam. 2023. The miracle creed and SMT. Ms., University of Arizona.
- Chomsky, Noam, Àngel J. Gallego and Dennis Ott. 2019. Generative grammar and the faculty of language: Insights, questions, and challenges. In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2019: Generative syntax. Questions, crossroads, and challenges*, ed. by Àngel J. Gallego and Dennis Ott, 229-261. Barcelon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Chung, Sandra and James McCloskey. 1987. Government, barriers, and small clauses in modern Irish. *Linguistic Inquiry* 18:173-237.
- Collins, Chris and T. Daniel Seely. 2020. Labeling without labels. Ms., New York University and Eastern Michigan University.
- Dadan, Marcin. 2019. Head labeling preference and language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 Diesing, Molly. 1988. Word order and the subject position in Yiddish. In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NELS) 18*, ed. by James Blevins and Juli Carter, 124-140.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Graduate Linguistic Student Association.
- Diesing, Molly. 1990. Verb movement and the subject position in Yidd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8:41-79.
- Diesing, Molly. 1992. *Indefinites*. Cambridge, MA: MIT Press.
- Diesing, Molly. 2004. The upper functional domain in Yiddish. In *Focus on Germanic typology*, ed. by Werner Abraham, 195-209. Berlin: Akademie Verlag.
- Einstein, Albert. 1950. On the generalized theory of gravitation. *Scientific American* 182:13-17.
- Erlewine, Michael Yoshitaka. 2016. Anti-locality and optimality in Kaqchikel agent focu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4:429-479.
- Espein, Samuel D. and T. Daniel Seely. 2006. *Derivations in minim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ssi Fehri, Abdelkader. 1993. *Issues in the structure of Arabic clauses and words*. Dordrecht: Kluwer.
- Gelderen, Elly van. 2004. *Grammaticalization as economy*. Amsterdam: John Benjamins.
- Gelderen, Elly van. 2011. *The linguistic cycle: Language change and the language facul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asti, Maria Teresa and Luigi Rizzi. 2002. Agreement and Tense as distinct syntactic positions: Evidence from acquisition. In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1: Functional structure in DP and IP*, ed. by Guglielmo Cinque, 167-1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e, Ken. 1990. Some remarks on agreement and incorpora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117-144.
- Halpert, Claire. 2016. Raising parameters. In *Proceedings of the 33rd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ed. by Kyeong-min Kim et al., 186-195.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 Ishii, Toru. 1997. An asymmetry in the composition of phrase structure and its consequen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Kikuchi, Akira. 1987. Comparative deletion in Japanese. Ms., Yamagata University.
- Jonas, Dianne. 1996. Clause structure and verb syntax in Scandinavi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asnik, Howard. 1999. Chains of arguments. In *Working minimalism*, ed. by Samuel D. Epstein and Norbert Hornstein, 189-215. Cambridge, MA: MIT Press.
- Lasnik, Howard. 2001. Subjects, objects, and the EPP. In *Objects and other subjects: Grammatical functions, functional categories and configurationality*, ed. by William D. Davis and Stanley Dubinsky, 103-121. Dordrecht: Kluwer.
- Lasnik, Howard. 2003. On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Studies in Modern Grammar* 31:1-23.
- Legate, Julie Anne. 2011. Under-inheritance. Paper presented at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NELS) 42. University of Toronto, November 12.

- Legate, Julie Anne. 2014. *Voice and v: Lessons from Acehnese*. Cambridge, MA: MIT Press.
- Mahajan, Anoop. 1992. The specificity condition and the CED. *Linguistic Inquiry* 12:510-516.
- May, Robert. 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McCloskey, James. 1979. *Transformational syntax and model theoretic semantics: A case study in modern Irish*. Dordrecht: Reidel.
- McCloskey, James. 2000. Quantifier float and *wh*-movement in an Irish English. *Linguistic Inquiry* 31:57-84.
- Messick, Troy. 2020. The derivation of highest subject questions and the nature of the EPP.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5(1):13, 1-12.
- Miyagawa, Shigeru. 2010. *Why agree? Why move? Unifying agreement-based and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s*. Cambridge, MA: MIT Press.
- Mizuguchi, Manabu. 2008. Derivation, minimalism, and *that*-trace effects. *English Linguistics* 25:56-92.
- Mizuguchi, Manabu. 2014. Consequences of feature inheritance for subject movement. In *Proceedings of the 31st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ed. by Robert E. Santana-LaBarge, 325-334.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Mizuguchi, Manabu. 2018. Merge, externalization and subject extraction. Paper presented at Arizona Linguistics Circle (ALC) 12. University of Arizona, October 14.
- Mizuguchi, Manabu. 2019. Ways of solving (counter-)cyclic A-movement in phase theory. *Linguistic Research* 36:325-363.
- Mizuguchi, Manabu. 2020a. Subject movement and the problem of Determinacy. In *Proceedings of the 22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SICOGG)*, ed. by Tae Sik Kim and Sae-Youn Cho, 201-211. Seoul: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 Mizuguchi, Manabu. 2020b. A-movement: Its successive cyclicality revisited. *Linguistic Research* 37:439-475.
- Mizuguchi, Manabu. 2023. MERGE, Minimal Yield, and workspace accessibility. *Linguistic Research* 40:27-65.
- Ouali, Hamid. 2008. On C-to-T ϕ -feature transfer: The nature of agreement and anti-agreement in Berber. In *Agreement restrictions*, ed. by Roberta D'Alessandro, Susann Fischer and Gunnar Hrafn Hrafnbjargarson, 159-180. Berlin: Mouton de Gruyter.
- Pesetsky, David. 2019. Exfoliation: Towards a derivational theory of clause size. Ms., MIT.
- Postal, Paul.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Rizzi, Luigi. 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Rizzi, Luigi and Ur Shlonsky. 2007. Strategies of subject extraction. In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Chomsky's minimalism and the view from syntax-semantics*, ed. by Uli Sauerland and Hans-Martin Gärtner, 115-160. Berlin: Mouton de Gruyter.
- Rouveret, Alain. 1991. Functional categories and agreement. *The Linguistic Review* 8:353-387.
- Schneider-Zioga, Patricia. 2007. Anti-agreement, anti-locality and minim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403-446.
- Stepanov, Arthur. 2007. The end of CED? Minimalism and extraction domains. *Syntax* 10:80-126.
- Takezawa, Koichi. 1987.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case-marking in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Urk, Coppe van. 2015. A uniform syntax for phrasal movement: A case study of Dinka Bor. Doctoral dissertation, MIT.

English and Korean Object Control

Huitae Kim (Keimyung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syntactic (causative) object control (OC) constructions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 are examined to present a principled explanation. Take a look at the sentences such as (1) and (2).

- (1) Jean persuades Brian to leave. (Carnie 2002)
- (2) a. apaci-nun ai-lul matang-esə nol-ke hæ-s'-ta.
 'The father forced/commanded the child to play in the yard.'
- b. apaci-nun ai-eke matang-esə nol-ke hæ-s'-ta.
 'The father told/asked the child to play in the yard.'
- c. apaci-nun ai-ka matang-esə nol-ke hæ-s'-ta.
 'The father arranged for/permitted the child to play in the yard.' (Lee 1985)

2. Previous Accounts

2.1. Equi-NP Deletion

When the matrix object NP and the embedded subject NP are co-referential, the equi-NP is considered to be deleted (Rosenbaum 1967).

- (3) a. We forced John to ignore his work.
 b. We forced John_i [_{CP} that [_{TP} John_i should ignore his work]].

As *John*, the embedded subject in (3b) is co-referential with the matrix object *John*, *John*, the equi-NP, in the complement clause in (3b) is deleted.

- (4) a. apaci-nun ai-lul_i matang-esə [_{CP} nol(-da) -ke] hæ-s'-ta.
 b. apaci-nun ai-eke_i matang-esə nol(-da) -ke hæ-s'-ta.
 c. apaci-nun [_{CP} ai-ka_i matang-esə nol(-da) -ke] hæ-s'-ta.

2.2. Ungoverned PRO

Based on the PRO Theorem, the embedded subject is regarded as PRO, which can not have its Case assigned (Chomsky 1981, 1986).

- (5) a. I myself told (persuaded, asked,...) Bill_i to leave the room.
 b. I myself told (persuaded, asked,...) Bill_i [_{CP} [_{TP} PRO_i to leave the room]].

However, according to the Visibility Condition, PRO should have its Case assigned if PRO is visible for θ -marking. Thus, PRO is treated as an exception, adding a disjunction to Visibility Condition like (6).

- (6) Visibility Condition
 A chain is visible for θ -marking if it contains a Case position (necessarily, its head) or is headed by PRO. (Chomsky 1995)

2.3. Null Case

PRO has its null Case (Martin 2001), so PRO Theorem and Visibility Condition are no longer any problems. And the asymmetry between PRO and the overt NP is eliminated.

- (7) a. John persuades Jean_i [_{CP} [_{TP} PRO_i to study English]].
 b. *John persuades Jean [_{CP} [_{TP} Bill to study English]].

However, their assumption that the infinitive T can invariably check null Case can let us predict that any infinitive can check the null Case. To solve this problem, Martin (2001) argues that [-finite] control infinitives have [+tense] feature and check the null Case. Despite that, the matter is not the [+tense] of the embedded sentence but the selectional property of the matrix predicate.

2.4. Feature Movement

Since the EPP feature motivates movement and the θ -role is considered as the morphological (formal) feature, the movement to a θ -position to check θ -role feature is applied (Hornstein 1999, 2001, 2009; Boeckx & Hornstein 2003, 2004).

- (8) a. Tom told John to try out for the choir.
 b. Tom told [_{VP} John ~~told~~ [_{CP} [_{TP} ~~John~~ to [_{VP} ~~John~~ try out for the choir]]]].
 Feature EPP Feature

However, the property of the matrix predicate and the overt raising account are challenged.

2.5. MERGE-based Control

In the workspace, the MERGE-based control is argued on the basis of the Markovian-gap of the LSCs: θ -criterion and Duality of Semantics (DoS) (Chomsky 2019a, 2019b, 2021a, 2021b).

- (9) a. Mary persuades John to leave.
 b. [Mary INFL {v {John₂ {V {John₁ to leave}}}}].

In (9), the \langle John, John \rangle is an M-gap since the application of IM to form (9a) violates DoS. However, the overt raising account applied and the CP category eliminated are questionable.

3. Alternative

For the explanation of the syntactic (causative) object control structures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 θ -role-based feature Agree licensing in the workspace is postulated with respect to the phase (Chomsky 1988, 1999, 2001, 2005, 2013, 2014) and the tripartite prolific domain (Grohmann 2003). And the Equi-NP Deletion (Rosenbaum 1967) and the θ -role-based MERGE-based Control (Chomsky 2019a, 2019b, 2021a, 2021b) are adopted and slightly changed.

- (10) a. We forced John to ignore his work.
 b. [_{IP} We forced [_{VP} John_i forced [_{CP} that [_{TP} John_i should [_{IP} John ignore his work]]].

[theme][Proposition]	[Agent]
$\theta-\Delta$	$\Omega-\Delta$ $\phi-\Delta$ $\theta-\Delta$

- (11) a. apaci-nun ai-lul/-eke/-ka matang-esə nol-ke hæ-s'-ta.
 b. apaci-nun [_{IP} [_{VP} ai-lul_i/-eke_i [_{CP} ai-ka_i matang-esə [_{IP} ai-ka_i nol-ɬa] hæ-s'-ta.

[theme][Proposition]	[Agent]
$\theta-\Delta$	$\Omega-\Delta$ $\phi-\Delta$ $\theta-\Delta$

When the matrix object NP and the embedded subject NP are co-referential, the equi-NP is deleted, together with the complementizer.

4. Closing Remarks

References

- Boeckx, C. (2008). *Bare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eckx, C. and N. Hornstein. (2003). Reply to “Control is no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4, 269–280.
- Boeckx, C. and N. Hornstein. (2004). Movement under Control. *Linguistic Inquiry* 35, 431–452.
- Carnie, A. 2002.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MA: Blackwell Publishing.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s, MIT.
-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1–44.
- Chomsky, N. (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s, MIT.
- Chomsky, N. (2005). On Phases. Ms, MIT.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4).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Ms, MIT.
- Chomsky, N. (2019a). Some Puzzling Foundational Issues: The Reading Program.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263–285.
- Chomsky, N. (2019b). UCLA Lectures. Ms
- Chomsky, N. (2021a). WCCFL Plenary 1: Genuine Explanations.
- Chomsky, N. (2021b). LSJ Lecture: Minimalism: where we are now, and where we are going. Ms.
- Chomsky, N. and H. Lasnik. (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Jacobs, J., von Stechow, A., Sternefeld, W. and T. Vennemann (eds). *I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506–569. Berlin: Walter de Gruyter.
- Grohmann, K. (2003). *Prolific Domains. On the Anti-Locality of Movement Dependencies*. Amsterdam: Benjamins.
- Hornstein, N. (1999). Movement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0, 69–96.
- Hornstein, N. (2001). *Move! A Minimalist Theory of Construal*. Oxford: Blackwell.
- Hornstein, N. (2009). *A Theory of Syntax: Minimal Operations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 (1985). Causatives in Korean and the Binding Hierarchy. *CLS* 21, 138–153.
- Martin, R. (2001). Null Case and the Distribution of PRO. *Linguistic Inquiry* 32, 141–166.
- Rosenbaum, P.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 MIT Press.

Phase-Based Analyses of Korean ECM Constructions

Han Jinhee (Changshin University)

- a. John believes *she/her to be innocent.
 b. John believes that she/*her was innocent.
- John-i [CP Mary-ka/lul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Nom/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All grammatical operations are purely local because any goal within the domain of the phase is impenetrable to further syntactic operations.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In phase α with head H,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α ,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For instance, after the operations on the CP cycle are completed, the TP, which is the domain or complement of the phase head C, will be transferred to the phonological and semantic components for processing, and TP is no longer accessible in the syntax (Chomsky, 2001: 5; Radford, 2004: 293).

English ECM constructions

- a. John [VP [believes [CP that [TP she/*her [VP be innocent]]]]]
 b. John [VP [believes [TP *she/her [VP to be innocent]]]]

Korean ECM constructions

- John-i [CP Mary-ka/lul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Nom/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Korean ECM is possible even though the embedded clause is tensed. Given tha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 finite clause boundary operates as a barrier, this could be problematic for a movement or case-marking.

-Syntactic Properties of Korean ECM Constructions

1. Korean ECM is possible even though the embedded clause is tensed. 2. ECM constructions are

possible across a CP.

John-i [CP Mary-ka/lul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Nom/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ECM is possible when the embedded clause is headed by an overt complementizer-tako.

2. ECM constructions are possible across a CP.

3. Passivization is possible on Korean ECM constructions across a CP.

- a. John-i [CP Mary-lul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 b. Maryi-nun (John-eyuyhay) [ti kyel-paykha-ess-tako] mit-e-cin-ta
 -Top -by be.innocent-Past-Comp is believed
 'Mary is believed (by John) that t was innocent.'
- a. You didn't intend [CP for you to get hurt]
 b. *You weren't intended [CP for to get hurt]

4. Korean ECM is optional on the embedded subject.

John-i [CP Mary-ka/lul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Nom/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5. ECM is possible only when the embedded verb is statelike the copula be.

John-i [Mary-ka/*lul phiano-lul chi-n-tako] mit-nun-ta
 -Nom -Nom/*Acc piano-Acc play-Pres-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plays the piano.'

-According to PIC, an element outside the phase is accessible only to the edge of the phase, the Spec of CP.

John-i [CP Maryi-lul [TP ti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 Spec/TP is an A position, but Spec/CP is an A' position.
- Chomsky (1973) states that the reason of the improper movement or agreement is that A-A' -A chains are prohibited and A' -movement cannot feed further A-movement or agreement.
- In Korean ECM constructions, the embedded subject is generated within VP and then moves to the Spec of CP, skipping the Spec of TP.
-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Subjects originate internally within VP.
- Huang (1993: 130)

[CP sheii [TP ni xiang-zhidao [CP hui-bu-hui [TP t2i T [VP t1i chi dao]]]]]?
 who you wonder will-not-will late arrive

Both traces must be antecedent-governed, but t2 is not because of the intervening operator in the embedded CP. t2 is an empty expletive that does not have any function at LF and thus it can be deleted.

- Rizzi(1990) also states that the subject trace is in Spec of TP.
- In Spec of TP is the subject trace or an empty expletive, and thus it is important that Spec of TP is not empty but filled with one of them.
- The deep structure of ECMed construction in Korean is the same as the non-ECMedone.

John-i [CP [TP [VP Mary-ka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Nom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John-i [CP [VP Mary-lul kyel-paykha] [TP [VP Mary kyel-paykha]-ess]-tako] mit-nun-ta.
 -Nom -Acc be.innocent-Past-Comp believe
 'John believes that Mary was innocent.'

Works Cited

- Bhatt, R., & Yoon, J. "On the composition of COMP and parameters of V2." In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10 (1991): 41-52.
- Bošković, Željko. The Syntax of Nonfinite Complement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97.
- Bošković, Željko. 2017. "On the locality and motivation of Move and Agree: An even more minimalist theory." *Linguistic Inquiry* 38 (2017): 589-644.
- Bruening, B. Raising to Object and Proper Movement. MS. University of Delaware. 2001.
- Chomsky, N.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S. Anderson and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232-286. 1973.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Chomsky, N.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1986
- Chomsky, N.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1998) (also

- published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m in Honor of Howard Lasnik*. MIT Press, Cambridge, Mass. 2000).
- Chomsky, N.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1999) (also published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MIT Press, Cambridge, Mass. 2001).
- Chomsky, N. "Beyond Explanatory Adequacy", unpublished manuscript, MIT. 2001.
- Chomsky, N. "On phases". In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eds. Freiden, R., C.P.Otero, and M.L. Zubizarreta. Cambridge, MA.:MIT Press. 2008.
- Fukui, N.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s*. Ph. 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6.
- Huang, C-T. J. "Reconstruction and the Structure of VP: Some Theoretical Consequences." paper presented at NELS 21 (1990).
- Huang, C-T. J. "Reconstruction and the Structure of VP: Some Theoretical Consequences." *Linguistic inquiry* 24.1 (1993): 103-138.
- Kim, Y. H. "Overt Case and covert Case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8.1 (1998): 177-237.
- Kim, D. S., & Kim, Y. H. "Korean ECM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2003): 47-77.
- Lee, K. H. *A Study on the Case Marker 'ul/lul' in Korean*. Top Press: Seoul. 1988
- Lee, J. S. *Case Alternation in Korean: Case Minimal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992.
- Postal, P.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1974.
- Radford, A.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Rizzi, L.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Cambridge. 1990.
- Schütze, C. T. "On Korean "Case Stacking": The Varied Functions of the Particles ka and lul." *The Linguistic Review* 18 (2001): 193-232.
- Uriagereka, J. "Multiple spell-out." In *Working Minimalism*, eds., Samuel D. Epstein and Norbert Hornstein, 251-282, Cambridge, Mass.: MIT Press. 1999.
- Yoon, J. M. *The syntax of A-chains: A typological study of ECM and scrambling*.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1.
- Yoon, J. H. Raising of major arguments in Korean and Japanes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5 (2007): 615-653.

‘Mwel’: Grammatic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rprise–disapproval” constructions in Korean

Park, Myung–Kwa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mwe-l ‘what-like-why’ questions in Korean. As a starting point, we collect mwe-l question sentences from 『Wurimal Saem (Our Speech Spring)』. In examining them, we note that on top of its use as an interjection, it can also be used as a questioning word, corresponding to what in English but interpreted as why. We argue that it has developed from mwe-(lo (inhay(se))) ‘because of what’ where -(u)lo or (u)lo inhay(se) is a particle expressing reason or cause. Crucially, the lateral -ㄷ is inserted between mwe and the particle for the sake of phonetic articulation. We move on to note that in Korean both mwe-l and mwue/mwe construct rhetorical-like surprise/disapproval questions. Following Caponigro and Sprouse’s (2007) and Celle’s (2018) pragmatic characterization of rhetorical-like surprise/disapproval questions in general, we show these constructions at issue are not only interpreted as information-seeking ordinary questions but also as expressing a speaker’s surprise & disapproval because of his/her expectation conflicting with the described state-of-affairs.

[Keywords: mwe-l question, what-like-why, rhetorical question, unexpectedness/surprise, interjection]

1. 서론

Ochi(1999)은 일본어에서 이유 의문 부사어 naze ‘why’ 대신에 (1)에서처럼 외견상 명사구 의문사에 대격 표지(Accusative Case marker)가 붙는 형태의 nani-o ‘what-Acc’가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nani 대신에 일반 명사구 형태의 이유 부사어에 대격이 붙는 것은 (2)에서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 (1) John-wa naze/nani-o awateteira no?!
 John-Top why/what-Acc panicking Q
 ‘Why is John panicking’ (Japanese)
- (2) *John-wa asita-no siken-o awateteira
 John-Top tomorrow-Gen exam-Acc panicking
 ‘John panicking for/because of tomorrow’s exam.’ Ochi (1999)

Ochi(1999)은 의문사 전치(wh-fronting)가 없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절 외곽으로 이동하는 언어들에서도 이유 의문 부사어 대신에 외견상 이유 의문 명사구가 나타날 수 있다.

(3)은 러시아어와 현대 그리스어에서의 사례를 보여준다.

- (3) a. Počemu/Čto ty smejoshsja?! (Russian)
 why /what you laugh
 ‘Why do you laugh?’
 b. Giati/Ti trehi esti aftos?! (Modern Greek)
 why/what runs so he
 ‘Why is he running like this?’ Kurafuji (1996a, b; 1997)

일본어와 유사하게, 의문사 전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국어의 경우, Ochi(1999)는 이유 의문 부사어와 이유 의문 명사구 둘 다 허용되지만, 둘 사이에는 동사에 선행하는지 혹은 후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어순 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주목할 점은 일본어와 동일하게 이유 비의문 명사구가 나타날 때, 동사에 후행하더라도 (4b)에서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점이다.

- (4) a. John weisheme pao/ pao sheme?!
 John why run/ run what
 ‘Why is John running?’
 b. *John pao jiankang / zhege yuanying.
 John run health / this reason
 ‘John is running for health/this reason (Chinese) Ochi (1999)

Ochi(1999)가 보고하는 것처럼 이유 의문 부사어 대신에 이유 의문 명사구가 많은 언어에서 출현하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다른 언어, 특히 우리말과 언어 계통학적으로 유사한 일본어의 이유 의문 명사구 nani-o에 상응하는 우리말 표현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우리말샘』 사전에서 인용한 다음의 예문에서 출현하는 ‘뭘’이 일본어 nani-o에 상응하는 표현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 (5) 소주를 가지고 오라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건가?
 (6) 빨리 오질 않고 뭘 그리 꼼지락거리나?

본 논문은 (5)-(6)에서 ‘뭘’이 다른 언어들의 상응 표현과 유사하게 이유 의문 명사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면서, 첫째 ‘뭘’의 통사-형태적 정체성을 밝히고, 둘째 ‘뭘’을 포함하는 구문이 말하는 화자의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을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이 구문의 고유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의 의미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설명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 두 소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온라인 『우리말샘』 사전이 제시하는 ‘뭘’을 포함하는 용례들을 통하여, ‘뭘’의 쓰임의 분포적 사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뭘’ 용법에 관해 분류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뭘’은 ‘무어’ 그리고 이의 준말 ‘뭉’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때, ‘뭘’의 받침 자음 ‘-ㄹ’의 문법적 정체성을 밝히고, ‘뭘’과 ‘무어’/‘뭉’의 쓰임 상의 공통성 및 유사성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뭬’의 의미해석 과정의 양상 살펴보면, ‘뭬’의 의문사로서의 일차적 기능과 함께, 화용부에서 ‘뭬’-구문이 이차적 기능으로서 표현하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5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뭬’의 분포

‘뭬’의 쓰임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어-ㄴ’의 준말로 다른 하나는 감탄사로 “말하는 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칭찬하거나 감사할 때에 그것이 대단치 않음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 해할 자리에 쓴다”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감탄사 용법은 다음과 같이 대화 맥락에서 사용되는 두 용례를 보여준다.

- (7) 가. “이렇게 와 주어서 고마워.” “뭬, 당연히 와야지.”
나. “노래를 참 잘 부르던데.” “뭬, 박자도 잘못 맞추었는데.”

한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계된 온라인 『우리말샘』 사전에서는 227개의 용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 용례들에서는 ‘무엇’과 대격 ‘-을’ 구성의 ‘무엇을’의 준말 ‘뭬’의 용법이 대부분이다. 또한 (7)에서의 ‘뭬’과 같은 의미의 감탄사 용법이 5회 그리고 (8)처럼 이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뭬요’의 형태가 3회 관찰되고 있다.

- (8) 가. “수가 대단합니다.” “뭬요, 나아 아직 좋장기인데요.”
나. “수고 많았네.” “뭬요, 제가 한 것 있나요.”

또한 이 감탄사 용법이 다음 (9)에서처럼 문두가 아닌 문미에 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유형의 용례가 4회 제시되고 있다.

- (9) 가. “아니, 뭬. 그저 보, 보는 거지.”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어물쩍 대답했다.
나. 일부 누리꾼들은 “어릴 적부터 불량 식품 먹고 자랐는데 뭬.” 등으로 자포자기적인 발언을 해 누리꾼들을 웃게 만들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례는 이 감탄사 용법이 아니라 (5)-(6)에서 보았던 의문문에 출현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다. 이 용법의 사례가 6회 관찰되며, (5)-(6)에 추가하여 다음에 두 사례를 제시한다.

- (10) 가. 한잠 푹 주무시고 나면 우리가 어련히 당선 소식을 가지고 갈 건데 뭬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나. 주인공이 별것 아닌 일에 올면 관객은 ‘뭬 저것 가지고 올지?’라고 생각한다.

‘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 & (6) 그리고 (10가-나)의 의문문이 정보 묻기

(information-seeking)의 소위 설명의문문인지, 아니면 ‘예’-‘아니오’의 응답을 묻는 판정/가부의문문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뭘’은 ‘뭘로/뭘로 인하여’ 혹은 ‘무어를 하리’에서 축약/생략을 통해 문법화된 이유 의문 부사어 혹은 목적(purposive) 의문 부사어이며, 따라서 (5) & (6) 그리고 (10가-나)에서 ‘뭘’을 포함하는 절은 직접 혹은 간접 설명의문문이라고 본다.

(5) & (6) 그리고 (10)의 ‘뭘’과 유사하게 의문문에서 나타나지만, 직시적 방법 부사(deictic manner adverb) 앞에서 나타나는 용례들이 8회 출현한다.

- (11) 가. 말다툼 좀 했다고 둘이 뭘 그러코롬 설뚝뭇뚝이 서 있냐?
나. 그만한 일로 뭘 그렇게 화를 내니?

한국어에서 의문사들이 존재양화사로서 불확정 표현(indeterminate expression)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뭘’이 다음에서처럼 평서문, 혹은 감탄문에서 출현할 수 있으며, 총 8회가 관찰된다.

- (12) 가. 나 같은 친구 두면 좋지 뭘 그래.
나. 길상아, 이놈!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다음으로 2가지 용법이 추가로 관찰된다. 하나는 ‘무어-이-르’의 축약 형태로 나타나는 다음 (13)과 같은 용례들이다. 이 용법은 8회 출현하며, 의문 표지 요소 ‘-르까’ 앞에서 의문 표지 요소의 ‘-르’를 포함하여 계사가 의문사 ‘무어’와 축약되어 ‘뭘’이 나타난다.

- (13) 가. 이유는 뭘까?
나. 스리디를 즐감하는 방법은 뭘까?

또 다른 용법 하나는 (도)구격 조사 ‘-(으)로’ 앞에서 출현하는 ‘뭘’이다. 이 용법은 1회 출현하며, ‘무어’의 축약 형태인 ‘뭘’이 (도)구격 조사 앞에서 “르 첨가”가 적용되어 “뭘”의 형태로 나온다 (“르 첨가”에 관해서는 구분관(2015)을 참고).

- (14) 대관절 올 받도지 벼 두 섬 반은 뭘로 해내야 좋을지.

아래에서는 (10)~(12)의 사용된 ‘뭘’의 용법에 초점을 둔 예정이며, (7)~(9)에서 사용되는 감탄사/간투사 ‘뭘’의 용법에 대해서는 (10)~(12)에서 사용된 ‘뭘’의 의미해석적 양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의문사로 사용되던 ‘뭘’이 감탄사/간투사로 문법화되었는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3. ‘뭘’의 통사형태적 정체성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10) & (11)에서처럼 의문문에서의 ‘뭘’과 (12)에서처럼 평서문 혹은 감탄문

에서의 '뭘'에 집중한다. '뭘'이 '무어'의 준말 '뭐'와 'ㄹ'의 결합형이라고 할 때, '무얼'이나 '뭘'의 형태에서 'ㄹ'이 붙지 않은 '무어'나 '뭐'도 '뭘'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은 '무어'나 '뭐'의 쓰임을 (15)~(19)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5) “놀랐을 때 내는 소리”:
가. “그가 합격을 했대.” “무어/뭐, 그게 정말이냐?”
나. 무어/뭐, 형님이 오셨다고?
- (16) “친구나 아랫사람이 불러 대답하거나 맞서 대응해야 할 때, “왜 그러느냐”는 뜻으로 하는 말”:
가. 무어/?뭐? 왜 자꾸만 불러?
나. 무어/?뭐?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테요?
- (17)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상대의 생각을 가볍게 반박하거나 새롭게 일깨워 주는 뜻으로 쓰는 말”:
가. 무어/뭐, 그의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아?
나. 미인이라고 무어/뭐, 다 박명인 줄 아니?
- (18)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반말로 어리광을 피울 때, 말끝에 붙이는 말”:
가. “심부름 좀 해 줄래?” “맛있는 걸 사 줘야지, 무어/뭐.”
나. 내가 책을 빌려 달라고 할 땐 안 빌려주고 무어/뭐, 이제 와서 내 책을 빌려 달라고?
- (19) “어떤 사실을 체념하여 받아들여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
가.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무어, 미안해할 것 없어.
나. 그가 하는 일이란 게 다 그렇지, 무어/뭐.
다. 서울 인심이 그렇지, 무어/뭐. 시골 인심 같겠니?

‘무어’나 ‘뭐’의 (15)와 (19)에서의 간투사,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용법은 ‘뭘’의 (7)과 (9)에서의 용법에 상응하며, (17)와 (18)에서의 ‘무어’나 ‘뭐’는 이 용법이 확장된 형태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6)에서 ‘무어’나 ‘뭐’는 단독으로 의문문을 구성하며 문어적으로 “왜 그러느냐”를 뜻하며, 실제 해석은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 혹은 놀람/불만 의문문(surprise/disapproval)으로 주절 동사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르지 말라” 혹은 “노려보지 말라”의 부정(명령)문의 성격을 갖으면서 ‘무어’나 ‘뭐’가 실제 사전에서는 감탄사/간투사로 간주된다.⁶¹⁾

61) ‘무어’나 ‘뭐’의 이러한 용법은 영어의 ‘why’의 용법과 유사하다. 다음은 감탄사/간투사 ‘why’가 온라인 영한사전(<https://dic.daum.net/index.do?dic=eng>)에서의 뜻풀이 및 용례, 한국어 대응 표현 그리고 한국어 번역 문장이다. 현대영어에서 ‘why’는 감탄사/간투사로 코마 앞에 단독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말 (16)의 ‘무어’나 ‘뭐’처럼 수사의문문 혹은 놀람/불만의문문으로 해석되어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놀람, 예기치 않음, 항의, 믿을 수 없음, 반대, 반박, 혹은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기 이전의 숙고 등을 표현하다.

(i) (미)(의와-놀라움을 나타내어) ‘아니’, ‘이런’, ‘어머’:

(16)에서 ‘무어’나 ‘뭐’가 정보 문기의 의문사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10)~(12)의 문장에서 ‘뭘’ 대신에 ‘무어’나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10)~(12)에 ‘뭘’과 함께 ‘무어’나 ‘뭐’를 대신 넣을 때 다음 문장들 (20)~(21)은 문법성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하다.

- (20) 가. 한잠 폭 주무시고 나면 우리가 어렵히 당신 소식을 가지고 갈 건데 뭘/무어/뭐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나. 주인공이 별것 아닌 일에 올면 관객은 뭘/무어/뭐 저것 가지고 올지?라고 생각한다.
- (21) 가. 말다툼 좀 했다고 둘이 뭘/무어/뭐 그러코롬 설뚝땃뚝이 서 있냐?
 나. 그만한 일로 뭘/무어/뭐 그렇게 화를 내니?
- (22) 가. 나 같은 친구 두면 좋지 뭘/무어/뭐 그래.
 나. 길상아, 이놈! 뭘/무어/뭐 꾸물거리고 있느냐!

이 문장들에서 ‘뭘’/‘무엇’/‘뭐’가 의문사로 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주절 동사 ‘모르-’가 선택하는 간접의문절에서 ‘뭘’/‘무엇’/‘뭐’가 정보 문기 의문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다음 (20)과 (21)에서 간접의문절은 실제 설명의문절로 해석될 수 있으며, ‘뭘’/‘무엇’/‘뭐’이 근절(root clause)에 쓰여야 하는 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3) 가. 우리가 여기서 뭘/무어/뭐 고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 주인공이 뭘/무어/뭐 저것 가지고 우는지 (나는) 모르겠다.
- (24) 가. 둘이 뭘/무어/뭐 그러코롬 설뚝땃뚝이 서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 그만한 일로 뭘/무어/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나는) 모르겠다.

‘무엇’/‘뭐’이 ‘뭘’과 서로 교체되어 사용된다고 할 때, ‘뭘’의 받침에 나오는 ‘-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르’이 ‘무어’나 ‘이’의 준말 ‘뭐’가 이유/원인을 의미하는 복합 후치사 ‘-(으)로 인해’와 결합하면서 첨가되는 받침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원인/이유를 의미하는 복합 후치

Why, what are you doing here?
 “아니,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지?”

- (ii) (어리석은 질문 등에 항의의 뜻을 나타내어) ‘물론’, ‘뭐’:
 Why, a child could answer that question!
 “뭐야, 어린애라도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어!”
- (iii) (반박·반대의 뜻을 나타내어)
 Why, I am wrong?
 “뭐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 (iv) (속고·반성을 위한 휴지를 나타내어) ‘저’, ‘글세’:
 “Is this answer correct?” “Why, yes, I guess so.” 듣기
 “이 해답은 맞습니까?” “글세, 맞아, 아마 그럴 거야.”
- (v) (조건문의 귀결절의 도입부로서) ‘그러면’, ‘그때에는’.

사 ‘-(으)로 인해’는 ‘인해’가 탈락하여 ‘-로’가 홀로 사용될 수 있다.

- (25) 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나. 천국은 뭘로 (인해) 행복한 곳인지는 모르더라.

- (26) 가. 다리 통제로 (인해) 출근길 교통이 매우 혼잡하겠군요.
나. 사실 아이가 뭘로 (인해) 속상한 건지 모르겠다.

물론 이유격 혹은 원인격 조사 ‘-로’가 홀로 사용될 수 있는 데 다음에서 관찰된다.

- (27) 가. 이번 겨울에는 감기로 고생했다.
나. 폭우로 농작물이 떠내려갔다.
다. 이 고장은 사과로 유명하다.

앞서 언급한 ‘ㄹ’-첨가는 생산적 규칙으로 중세 국어에서 (28)와 같이 단음절로 된 대명사 ‘나, 너, 누, 이, 그, 저’ 등이 조사 ‘-로’나 ‘-와’를 취하면 조음상 ‘ㄹ’이 첨가되어 ‘날로, 날와, 널로, 널와, 놀로, 놀와, 일로, 글로, 절로’ 등으로 된다(구본관, 2015).

- (28) 가. 날로 - 나 + ㄹ + 로
나. 널로 - 너 + ㄹ + 로
다. 놀로 - 누 + ㄹ + 로
라. 일로 - 이 + ㄹ + 로
마. 그로 - 그 + ㄹ + 로
바. 저로 - 저 + ㄹ + 로

이와 동일하게 ‘뭘’와 ‘-로’가 결합하면서 ‘ㄹ’-첨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뭘’은 다음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문법화의 한 기제인 생략 혹은 탈락을 통해 보다 더 단순화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 (29) 뭘로 인해 ==> 뭘로 ==> 뭘 => 뭘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문법화를 통해 보다 더 단순화된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더 단순한 형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0)의 문장에서 조사 ‘-로’ 앞의 체언을 ‘뭘로’나 더 단순한 형태로 교체하는 경우 다음처럼 문법성이 일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조사의 생략/탈락이 소위 생략의 복원성 조건(the recoverability condition on ellipsis)에 적용을 받아서, 조사가 탈락되더라도 문맥을 통해 해당 조사의 기능을 대신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더 단순한 형태의 사용이 가능하다.

- (30) 가. 이번 겨울에 뭘로/?뭘/?뭘 고생했니?
나. 뭘로/*뭘/*뭘 농작물이 떠내려갔니?
다. 이 고장은 뭘로/?뭘/뭘 유명하니?

다음은 (20나)와 (21가)를 (31)과 (32)로 반복하며, ‘뭘’ 그리고 ‘무어’와 ‘뭘’은 문법성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체하여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세 형태 대신에 대격의 형태는 어색하며, 이 같은 사실은 ‘뭘’의 받침 ‘-르’이 대격 조사의 일부라기보다는 ‘뭘’와 이유/원인격 조사 ‘-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조음상 첨가된 자음임을 보여준다.

- (31) 주인공이 뭘/무어/뭘/*뭘를 저것 가지고 우는지 (나는) 모르겠다.
- (32) 둘이 뭘/무어/뭘/*뭘를 그러코롬 설뚝뭇뚝이 서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4. ‘뭘’ 놀람/불만의문문의 의미해석

다시 우리의 주요 관심 구문인 (20)~(22)를 (33)~(35)로 아래에 다시 반복한다.

- (33) 가. 한잠 푹 주무시고 나면 우리가 어렵히 당선 소식을 가지고 갈 건데 뭘/무어/뭘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나. 주인공이 별것 아닌 일에 올면 관객은 뭘/무어/뭘 저것 가지고 올지?’라고 생각한다.
- (34) 가. 말다툼 좀 했다고 둘이 뭘/무어/뭘 그러코롬 설뚝뭇뚝이 서 있냐?
나. 그만한 일로 뭘/무어/뭘 그렇게 화를 내니?
- (35) 가. 나 같은 친구 두면 좋지 뭘/무어/뭘 그래.
나. 길상아, 이놈! 뭘/무어/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33)~(34)는 판정의문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되며, ‘뭘’, ‘무어’, ‘뭘’은 “뭘로 (인해)” 혹은 ‘무어’/‘뭘’에 대한 (16)의 뜻풀이와 연관된 “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33)과 (34)에서의 ‘뭘’/‘무어’/‘뭘’은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이 화자가 판단하기에 예기치 않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이에 대한 화자의 동의하지 않음, 반대, 반박, 불만, 꾸지람, 실망, 언짢음, 화 등 화자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표현한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35)와 같이 ‘뭘’, ‘무어’, ‘뭘’을 포함하는 문장이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 혹은 감탄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말 ‘뭘’/‘무어’/‘뭘’ 구문의 이러한 해석적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말 구문에 대응하는 범어적 현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문은 Munaro and Obenauer(1999)가 연구한 이태리어 방언 Bellunese에 속하는 Pagotto의 (36)의 구문 그리고 독일어 (37)의 구문이다.

- (36) Cossa zighe-tu?! [Pagotto: a sub-dialect of Bellunese]
what shout-CL
‘Why are you shouting?!’ (Munaro and Obenauer 1999: 191)

- (37) Was lacht der denn so blod?! [German]
 what laughs he PART so stupidly
 'Why is he laughing so stupidly?!' (Munaro and Obenauer 1999: 238)

이 두 구문에서 의문사는 영어 주석으로는 'what'에 해당하며, 실제 의미는 'why'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말 '뭘'/'뭐'/'무어'와 유사하다. Munaro and Obenauer(1999)는 우리말 상응구문처럼, (36)과 (37)은 설명의문문의 통사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 화행(speech act)에서는 우리말에서처럼 (36)과 (37)에서 기술하는 상황이 화자에게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평가되며(evaluated) 이에 따라 화자는 놀람을 표현하거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하여 부동의(disapproval)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고하면서, 이 구문을 놀람/부동의(surprisal/disapproval) 구문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Munaro and Obenauer(1999)는 (36)과 (37)이 감탄문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에서처럼 이 구문의 "why"로 해석되는 'cossa/was'은 통사적으로 감탄문보다는 계층적으로 낮은 하지만 의문문보다는 계층적으로 높은 (화자가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state of affairs)를 평가하는) Evaluation CP의 Spec에서 위치하며 해석부에 넘겨진다고 제안한다.

- (38) [ExclamationCP [EvaluationCP [InterrogationForceP]]]

유럽어들에 상응하여 다음의 중국어 구문, 즉 위에 살펴본 (4a)에서 살펴본 동사 다음에 출현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sheme 'what'의 문장을 다음에 반복한다.

- (39) John pao sheme?!
 John run what
 'What the heck is John running for?'

Tsai(2011, 2021)는 이 구문을 '투덜대기(whining)' 구문으로 명명하며, 이 구문이 주동사(즉 pao 'run')가 하위 동사구에서 상위동사구로 초점(focus)을 받기 위해 이동하며 'sheme'는 하위 동사구의 Spec에 위치한다고 제안한다.

- (40) John T [vP pao [VP sheme t]]
 ↑ _____|

이와 같은 주동사의 이동은 중국어에서 경우에 따라 하위동사의 흔적도 실현되어 다음과 같이 소위 동사(구)-복사(verb (phrase) copying)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 (41) John pao sheme pao?!
 'What the heck is John running for?'

이 구문은 우리말에서 다음에서처럼 동일한 형태가 구성될 수 있다.⁶²⁾

(42) 철이가 뛰기는 뭘/뭐/무어 뛰어?!

Pagotto,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의 상응 구문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이동하지 않는 언어에서 'sheme'는 기저 생성의 위치, Pagotto와 독일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이동하는 언어에서 'cossa/was'가 해석부로 보내지기 이전에 표층 구조에서 이동한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뭘'/'무어'/'뭐'를 고려한다면, 우리말에서도 '뭘'이 조사의 생략/탈락 이전의 형태가 '뭘로 인해'라고 한다면, '뭘로 인해'는 중국어의 'sheme'처럼 동사구 외곽에서 기저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말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이라는 점에서 '뭘'/'무어'/'뭐'는 중국어의 'sheme'가 주동사 다음에 고정된 어순으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어순상 보다 자유롭게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뭘'/'무어'/'뭐'의 의미-화용부에서의 의미해석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뭘'/'무어'/'뭐'가 실현되는 문장은 의문문, 특히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수사적의문문(rhetorical question)/놀람-불만의문문을 구성하며, 이 수사적의문문/놀람-불만의문문이 화용부에서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의 해석 과정에서 화자의 놀람, 반대, 언짢음, 꾸지람, 실망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해석된다.⁶³⁾

일반적으로 수사적의문문을 생각할 때, 수사적의문문은 영어의 문장 'Who cares about you?'처럼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의문사 'who'가 값이 없어 "Nobody cares about you"로 해석되면서 문장의 극성이 전환(polarity reversal)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이해한다(Han, 2002). 그러나 Caponigro and Sprouse(2007)는 수사적의문문도 의미론적으로 일반의문문과 동일하며, 수사적의문문의 극성 전환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Biezma and Rawlins(2017)를 참조). 이와 같은 분석은 앞서 (23)~(24) -- 아래 반복한 -- 에서 살펴본 것처럼 '뭘'/'무어'/'뭐'가 일반의문사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뭘'/'무어'/'뭐'를 포함하는 절이 항상 부정의 극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Caponigro and Sprouse(2007)의 분석이 본 논문에서의 관심 구문에 대한 적절한 분석으로 보여진다.

- (23) 가. 우리가 여기서 뭘/무어/뭐 고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 주인공이 뭘/무어/뭐 저것 가지고 우는지 (나는) 모르겠다.
- (24) 가. 둘이 뭘/무어/뭐 그러코롬 설뚝뻘뻘이 서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 그만한 일로 뭘/무어/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나는) 모르겠다.

62) 인터넷 상에서 찾은 추가 예문은 다음과 같다.

- (i) 가. 삼가하기는 뭘 삼가해?!
나. 안 하기는 뭘 안 해?!
다. 야, 이놈아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라. 번역 일을 하기는 뭘 더 해!
마. 죄송하기는 무어 죄송해?

63) 여기에서는 Munaro and Obenauer(1999)의 놀람-부동의(surprisal/disapprov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Tsai(2011, 2021)의 투덜대기(whining)의 용어를 차용하여 우리말의 '뭘' 구문을 놀람-불만(surprisal/disapproval) 구문으로 명명한다.

‘뭘’/‘무어’/‘뭣’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이 표현하는 화자의 놀람, 반대, 언짢음, 꾸지람, 실망 등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⁶⁴⁾ Caponigro and Sprouse(2007)은 일반어문문과 수사어문문이 의미론적으로 동일하지만, 화용론적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일반어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자가 질문의 답을 모르는 경우(즉, 질문의 답이 화청자의 공통 배경(common ground)에 들어 있지 않음)이며,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은 화청자 둘 다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 경우 혹은 화청자가 질문-응답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은 질문의 응답이 자명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문문의 정보 묻기(information seeking)가 우선 순위의 화행이 되지 않으면서,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은 화청자 사이의 확신 집합(commitment set)을 갱신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화자는 의문사를 제외한 절의 명제적 내용을 인지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데, 이 절의 명제적 내용이 화자가 예상치 않은(unexpected) 신정보(new information)의 사태이다. 다음으로, 화자는 의문문을 통해 청자에게 확신 집합을 갱신하라고 요청한다. 이 때, 화자에게 문장의 명제적 내용에 대해 갱신하도록 요청하는 이 의문문의 질문 과정에서 화자의 기대와 이 의문문에서 기술하는 사태 혹은 이에 대한 청자의 믿음과 상반되면서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은 놀람을 표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사어문문/놀람-불만의문문이 표현하는 화행의 속성상 화자의 기대와 이 의문문에서 기술되는 사태는 상반되고 이 상반됨으로 인해 놀람이 표현되며, 다음으로 청자는 확신 집합을 갱신하게 된다. 화자의 놀람을 유발하는 기대 혹은 예상의 임계점을 훨씬 넘게 될 때, 종종 화자는 사태 발생에 대해 믿을/동의할 수 없음 혹은 불만/언짢음/화념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며, 동시에 화자는 청자에게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에 대한 청자의 믿음 및 확신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뭘’/‘무어’/‘뭣’이 의문사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화용부에서의 간접화행의 의미해석 과정에서 화자의 놀람 그리고 이에 수반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의미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간접화행의 의미해석이 전체 문장의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뭘’/‘무어’/‘뭣’을 포함한 문장이 (35가)처럼 평서문 그리고 (35나)처럼 감탄문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이 구문에서 화자의 놀람 그리고 이에 수반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 ‘뭘’/‘무어’/‘뭣’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7)~(9)처럼 ‘뭘’/‘무어’/‘뭣’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놀람, 반박/부정, 체념, 추궁 등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간투사로 쓰인다는 것은 당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은 문법적 성격이 다소 모호한 ‘뭘’의 문법적 정체성 그리고 ‘뭘’을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해석을 탐구해 보았다. 먼저 ‘뭘’은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겸양을 표현하는 감탄사/간투사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범언어적으로 “why-like-what” 의문문을 구성하는 우리말 대응 표현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말샘』에서 나타나는 ‘뭘’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 등을

64) Cruschina and Bianchi(2022)은 수사어문문과 놀람-불만의문문은 화용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두 구문은 세 부적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즉, 두 구분은 일반적 의문문의 정보 묻기의 기능을 화행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수사어문문은 응답의 자명성이 특징이라면, 놀람-불만의문문은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에 대하여 화자가 믿을 수 없다는 놀람 그리고 불만의 감정 반응을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시하였다. 즉, 이 문장들에서 ‘뭘’은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의문사로, 하지만 ‘why’로 해석된다. ‘뭘’은 ‘무어’ 그리고 ‘뭘’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뭘’의 받침 자음 ‘-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뭘’은 의문대명사 ‘무어/뭘’와 이유/이유 (복합) 조사 ‘-(으)로(인해(서))’의 결합으로, 이후 조사 탈락/생략문법화에 의해 현재의 형태가 나왔다고 제안하면서, ‘뭘’의 받침 자음 ‘-ㄹ’은 조음상의 이유로 ‘무어/뭘’와 조사 사이에 (중세 국어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간음 ‘-ㄹ’ 첨가에 연유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뭘’이 갖는 의문사로서의 일차적 기능은 이유/원인격 조사와 결합된 의문대명사 ‘무어/뭘’에 기인한다. ‘뭘’은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은 갖는 바, ‘뭘’ 구문이 감탄문과 유사한 그렇지만 감탄문과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뭘’ 구문의 구문-특정적인 성격은 이 구문이 Munaro and Obenauer(1999)이 말하는 평가구문(evaluation constructio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뭘’은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 사건이 화자가 예상하지 않는 사태임을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화자의 놀람, 그리고 놀람의 강도에 따라 화자의 불만, 꾸짖음, 언짢음, 화 등을 표현하게 된다.

참고문헌

- 구본관. 2015.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미출판 원고.
- Agnès Celle. 2018. Questions as indirect speech acts in surprise contexts. In *Tense, Aspect, Modality, and Evidentiality: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p. 211–236, 2018. .hal-01774821.
- Biezma, Maria, and Kyle Rawlins. 2017. Rhetorical questions: Severing asking from questioning.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7: 302–322.
- Caponigro, Ivano, and Jon Sprouse. 2007. Rhetorical questions as questions.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11: 121–133.
- Cruschina, Silvio, and Valentina Bianchi. 2022. Variation at the Syntax.Pragmatics Interface: Discourse Particles in Questions. *Languages* 7: 183. <https://doi.org/10.3390/languages7030183>.
- Han, Chung-Hye. 2002. Interpreting interrogatives as rhetorical questions. *Lingua* 112: 201–229.
- Munaro, Nicola, and Hans-Georg Obenauer. 1999. On underspecified wh-elements in pseudointerrogatives. *University of Venic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9(1–2): 181.253.
- Tsai, W.-T. Dylan. 2011. ‘Cong ‘Zhe Hua Cong He Shuo Qi’ Shuo Qi [Speaking from ‘where does this come from?’]. *Yuyanxue Luncong* 43: 194–208.
- Tsai, Wei-Tien Dylan. 2021. On applicative why-questions in Chinese. In *Why is ‘Why’ Unique? Its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ed. Gabriela Soare, 197–218. Berlin: De Gruyter Mouton.

참고사전

-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우리말샘』, <https://opendic.korean.go.kr/main>

부록

[I] 의문문의 '뭘':

- 가. 소주를 가지고 오라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건가?
나. 어서 가서 잡아들이지 못하고 뭘 꾸물대고 있는 것이냐?
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잠 폭 주무시고 나면 우리가 어렵히 당선 소식을 가지고 갈 건데 뭘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라. 주인공이 별것 아닌 일에 울면 관객은 '뭘 저것 가지고 울지?'라고 생각한다. 흐느껴야 할 마. 순간에 통곡을 해 버리면 오바한다고 느낀다.
바. 실수로 저런 걸 가지고 뭘 야단치고 그래?
사. "뭘 근심하는 척하느냐. 박차 버리고 새로운 앞날을 향해 뛰어가는 거야. 그것이 너의 주특기가 아니었나 말이야."라고 황은 중얼거렸다.

[II] 의문문의 '뭘' 그리고 직시 지시 부사/형용사:

- 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
나. 의병질까지 하신 아저씨가 말 몇 마디 가지고 뭘 그리 별별 겁을 냅니까.
다. 말다툼 좀 했다고 둘이 뭘 그러코롬 설뚝뭉뚝이 서 있냐?
라. 그만한 일로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마. 어머니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외가댁까지 두고두고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바. 웬만하면 참지 그만한 일로 뭘 그리 절내는가?
사. 빨리 오질 않고 뭘 그리 곰지락거리니?
아. 뭘 그렇게 혼자 구시렁거리고 있냐?
자. 뭘 그렇게 눈을 땡그랗게 하고 쳐다보는 것이냐?

[III] 평서문/감탄문의 '뭘':

- "뭘 어떻게 돼요, 되긴!" 하고 눈을 지릅뜨는 그 대답은 썩 통명스럽고 격세다.
나 같은 친구 두면 좋지 뭘 그래.
길상아, 이놈!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급히 마담께 가서 여쭙어라!
아이코, 뭘 이런 것까지 가져오세요.
뭘 그렇게 움질거리나. 이번 기회에 아주 계약을 하지.
이 사람아, 빨리 떠나자니까.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아따, 이 사람아, 뭘 그리 꾸물거리나.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쫄그렁쫄그렁 까다롭게 구나.

“사건의 참여개체화” 환유로서의 한국어 내핵관계절

류 병 래 (충남대학교)

1. Introduction

이 논문의 대상은 (1a)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형절과 ‘것’이 결합한 구문이다. 이 구문이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1a)를 (1b)처럼 일반적으로 더 친숙한 관계절인 외핵관계절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문 (1b)에서는 RC로 표기된 관형절 외부에 피벗 명사구가 등장하는 반면에 (1a)에서는 관형절 내부에 피벗 명사구가 나온다는 차이점에 근거하여 (1a)와 같은 구문은 내핵관계절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이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해소된 쟁점보다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더 많다.

- (1) a. 경찰이 [RC 도둑이 은행에서 나오는] 것을 체포하였다. (내핵관계절)
- b. 경찰이 [RC _____ 은행에서 나오는] 도둑을 체포하였다. (외핵관계절)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a)와 같은 구문을 한국어 내핵 관계절로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명명 오류(misnomer)이고 내핵 관계절 분석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구문이 내핵 관계절이 아니라 환유 구문의 하나로 볼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의 참여개체화’(EVENT FOR PARTICIPANT) 환유로 보는 분석을 핵어중심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의 최근 이론인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CxG) 체계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환유 분석이 갖는 이론적 경험적 잇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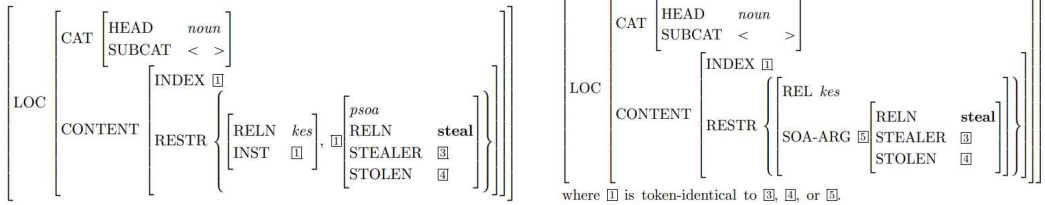
2. Previous Analyses and Problems

HPSG 체계를 이용하여 내핵관계절을 분석한 문헌에서 공통적인 점은 내핵관계절에 등장하는 ‘것’을 명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 기본적으로 ‘것’과 관형절은 핵어-보충어 규칙(Head-Complement Rule)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는 점이다. 특이한 사항은 어떤 HPSG 문헌에서도 위 (1a)와 같은 구문을 관계절의 일종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별 분석은 내핵관계절로 여기게 된 근거가 된 개체해석(entity reading)과 내핵관계절이 아닌 보문절로 보는 근거가 된 사건해석(event reading)이 가능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그 두 해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드러낼 뿐이다. Park(1994)은 HPSG 이론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이자 관형절을 관계절이 아닌 보충어로 분석한 첫 논문이기도 하다. Park(1994)은 내핵관계절의 의미는 중의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행위해석(action reading)이고 개체해석(entity reading)은 화용론적 변이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화용론적이 변이의 가능성 두 가지, 즉,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의미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과 ‘보고 그것을’과 같은 구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내놓지 않고 있다. Y.-B. Kim (1996)도 (3)과 같이 사건해석과 개체 해석이 열려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해석의 선택에 관한 원리적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2) 도둑이 돈을 훔친 것 (Park (1994, 42))

(3) 도둑이 돈을 훔친 것 (Y.-B. Kim (1996, 408))



Park(1994)과 Y.-B. Kim (1996)의 분석은 이 후에 제시할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관형절 내의 두 논항이 동사에 상위 술어의 논항으로 해석되는 (4c)와 같은 복수개체 지칭 가능성은 설명하지 못한다.

- (4) 철수는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는] 것]을 잡았다.
- a.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는데, 철수가 고양이를 잡았다.
 - b.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는데, 철수가 쥐를 잡았다.
 - c.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는데, 철수가 고양이와 쥐를 둘 다 동시에 잡았다. (복수개체 지칭 가능성)

J.-B. Kim (1999, 273)은 선행하는 관형절 안에 있는 비인간([HUMAN -]) 속성을 가진 명사구가 ‘것’의 의미제약으로 상승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형절과 ‘것’의 시제관계(temporal relation)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의 핵심 단초로 제안하고, 이 두 아이디어를 ‘것’의 어휘기재항에 기입해 두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아이디어 모두 (5)에 제시한 바와 같은 반례로 충분히 일반화되지 않은 분석임이 드러난다.

- (5) a. 할머니는 [[아이가 우는] 것]을 간신히 달랬다. (주어 [HUMAN -]의 반례)
 b. 철수는 [[사과가 쟁반 위에 있던] 것]을 지금 먹고 있다. (동일 [temporal-relation]의 반례)

Chung (2000, 56)과 Chung & Kim (2003, 60)의 기본 아이디어는 개체해석을 받는 경우와 사건해석을 받는 경우를 구문의 차이로 보고 두 해석에 따른 구문을 각각 ihrc-kes-complex-noun-cx(내핵관계절-것-복합명사-구문)와 non-ihrc-kes-complex-noun-cx(비내핵관계절-것-복합명사-구문)로 명명한다. 즉, 동일한 문장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구문으로 간주하고 각 제약을 다음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6) a. 개체해석을 받는 구문 제약 (= (17), Chung (2000, 56)) b. 사건해석을 받는 구문 제약

$\left[\begin{array}{l} \text{ihrc-kes-complex-noun-cx} \\ \text{HD-DTR [CONTENT } \square] \\ \text{NON-HD-DTR [VAL [FILLER < \dots, NP[CONTENT } \square], \dots >]]]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text{non-ihrc-kes-complex-noun-cx} \\ \text{CONT } \square \\ \text{HD-DTR [SYNSEM } \square] \\ \text{NON-HD-DTR [HEAD [MOD } \square] \\ \text{CONTENT } \square] \end{array} \right]$
---	--

분석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에 근거한 분석은 관형절의 논항 중 하나만을 개체해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위의 (4c)에 제시한 복수개체 지칭 가능성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J.-B. Kim (2016, 306f.)에서도 복수 지칭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J.-B. Kim (2016)은 개체해석은 IHRC로, 사건해석은 직접지각구문(direct perception construction, DPC)으로 보고 있는 점만 다를 뿐 이분법적 구문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이분법적 아이디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Chung & Kim(2003, 60), Kim, et al.(2006, 24) J.-B. Kim (2016, 306f.)은 그런 이유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가적으로 J.-B. Kim (2016, 306f.)에서는 개체해석을 받는 논항을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 XARG)으로 한정함으로써 내부논항이 상위절 술어의 논항으로 해석되는 (8a)와 (8b)와 같은 예문을 잘못 분석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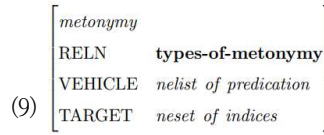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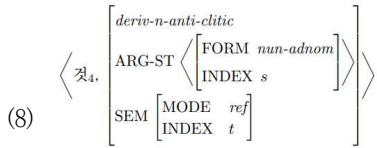
- (7) a. [[아이가 공을 친] 짓이] 옆집으로 날아가 버렸다. ('공이 날아가 버렸다'는 의미)
 b. 철수는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는] 짓]을 잡았다. ('쥐를 잡았다'는 의미)

3. IHRC as Metonymy “EVENT FOR PARTICIPANT”

3.1 ‘kes’ as an anti-clitic for syntactic nominalization

이 발표에서 우리는 ‘짓’을 네 가지로 하위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짓_1’은 관형사(determiner)나 NP[gen]을 지정어(Specifier, SPR) 값으로 요구하는 spr-p-noun-lxm 유형의 대명사로서 품사는 명사 N이다. ‘짓_2’는 절을 하위범주화하여 절 경계를 표지하는 comp-lxm 유형의 어휘소(lexeme)로서 품사는 접속사 C이다. ‘짓_1’과 ‘짓_2’는 기존의 문헌에서도 대부분 가정되는 있는 유형으로서 영어의 명사 thing과 보문소 that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이 두 하위유형은 내핵관계절에 등장하는 ‘짓’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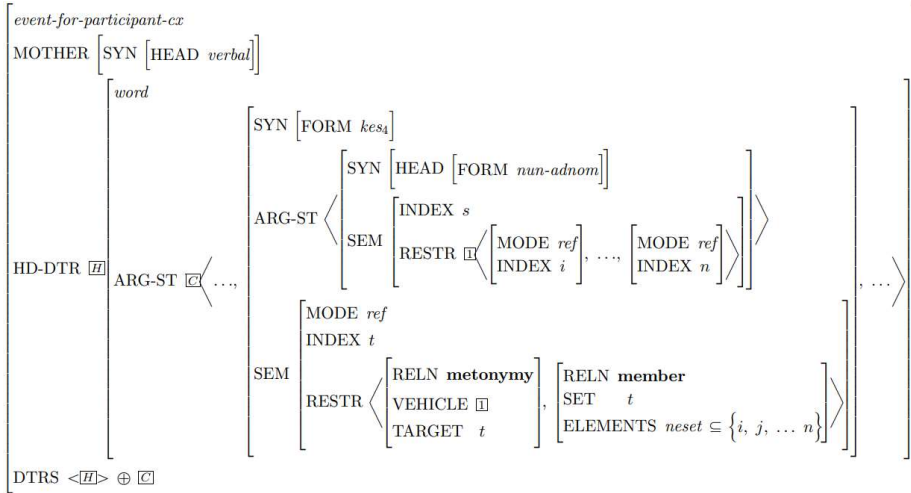
Zúñiga(2014)를 받아들여 음운적으로는 자립성이 있지만 형태적으로 어휘소(lexeme)가 아니며 통사적으로 자립성이 없는 표현을 우리는 반접어라 칭한다(Zingler(2022) 참고). 통사적 파생(syntactic derivation) 기능을 하는 반접어(anti-clitic)로서 ‘짓_3’과 ‘짓_4’를 ‘짓’의 새로운 하위유형으로서 제안하고 이 제안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짓_3’ 유형은 이중격표지구문에 등장하고 ‘짓_4’ 유형은 내핵관계절에 등장한다. ‘짓_4’의 어휘기재항은 (8)과 같으며 우리는 이 발표에서 ‘짓_4’에 집중한다. 또한 (9)와 같이 환유 metonymy 유형의 적절성 조건을 제안하고 ‘짓_4’가 나오는 ‘사건의 참여개체화’(EVENT FOR PARTICIPANT) 구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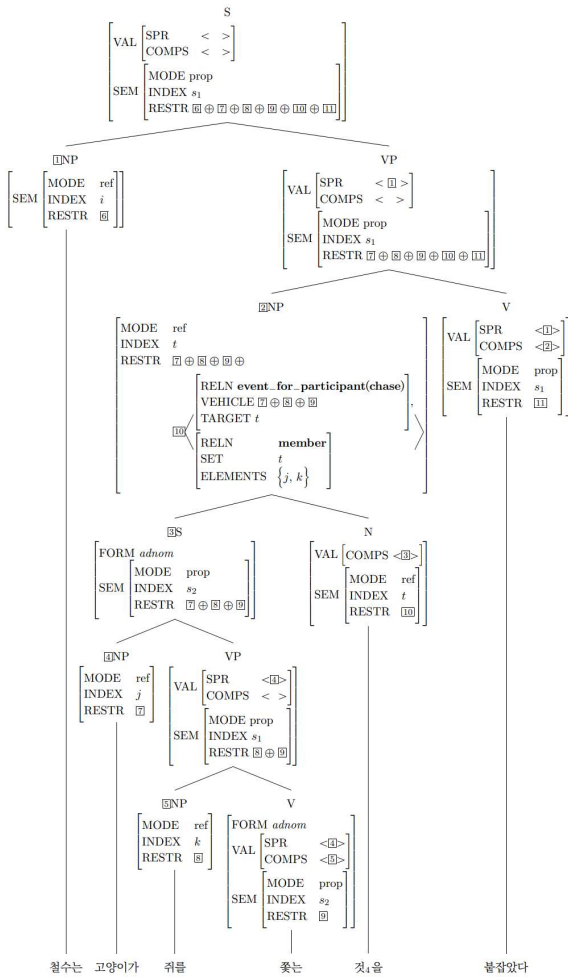
3.2 IHRC as Metonymy “Action/Event/Process for Participants”

내핵관계절이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명사구를 하위범주화하는 술어의 논항으로 관형사과 ‘것_4’의 결합체가 나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 특이성을 우리는 ‘사건의 참여개체화’ 환유구문으로 보고 다음 (10)과 같은 구문제약을 가하는 분석을 제안하고 그 구조와 의미제약을 각각 (11)과 (12)처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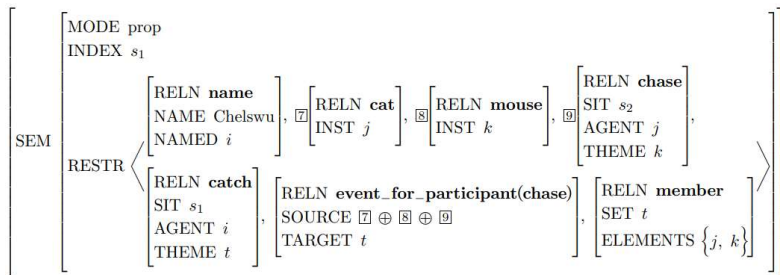
(10)



(11) 철수는 고양이가 쥐를 쫓는 것을 붙잡았다. (복수 개체 지칭 해석)



(12) 의미부 RESTR의 정보: 철수는 고양이가 쥐를 쫓는 것을 붙잡았다. (복수 개체 지칭 해석)



4. Conclusion

이 발표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관형절과 ‘것’의 결합체를 내핵관계절이라고 하는 기존의 문헌이 명명 오류임을 보여주는 이론적 논거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 결합체를 환유구문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의 타당성과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참여개체화’ 환유로 보는 분석을 핵어중심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의 최근 이론인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CxG) 체계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환유 분석이 갖는 경험적 잇점을 논의했다.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 환유를 HPSG 이론에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예시한 첫 시도이기도 하다.

Works Cited

- Chung, Chan (2000), Complex Noun, Multiple Inheritance,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ization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Vol.25, 50–61.
- Chung, Chan & Jong-Bok Kim (2003), Differences between Externally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Proceedings of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HPSG 2002)*, 3–25.
- Jhang, Sea-Eun (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Ph.D. thesis, Simon Frazer University.
- Kim, Jong-Bok (1999), Grammatical Interfaces in Korea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Linguistic Research* 17, 257–275.
- Kim, Jong-Bok (2016), *The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in-Joo (2004), Event-Structure and th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n Korean and Japanese,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Kim, Yong-Beom (2002),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 541–559.
- Kövecses, Zoltán & Günter Radden (1998),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Cognitive Linguistics* 9(1), 37–77.
- Park, Byung-Soo (1994), Modification vs. Complementation: the so-calle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Reconsidered, *Proceedings of the 1994 Kyoto Conference: A Festschrift for Professor Akira Ikeya*, 41–48.
- Zúñiga, Fernando (2014), (Anti-)cliticization in Mapudungun, *Morphology* 24, 161–175.
-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류병래 (2022), 한국어 내핵 관계절의 존재에 대한 증거와 비증거, *언어와 정보* 26(2), 1–25.
- 류병래 (2023), 한국어 반접어와 통사적 파생: ‘것’, ‘놈’, ‘자’를 중심으로, 미출판 원고,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On the Assertive Nature of Sentence Final Particle *-ney*: Direct Evidentiality and at-issue Variability

허 세 문 · 임 동 식 (홍익대학교), 박 유 경(서울대학교)

1. Goals

- Focusing on Korean direct perceptive evidential marker *-ney*, this presentation aims to show that evidentials show what we call at-issue variability between
 - ① The proposition under the scope of evidential (or the prejacent of the evidential)
 - ② The information content provided by the evidentials, when the speaker acquires the evidence

2. Korean direct perceptive evident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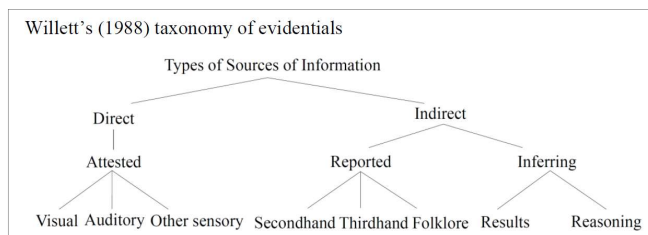
- Korean sentential ending *-ney* introduces the implication that the speaker has directly perceived evidence regarding the prejacent (hereafter direct evidentiality) (Lee 2013; Song 2014; Lim et al. 2023, to appear; cf. Chung 2007, 2010, 2014, 2016; Park 2021, 2020; Kwon 2013, 2015)

- (1) a. Tom is watching it raining outside through a window, and says to Mary...
 b. Tom is watching the water droplets fall, and says to Mary
 c. In a café without any window, Tom thinks that it feels too humid. He soon remembers that a forecast in the morning said that it will rain today. So, Tom says to Mary...

- (2) Pi-ka o-ney.
 Rain-Nom come-ney
 'It is raining.' => OK under (1a), (1b)/ # under (1c)

- Direct perception (+ inference)
 (cf. epistemic modals Kwon 2013, 2015)

- Indirect evidentiality? NO
 ※ Apparent variable evidentiality
 (Lim et al. to appear)



- Three time period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evidentials (Lee 2013; Koev 2017)

- ✓ UT (Utterance Time): the time when the speaker utters the proposition with the evidential
 - ✓ LT (Evidence Learning Time): the time when the speaker acquires the evidence
 - ✓ ET (Event Time: the time): when the event denoted by the prejacent occurs
- The temporal constraint on *-ney*: LT should overlap with UT (see also Lee 2013; Song 2014)
 - (3) a. Tom is watching it raining outside through a window, and saying... LT• UT
 b. Tom watched it raining on the way home, and thought that it will LT<UT
 be raining the whole day. At home, after washing himself, he entered a room
 without any window, and says...
 - (4) Cikum pakk-ey pi-ka o-ney.
 Now outside-Loc rain-Nom come-ney
 'It is raining outside now.' (Implication: I am directly perceiving the pouring rain)
 => OK under (2a) / # under (2b)

3. Puzzle: non-informative assertion

- General conditions on assertions (Farkas and Bruce 2010, Murray 2014, AnderBois 2016, a.o.)
 - (5) When a speaker *S* asserts a proposition *p* to an addressee *A*:
 - a. *S* commits to *p*
 - b. *S* assumes that *A* does not believe *p*
 - c. The content of *p* is a negotiable proposal which waits for the acceptance from *A*
 -> After *A* accepts *p*, it is added to the common ground (CG: Stalnaker 1978, a.o.)
- General conditions on assertions (Farkas and Bruce 2010, Murray 2014, AnderBois 2016, a.o.)
- Consider the proposition (7), under the scenario (6):
 - (6) Alice, Bob, and Chris are at a party. Usually Alice does not notice other people's change in clothes, and everybody at the party knows this. Today she unusually notices that Chris wears a shirt she has not seen before, so she thinks it is new. However, Bob knows that Chris bought that shirt three years ago.
 - (7) *p* =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 (8) Alice: believes *p*
 Bob: knows $\sim p$
 Chris: expected to know whether *p* or $\sim p$
- In Korean, (7) can be utter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who the addressee is, and whether the evidential *-ney* is employed.
- Consider the examples (9) and (10).

- (9) Speaker: Alice / Addressee: Bob
- a. Chris-ka say syechu ip-ko.iss-e\.
- Chris-Nom new shirt wear-Prog-Decl
-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 b. Chris-ka say syechu ip-ko.iss-ney\.
- Chris-Nom new shirt wear-Prog-ney
-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with direct evidentiality)

Regardless of the choice of the sentential endings, sentence intonation is assumed to be canonical falling.

- Even though Bob knows $\sim p$, Alice can still utter (9a) to Bob.
 - > Asserting (7) as (9a)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in (5):
 - i) Alice commits to the proposition p that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 ii) Alice assumes that Bob does not believe p .
 - iii) The content of p is a negotiable proposal which waits for the acceptance from Bob (Or Bob can deny p : he knows that Chris' shirt is not new)

- Alice can also utter (9b) to Bob.
 - > The differences are
 - (i) (9b) carries direct evidentiality, introduced by $-ney$.
 - (ii) the asserted proposition amounts to the *prejacent* under $-ney$.

- (10) Speaker: Alice / Addressee: Chris

a. #Ne say syechu ip-ko.iss-e\.

You new shirt wear-Prog-Decl

'You (Chris) are wearing a new shirt.'

b. Ne say syechu ip-ko.iss-ney\.

Ne new shirt wear-Prog-ney

'You (Chris) are wearing a new shirt.' (with direct evidentiality)

- (10a) is not felicitous when uttered to Chris, as expected:
 - > Asserting (7) as (10a) does not satisfy all the conditions in (5):
 - i) Alice commits to the proposition p that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 ii) ~~Alice assumes that Chris believes p .~~
 - => Chris is the one who is expected to know whether p or $\sim p$.
 - iii) ~~The content of p is a negotiable proposal which waits for the acceptance from Chris.~~
 - => p is not negotiable with Chris, given the problem on (ii).

- The puzzle: (10b) can be felicitously uttered to Chris, given that
 - (i) *-ney* (with direct evidentiality): declarative + assertion

(11) Q: Why does the speaker choose to use the evidential marker?

A: Evidence context (Krawczyk 2012: slightly modified):

A context *C*, composed of a speaker *S* and interlocutor *A*, is an evidence context iff:

(a) There is a content *p* (= prejacent) that is unknown to *S*;

(b) *S* assumes that *A* does not know *p*, either; and

(c) The truth value of *p* is relevant to the discourse

-> Only after evidence acquisition: *S* commits to *p*,

assertion

<credence level: evidence type>

(ii) declarative clause type + (default) falling intonation: assertion

cf. rising intonations: non-canonical speech acts (e.g., mirativity; confirmation, etc.)

(12) Under (10): Speaker: Alice / Addressee: Chris

a. Wa, ne say syechu ip-ko.iss-*e*/#↘.

Wow, you new shirt wear-Prog-Decl

'You (Chris) are wearing a new shirt.'

b. Wa, Ne say syechu ip-ko.iss-*ney*/#↘.

Wow, Ne new shirt wear-Prog-*ney*

'You (Chris) are wearing a new shirt.' (with direct evidentiality)

<※ unlike *-ney*↗, *-e*↗ can give rise to question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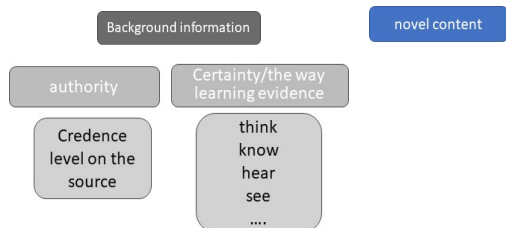
- (10b) can be uttered with a plain falling intonation, meaning that it does not express any mirativity.
- As in (10a), the prejacent is not new information to Chris.
- Given this, if an assertion is a proposal to add new negotiable information to the common ground (CG):
 - => How can (10b) be felicitous?
 - => What is actually asserted in (10b)?
- To solve this puzzle, we extend the notion of at-issue variability (see Murray 2014 for slifting constructions)
 - > Simons' (2007) main point variability and its extension to (not-)at-issuiness (Simons et al. 2011)
 - > See also AnderBois (2016) for attitude predicates

4. Proposal: at-issue variability with *-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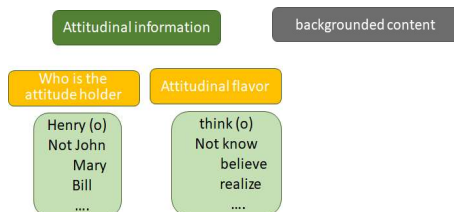
- At-issue variability: first suggested as *main point variability* (Simons 2007) for utterances with an attitude predicate and its propositional complement, depending on context.
- ✓ Simons (2007): Two possible main points in an utterance with an attitude predicate and its propositional complement
 - => The embedded proposition
 - => The attitudi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ttitude predicate

(13) Henry thinks that she was with Bill.

(14) a. Henry thinks that she was with Bill



b. Henry thinks that she was with Bill



- *-ney* and at-issue variability

Proposal: When *-ney* is used, the at-issueness can vary between...

- > The prejacent
- > The *information content* introduced by *-ney*

(15) When *-ney* is uttered with its prejacent *p*, the at-issue content can be either *p* or *q*:

a. *p*

b. *q*: (given the evidence acquired at LT via her direct perception,) the speaker *notices* that *p*

* (15a): the prejacent of *-ney*

* (15b): the role of *-ney* as a direct evidential (in addition to indicating the speaker's direct perception as information source: see below)

- Before the speaker earns the evidence at LT, if she were already in the position to have a strong commitment to *p*, the use of *-ney* would be redundant: (11)

-> When an evidential with its prejacent *p* is used, the speaker can make a commitment to *p* only when she acquires the evidence regarding *p*.

-> In addition to this, we assume that the evidential *-ney* only has the implication that the way in which the speaker acquires the evidence is her direct perception.

⟨Note that, in this analysis, *-ney* is still a direct perceptive evidential, different from an epistemic modal (see Lim et al. to appear).⟩

- Given all this, suppose that...

i) two information contents, *p* and *q* in (15), appear in a single utterance, and

ii) potentially either *p* or *q* can get at-issue status.

The informativeness of that information content with respect to CG plays a crucial role to determine which of the two information contents, *p* and *q*, should be at-issue.

- (15a) and (15b): lexically defined candidates regarding at-issue status.
 - (i) In languages like Korean, where an assertion is explicitly marked by sentential endings and intonations, we can identify at-issue variability more clearly, depending on which information content can be regarded as new to the addressee.
 - (ii) In this presentation, we ignore the source of information (But see Lim et al, 2023)

- CG and at-issue status: Koev' (2018) P-at-issueness
(cf. QuD/focus based approach; Simons et al. 2011, 2017)

- (16) A proposition *p* is P-at-issue in a context *c* iff
- *p* is a proposal in *c* and
 - *p* has not been accepted or rejected in *c*. (Koev 2018: 5)

※ The information content which is *negotiable* with respect to CG becomes at-issue, and that which is not becomes not-at-issue.

- How to identify (not-)P-at-issueness: peripherality test (Koev 2018)

- (17) A: Steve, who is Amy's husband, wrote this book.
 B1: Wait. This is peripheral to your point, but Steve isn't Amy's husband.
 B2: ? Wait. This is peripheral to your point, but Steve didn't write this book.

5. Analysis

- (18) Alice, Bob, and Chris are at a party. Usually Alice does not notice other (=6) people's change in clothes, and everybody at the party knows this. Today she unusually notices that Chris wears a shirt she has not seen before, so she thinks it is new. However, Bob knows that Chris bought that shirt three years ago.

- (19) Speaker: Alice / Addressee: Bob
 Chris-ka say syechu ip-ko.iss-ney\
 Chris-Nom new shirt wear-Prog-ney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with direct evidentiality) (=9b)

p : Chris is wearing a new shirt.
 q : (given the evidence acquired at LT via her direct perception,) Alice notices that p

(20) Bob responds to Alice: (after 19)

- a. #Camkkan, iken pwuchaceki-ntey, Chris-nun ku syechu-lul
 Wait this peripheral-but Chris-Top that shirt-Acc
 3 nyen cen-ey sa-ss-e.
 3 year before-Loc buy-Past-Decl
 'Wait, this is peripheral, but Chris bought it 3 years ago.'
- b. Camkkan, iken pwuchaceki-ntey, ne kukel ettehkey alachali-ess-e?
 Wait this peripheral-but you that how notice-Past-Decl
 'Wait, this is peripheral, but how did you notice that?'

=> (20a) is not felicitous: p is at-issue.
 => (20b) is felicitous: q is not-at-issue.

• In contrast:

(21) Speaker: Alice / Addressee: Chris
 Ne say syechu ip-ko.iss-ney\.
 Ne new shirt wear-Prog-ney
 'You (Chris) are wearing a new shirt.' (with direct evidentiality) (=10b)

(22) Bob interrupts and says to Alice: (after 20)

- a. Camkkan, iken pwuchaceki-ntey, Chris-nun ku syechu-lul
 Wait this peripheral-but Chris-Top that shirt-Acc
 3 nyen cen-ey sa-ss-e.
 3 year before-Loc buy-Past-Decl
 'Wait, this is peripheral, but Chris bought it 3 years ago.'
- b. #Camkkan, iken pwuchaceki-ntey, ne kukel ettehkey alachali-ess-e?
 Wait this peripheral-but you that how notice-Past-Decl
 'Wait, this is peripheral, but how did you notice that?'

=> (22a) is felicitous: p is not-at-issue.
 => (22b) is notfelicitous: q is at-issue.

- p (that is, the prejacent) is not negotiable, and not new to CG
- q (that is, the information content that Alice notices Chris's shirt she hasn't seen) is still a novel proposal, even though Chris is the addressee
- Therefore, q should be at-issue, hence

=> the infelicity of (22b)

=> the felicity of (21): every condition in (11) is met.

※ *Issues regarding (non-)challengeability* (see Lim et al. 2023)

6. Comparisons with previous studies

6.1. *-ney* as a non-canonical assertive ending

- Chung (2014, 2016)

(23) a. The assertion introduced by *-ney* is not a run-of-the mill one, in the sense that it publicizes new information relative to the speaker.

b. The addressee's commitment to *p* has nothing to do with the felicity condition regarding the utterance marked with *-ney*.

- Obviously, this idea is ad hoc: unless evidentials like *-ney*, there is no reason why we need to assume such an unusual sentence ending marker (see also Kwon 2015).
- The fact that *p* is the new information to the speaker can be derived by the evidence context and the temporal restriction on *-ney*.

(24) Evidence context (Krawczyk 2012: slightly modified):

A context *C*, composed of a speaker *S* and interlocutor *A*, is an evidence context iff:

- (a) There is a content *p* (= prejacent) that is unknown to *S*;
- (b) *S* assumes that *A* does not know *p*, either; and
- (c) The truth value of *p* is relevant to the discourse

-> Only after evidence acquisition: *S* commits to *p*

(25) The temporal constraint on *-ney*: LT should overlap with UT

=> The speaker can commit to the prejacent only after she acquires the proper evidence at UT.

- (23b) seems to explain why (21) is fine under (18), even if the addressee already knows *p*. But, given (23a), the supposed at-issue content should amount to the prejacent, therefore it cannot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20) and (22), considering the peripherality test.

6.2. *-ney* as a mirative marker

- Park's analysis (2011, 2020): *-ney* is a mirative marker.

- I. Mirativity is the core semantic component.
- II. Mirativity of *-ney* does not invoke the implication that the information expressed in the sentence is against the speaker's expectation. It just expresses that the speaker has no expectation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expressed in the sentence.
- III. Mirativity is not necessarily expressed via the assertive speech act.
=> This may explain why (21) is fine under (18).
- IV. Mirativity of *-ney* does not stem from evidentiality.
- V. It gives rise to *deferred realization*, which cannot be derived in a compositional way.

(26) John-i pemin-i-ess-ney!
 John-Nom culprit-Cop-Past-ney
 'John was the culprit! (I have just noticed)'

- However, mirativity can be canceled in a proper context(Chung 2012; Song 2014):

(27) Yeychukhaysstusti, pi-ka o-ney.
 As.expected rain-Nom come-ney
 'As expected, it is raining.' (implication: I am directly perceiving the pouring rain)

- Mirativity can be expressed only if a sort of rising intonation is realized. As discussed above,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default intonation of *-ney* to be rising.
- The evidence context and the temporal restriction on *-ney*: Deferred realization (or like reading) can be derived compositionally.

(26) John-i pemin-i-ess-ney!
 John-Nom culprit-Cop-Past-ney
 'John was the culprit! (I have just noticed)'

- i. Suppose that the ET is past due to the presence of *-ess*. Then, *p* of (26) would be:

(28) John-i pemin-i-ess-e.
 John-Nom culprit-Cop-Past-Decl.
 'John was the culprit!'

- ii. Notice that (28)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John is not a culprit anymore.
- iii. Temporal restriction on *-ney* (LT ◦ UT) : The speaker finds the crucial evidence at LT which is overlapped with UT.
- iv. Given the evidence context (11), the speaker of (26) could not commit to *p* before UT.
- v. The supposed' mirativity is just the result of the speaker's late 'noticing' the evidence,

given the temporal gap between ET and LT.

- vi. The late noticing also has to do with the information content triggered by *-ney*
- vii. Temporal gap is mediated by the inference between the evidence and the prejacet.

References

- AnderBois, S. (2016), Semantics and Pragmatics of (not-)at-issueneess in Yucatec Maya attitude reports, *Semantics and Pragmatics* 9: 1–55.
- Chung, K.-S. (2007), Spatial Deictic Tense and Evidentials in Kore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187–219.
- Chung, K.-S. (2012), The semantics of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in relation to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 995–1016.
- Chung, K.-S. (2014),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and the assertive speech act,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9: 617–640.
- Chung, K.-S. (2016),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es *-ney* and *-kwuna* in terms of the source of knowledge in epistemology, *Discourse and Cognition* 23: 45–72.
- Farkas, D. and K. Bruce (2010), On reacting to assertions and polar questions, *Journal of Semantics* 27(1): 81–118.
- Koev, T. (2017), Evidentiality, learning events and spatiotemporal distances, *Journal of Semantics* 34: 1–41.
- Koev, T. (2018), Notions of at-issueneess, *Language and Linguistic Compass*, 201812:e12306. <https://doi.org/10.1111/lnc3.12306>
- Krawczyk, E. (2012), *Inferred propositions and the expression of the evidence relation in natural language evidentiality in Central Alaskan Yup'ik Eskimo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Kwon, I. (2013), The semantics of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revisited: response to Chung (2012),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8: 53–66.
- Kwon, I. (2015), Revisiting the Korean sentence-final suffix *-ney* once more: Response to Chung (2014),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0: 287–305.
- Lee, J. (2013), Temporal constraints on the meaning of evidentiality, *Natural Language Semantics* 21: 1–41.
- Lim, D., S. Hoe, and Y. Park (2022), Two different types of inference in evidentials: efficacy vs. doxastic worlds, in D. Gutzmann and S. Repp (eds.),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26, 557–574.
- Lim, D., S. Hoe, and Y. Park (2023), At-issue variability with evidentials: a case study from Korean, presented at The 41st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ay 5th, 2023.
- Lim, D., S. Hoe, and Y. Park (to appear), Two possible main points of Korean direct evidential *-ney*, submitted to *Proceedings of the 16th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 Murray, S. (2014), Varieties of update, *Semantics and Pragmatics* 7: 1–53.
- Park, J. (2011), Grammatical Elements Containing Evidential or Mirative Components in Korean,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15: 1–25.
- Park, J. (2020), Evidential and/or mirative components of some verbal endings and periphrastic constructions in Korean, in C. Lee and J. Park (eds.), *Evidentials and modals*, Leiden: Brill, 399–411.
- Simons, M. (2007), Observations on embedding verbs, evidentiality and presupposition, *Lingua* 117: 1034–1056.
- Simons, M., J. Tonhauser, D. Beaver, and C. Roberts (2011), What projects and why, in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0, 309–327.

- Song, J. (2014), Suffix *-ney* in Korean: A Reply to Chung (2007, 2012),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9: 819–850.
- Stalnaker, R. (1978), Asser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Cambridge, MA: Academic Press, 315–332.
- Willett, T. (1988),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 51–97.

The use of *ku* modulated by the strength of contextual constraint

Hongoak Yun (Jeju National University)

Hoe Kyeong Kim (Binghamton University)

Sang-Geun Lee (Korea University)

1. Introduction

Referring expressions such as definite noun phrases (NPs) often play a role as a linguistic cue that functions alerting interlocutors to focus their attention on a particular object in a discourse that they are engaged in. Speakers intentionally use definite determiners, such as *the* in English, in a discourse to explicitly indicate which object they are referring to. Listeners, upon recognizing the definite article, begin to exploit the speaker's intention regarding which object they are specifically referring to. This mutual process, triggered by the definite expression, can direct the attention of both speakers and listeners to the same object, leading to a more successful communication.

Despite such an important function of definite determiners in communication, their obligatory use is not always required in all languages. Article-required languages, such as English, require the explicit use of definite determiners like *the* or *that* in a discourse to construct coherence. In contrast, article-less languages like Korean optionally permit the use of the definite determiner *ku* (which roughly translates to *the* in English) and thus allow for the use of both explicit definite determiners and bare determiners.

When a bare NP without the definite article *ku* is used in Korean, other available linguistic cues can provide supplementary signals for discourse coherence. These cues include the identical lexical forms between target NPs and antecedent NPs, semantic or prag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Ps, or the strong contextual information from the preceding sentence that could facilitate the co-indexing between the two NPs. By using these cues, language processors can successfully establish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target and antecedent NP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inite article is explicitly expressed or not. In other words, as long as these cues are accessible, bare NPs are as grammatically acceptable as explicit definite NPs for establishing discourse coherence.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how actively ordinary Korean language processors exploit these cues for reference understanding (see Lee, Jeong, & Jeong, 2022).

In this paper, we ask how strongly ordinary Korean speakers and listeners observe the obligatoriness of the definite determiner *ku* for establishing discourse coherence. Some theoretical studies have proposed that Korean speakers tend to omit the definite marker *ku* in exchange for a more economical

use of discourse information (Ahn, 2017; 2019). Thus, in terms of the speaker's economy of production, using a bare NP instead of a definite NP should be a universally accepted form. On the other hand, speakers might choose to express the definite marker *ku* to prevent their listeners from experiencing ambiguity, except in cases where target NPs without definite markers are uniquely identified, such as when they are topic marked (Jenks, 2015; 2018; Kang, 2021). Thus, in terms of speakers' concern for their listeners' clear comprehension, a definite NP rather than a bare NP may be considered a universally accepted form. Rather than taking a binary position on the use of the definite determiner *ku*, considering whether it is omitted or used, Lee et al. (2022) proposed a more dynamic principle. They suggest that the use of the definite article *ku* is not solely governed by particular rules, *per se*. Instead, the omission of the Korean definite article *ku* is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possessive relationality between target NPs and antecedent NPs (as defined by Löbner in 2011, and 2016) is contextually constrained. That is, if the context information strongly constrains the posses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get and antecedent NPs, the target NP can semantically refer back to the antecedent NP even without the explicit use of the definite marker *ku*. If this is not the case, when the context information weakly constrain the relationship, the definite determiner *ku* is more likely to be required for clear discourse coherence.

To sum up, the explicit use of the Korean definite determiner *ku* might depend on which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more. According to a speaker's production-oriented perspective, the Korean definite determiner *ku* is more likely to be omitted for the sake of production economy. However, from a listener's comprehension-oriented perspective, it is more likely to express *ku* for clarity in comprehension. Alternatively, the omission of *ku* may not follow an all-or-none principle, but rather may be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the contextual constraint for possessive relationality between a target NP and an antecedent NP in a given context. No empirical study, to our knowledge, has seriously attempted to test the obligatoriness of *ku*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n (in which cases) and to what degree the Korean definite determiner *ku* is preferred to be explicitly expressed for discourse coherence. For our study, we included cases of both anaphoric references, and bridging references. In particular, we attempted to investigate our research aim from the perspective of speakers' production-oriented process (Study 1 using a cloze task) and the perspective of speakers' concern for listeners' comprehension-oriented process (Study 2 using a plausibility rating task). Crucially, we manipulated the strength of the contextual constraint for discourse coherence in the both experiments.

2. Study 1 and Study 2

2.1. Participants

219 non-English major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our studies (112 for Study 1 and 107 for Study 2). All participants had no experiences in living in any English-speaking countries for more than three years.

2.2 Materials

Our study materials were modified slightly after being extracted from Lee et al.'s (2022) study. First, we reorganized them into three types of discourse contexts based on the degree to which contextual information would allow for the omission of Korean *ku*. The first type was obligatorily-requiring discourses, where linguistic experts judged the Korean *ku* to be necessary (i.e., definite DPs) because the contextual information did not sufficiently constrain the core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 NPs and target NPs. Therefore, without the Korean *ku*, the coreferential interpretation would not be likely. We called this type of discourse a weak contextual constraint. The second type was optionally-permitting discourses, where linguistic experts agreed on the omission of the Korean *ku* (i.e., bare NPs) because the contextual information was strong enough to constrain the core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ould-be-coindexed NPs, even without the explicit presence of the Korean *ku*. We called this type of discourse a strong contextual constraint. Finally, the third type includes the cases where the experts did not agree (i.e., definite or bare NPs) on whether the Korean *ku* could be omitted. Regarding the degree of contextual constraint for coreference, we considered the third types to be between obligatory-requiring types and the optionally-permitting types. Thus, we called this type of discourse a medium contextual constraint. In short, our 168 discourses differed by two variables: 3 Contextual constraints (strong, medium, weak) and 6 Reference Types (anaphoric, five types of bridging references -- Attribute, Causation, Circumstantial, Set Membership, and Thematic references).

2.3 Methods

In Study 1, the experimental sentences were presented as a cloze-task format on a Google form.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the blank with *ku* if they thought the explicit use of the Korean particle *ku* was necessary to make the given context consistent and sensible. If the use of *ku* was not necessary and would sound redundant, they were told to leave the blank open as it was. In Study 2,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on a 5-point Likert scale (5 to very natural, 1 to very odd), how much an underlined bare nominal expression referred to an antecedent sounds natural in a given context.

2.4 Results

2.4.1 Stud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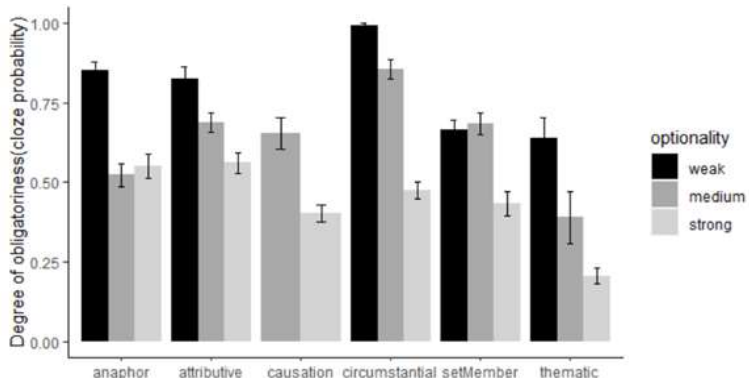


Figure 1. The degree of obligatoriness (cloze probability) across reference types and contextual constraints

2.4.2 Stud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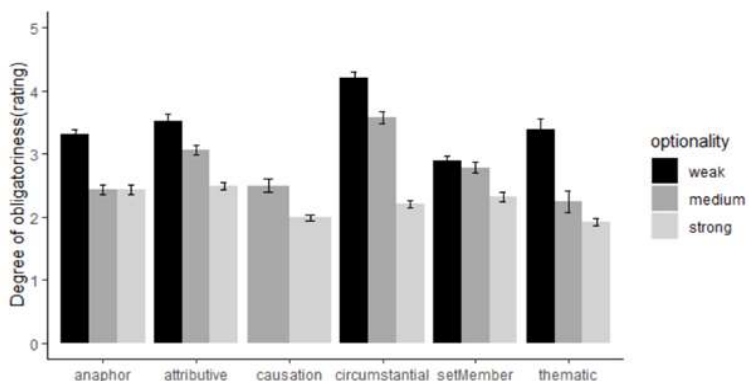


Figure 2. The degree of obligatoriness across reference types in ratings

3.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n and to what extent the Korean definite determiner *ku* is preferred to be explicitly expressed for discourse coherence. First, we observed the crucial role of contextual constraint in accounting for the distribution of the explicit use of *ku*, regardless of whether speakers were engaged in the production processes (cloze task in Study 1) or comprehension processes (plausibility rating task in Study 2.) In these studies, we found that the explicit use of *ku* was required the most when the context information was weakly constr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 NPs and target NPs, whereas it was simply permitted the most when the context information was strongly constr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Ps. These results

supported neither Ahn (2019) nor Jenks (2018), but were rather in the similar line with Lee et al. (2022). Speakers' choice of whether or not to use the Korean *ku* explicitly was modulated by the degree of contextual constraint. Speakers' economic principles were observed when the contextual information was strongly constraining, whereas they were not realized when the context was constraining weakly.

Second, the tendency for the obligatory use of the Korean *ku* was higher in Study 1 in which participants were more engaged in their production process with speakers' perspectives than Study 2 in which participants were more engaged in their comprehension process with listeners' perspectives. Our results suggested that speakers might care for listeners' reference understanding when they a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such speakers' preference got stronger as contextual constraint was weakly constraining.

Third, speakers' strong preference to express the Korean *ku* explicitly did not differ by whether target NPs take anaphoric reference function or bridging reference function. There are a bit systematic skew patterns that the Korean *ku* was mostly required when bridging NPs represent the circum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 NPs and target NPs and it was least required when bridging NPs represent the the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NPs. In sum, according to our results, speakers tend to produce *ku* to care for listeners' clear reference understanding, especially more in the weakly constraining context, even while they are engag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is tendency gets stronger in the circumstance bridging contexts in which relational features between antecedent NPs and target NPs are considered to be mostly weak.

Works cited

- Ahn, D. (2017). Definite and demonstrative descriptions: a micro-typology. In Proceedings of GLOW in Asia XI, Volume 1, 33–48.
- Ahn, D. (2019). THAT thesis: A competition mechanism for anaphoric expressions.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 Jenks, P. (2015). Two kinds of definites in numeral classifier languages. In Proceedings of SALT 25, 103–124. <https://journals.linguisticsociety.org/index.php/SALT/issue/view/132>.
- Jenkins, P. (2018). Articulated Definiteness without Articles. *Linguistic Inquiry*, 49(3), 501–536.
- Kang, A. (2021). Marking definiteness in an articleless language The role of the domain restrictor *KU*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22(2), 301–336.
- Lee, S, Jeong, Y. J, & Jeong, J. (2022). A Study on the Variations of Korean Demonstrative NPs of Bridging Reference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7(2), 317–345.
- Löbner, S. (2011). 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 *Journal of Semantics*, 28, 279–333.
- Löbner, S. (2016). The semantics of Nominals. In Riemer, 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emantics*, 299–31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위험한 문법화: 한국어 종결어미 융합형 어미의 문법

김 용 하 (국립안동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한국어의 문 종결어미에 또다시 다른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의 융합형 어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다룬다. 한국어의 근문(root sentence)에는 매우 다양한 상대높임법 어미가 나타나고 종결어미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소위 완형 보문(complete complement clause)에서 종결어미는 표준 교육 문법에서 기본 문형으로 인정하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의 표지 4개만이 나타난다. 종결어미는 문말어미들 중에서도 언표 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표시하는 요소들이다. 즉 종결어미가 등장하면 하나의 완전한 절의 생성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므로 더 이상 다른 어미가 그 뒤에 첨가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장들에서:

- (1) a.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인다는 소문이 있다.
- b.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 c. 옛날에 어여쁜 공주님이 살았단다.

종결어미 뒤에 ‘-는, -면, -ㄴ다’ 등의 또다른 어미들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구성이 하나의 융합형 어미로 문법화되었다고 하거나, 종결어미 뒤에 바로 또다른 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바,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구성이 ‘-고 하’ 생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이 옳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시선추적을 통해 본 영어학습자들의 통사구문 점화 효과

박 분 주 (대구가톨릭대학교), 최 성 목 (경북대학교)

1. 서론

모국어와 제 2언어의 언어처리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나타나는 자동성이나 모국어와 제 2언어의 문장구조의 차이에 따라 그 언어처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인지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처리과정은 모국어인 한국어와 제 2언어로 학습된 영어의 문장처리과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시선추적접근 방법으로 통사구조 점화효과의 현상을 통해서 모국어와 제 2언어의 문장처리에서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언어처리에 있어서 통사 점화효과란 문장을 산출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언어처리과정에서 문장처리 앞-뒤 과정에서 이전단계에서 읽거나 듣는 도입부 인지과정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과는 별도로 문장의 구문의 통사구조, 즉 통사 틀(syntactic frame)이 언어처리의 후속 단계에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되어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자연스런 발화에서의 예를 들면, “At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라고 묻는 질문에는 “At 5 pm.”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라고 물었을 때 ‘5 pm’으로 통사구조의 프레임이 유지되어 후속 발화에서 이어서 그 구조가 유지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런 효과는 무의식적인 문장처리의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여격 구문을 예로 들면, ‘My friend gave me a book’이라는 이중 목적어 구문을 들은 다음, 그 이후 문장 산출과정에서 ‘I sent a gift to my friend’의 전치사구 여격구문보다는 ‘I sent my friend a gift’라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발화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 통사구조 점화효과에 해당한다.

이런 효과는, 언어오류분석 연구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나, 코퍼스 자료뿐만 아니라(Levitt & Kelter, 1982), 좀 더 통제된 실험실상황에 적용하는 심리언어학적 분야에서 시도된 연구방법으로는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반응시간 측정과 같은 온라인 방식을 적용해 언어산출 및 언어이해 측면에서의 통사구조 점화효과를 고찰해 온 바 있다.(Bock, 1986; Bock & Griffin, 2000; Hartsuiker & Kolk, 1998; Pickering, Liversedge, Stewart, & Urbach, 1995; Pickering, Branigan, & McLean, 2002).

언어처리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 해당하는 언어의 이해(language comprehension) 측면에서도 통사 점화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도 보고 된 바 있다 (Ledoux, Traxler, & Swaab, 2007; Arai, van Gompel, & Scheepers, 2007; Carminati, van Gompel, Scheepers, & Arai, 2008; Thothathiri & Snedeker, 2008a,b; Tooley, Traxler, & Swaab, 2009).

언어이해 중심 프라이밍 연구로는 off-line형태의 필기시험의 형태나, 제시문장에 프라이밍 구문을

유도하고, 목표문장에 gap-filling 형태의 문장완성형이나 읽기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프레이밍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언어산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언어 이해 부분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im, Carbery, & Tanenhaus, 2014; Pickering, McLean, & Branigan, 2003; Thothathiri & Snedeker, 2008a,b; Tooley & Bock, 2014; Traxler, 2008a,b).

하지만 이렇게 언어이해 및 언어산출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는 정도에서 그 현상을 추측할 것이 아니라, 언어이해 및 언어산출의 통합적인 실험을 통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프레이밍효과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선추적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문장처리에 적용하는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시선추적 접근법으로 구문처리양상을 고찰한 연구로는 Jung(2018)이 시선추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적 증의성을 나타내는 영어의 관계사절('someone shot NP1 [the sister] of NP2 [the actor] [RC] who was on the balcony')에서 NP1 of NP2' 형태의 복합명사구를 수식하는 문장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영어환경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영어 관계사절에 있어서 복합명사구 선호도에 대한 구문처리 전략이 다른 결과를 고찰하였다.

같은 통사구조를 활용한 연구로, 김성아(2017)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모국어의 영향과 울격 정보(prosody)가 제 2언어 영어 관계사절의 선행사 선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오프라인 응답방식 및 반응시간 측정과 시선추적 방식을 공히 활용하여 고찰하여, 모국어와 제 2언어 처리에 있어서 차이나는 결과를 고찰하였으며, 이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처리양상이 제 2언어의 문장처리 전략에 전이(L1 transfer)된 효과로 보았으며, 또한 NP1과 NP2의 울격경계가 한국어에서 선호되는 기본 울격 경계(default prosodic boundary)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Kim(2019)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사의 정보를 활용하는 문장처리 전략에 대해서 시선추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찰해 본 결과,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보다 동사정보 활용에 있어서 반응시간이 더 걸리며 시선추적 데이터에서 관련 동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는 첫 읽기 시간에서 보다 두 번째 읽기 시간의 데이터에서 문장처리 현상이 표출되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같은 관계사 구문을 활용하여, 박·최(2020) 연구에서도 시선추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관계사절 내의 복합명사구를 수식 문장처리 전략에 관해 통사구조에 의한 통사적 전략과 의미해석을 통한 의미적 처리 전략에 있어서 문장처리 전략을 시선처리접근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영어학습자들의 주어-동사 수일치 처리현상에 관하여 박·김·최(2021)은 주어-동사 수일치 처리현상에 있어서의 통사 및 의미적 전략을 시선추적접근법을 통하여 고찰한 바 있다.

하지만,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통사점화효과를 시선추적 접근방식을 활용한 문장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레이밍조건에서의 시선처리 양상을 모국어양상과 비교해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타동사구문의 문장처리 양상에서 모국어인 한국어와 제 2언어인 영어의 문장처리에 있어서 통사구문 프레이밍효과를 시선추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본 연구

3.1 연구문제

1. 모국어인 한국어 여격동사 구문의 -에게/을 어순 제시구문(K-DO:-에게 -을)의 시선추적기반 통사 점화효과에 차이가 나는가?
2. 모국어인 한국어 여격동사 구문의 -을/-에게 어순 제시구문(K-PP:-을 -에게)의 시선추적기반 통사 점화효과에 차이가 나는가?
3. 제 2언어인 영어 여격동사 구문의 이중목적어 제시구문의 시선추적기반 통사 점화효과에 차이가 나는가?
4. 제 2언어인 영어 여격동사 구문의 전치사구제시구문의 시선추적기반 통사 점화효과에 차이가 나는가?

3.2 연구방법

대학생영어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10개의 한국어와 영어 여격구문(이중목적어 5개와 전치사구 여격구문 5개, 필러 10개)에 대한 파일럿 실험을 시행해 보았다. 실험방법은 다음 <표 1>과 같이 프라임/비프라임 두 개의 컨디션으로 카운터 밸런스형태로 두 개의 테스트 유형(Test A/Test B)으로 실험문장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표1> 시선추적 통사 점화효과 실험문장 및 자극제시

한국어 (L1)	Primed Condition (=matched)	Test A	제시구문 : 철수가 영희에게 점심을 사주었다. (-에게/-을 순서) 목표구문 : 이빠기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다. (-에게/-을 순서)
		Test B	제시구문 : 철수가 점심을 영희에게 사주었다. (-을/-에게 순서) 목표구문 : 이빠기 용돈을 아들에게 주었다. (-을/-에게순서)
	Unprimed Condition (=mismatch0)	Test A	제시구문 : 엄마가 아들에게 옷을 물려주었다. (-에게/-을 순서) 목표구문 : 언니가 책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을 -에게 순서)
		Test B	제시구문 : 언니가 책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을 -에게 순서) 목표구문 : 엄마가 아들에게 옷을 물려주었다. (-에게/-을 순서)
영어 (L2)	Primed Condition (=matched)	Test A	제시구문: The students threw a ball to the teacher(전치사구 여격구문:PP). 목표구문 The teacher gave a book to his student. (전치사구 여격구문:PP)
		Test B	제시구문: The students threw the teacher a ball. (이중목적어 여격구문:DO). 목표구문 The teacher gave his student a book. (이중목적어 여격구문:DO)
	Unprimed Condition (=mismatch)	Test A	제시구문: The students threw the teacher a ball.(이중목적어 여격구문:DO) 목표구문: The teacher gave a book to his student (전치사구 여격구문:PP)
		Test B	제시구문: The students threw a ball, to the teacher (전치사구 여격구문:PP)

목표구문: The teacher gave his student a book. (이중목적어 여격구문:DO)

프라임 조건에서는 제시된 문장과 다음의 읽어야할 목표문장의 통사를 같게 하고, 비프라임 조건은 제시된 문장과 다음 이어서 나오는 목표문장의 통사구조를 달리해서 두 가지 조건의 목표문장의 시선추적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가설은 프라임 조건의 목표문장이 비프라임 조건의 목표문장보다, 시선고정횟수, 리그레션, 읽기시간에서 좀 더 언어처리의 시선고정횟수와 리그레션이 적게 일어나고, 읽기시간에서도 프라임 조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읽기시간이 줄어들것으로 가설을 세워보았다.

4. 결과

4.1 한국어(L1) 처리의 연구결과

〈표 2〉 한국어(L1) 이중목적어 여격구문(-에게/-을순서)에 대한 시선추적 양상

항목	Unprimed Condition (matched) (A)	Primed Condition(mismatch)(B)	MD(A-B)
시선고정횟수	2.82	2.75	0.74
리그레션	0.31	0.29	0.02
첫읽기시간[ms]	271.19	292.43	21.25
두번째읽기시간[ms]	249.98	235.25	14.74
총읽기시간[ms]	521.17	527.88	6.51

〈표 3〉 한국어(L1) 전치사구 여격구문(-을/-에게 순서)에 대한 시선추적 양상

항목	Unprimed Condition (matched) (A)	Primed Condition(mismatch)(B)	MD(A-B)
시선고정횟수	3.01	2.53	0.47*
리그레션	0.28	0.26	0.27
첫읽기시간[ms]	272.73	214.06	58.67**
두번째읽기시간[ms]	3525.89	298.14	54.75
총읽기시간[ms]	625.82	5128.20	113.42*

note: *means $p < 0.05$ ** means $p=0.000$

4.2 영어(L2) 문장처리의 연구결과

영어(L2)의 구문처리중 나타나는 통사구조프라이밍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영어 이중목적어 여격구문 문장읽기에 대한 시선추적 양상

항목	Unprimed Condition (matched) (A)	Primed Condition(mismatch)(B)	MD(A-B)
----	----------------------------------	-------------------------------	---------

시선고정횟수	4.01	3.79	-.22
리그레이션	.41	.39	-.024
첫읽기시간[ms]	302.43	262.10	-40.32
두번째읽기시간[ms]	482.45	313.54	-168**
총읽기시간[ms]	830.92	631.91	-199**

note: ** means p=0.000

〈표 5〉 영어 전치사구 여격구문 문장읽기에 대한 시선추적 양상

항목	Unprimed Condition (matched) (A)	Primed Condition(mismatch)(B)	MD(A-B)
시선고정횟수	3.01	2.53	.473*
리그레이션 비율 (%)	.28	.26	.027
첫읽기시간[ms]	130.60	123.54	-58.669***
두번째읽기시간[ms]	272.73	214.06	-54.750
총읽기시간[ms]	625.62	512.20	-113.41**

note: *means p < 0. 05 ** means p=0.000

참고문헌

- 김성아. 2017.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관계절 중의성 해결, 「언어학 연구」 45, 199-218.
- 박분주 · 최성목. 2020. 시선추적을 통해 살펴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복합명사구 수식절 문장처리, 「현대문법연구」 108, 143-162..
- 박분주 ·김하영 ·최성목. 2021. 주어-동사 일치 문장처리에 관한 시선추적 연구. 「현대문법연구」 112, 251-273.
- Arai, M., van Gompel, R. P. G., & Scheepers, C. 2007. Priming ditransitive structures in comprehension, *Cognitive Psychology*, 54, 218-250.
- Bock, J. K. 1986. Syntactic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Cognitive Psychology*, 18, 355-387.
- Bock, J. K., & Griffin, Z. M. 2000. The persistence of structural priming: Transient activation or implicit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9, 177-192.
- Branigan, H. P., Pickering, M. J., Liversedge, S. P., Stewart, A. J., & Urbach, T.P. 1995 Syntactic priming: Investigating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languag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4, 489-506.
- Carminati, M. N., van Gompel, R. P. G., Scheepers, C., & Arai, M. 2008. Syntactic priming in comprehension: The role of argument order and animac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4, 1098-1110.
- Cleland, A. A., & Pickering, M. J. 2003. The use of lexical and syntactic information in languageproduction: evidence from the priming of noun-phrase structur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5, 721-736.
- Harsuiker, R. J., Pickering, M. J., & Veltkamp, E. 2004. Is syntax separate or shared between languages?: Cross-linguistic syntactic priming in Spanish-English bilinguals, *Psychological Science*, 15(6), 409-414.
- Kim, C. S., Carbary, K. M., & Tanenhaus, M. K. 2014. Syntactic priming without lexical overlap in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and Speech*, 57, 181-195.

- Kim, Eunah. 2019. Integration of Verb Subcategorization Information in L2 English Sentence Processing by Korean Learners: An Eye-Tracking Study, *Language Information* 29, 5-25.
- Ledoux, K., Traxler, M., & Swaab, T. Y. 2007. Syntactic priming in comprehension: Evidence from event-related potentials. *Psychological Science*, 18, 135-143.
- Levelt, W. J. M. & Kelter, S. 1982. Surface form and memory in question answering, *Cognitive Psychology*, 14, 78-106.
- Pickering, M. J., & Branigan, H. P. 1998. The representation of verbs: Evidence from syntactic priming in language produ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 633-651.
- Pickering, M. J., Branigan, H. P., & McLean, J. F. 2002. Constituent structure is formulated in one stag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6, 586-605.
- Thothathiri, M., & Snedecker, J. (othathiri and Snedecker, 2008 b). Give and take: Syntactic priming during spoken language comprehension. *Cognition*, 108(1), 51-68.
- Thothathiri, M., & Snedecker, J. 2008a. Syntactic priming during language comprehension in three and four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Memory & Language*, 58, 188-213.
- Tooley, K. M., & Bock, K. 2014. On the parity of structural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Cognition*, 132(2), 101-136.
- Traxler, M. J. (Traxler, 2008). Structural priming among prepositional phrases: evidence from eye-movements. *Memory & Cognition*, 36, 659-674.

Syntactic Causative Construction in L2 English

박혜선(계명대학교)

1. Introduction

1. Diverse ways of expressing causality(causing event => caused event)
(Comrie 1976, Gilquin 2016, Goldberg 1995, Kim and Davies 2015; Levin and Rappaport 1994, Shibatani 1976, 2002, Song and Wolff 2003, Stefanowitsch 2001, Wierzbicka 2016)
- conjunctions(e.g. because, so, since), prepositions(e.g. for, because of, due to),
lexical causatives, morphological causatives, syntactic causatives
2. Target of the current study: syntactic causatives
(make, have, get, cause, let, help, allow, force, prevent, stop, V ~into)
- relatively infrequent & complex structure
=> difficult to learn in language acquisition (Gilquin, 2016)
- focus of L2 studies: lexical causatives
(Hirakawa 1995, Montrul 200, Zobl 1989)
3. Syntactic causatives in L2: Gilquin(2016)
 - 1) RQ: influence of L2 acquisition contexts on the use of causative construction
ESL vs. EFL
 - 2)Corpora: ICLE(EFL): essays produced by students from 16 mother-tongues
(3,621,892 words)
ICE, NUCLE(ESL): essays, exam scripts
(outer circle countries (e.g. Singapore (1,435,187 words))
BNC(reference corpus): 5 million words (academic writing)
 - Target verbs: cause, get, have, make
- 3) Results:
 - a) frequency: EFL> ESL> ENL (overuse by L2 learners)
(the opposite pattern predicted by a usage-based view of language)
ENL: 150/ million(1.5/10,000) ESL:350 EFL:500
 - Slobin(1985:14): “children tend to favor analytic over synthetic expressions”
(analytic, decompositional strategy); compact expressions develop later in language acquisition
 - need future research comparing syntactic vs. lexical causative constructions

in language acquisition

b) make+causee+inf: most common (get, have: very rare)

EFL (ENLx8, ESLx3) > ESL > ENL

(make+causee+ adj not included in Gilquin's study)

- make is a general purpose verb: early acquisition in L1(Goldberg, 2006)
- prototypical causative verb, focus of instruction in EFL

c) cause+ causee+to-inf: ESL > EFL=ENL

- the meaning of causation is explicit in the verb cause
- easy to learn and use by ESL
- but, cause is associated with technical texts

d) constructional variation: EFL > ESL > ENL

- EFL learners use more diverse patterns than ESL
=> ungrammatical constructions
- ESL learners are affected/controlled by the input they are exposed to
(standard patterns)

2. Methods: corpus analysis

2.1. Corpus

- NNS: 40 narrative and 40 argumentative essays by Korean university freshmen
(Yonsei English Learner Corpus (YELC) (Rhee & Chung, 2012)
Seven levels based on CEFR

NS: 46 argumentative essays by American univ. students(Louvain Corpus of Native English Essays (LOCNESS) (Granger, 1998).

Table 1: Composition of the corpus

Level	narrative	argumentative
A1+	4,109	7,023
A2	4,113	7,831
B1	4,109	8,633
B1+	4,138	10,642
B2	4,091	11,620
B2+	4,084	12,641
C	4,249	11,877
total	28,893	70,240
NS		54,282

2.2. Data analysis

1. Target verbs: make, get, have, let, cause
force, allow, lead, mislead, prevent, stop, keep, V+into

2. Data coding

- causer/causee: animate vs. inanimate
- construction type(types of non-finite subordinate clauses):
verb+ causee + bare infinitive/to-infinitive/present participle/past participle/
adjective/noun
- lexicon in the non-finite verb
- effect predicate: mental vs. physical/social
- errors

3. Results

3.1. Overall frequency

- 1) higher frequency in L2 over L1 (analytic strategy => synthetic strategy, Gilquin 2016)
- 2) higher frequency in argumentative > narrative
- 3) positive relation with L2 proficiency

Table 2: Overall frequency

	arg	10,000 words	nar	10,000 words
A1+	23	32.7	8	19.5
A2	31	39.6	9	21.9
B1	46	53.3	14	34.1
B1+	49	46.0	15	36.2
B2	71	61.1	14	34.2
B2+	70	55.4	18	44.1
C	69	58.1	17	40.0
NS	183	33.7		

- 4) Frequency of core causative verbs(make, have, get, cause: Gilquin 2016)
 - A1+: narrative > argumentative (7 tokens of make)
 - other groups: narrative ≥ argumentative
 - be forced to, be allowed to: prompt in the argumentative essay task
 - NNS > NS (except A1+ in argumentative essays)

Table 3: Frequency of core causative verbs

	arg	10,000 words	nar	10,000 words
A1+	4	5.7	7	17.0
A2	13	16.6	7	17.0
B1	24	27.8	12	29.2
B1+	19	17.9	8	19.3
B2	32	27.5	11	26.9
B2+	31	24.5	13	31.8
C	28	23.6	10	23.5
NS	83	15.3		

3.2. Frequency of construction types

1. NS Argumentative essays

Table 4: Construction type frequency: NS

NS I					
construction type	freq	%	construction type	freq	%
make_adj	32	17.5	force_toV	4	2.2
allow_toV	29	15.8	be forced to_V	4	2.2
make_V	17	9.3	stop_from	4	2.2
be_allowed toV	17	9.3	prevent_from	4	2.2
cause_toV	8	4.4	help_V	3	1.6
let_V	7	3.8	help_toV	3	1.6
V_into	7	3.8	have_V	2	1.1
keep_adj	7	3.8	make_prep	2	1.1
have_Ved	6	3.3	be made_adj	2	1.1
get_prep	5	2.7	keep_from	2	1.1
make_NP	4	2.2	total	169	92.3

1) make_adj > allow_toV > make_V=be allowed toV (51.9%)

cause_toV > let_V > V_into= keep_adj > have_Ved > get_prep

2) make_adj > make_V > cause_toV > let_V > have_Ved > get_prep

2. NNS argumentative essays

Table 5: Construction type frequency: NNS_arg

construction type(A1+)	freq	%	construction type(A2)	freq	%	construction type(B1)	freq	%	construction type(B1+)	freq	%
be forced to	6	26.1	force_toV	6	19.4	be forced to	8	17.4	be forced to	12	24.5
be allowed to	4	17.4	make_V	4	12.9	make_V	7	15.2	make_adj	6	12.2
help_V(error)	4	17.4	be forced to	4	12.9	make_adj	5	10.9	make_V	5	10.2
make_V	2	8.7	make_adj	2	6.5	be allowed to	5	10.9	be allowed to	5	10.2
be forced to (error)	2	8.7	let's V	2	6.5	make_V(error)	5	10.9	make_NP	4	8.2
	18	78.3	make_V (error)	2	6.5	stop_prep (error)	2	4.3	make_V (error)	4	8.2
				20	64.7		32	69.6	let_V	2	4.1
									help_V	2	4.1
									help_toV	2	4.1
										42	85.8

construction type(B2)	freq	%	construction type(B2+)	freq	%	construction type(C)	freq	%
be forced to	16	22.5	make_adj	11	15.7	make_V	12	17.4
make_V	15	21.1	force_toV	9	12.9	make_adj	10	14.5
make_adj	12	16.9	make_V	7	10	force_toV	5	7.2
force_toV	7	9.9	help_V	7	10	let_V	4	5.8
be allowed to	6	8.5	let_v(error)	3	4.3	be forced toV	4	5.8
be allowed to V (error)	4	5.6	let_V	3	4.3	make_V (error)	4	5.8
let_V	2	2.8	be forced toV	3	4.3	keep_from	3	4.3
	62	87.3	prevent_from	3	4.3	prevent_from	3	4.3
			help_toV	2	2.9	help_V	2	2.9
			make_Ved	2	2.9		47	68
				52	74.5			

- 1) A1+ to B2: be forced to/force to
 B2+, C: make_adj, make_V
 => repetition of the essay prompt in the low/intermediate levels
- 2) make_V > make_adj > let (no occurrence of have, get)

3. NNS narrative essays

Table 6: Construction type frequency: NNS_nar

construction type(A1+)	freq	%	construction type(A2)	freq	%	construction type(B1)	freq	%	construction type(B1+)	freq	%
make_V	5	62.5	make_V	3	33.3	make_V	5	35.7	make_adj	4	26.7
make_V (error)	2	25	make_adj	3	33.3	make_adj	2	14.3	make_V	3	20
allow_toV	1	12.5	keep_adj	1	11.1	make_NP	1	7.1	let_V	3	20
	8	100	keep_prep	1	11.1	help_v	1	7.1	help_toV	1	6.7
				8	88.8		9	64.2			73.4

construction type(B2)	freq	%	construction type(B2+)	freq	%	construction type(C)	freq	%
make_V	5	35.7	make_V	7	38.9	make_adj	5	29.4
make_adj	3	21.4	make_adj	3	16.7	make_V	4	23.5
help_toV	3	21.4	make_NP	2	11.1	help_V	3	17.6
make_V(error)	2	14.3	help_toV	1	5.6	allow_toV	2	11.8
	13	92.8	keep_adj	1	5.6		14	82.3
				14	77.9			

- make_V > make_adj > let_V > help_toV
 =>no occurrence of have, get

3.3.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1. Pronominal object

Table 7: % of pronominal object

	arg		nar	
	fre	%	fre	%
A1+	0	0	8	100
A2	2	6.5	6	66.7
B1	6	13	11	78.6
B1+	12	24.5	10	66.7
B2	11	15.5	11	78.6
B2+	15	21.4	11	61.1
C	10	14.5	8	47.1
NS	38	20.8		

- High frequency in the narrative essays: fixed/idiomatic expression (e.g. makes/make/made me/her/us)

2. Animacy of causer and causee

Table 8: Animacy of causer & causee

	causer		causee		Nar (%)	causer		causee	
	ani	ianni	ani	ianni		ani	inani	ani	inani
A1+	29.4	70.6	64.7	35.3	A1+	0	100	100	0
A2	23.1	76.9	84.6	15.4	A2	22.2	77.8	88.9	11.1
B1	20.5	79.5	93.2	6.8	B1	38.5	61.5	84.6	15.4
B1+	16.3	83.7	81.6	18.4	B1+	46.7	53.3	93.3	6.7
B2	25.4	74.6	80.6	19.4	B2	50	50	100	0
B2+	20.3	79.7	72.5	27.5	B2+	23.5	76.5	70.6	29.4
C	19.7	80.3	77	23	C	35.3	64.7	82.4	17.6
NS	29.0	71	61.2	38.8					

1) Inanimate causer & animate causee

2) A1+: extreme pattern in the narrative essays

ex) She knows me very well. It makes her understand me.

I got A+ at almost art exam because of this experience. It made me have interest in art more.

3.4 Errors

Table 9: Error rates

	arg	%	nar	%
A1+	7	30.4	2	25.0
A2	7	22.6	1	11.1
B1	14	30.4	1	7.1
B1+	4	8.2	1	6.7
B2	9	12.7	2	14.3
B2+	9	12.9	1	5.6
C	5	7.2	1	5.9

1) Decrease as L2 proficiency develops

2) Most common and persistent error: make+obj+to_V

- Rather than talking to the child about what and why it is wrong and making it clearly understood, physical punishment only makes children to be afraid of the pain they get. (C)
- The teacher gave us a controversial topic and let us to talk in pros and cons (C)
=> input frequency effect (Gilquin, 2016)

Works Cited

- Comrie, B. (1976).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Cross-languag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In M. Shibatani (ed),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Syntax and Semantics. Vol. 6), (pp. 261-312). Academic Press.
- Gilquin, G. (2016). Input-dependent L2 acquisition: Caus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as a foreign and second language. In S. De Knop & G. Gilquin(eds.) *Applied construction grammar*(pp. 115-148). De Gruyter Mouton .
-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akawa, M. (1995). L2 acquisition of English unaccusative constructions. In D. MacLaughlin & S. McEwen (eds.), *Proceedings of the 19th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pp. 291-301). Cascadilla Press.
- Kim, J-B., and Davies, M. (2015). The INTO-CAUSATIVE construction in English: a construction- based perspectiv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55-83.
- Levin, B. and Rappaport, H. (1994). A preliminary analysis of causative verbs in English. *Lingua* 92, 35-77.
- Shibatani, M.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 A Conspectus*. In M. Shibatani (ed),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Syntax and Semantics. Vol. 6) (pp. 1-40). New York: Academic Press.
- Song, G. and Wolff, P. (2003). Linking perceptual properties to linguistic expressions of causation. In M. Achard & S. Kemmer (eds.), *Language, culture and mind*. CSLI Publications
- Stefanowitsch, A. (2001). *Constructing causation: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nalytic causative*.

Ph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Zobl, H. (1989). Canonical typological structure and ergativity in English L2 acquisition. In S. Gass &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03–2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erzbicka, A. (2006). *Meaning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기계 번역과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한정 명사구 연구

강아름 · 이용훈 (충남대학교)

본고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기계 번역기인 ChatGPT, 파파고, Google translate을 사용하여 당나귀 구문의 한정성을 번역한 후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인 mBERT, KoBERT, KR-BERT를 통해 각 번역기의 성능을 비교한다. 둘째,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통해 한국어의 한정성에 대한 이론적 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룰 영어 당나귀 구문이다. 대명사 it은 양화 문맥(quantificational context)에서 발생하는 공변 해석(covarying interpretation)을 발생시킨다. 다음과 같이 전칭적으로 혹은 존재적으로 해석된다(Karttunen 1969, Jacobson 1977, Cooper 1979, Evans 1980, Heim 1990, Ludlow 1994, Elbourne 2005 등).

- (1)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ts it.
 - a.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all of his donkeys.
 - b.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some of his donkey.

당나귀 구문에 대한 많은 연구 중 e-type 접근은 당나귀 구문의 대명사를 한정 명사구로 해석한다. 여기서 it은 “위장된 기술(disguised discription)”으로 해석되는데 한정 명사구의 해석이 다음과 같이 숨겨져 있다(concealed).

- (2)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ts it.
 - a.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ts it the donkey he owns.
 - b.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ts it the donkey.

한정성 표지자가 공변 해석을 갖는 경우는 범언어적으로 다양하며 Schwarz(2009, 2013, 2019)에 따르면 독일어와 페링어에서 강한정사(strong determiner)와 약한정사(weak determiner)가 교량지시적(bridging) 관계에서 구분되어서 사용된다. 부분-전체 교량 문맥(part-whole bridging contexts)에서는 약한정사가, 생산물-생산자 교량 문맥(product-producer bridging contexts)에서는 강한정사가 사용되며 각각의 경우 공변 해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어는 한정 명사구가 ‘그’에 의해 표지되는 방법과 민명사에 의해 나타나는 두 가지 구분된 표현이 있다. 각각 강한정사와 약한정사로 구분되었다(Kang 2015, 2021). 이에 기반하여 강아름(2023)에서는 한국어 당나귀 구문에서 영어 당나귀 대명사에 대응하는 후행 민명사는 e-타입의 해석을 가지는 한정 명사구이며 약한정사로 분석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때 당나귀 구문에서 발생하는 두 민명사 당나귀는 선행사와 후행사의 교량지시적 관계 중 부분-전체 관계로 분석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강아름 2023):

- (3) LF 구조
- a. 당나귀를 소유한 모든 농부는 당나귀를 때린다.
 - b. $\text{beat}(\text{the donkey})(\text{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 (4)
- a. Basic LF: $\text{beat}[(\text{the donkey})(\text{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 b. $\llbracket \text{당나귀(선행사)} \rrbracket = \text{a set of donkey}(s) \text{ that every farmer owns}$
 $= \iota x.[*\text{donkey}(x)(s)]$
 - c. $\llbracket \text{당나귀(후행사)} \rrbracket = \text{a set of donkey}(s) \text{ that every farmer beats}$
 $= \iota y. \exists x[\text{donkey}(y)(s) \wedge y \leq_{\text{atom}} x \wedge s' \leq s]$
 - d. $\text{beat}[(\text{the donkey})(\text{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 1$ iff
 $\lambda s \forall z[\exists x[\text{farmer}(z)(s) \wedge *\text{donkey}(x)(s) \wedge \text{own}(z)(x)(s)] \rightarrow$
 $\exists s' [s' \leq s \wedge \exists y[\text{donkey}(y)(s') \wedge y \leq_{\text{atom}} x \wedge [\text{beat}(z)(y)(s')]]]]$

위와 같은 이론적인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계 번역기와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hatGPT에게 영어 당나귀 문장과 통사적으로 동일한 당나귀 문장 60개 생성을 지시한다(4). 둘째, 생성된 60개의 문장에 대해 대명사 it을 적절한 명사구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다(5).

- (4) STEP 1: ChatGPT에게 명령 - Give me to different type of syntactically the same sentences as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 (5) STEP 2: ChatGPT에게 명령 - For the above sentences, replace "it" with the appropriate definite noun phrase.

위 과정에서 생성된 60개의 문장 중 임의로 추출된 5개 문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6)
 - a. Every musician who sings a song performs it.
 - b. Every athlete who runs a race finishes it.
 - c. Every author who writes a book promotes it.
 - d. Every sculptor who carves a statue displays it.
 - e. Every student who takes an exam passes it.
- (7)
 - a. Every musician who sings a song performs the piece.
 - b. Every athlete who runs a race finishes the course.
 - c. Every author who writes a book promotes the publication.
 - d. Every sculptor who carves a statue displays the sculpture.
 - e. Every student who takes an exam passes the test.

(4)와 (5)에서 생성된 문장들을 각각 Google translate, 파파고,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다. 각 문장들에 대한 acceptability를 mBERT, KoBERT, KR-BERT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mBERT	KoBERT	KR-BERT
Google translate			
(6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는 그것을 연주합니다.	60.358	80.275	86.916
(6b) 경주를 하는 모든 선수는 경주를 완주합니다.	57.914	75.782	81.748
(6c) 책을 쓰는 모든 저자는 책을 홍보합니다.	54.776	76.253	83.4
(6d) 조각상을 조각하는 모든 조각가가 그것을 전시합니다.	64.887	76.416	80.248
(6e)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60.78	75.438	80.326
(7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는 그 곡을 연주합니다.	61.245	85.411	93.454
(7b) 경주를 하는 모든 선수는 코스를 완주합니다.	53.041	78.27	86.686
(7c) 책을 쓰는 모든 저자는 출판을 홍보합니다.	52.557	68.435	73.726
(7d) 동상을 조각하는 모든 조각가는 조각품을 전시합니다.	52.107	64.708	68.9
(7e)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53.502	76.175	83.729
파파고			
(6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들이 그것을 연주한다.	58.929	82.545	90.414
(6b) 경주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그것을 끝낸다.	57.914	75.782	81.748
(6c) 책을 쓰는 모든 작가들은 그것을 홍보한다.	54.776	76.253	83.4
(6d) 조각상을 조각하는 모든 조각가들은 그것을 전시한다.	64.887	76.416	80.248
(6e)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그것을 통과한다.	60.78	75.438	80.326
(7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들이 그 곡을 연주한다.	58.106	85.205	94.235
(7b) 경주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코스를 마칩니다.	54.548	77.205	84.767
(7c) 책을 쓰는 모든 작가들은 그 출판물을 홍보한다.	50.234	77.266	86.266
(7d) 조각상을 조각하는 모든 조각가들은 그 조각상을 전시한다.	61.978	74.231	78.323
(7e)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시험에 통과한다.	59.568	75.81	81.216
ChatGPT			
(6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는 그것을 연주합니다.	60.358	80.267	86.916
(6b) 경주를 달리는 모든 선수는 그것을 완주합니다.	53.391	75.436	82.776
(6c) 책을 쓰는 모든 작가는 그것을 홍보합니다.	56.585	75.739	82.134
(6d) 조각하는 모든 조각가는 그것을 전시	56.236	70.457	75.191
(6e) 모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합격합니다.	53.411	71.755	77.877
(7a)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음악가는 그 곡을 공연합니다.	58.865	77.688	83.951
(7b) 레이스를 달리는 모든 선수는 코스를 완주합니다.	49.048	76.891	86.181
(7c) 모든 책을 쓰는 저자는 출판을 홍보합니다.	52.334	72.759	79.574
(7d)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상을 전시합니다.	62.381	68.388	70.38
(7e) 시험을 치는 모든 학생은 시험에 통과합니다.	52.815	77.124	85.231

번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문 (6)의 대명사의 경우 Google 번역은 ‘그것’으로 번역하거나 (6a/6d/6e) 선행 명사의 대응인 민명사로 대체하였다(6b/6c). 파파고는 대명사를 모두 ‘그것’으로 일관성있게 번역하였다. ChatGPT는 ‘그것’으로 번역하거나(6a/6b/6c/6d) 생략하였다(6e). 예문 (7)의 한정 명사구의 경우 Google 번역은 ‘그’를 사용하거나(7a) 민명사로 번역하였다(7b/7c/7d/7e). 파파고는 ‘그’를 사용한 경향성이 높으며(7a/7b/7c/7d) 민명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7e). ChatGPT는 ‘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7a), 민명사로 번역한 비율이 더 높았다(7b/7c/7d/7e).

언어모델이 측정한 acceptability는 민감도 향상을 위해 리커트 7점 척도(7-point likert scale)로 구분하였을 때 약 85.7% 이상이 만점으로 측정된다. 세 개의 언어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KR-BERT가 7점 만점으로 측정한 예문의 셀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각 명사구의 양화성과 한정성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참고문헌

- Cooper, Robin. 1979.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Syntax and Semantics* 10, 61–92.
- Elbourne, Paul. 2005. *Situations and individuals*. Cambridge, MA: MIT Press.
- Evans, Gareth. 1980.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1, 337–362.
- Heim, Irene.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137–178.
- Jacobson, Pauline. 1977. *The syntax of crossing coreference sentences*. Ph.d. dissertation, UC, Berkeley.
- Karttunen, Lauri. 1969. "Pronouns and variables." *The Proceedings of the fif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08–116.
- Ludlow, Peter. 1994. "Conditionals, events, and unbound pronouns." *Lingua e Stile* 29, 165–183.
- Schwarz, Florian. 2009. *Two types of definites in natural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Schwarz, Florian. 2013. "Two kinds of definites cross-linguistically."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7, 534–559.
- Schwarz, Florian. 2019. "Weak vs. strong definite articles: Meaning and form across languages." In Ana Aguilar-Gueva, Julia Pozas Loyo & Violeta Vázquez-Rojas Maldonado eds., *Definiteness across languages*, 1–37.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The Landscape of Emotive Terms in Korean: a Big Data-based Semantic Analysis

윤 수 원 (서울시립대학교)

1. Introduction: Emotive terms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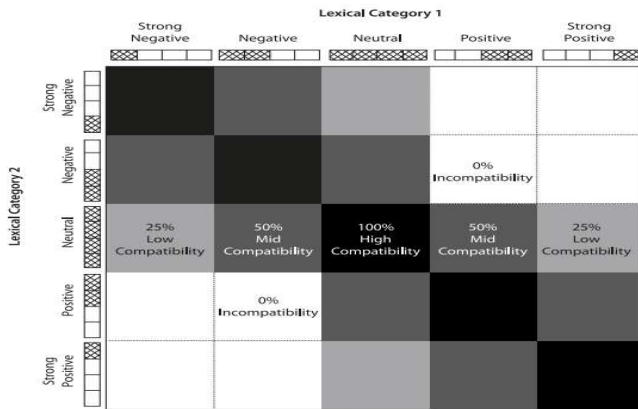
In the current work, I first focus on the Semantics of various terms that reflect the speaker's emotional attitudes in Korean, including emotive color terms, racial slurs, emotive taste terms, and temperature terms. In exploring extremely complex connotational nuances in 77 variants of emotive color terms, for example, I show the regularity of how such abundant derivations can be achieved by systematic phonetic and morphological alternations. I further show how these emotive variants systematically convey the speaker'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al attitude that is reflected in a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base term, in addition to its base meaning. To capture the precise meaning differences, I propose a hybrid analysis of these emotive terms at the interface of Pragmatics and Semantics. Further, I show how the dynamic paradigm of multiple expressives, a target emotive term and other emotive expressions in the sentence, can be predicted by the Compatibility Condition Model and the Compatibility Condition Index (Yoon 2015, 2018, 2021a). The rigorous investigation of numerous possible variants for a single base term reveals the systematicity of expressives, as part of our grammar, while the identification of another case of expressive element in language further supports the notion of multidimensionality (Potts 2005 et seq.).

2. Semantic-Pragmatic analysis

2.1. Compatibility Condition Model

Compatibility condition between slurs and other expressive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I propose the equation of Compatibility Condition Index (CCI) to calculate the percentage of compatibility between two (or more) expressive elements:

Figure 1. Compatibility Condition Model (CCM; Yoon 2015)



Evidence 1: compatibility condition in Korean

Table 1
The compatibility of ethnic slurs and expressive nouns.

epithets for 'guy'	slurs			
	<i>ppalkayngi</i> 'commie'	<i>kemtwtungi</i> 'darkie' [-1,0]	<i>hukin</i> 'black people' [-1,1]	<i>hukhyeng</i> 'black brother' [0,1]
<i>saykki</i> 'bastard' [-1,-5]	high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nom,casik</i> 'jerk' [-1,0]	mid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namca</i> 'man/guy' [-1,1]	low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ssi</i> 'Mr./Ms.' [0,1]	in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pwun, nim</i> 'sir' [.5,1]	in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Evidence 2: compatibility condition in Korean

Table 2
Compatibility of slurs and case markers.

case markers	slurs			
	<i>ppalkayngi</i> 'commie'	<i>kemtwtungi</i> 'darkie' [-1,0]	<i>hukin</i> 'black person' [-1,1]	<i>hukhyeng</i> 'black brother' [0,1]
<i>ttawi-ka</i> 'Nom.ANTLHON'	high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ttawi-eykey</i> 'Dat.ANTLHON' [-1,-5]	high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ka</i> 'Nom.NEL'	low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eykey</i> 'Dat.NEL' [-1,1]	low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kkeyse</i> 'Nom.HON'	in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kkey</i> 'Dat.HON' [.5,1]	in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Evidence 3: compatibility condition in Korean

Table 3
Compatibility of slurs and (anti-)honorific markers.

(anti-)honorific markers	slurs			
	<i>ppalkayngi</i> 'commie'	<i>kemtwtungi</i> 'darkie' [-1,0]	<i>hukin</i> 'black person' [-1,1]	<i>hukhyeng</i> 'black brother' [0,1]
<i>-peli</i> 'NEG.ATT' [-1,-5]	high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o</i> 'NEU.ATT' [-1,1]	low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i>-si</i> 'SUBJ.HON' [.5,1]	in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low compatibility	incompatibility

Evidence 5: compatibility condition in Korean

Table 4
Compatibility of slurs and various verbal markers.

verbal markers	slurs			
	<i>ppalkayngi</i> 'commie' <i>kkamtwungi</i> 'nigger' [-1,-.5]	<i>kemtwtungi</i> 'darkie' [-1,0]	<i>hukin</i> 'black person' [-1,1]	<i>hukhyeng</i> 'black brother' [0,1]
- <i>pe</i> l 'NEG.ATT'	high compatibility	mid compatibility		
<i>chye-</i> 'intensely' [-1,-.5]	low compatibility			
<i>o</i> 'NEU.ATT' [-1,1]	incompatibility			
- <i>si</i> 'SUBJ.HON'				
- <i>cwu</i> 'favorably'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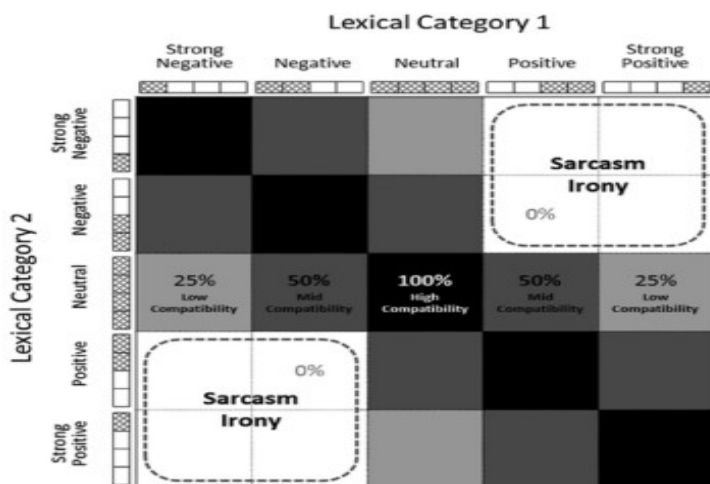
2.2. Nonconformity cases

Furthermore, I suggest a condition for rescuing by pragmatic effects as a secondary mode of pragmatic sanctioning in exceptional cases of co-occurrences of conflicting attitudinal components, as shown in the following cases:

- (i) Juxtaposition of opposite attitudes: sarcasm, irony, or hyperbole: *Ppalkayngi-nim*
- (ii) Flip-flop of bipolar emotional index: strengthened emotion or intimacy: *Hiya, bitches!* (to extremely close friends)
- (iii) Code-switching at honorific-dimension: modulating social distance: *Sakwa-ka o-ass-eyo. sakwa-ka oa-ss-e*
- (iv) Autonomy of Emotion- and Honorific-dimensions: multidimensionality

This is predicted by the sarcasm/irony regions in the Compatibility Condition Model.

Figure 2. Sarcasm and Irony areas in CCM



3. Big data analysis

I reevaluate the Compatibility Condition on the polarity/degree of emotional attitude for the emotive elements in Korean (Yae and Yoon 2017, Yoon 2021b, 2022a,b). I discuss results obtained from a big data-based trend analysis including usages in Twitter, news articles, and blogs. Two main issues are reexamined here: one concerns constraints on the Compatibility Condition and how to measure the degree of compatibility; and the second concerns how strict the compatibility condition of expressives is, and what happens if the condition is flouted. The new results from the big data-based trend analysis reveal which part of the prior theoretical analysis is valid in reality and which part requires revision.

- Slurs in big data: data source

Data source of *kkamdwungi* 'blackie, nigger'.

Data source	Total number of collected items	Number of entries (percentage)
Twitter	16,948,327	750 (0.0044%)
News	1,057,758	62 (0.0059%)
Blog (weblogs)	171,719	9 (0.0052%)

- Slurs in big data: text categories

Categories of texts containing *kkamdwungi* 'blackie, nigger' in 2015 and 2016.

Formality of text categories	Categories of texts	2015-07-04-2016-07-05	Percentage
Semi-formal	Current events	13	1.58%
	Life/Culture	22	2.68%
	Entertainment	7	0.85%
	Sports	3	0.37%
Formal	Economy	0	0.00%
	Tech	3	0.37%
	World	23	2.80%
	Politics	0	0.00%
Informal	Personal posting at Twitter/blogs	750	91.35%
Total		821	100%

Figure 3. Word Cloud for *kkamdwungi* 'blackie, nigger':



Fig. 19. Word cloud of *kkamdwungi* 'blackie, nigger'.

4. Other Emotive terms in Korean (vs.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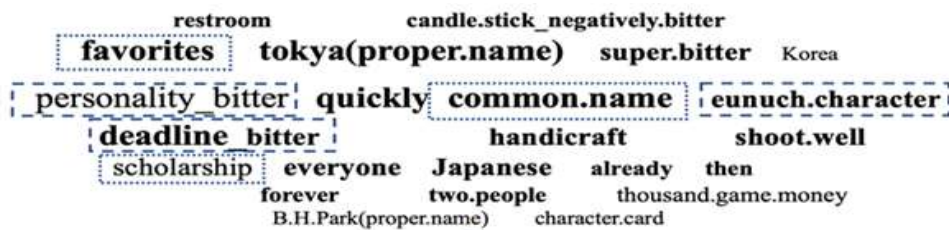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different sentiment between two variants of taste terms like

‘bitter.’ See Yoon (2018, 2021a, b, 2022a, b) for sentiment in color terms and temperature terms in Korean.

Figure 4. Word Cloud for ssapssal ‘bitter.pos’



Figure 5. Word Cloud for ssupssul ‘bitter.neg’



5. Sentiment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in Korean also show rich emotive variants.

- (1)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in Korean: Positive vs. Negative variants
 - a. Alloktallok vs. Ellwuktellwuk ‘colorful’
 - b. Pokulpokul vs. pwukulpwukul ‘(boiling sound)’
 - c. Photongphotong vs. phitwungphitwung ‘chubby’
 - d. Panccakpanccak vs. penccekpenccak ‘flashing’
 - e. Chokchok vs. cwukchuk ‘moist’
 - f. Salccak vs. sulccak ‘gently vs. sneaky’
 - g. Colcol vs. cwulcwul ‘(flowing water sound)’

One implication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by specifying an Emotional Index for expressive items in the sentiment lexicon, the Compatibility Condition, as a grammatical constraint, predicts how multiple occurrences of compatible expressives can be used to strengthen a speaker’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

Works Cited

- Potts, Christopher. 2005.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Yae, James and Suwon Yoon. 2017. Compatibility condition for expressives revisited: A big data-based trend analysis. *Language Sciences* 64: 69–102.
- Yoon, Suwon. 2015. Semantic constraint and pragmatic nonconformity for expressives: compatibility condition on slurs, epithets, anti-honorifics, intensifiers, and mitigators. *Special Issue on Slurs at Language Sciences* 52: 46–69
- Yoon, Suwon. 2018. 77 Shades of black: Pragmatics of emotive color term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7(1): 1–34.
- Yoon, Suwon. 2021. Positively bitter and negatively sweet? Conventional implicatures and compatibility condition of emotive taste terms in Korean vs. English. *Pragmatics* 31(2): 303–329.
- Yoon, Suwon and James Yae. 2022. Semantic prosody of temperature terms in English: Corpus vs. Sentiment-AI analysis, *Linguistic Research* 39.3:199–225.
- Yoon, Suwon. 2021. Sentiment analysis of taste terms in English: a corpus vs. sentiment AI study.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2.1.

A Comparative Survey of Vision Conceptual Metaphor Mechanism Based on the Corpus in English and Chinese

Zunshuai Li (Jeonbuk University)

Metaphor is traditionally viewed as one of the rhetoric devices, while Cognitive Linguistics deems it as a tool of thinking and cognition. Embodied philosophy believes that human cognition stem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body and space, and that all of the basic conceptual metaphors take root in the experience of life. Since vision is one of the predominant approaches to experiencing life and obtaining information, studying vision metaphor exclusively, therefore, can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working mechanism of conceptual metaphors.

There are abundant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English and Chinese. But past relevant researches were only confined to a single language without a unified and systematic analytical framework. So this article attempts to collect the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English and Chinese so a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and comparison under a newly-established theoretical framework: Vision Conceptual Metaphorical Mechanism (VCM), which is mainly based on embodied philosophy and also the related theories in Cognitive Linguistics.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n “from concreteness to abstractness” in both languages:

Categories	Vision conceptual metaphors Number (Rate)	
	Chinese	English
From vision to idea	85 (42.5%)	80 (40.0%)
From vision to judgment	30 (15.0%)	8 (4.0%)
From vision to expectation	20 (10.0%)	24 (12.0%)
From vision to behavior	55 (27.5%)	80 (40.0%)
total	190 (95.0%)	192 (96%)

It is shown from the above table that the English and Chinese people have lots of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vision conceptual metaphors.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metaphor theories, including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s, the author proposes VCM for the first time. The author makes a comprehensive survey on 14 vision vocabularies (7 in Chinese and 7 in English), establishes a closed corpus with 400 examples, and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ystematically with support by some relevant data and proportions. Analysis of the corpus unfolds some important findings: 48 conceptual metaphors are abstracted from the corpus (25 in Chinese, 23 in English); and also

in both corpora the category of idea holds the largest percentage, with 42.5 % and 40.0 % in both Chinese and English respectively. 16 vision conceptual metaphors (8 in Chinese and 8 in English corpora) have been added to the summarized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n previous researches.

[Key words: Embodied philosophy; conceptual metaphor; cognition; VCM; contrast between Chinese and English]

1. Motivation and Scope of the Study

Among the five perceptive senses, vision perception is the most primary one that man uses to know about the world, the result of which is a most important basi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 world.

The vision domain is important not only in its own, but also for the production of abstract domains by metaphorical mapping. As a matter of fact, we can easily find that vision metaphors permeate in our daily language and literary discourses.

In the book *Metaphors We Live By*, Lakoff and Johnson (1980, p.48) cited the following examples:

I see what you are seeing. It looks different from my point of view. What is your outlook on that? I view it differently. That's an insightful idea. The argument is clear. It was a murky discussion. Could you elucidate your remarks? It's a transparent argument. The discussion was opaque.

Take for example the English word “see”, as is used in “I looked out but saw nothing”, “I see the point of the story”. The meanings of “see” in these two sentences are by no means identical.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97, pp.1358–1359) lists correspondent meanings for this word, ranging from “being aware by using the power of sight to understand”, to “learning by search or inquiry or reflection”. Some lexical semantic theories suggest that the word “see” is a classic example of dead metaphor. That is to say, the speakers may at one time have metaphorically extended the literal meaning of perception by the eye to other meanings, such as “knowing” or “understanding”. This metaph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senses of word “see” has presumably been lost over time. So these lexical items are taken as the phenomenon of polysemy traditionally. However, they are so overwhelmingly used by speakers without second thought of the motivation underlying.

With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emantics, now speakers come to understand that the various extended meanings of the word “see” are related to some highly abstract set of features. Some linguists of lexical semantics hold that the meanings of many polysemous word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basic metaphors that motivate the transfer of English vocabulary from the domain

of physical motion and object manipulation and location to various social and mental domains. This article establishes the close corpus (400 sentences containing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as my candidates with my focus not only on demonstrating the cognitive mechanism underlying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but also the universalities and diversity between Chinese and English vision metaphors and present an explanation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specifically, under my own proposed theoretical framework VCM (Vision Conceptual Metaphorical Mechanism).

2.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The contemporary metaphor theory assumes that such conceptual metaphor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human cognition, because they are widespread across various cultures. So the study of conceptual metaphors is of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VCM mechanism in order to explain the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the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Briefly, the author conducts the research by ways of collecting the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the English and Chinese so as to make a systematic analysis and comparison under VCM, which is mainly based on embodied philosophy and the related theories in Cognitive Linguistics. VCM includes “four mappings”, which are mapping from vision to idea, from vision to judgment, from vision to expectation and from vision to behavior.

In order to reach this objective, five steps are listed as followed:

1. Establishing a theoretical framework as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study by adopting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2. Collecting linguistic data about vision metaphors from English and Chinese as many as possible and classifying them systematically.
3. Examining and analyzing these linguistic data within the theoretic framework of VCM with the aim to discover “four mappings” of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4. Synthesizing both universality and diversity manifested in the vision metaphors of the two languages.
5. Attempting an explanation to these universalities and diversities from different approach.

3. Methodology of the Study

In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field, different approaches were used. Nevertheless, few of them used the method of closed corpus. The study made by the thesis is both data-based and theory-based at the same time. Being data-based means that the analysis is on the basis of the closed corpus (The corpus establishment is described in Chapter 4). Being theory-based means that the study is performed with VCM proposed by the author.

4. Previous Studies on Vision Metaphors

This part will primarily be devoted to the summariz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vision metaphors conducted by both foreign and Chinese scholars. Specifically, the author will first of all center on the researches done by foreign linguists on vision metaphors in English expressions, and then deal with the related achievements made by Chinese scholars in this field.

On the one hand, related researches done by foreign scholars did not involve Chinese data. Thus, it is not a surprise to find out that those foreign scholars mainly concentrate their time and energy on the analysis of the vision metaphors in their mother tongues. .

Leading study in the field include researches conducted by famous linguists Lakoff & Johnson, Sweetser and Harald. L & J (1980, p.50) in their book of *Metaphor We Live by* proposed that the conceptual metaphor is the basic way for human beings to understand and cognize the world, and they also listed some vision conceptual metaphors, namely: “seeing is knowing”, “seeing is touching”, “eyes are container for emotion” and “seeing is believing”. And they went on to claim in their research that the premised condition for such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s the occurrence of or connection between the target and source domain in the child experience. Sweetser further discussed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English. Sweetser (1990, p.38) in his book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held the view that “vision is connected with intellection because it is our primary source of objective data about the world”. Therefore, sense of vision is regularly linked with the objective and intellectual side in our mental life and thus is mapped onto other domains of physical manipulation (grasping is controlling) and mental manipulation (understanding is grasping, understood knowledge is under control). Harald (2002, p.50) elaborated on vision metaphors involving the visual verb “see” and he summarized that here are four vision conceptual metaphors, namely, “seeing is looking outwardly”, “seeing is eating”, “seeing is manipulation” and “seeing is atten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past years, many domestic scholars have also conducted plenty of relevant research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browsing all the publications from 1977 to 2009 in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hundreds of articles concerning conceptual metaphors or the semantic extension of visual concepts can be found, but articles exclusively studying on vision metaphors are deplorably few, not to mention the articles solely related to the contrastive study of Chinese and English vision metaphors. As a matter of fact, altogether, only 9 short papers whose researches are solely confined to vision metaphor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se 9 articles are all newly-published articles after 2000 and each of them bears some shortcomings in terms of its analysis, corpus or theoretical framework, which again indicates that such researches on vision metaphors are comparatively new, hence meriting our due attention and research.

Qin Xiugui (2008) systematically made a contrastive study of the conceptual metaphor of “eye (眼)” in Chinese and English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he found that the domain of “eye (眼)” could be mapped onto four experiential domains: domains of intelligence, domains of emotion / attitude, domains of social relation and domains of time / shape.

Zhang Xuezhong and Dai Weiping (2007) analyzed the conceptual metaphors related to “eye” and he concluded in his article that it is the mapping from our vision domain to other less known domains that allows human beings to reason and understand other less familiar concepts. However, his article lacks adequate and convincing statistics and corpus to support his argument.

Wu Xinmin (2006) conducted a study on Chinese and English conceptual metaphors involving the regularly-used visual verbs. He as well alleged that the domains which our vision concepts map onto are not only domains of mentality, but also domains of the outside physical world, including the social relation domain, and other perceptual domains.

Gou Ruilong (2003) discussed the perceptual metaphor system. And he primarily studied on vision metaphors and also their relation with other perceptual domains, so as to prove that there was great iconicity in the creation and use of our daily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Other scholars have also done relevant researches in this regard. Zeng Lingling (2008) touched on the contrastive study between Chinese and English vision conceptual metaphors. Wang Yueli and Ni Kunpeng (2008) analyzed the semantic extension of “眼睛” in the Chinese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metaphor and metonymy. Sun Hongjuan and Zhao Hongbo (2007) altogether did a contrastive study between Chinese and Korean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Dai Weiping (2005) and Chen Jia (2003) as well respectively conducted researches on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n English expressions and the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popular vision metaphors in both English and Chinese.

5. VCM and Case Study

Give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both English and Chinese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the above mentioned metaphor theories (traditional metaphor theory and modern metaphor theory) cannot fully and efficiently analyze the collected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he closed corpus. So on the basis of the unique closed corpus in our study and also the cognitive theory of CM, I hav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work called VCM, based on which the analysis of the corpus will be conducted in a more productive manner.

VCM is a sort of a cognitive mechanism or strateg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M. And as a cognitive mechanism, it is exclusively put forward to explain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in both English and Chinese. By means of VCM mechanism, the predominant vision concepts can be mapped onto other more abstract or less familiar domains, such as domains of behavior,

judgment, or expectation.

Specifically, the newly-proposed VCM mechanism incorporates four subcategories of mapping: mapping “from vision to idea”, “from vision to judgment”, “from vision to expectation” and “from vision to behavior”. And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ends to name the four subcategories simply as: “category of idea”, “category of judgment”, “category of expectation” and “category of behavior” for convenience.

On the basis of such a cognitive mechanism, both English and Chinese people have correspondingly created their own new conceptual metaphors and as well their specific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Taken together, the cognitive strategy or mechanism of VCM is mainly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leading characteristics besides the common and well-known characteristics of CM:

1. The target domain in VCM is sub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its own semantic features, namely the “category of idea”, “category of judgment”, “category of expectation” and “category of behavior”.
2. The source domain in VCM is as well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visual action and the visual organ.
3. VCM displays that the mapping between the target domain and the source domain in a vision metaphorical sentence is actually the mapping from a predominant domain of vision concepts to other less familiar domains, namely domains of idea, judgment, expectation and behaviour. And for the definition of the four categories, please turn to the next chapter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now the author will afford two specific cases of study to illustrate how VCM works in interpreting such kinds of vision metaphorical expressions.

1) Case Study One:

村民看小病不用出村，老年人看病免费。

“看是体检” is one of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n the category of behavior. The verb “看” actually does not refer to the simple act of “looking”, but it means “examining a patient by a series of specific acts” including “looking, hearing, smelling, or touching”. Since “seeing” is the predominant way in examining a patient, it is later used to substitute all the other physical and mental actions during the physical examination. Thus the conceptual metaphor “seeing is examination” can be looked as the mapping from “vision” domain to “behavior” do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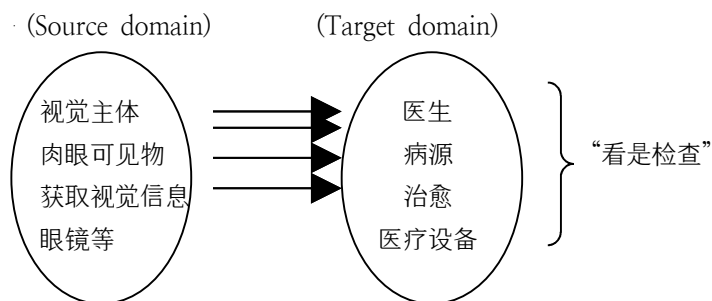


Figure 1: VCM illustration of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 “看是检查”

We can see from Figure 1 that in the Chinese language, it is the mapping of the attributes from the source domain (看) to its target domain (检查) that produces the novel vision conceptual metaphor “看是检查”. The original meaning of “看” is just a simple visual acts. But in the hospital schema, the agent of such an act of “看” is virtually narrowed down to a doctor. Naturally, that a doctor “sees” a patient evokes the full meaning of “examining” a patient.

Therefore, the analytical result is that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 “看是检查” belongs to the category of behaviour. And this mapping involves the cognitive strategy of saying one thing unknown in terms of another known. Specifically, we may say that we are expressing the comparatively complex meaning of “检查” by using a more general, simple and familiar concept of “看”.

2) Case Study Two: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 “seeing is knowing” is another popular vision metaphor in the category of idea. It is admitted that the mental domain is invisible, abstract and complicated, so it is the common strategy to map the well-familiar vision domain onto the less familiar domain of idea.

Such as:

(2) Be around. Like a daughter? Well, you see, that’s how I think.

(3) So that Fergus felt as if John was seeing into his mind.

In the first example, “see” means “to know”. Every day, we may collect a great deal of information through our eyes. The vision verb “see” here is obviously to emphasize the impression on what is seen. In example (3), “mind” is an invisible and intangible concept. It is only via the mapping from vision concepts to such invisible and intangible concept that we can understand better and faster what “a mind” really is or looks like. Thus, in example (2) “see” is used to refer to one’s “knowing” to something vague or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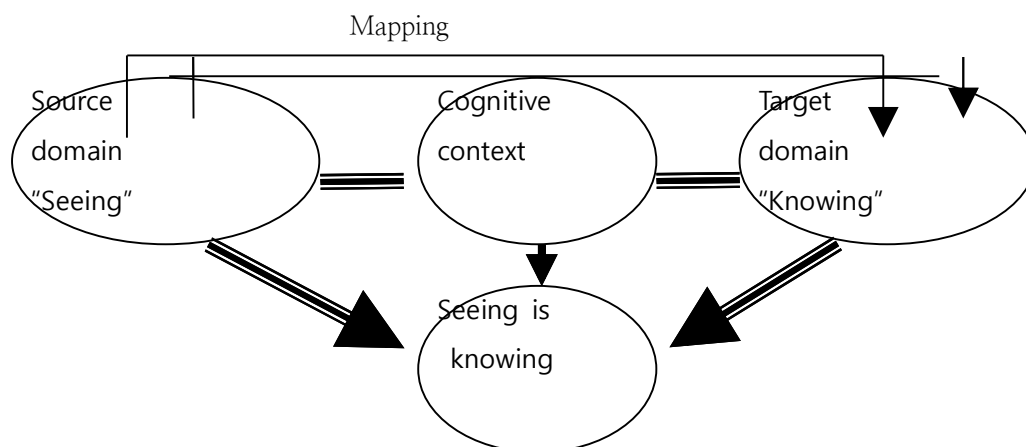


Figure 2: VCM illustration of the “seeing is knowing”

Figure 2 shows that in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 “seeing is knowing” is emerged after the mapping from the domain of “seeing” onto the domain of “knowing”. An idea is an object that you see. Get to know something is seeing an object clearly. A person who knows is a person who sees. “Visual focusing is mental attention. Mental intellectual acuity is visual acuity. A mental view point on something is a physical viewpoint. And an impediment to knowing is a visible obstruction like pulling the wool over your eyes or being blind, that something may keep you from seeing (Lakoff, 2007, p. 201).” More specifically, the attributes in the source domain like actor of “seeing”, content of “seeing”, instrument of “seeing”, purpose of “seeing”, etc, would all be mapped onto their equivalent attributes in target domain. Thus a new vision metaphorical concept “seeing is knowing” can be achieved. During the process of the mapping, the cognitive context would provide enough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emergent metaphorical meaning. For instance, in the sentence “you see how I think”, it is clear that the content of “seeing” is invisible ideas.

6.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and contributions in the present study are listed as follows:

1.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theories of metaphor, including the vision conceptual metaphors, the author proposes VCM mechanism for the first time.
2. The author makes a comprehensive survey on 14 vision vocabularies (7 in Chinese and 7 in English), establishes a closed corpus with 400 examples, and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ystematically, with some relevant data and proportions. Through comparison, this research reveals that vision metaphors show some universalities and diversitie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3. Analysis of the corpus unfolds some important findings: totally 48 conceptual metaphors being abstracted from the corpus (25 in Chinese, 23 in English); the top three in Chinese and English vision conceptual metaphors are respectively (cf. p. 25 & p. 36): “看是期待(16)”, “看/视是认为(15)” and “看是明白(15)”, “Viewing/eye is opinion/idea (15)”, “seeing is understanding (15)” and “seeing is experience (13)”. And also in both corpora the categories of idea hold the largest percentage with 42.5 % and 40.0 % in both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4. 16 vision conceptual metaphors (8 in Chinese and 8 in English corpora respectively) have been added to the summarized vision conceptual metaphors in the previous researches.

In general, the empirical studies presented herein reinforce the view that metaphor is the main mechanism through which human beings comprehend abstract concepts and perform abstract reasoning. These conceptual metaphors are grounded in our basic human experiences that may be universalities to all human beings.

Works Cited

- Aristotle. (1954). *Rhetoric and poetic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Black, M. (1979). More about metaphor. In A.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ald. (2002). What language reveals about our conceptions: A case study on seeing. *Cognitive Linguistics*, (12), 49–51.
- Kö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Oxford: Blackwell.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ddy, M. (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pp. 284–3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I. A. (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陈 佳. (2003). 英汉视觉常规隐喻比较.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1), 20–23.
- 戴卫平. (2006). 英语视觉词的思维隐喻. *广西社会科学*, (2), 54–56.
- 高远, 李福印主编. (2005). *莱科夫认知语言学十讲*.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猴瑞隆. (2003). 汉语感觉范畴隐喻系统. *郑州大学学报*, (5), 54–55.
- 覃修桂. (2008). 英汉语嗅觉隐喻极其投射范围. *外语教学与研究*, (1), 16–18.
- 曾玲玲. (2008). 英汉视觉域概念隐喻之比较. *浙江万里学院学报*, 2008, (06), 16–19.
- 王月丽, 倪坤鹏. (2008). 从隐喻和转喻认知思维模式看“眼睛”的词义延伸. *乐山师范学院学报*, (2), 52–58.
- 张学忠, 戴卫平. (2007). 英语“eye”隐喻分析. *广西社会科学*, (10), 33–36.
- 孙红娟, 赵宏勃. (2007). 汉韩“眼”的隐喻对比研究. *语言文字应用*, (1), 22–26.
- 吴新民. (2006). 汉英视觉动词概念隐喻的比较研究. *济宁师范专科学校学报*, (4), 56–59.

A Study on the English Counterparts for Korean ‘-aseo/-oeseo’

조 은 정 (경상국립대학교)

1. Introduction

The Korean language possesses a complex grammar system and intricate inflectional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difficult for people learning it as a foreign language. The grammatical components of particles that merge with nouns and inflectional endings that modify verb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for students from Chinese or English-speaking backgrounds who are not native Korean speakers.

It is crucial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to have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grammar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usage of connective particles and inflectional endings. Endings are utiliz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at the end of sentences, as connective particles that join sentences together, and even within a sentence that contains another sentence.

Therefore, learners must learn the correct usage of connective ending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endings clearly from the beginner level. Otherwise, they may make many mistakes in intermediate or advanced stages and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learning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glish counterparts of the Korean connective endings ‘-go’ and ‘-aseo/-oeseo’ in terms of their differences in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with the aim of aiding foreign students in their comprehension and usage of connective endings in Korean sentences.

2.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junction ‘-aseo/eoseo’ has three semantic functions: indicating a causality or successional relation, and a means or method. In beginner level Korean language learning, it is introduced as having two meanings: a consecutive action in chronological order and a causality. It is commonly labeled as indicating "time order" in Korean grammar books and language textbooks. Although there is a clear temporal difference between the preceding clause and the following clause that includes ‘-aseo/eoseo’, to distinguish it from the conjunction ‘-go’, the term “successional relation” is used to differentiate it, and this study only discusses the meaning of ‘-aseo/eoseo’ as a successional relation. In discu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aseo/eoseo’ and ‘-go’, the focus is on the semantic

and syntactic feature that the preceding claus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llowing clause.

Considering that ‘-aseo/eoseo’ and ‘-go’ are commonly introduced to beginner level Korean learners and have similar usage as conjunctions, but confusion may arise when ‘-aseo/eoseo’ is used to indicate causality rather than successional relation. The term “successional relation” is introduced, which means ‘an event or phenomenon that occurs one after another,’ and is the most frequently used connective ending for this purpose, according to a study by Kim (2004). The overall point is that the complex nature of Korean connective endings can be challenging for foreign learners, but understanding their usage is crucial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langu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requently used and error-prone Korean conjunction ‘-aseo/eoseo’ and investigate its grammar and explore the English counterparts to ‘-aseo/eoseo’ so that it shed light on effective ways to effectively distinguish and utilize ‘-aseo/eoseo’ in contrast to other conjunctions and propose methods for beginner-level Korean learner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3. Successional relation usage of ‘-aseo/eoseo’

According to Seong (2007: 205), to distinguish between the causality and the successional relation indicated by ‘-eoseo’ and ‘-어’, he refers to ‘-어’ instead of ‘-eoseo’ and classifies ‘-eoseo’ as a variant of ‘-eoseo.’ He compares and analyzes the meanings of ‘-go’ and ‘-eo’ separately, and also analyzes ‘-eoseo’ and ‘-nikka’ separately. In his discussion, Seong focuses on analyzing ‘-eo’ instead of ‘-eoseo’ and explains it by including the meaning of ‘-gajigo’ (having and holding) as follows:

- (1) a. Naneun Busane ga(seo) beomineul jabatda.
→ Naneun Busane ga gajigo beomineul jabatda.
(I went to Busan and caught the criminal.)
- b. Naneun gyeraneul sama(seo) nanueo jueosdda.
→ Naneun gyeraneul sama gajigo nanueo jueosdda.
(I boiled the eggs and shared them.)
- c. Naneun geureul manna(seo) butakhaessda.
→ Naneun geureul manna gajigo butakhaessda.
(I met him and asked a favor.)

Seong (2007), discusses the different functions of the Korean connective ending ‘-eo(seo)’ depending on its usage. When ‘-eo’ is used to indicate a method or means of doing something, such as in the examples ‘ssipeo meokda’ or ‘georeo gada’, he refers it to as ‘-eo1’. However, when ‘-eo’ is used to express the completion of an action, as in the sentence (1) above, it is

classified as ‘-eo2’ and is used to indicate the result or outcome of the action.

Seong discusses the differences between ‘-eoseo’ and ‘-go’, two endings that are often used to indicate the successional relation. He asserts that even when ‘-gajigo’ is added after ‘-eoseo’, the meaning of the sentence does not change significantly, and therefore ‘-eoseo’ is clearly distinct from ‘-go’ in this regard.

4. Discussion

According to Mok Ji-sun (2012), the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go’ and ‘-aseo/eoseo’ can be as follows:

- 1) Both ‘-go’ and ‘-aseo/eoseo’ express the meaning of time order, but they differ in the degree of tightness betwee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and in the sharing of constituents.
- 2) ‘-aseo/eoseo’ is used when the preceding clause serves as a premise for the following clause or when the event in the preceding claus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vent in the following clause, and thus the two clauses cannot be separated.
- 3) ‘-go’ simply connects two events based on their temporal relationship, and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weak.
- 4) The connector ‘-go’ can be used without any syntactic constraint, whether the subject is the same or different.
- 5) ‘-aseo/eoseo’ can only be used when the subject is the same.
- 6) When both clauses share the same object or adverbial, ‘-aseo/eoseo’ is used if the two verbs have the same object or adverbial, and ‘-go’ is used if they have different ones.

Based on this,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aseo/eoseo’ instead of ‘-go’ in the sentence “Wonsungiga bananareul kkago geugeoseul meokneunda.” (The monkey peels the banana and eats it.) because the two verb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share the same object, “banana,” which is the direct object of the action of “peeling” and the indirect object of the action of “eating.” In this case, even if “and” and “it” are expressed in English and the pronoun “it” is explicitly mentioned, using ‘-go’ instead of ‘-aseo/eoseo’ would be inappropriate. In other words, “and” and “it” can be replaced by ‘-aseo/eoseo’.

Park (2016) provides concrete examples of the usage of ‘-aseo/eoseo’ with the same object, time adverbial, and place adverbial, and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go’ and ‘-aseo/eoseo’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he also presents a clear explanation of the concept and usage of ‘-aseo/eoseo’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 (2) a. Naneun sagwa-reul ssisgo meokneunda.

(I wash an apple and eat it.)

Or (I wash an apple and eat something else.)

b. Naneun sagwa-reul sseiseo meokneunda.

(I usually wash an apple before I eat it.)

(I wash an apple, which I eat.)

These examples show the difference between ‘-aseo/eoseo’ and ‘-go’ in Korean. The sentence “Naneun sagwareul ssisgo meokneunda.” can have two different meanings in English depending on the context, whereas “Naneun sagwareul sseiseo meokneunda.” is more clearly translated as “I usually wash an apple before I eat it” or “I wash an apple, which I eat.”

The conjunction ‘-go’ is used to connect two clauses that happen sequentially or concurrently without imply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On the other hand, ‘-aseo/eoseo’ is used to connect two clauses that have a successional relationship. These examples are good for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njunctions in Korean. When ‘-aseo/eoseo’ is used, it must have the closeness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the constraint of having the same subject, and the phenomenon of the following clause sharing elements with the preceding clause.

5.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what English expressions correspond to the Korean conjunctions ‘-go’ and ‘-aseo/eoseo’, which foreign language learners initially find difficult to understand and distinguish. By reflect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go’ and ‘-aseo/eoseo’ in textbooks and classes, this study proposes that English relative pronouns can be counterparts of ‘-aseo/eoseo’ considering the closeness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the constraint of having the same subject, and the phenomenon of the following clause sharing elements with the preceding clause. In the future, when creat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we suggest actively utilizing exercises that distinguish ‘-aseo/eoseo’ from ‘-go’, such as problems that require the use of ‘-aseo/eoseo’ instead of ‘-go’, to help learners recognize situations where ‘-aseo/eoseo’ must be used.

Works Cited

- Kim, Soo Jeong (2004). A study on the ending connectives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ok, Ji-seon (2012). The semantic and syntactic differences of succession ‘-go’ and ‘-aseo’.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16, 51-80.
- Park, Jiyoung (2016). A study on the sequential connective endings ‘-go’ and ‘-eoseo’ for Korean education: Centering on the syntactic features and particular verbs combined with ‘-go’ and ‘-eoseo’.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78, 169-187.

Seong, Ki Cheol (1972). A study of inflectional ending ‘- a’ and ‘- go’. Korean Language Education 18, 353-367.

구어말뭉치 기반 한국어 학습자의 '-았/였어서' 사용 양상 연구

심 현 주 (계명대학교)

1. 서론

이 논고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았/였어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았/였어서'의 출현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많은 데다가 개별 연결어미가 가지는 의미 기능과 제약이 복잡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쉽지 않은 문법 항목이다. 그중에서도 '-아/어서'는 한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유 표현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필수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하므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매우 초반부에 제시된다(강현화 외 2017:165). 그러나 고급 단계에서도 여전히 '아/어서' 사용 오류가 확인될 만큼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매우 어렵다(성진선, 2020:1). 이러한 이유로 '-아/어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량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국어학적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장명비, 2021:170). 그중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오류 양상을 '누락, 첨가, 대치, 오형태'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분석하였다(김지혜, 2008; 김선미, 2017; 성진선, 2019; 홍소영, 2020; 장명비, 2021 등).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았/였-'의 결합은 기타 통사적 오류로 분류하여 출현 빈도와 예시만 간단히 제시된 실정이다.

이러한 데에는 연결어미 '-아/어서'와 시제 선어말어미 '-았/였-'의 결합을 단지 비문법적인 것으로 다루어 온 영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의 발화에서 '-았/였어서'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그에 따른 문법성 수용이 높아지면서⁶⁵⁾ 관련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김민영, 2009; 김중수, 2018; 이영준, 2018; 신아영, 2019; 정해윤, 2022 등).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인의 문어 혹은 준구어를 대상으로 '-았/였어서'의 의미와 기능 분석에 집중되어 있을 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았/였어서'의 용법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사소통적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65) 이영준(2018)과 김중수(2018)의 두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사용된 '-였어서'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였어서' 접촉이 최근 들어 널리 쓰이고 있으며 문법성 수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였어서' 접촉을 비문어뿐만 아니라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때에 쓰이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와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해윤, 2022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았/었어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김민영(2009)는 연결어미 ‘-아/어서’를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아/어서1’과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아/어서2’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아/어서1’의 경우에만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중수(2018)에서는 ‘-아/어서’가 그 근거를 과거에서 찾는 경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영준(2018)은 ‘-아/어서’의 의미와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았/었어서’ 표현의 사용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담화 맥락이 명시적으로 파악되고 선·후행절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용인도가 높고 행위의 의미보다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용인도가 낮다고 하였다. 신아영(2019)에서는 최근 ‘-었어서’의 사용이 빈번함을 문제시하면서 ‘-어서’의 의미 기능 및 ‘-었-’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서’가 ‘원인’인 경우에만 ‘-었-’과 결합할 수 있었다. 정해윤(2022)에서는 ‘-었어서’ 접속문의 의미를 밝히고자 이를 통사·의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었-’의 사용은 선·후행절 간의 시간 차이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올타리 표현으로서 ‘-었어서’가 판단 강도 약화, 이전 수용 가능성 확대 기능을 하는 담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어 동사류의 어휘상에 따른 ‘-었-’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았다. 유정영(2022)에서는 한국어 동사를 상태 동사, 과정 동사, 완성 동사, 순간 동사, 심리(심리인지) 동사로 분류하고 시상 가설(Aspect Hypothesis)과 함축 척도(Implicational scaling)로 ‘-었-’의 습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휘상에 따른 과거 시제 ‘-었-’의 정확도는 달성 동사(97.1%), 완성 동사(96.3%), 심리인지 동사(87.3%), 행위 동사(86.6%), 상태 동사(7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예측을 재확인해 주었다. 김천학(2017)은 동사의 어휘상 유형에 따른 ‘-었-’의 결합이 표현하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상태성 술어와 종결성 동사, 그리고 순간성 동사는 ‘-었-’과 결합하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비종결성 동사와 ‘-었-’의 결합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었-’의 기본적인 기능은 과거 시제의 표현에 있으며 동적 사건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들에서 ‘-었-’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지시할 때 과거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상기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아/어서’의 의미 기능과 ‘-았/었-’의 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어미 ‘-아/어서’의 의미 기능은 ‘시간적 순서/절차’, ‘원인/이유’, ‘수단/방법’, ‘목적’의 4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어서’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았/었-’과 결합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순서와 인과관계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았/었-’과 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의성이 해소되면서 ‘-아/어서’의 의미가 ‘원인’으로 분명해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의 용법은 ‘단순 과거 명시하기’,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과거임을 명시하기’, ‘선행절이 현재와 무관한 과거임을 명시하기’, ‘중의성 해소하기’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인 만큼 상기 ‘-아/어서’의 4가지 의미 기능과 ‘-았/었-’의 용법 4가지 항목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제와 상의 습득이 어휘상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다는 시상 가설의 예측과 ‘-았/었-’의 의미가 단순한 과거인지, 완료 혹은 상

태 지속을 나타내는지는 동사의 어휘상 유형에 달려 있다는 관점(김천학, 2017)으로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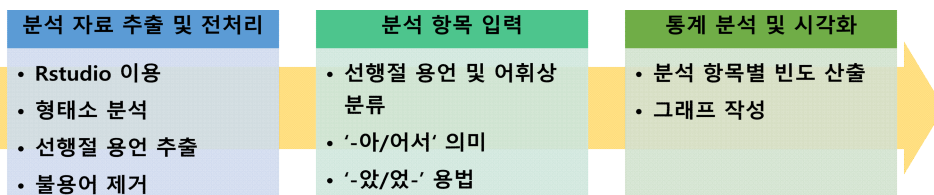
3.1.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았/었어서'가 구어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 사이트 'AI 허브(<https://www.aihub.or.kr>)'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외국인 한국어 발화 음성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데이터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의 '대본 읽기'와 '질문에 답변하기'를 녹음한 음성 파일과 전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의 전체 크기는 2GB로 약 1,200시간의 녹음량이다. 그중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사한 자료는 232,341문장이었으며 분석 대상인 '-아/어서'가 포함된 문장은 60,356문장이었다. 그리고 선별작업을 거쳐 '-았/었어서' 표현이 포함된 161문장을 수집하였다. 다음은 본 논의를 위해 작성한 최종 분석 자료의 일부분이다.

일	id	동사	시상가설	어휘	의미기능	용법	문장
1	81534	동사	과정	결혼하다	원인	과거	최근에 제 외삼촌이 결혼했어서 제가 그때 고향에 코로나 전 시기에 그때
2	630763	동사	과정	계산하다	원인	단절	한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휴대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3	464195	동사	순간	끝절되다	원인	과거	네 큰 아파트서 병원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다리가 끝절됐어서 그
4	571678	동사	과정	공부하다	수단	과거	제가 오빠 한 명 있어요 예전에 오빠도 한국 와서 한국어로 공부했어서 지
5	571950	동사	순간	그만두다	원인	과거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편지는 전 회사 동료에게 받는 편지이었어요 저는 유
6	6796	형용사	상태	깊다	원인	과거	지금까지 가 본 서울에 있는 관광지 중에 저는 관광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7	391186	동사	순간	깨다	원인	과거	저는 열 시간 정도 잤어요 일단은 시간도 길고 다음에는 중간에 한 번도 안
8	284057	동사	순간	넘다	원인	과거	이 세상에 누구나 초대할 수 있다면 저녁 식사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어요 이
9	634056	동사	순간	놓치다	원인	과거	가장 최근에 택시는 탔는데 이주 전이예요 택시 타는 이유는 막차는 놓쳐야
10	876009	동사	과정	다니다	원인	단절	어학당 다니면서 한국 음식 요리 학원 잠깐 다녔어서 할 수 있는 한국 음식

〈그림 131〉 분석 자료

분석 항목은 선행 연구 분석에서 제시된 '-아/어서'의 의미 기능과 '-았/었-'의 용법, 동사의 어휘상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를 형태소 분석하여 선행절의 용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상기의 분석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자 해당 용언이 포함된 원문장을 추가하였다. 이어서 원문장을 참고하여 각 용언과 결합한 '-아/어서'의 의미 기능, '-았/었-'의 사용 원인, 어휘상 유형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다.



〈그림 132〉 자료 분석 절차

분석 도구로는 무료 통계프로그램인 RStudio(Ver. 2023.03.0+386)를 이용하였다. RStudio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텍스트 분석을 위한 사전 환경설정이 간단한 편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 텍스트의 추출이나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통계 프로그램인 만큼 결과 산출과 시각화도 편리하다. 그리고 분석 항목 입력처럼 단순 작업은 편의성을 고려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2. 외국인 학습자의 ‘-았/었어서’ 사용 양상

최종 작성된 자료를 분석하여 먼저 ‘-았/었어서’와 결합한 서술어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총 161문장에서 동사와의 결합이 123회(76.4%), 형용사가 38회(23.6%)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태보다 행위를 표현할 때 시제를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출현 빈도는 ‘생각하다(19회), 좋아하다(10회), 하다(6), 듣다(5)’ 순으로 높았으며, 형용사는 ‘N이다(11회), 예쁘다(3회), 있다(3회)’ 순이었다. 그 외 다양한 용언과 ‘-았/었어서’ 결합이 확인되었는데 분석 자료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 고빈도 어휘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원문장을 바탕으로 ‘-아/어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결과 동사에서의 ‘수단’ 기능 2회를 제외하고 모든 문장에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아/어서’만이 ‘-았/었-’과 결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았/었-’의 용법의 경우 ‘단순 과거 명사’가 126회(78.3%)로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으며, ‘단절된 과거 명사’ 21회(13%), ‘대과거 명사’ 14회(8.7%)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의성 해소를 위한 사용은 전무한데 ‘가다, 일어나다, 나오다, 들어가다’와 같이 ‘-아/어서’와 결합해 ‘선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이 분석 자료에 없어서 중의성 해소가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어휘상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상은 과정 동사이며 50회(40.7%)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상태 동사 38(23.6%), 완성 동사 36회(22.4%), 심리 동사 25회(15.5%), 순간 동사 12회(7.5%)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았/었어서’를 오류의 관점에서 보면 과정 동사에서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해당 어휘상에서 과거 시제 용법의 습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어휘상 유형별 과거 시제 ‘-았/었-’ 발달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결성] 의미 자질의 어휘상(달성 동사/완성 동사)에서 과거 시제가 먼저 습득되어 행위 동사와 상태 동사로 확산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시사 가설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았/었어서’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0〉 어휘상 유형에 따른 과거 시제 ‘-았-’의 정확도

구분	(높음) <----- 정확도 -----> (낮음)
선행 연구(유정영, 2022:250)	달성 동사 - 완성 동사 - 심리인지 동사 - 행위 동사 - 상태 동사
본고	달성 동사 - 심리인지 동사 - 완성 동사 - 상태 동사 - 행위 동사

다음으로 '-았/었어서' 용법에 따른 어휘상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단순 과거의 용법에서는 과정 동사 32회(25.4%), 완성 동사 30회(23.8%), 상태 동사 30회(23.8%), 심리 동사 23회(18.3%), 순간 동사 11회(8.7%)로 유형별 출현 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과거의 경우 상태 동사(6회 42.9%)와 과정 동사(5회 35.7%)의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에 심리 동사 2회(14.3%), 완성 동사 1회(7.1%)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단절된 과거에서는 과정 동사가 13회(61.9%)로 현저히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완성 동사 5회(23.8%), 상태 동사 2회(9.5%), 순간 동사 1회(4.8%)의 빈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단순 과거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의 모어 간접 영향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영어 문법에서는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가 모어인 학습자는 한국어 선행절이 과거인 경우 '-았/었-'을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대과거, 단절된 과거는 한국어 문법 지식의 과잉 일반화 오류로 판단하였다. 연결어미 '-아/어서'는 그 자체로 시제성을 보유하여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상 앞선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대과거와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때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었었-'을 떠올려 '-아/어서'에 '-았/었-'을 결합함으로써 '-었었-'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단순 과거에서와 달리 대과거, 단절된 과거의 경우 특정 어휘상에서 '-았/었어서'가 고빈도로 출현하였다는 점도 해석이 필요하다. '-았/었-'의 기본적인 기능은 과거의 표현이지만 한국어는 완료를 나타낼 별도의 어휘가 없이 '-았/었-'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동사의 어휘상 유형에 따라 '-었어서'가 결합된 용언이 현재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외국인 학습자가 '-아/어서'에 '-았/었-'을 결합하도록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다.

4. 향후 과제

이 논의는 '-았/었어서'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았/었어서'의 사용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어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아/어서' 의미 기능과 '-았/었-'의 용법, 시상 가설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분석 대상 자료가 충분히 크기 못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기본 개념과 근거 등이 모국어 화자로서의 직관을 가진 한국인 대상의 연구, 또는 국어학적 분석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외국인 학습자의 '-았/었어서' 용법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학습자 모어 간섭의 영향 및 시상 가설 적용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17) 「(담화 기능에 따른)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서울: 한글파크.
 김민영(2009) 「한국어 접속문의 시제 해석」,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69-104.
 김선미(201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와 '-아/어서' 교육 방안 고찰」, 어문논총 31, 전남대학교 한국어문

- 학연구소, 178-181.
- 김중수(2018) 「 '-어서'와 결합한 시제 선어말어미의 문법성과 교육적 함의」, 문법교육 34, 한국문법교육학회, 27-57.
- 김지혜(2008) 「한국어 학습자의 이유 표현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214.
- 김천학(2017) 「어휘상 유형에 따른 '-었-'의 결합 양상 고찰」, 국어학(國語學) 81(0), 국어학회, 115-144.
- 성진선(2019)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아서', '-니까'의 전제 의미 실효성 확인 및 교실 적용방안」, 담화와 인지 26(3), 담화인지언어학회, 129-155.
- 신아영(2019) 「'-어서' 접속문에서의 '-었-' 결합 양상 및 작용역」, 겨레어문학 63, 겨레어문학회, 221-248.
- 유정영(2022) 「함축 척도를 활용한 한국어 과거 시제 '-었-'의 습득 연구」,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66(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31-257.
- 이영준(2018) 「연결어미 '-아/어서'와 시간 표현 사용 양상 분석 -'-았/였어서'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7, 우리말글학회, 1-21.
- 장명비(2021) 「한국어 연결어미 '-아/어서'의 오류 양상 연구 :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69-198.
- 정해윤(2022) 「'-였어서' 접속문의 담화적 기능」, 언어와 문화 18(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1-352.
- 홍소영(2020) 「중국인 학습자 인과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한국어와 문화 28,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화연구소, 135-141.

Positioning of South Asian Patients in Intercultural Medical Discourse: Preliminary Observations*

김기태 (계명대학교)

1. 서론

내국인 의사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환자가 나누는 문화간 진료 담화에서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의료 체계(기관 포함)와 본국의 의료진과 의료 체계 사이에서 의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이때, 외국인 환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내국인 의사와의 진료 담화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쪽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 Davies & Harré 1990)하게 된다. 일례로 본국에서의 진단명, 처방 등과 국내에서의 진단명, 처방 등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환자가 본국 의사와 체계를 따르겠다고 하면 내국인 의사와 체계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반면에 내국인 의사와 체계를 따르겠다고 하면 환자로서는 본국의 의사와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를 부정, 혹은 적어도 유보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의 포지셔닝 연구, 특히 고학력 남아시아계 외국인 환자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연구의 희소성에 대한 첫 대응으로서의 본 발표는 비수도권 무료 진료센터의 B센터에 내원한 고학력 남아시아계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의사의 영어 진료 담화에 나타난 환자의 포지셔닝을 포지셔닝 모드(positioning mode, van Langenhove & Harré 1999) 중심으로 관찰하여 예비 질적 분석을 수행한 내용을 보고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 참여 기관과 환자 특성, 그리고 연구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3절에서는 예비 관찰 및 분석 내용을 보고한다. 4절은 이를 요약하고 한계 등을 간략히 논의한다.

2. 자료와 연구 방법

2.1 참여 기관과 환자 특성

비수도권에 위치한 B센터는 지역 의사들의 여러 자원봉사 사업 중 하나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의사가 순환하며 기본적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환진료형’ 무료 진료 기관이다(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2020 참조). B센터의 “이주민” 환자 대상은 유사 타기관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거주 외국인 근로자, 외국 유학생, 북한이탈주민(건강보험, 의료급여증이 없는 자), 생활이 어려운

* 해당 과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2022S1A5A2A01050111).

다문화 가정 및 자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B센터의 이주민 환자들은 석·박사 과정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도 많았고, 출신국도 남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를 중심으로 다양했고, 많은 경우 영어를 제2언어로 구사하므로 영어로 진료에 참여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었으며, 40대 이하가 더 많았고, 만성 질환보다 일시적, 비주기적 단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민족지학적(ethnographic) 방법으로 중장기에 걸쳐 진료 참관-녹취, 기록,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진료 담화를 채록하고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는 진료 담화 내에서 van Langenhove & Harré(1999)에 따라 포지셔닝 모드(positioning mode)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Pennycook(2001)의 비판응용언어학(Critical Applied Linguistics)적 접근법을 취해, 체류 외국인 대상 진료의 향후 변화성(transformativity)과 아시아계 환자와 무료 환자에 관한 본 연구자 스스로의 연구와 선행 연구의 자아성찰성(self-reflexivity)을 고려하였다.

3. 예비 관찰 및 분석 내용

3.1 문화간 진료 담화에서의 환자 포지셔닝 모드의 일반적 특성

3.1.1 담화에서의 위치에 따른 환자의 포지셔닝 모드

많은 경우 3차적 포지셔닝이다. 이는 현재의 진료 담화에서 본국의 진료 담화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즉 전 담화에 관한 현 담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담화 내의 환자의 1차적 포지셔닝과 의사의 포지셔닝에 저항하는 2차적 포지셔닝이 발현하기도 한다.

3.1.2 설명적 vs. 수행적 포지셔닝

자료 내의 3차적 포지셔닝은 대체로 설명적이다. 그러나 포지셔닝 충돌 시에 발현하는 환자의 1차적, 2차적 포지셔닝은 대체로 화행적인 의미의 수행적 포지셔닝이다.

3.1.3 도의적 vs. 개인적 포지셔닝

내국인 의사의 진단 등은 대체로 도의적/책무적 포지셔닝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환자의 불편 토로 등은 대체로 개인적 포지셔닝이다.

3.1.4 암묵적, 강제적, 그리고 고의적 포지셔닝

환자가 내국인 의사의 진단, 처방 등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2차적 포지셔닝), 스스로를 고의적 자기-포지셔닝하게 되고, 동시에 내국인 의사와 본국 의사도 고의적 타인-포지셔닝을 하게 된다. 또 (국내든 본국이든) 의사의 진단은 의사의 강제적 타인-포지셔닝과 동시에 환자의 강제적 자기-포지셔닝 모드에서 발현하게 된다.

3.2 남아시아계 환자 포지셔닝 모드 특성

위의 일반적 특성 외에, 본 자료에 나타난 B센터 남아시아계 환자들의 포지셔닝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교적 학술적 용어 등을 구사하여 병리학, 약리학적 기저 등을 확인하는 자기-포지셔닝으로 1차적 포지셔닝 모드를 취하였다(이에 부합하여 내국인 의사들도 비교적 학술적 용어를 활용하여 이 환자들을 (그런 용어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종종 타인-/상호작용적 포지셔닝하였다). 둘째, 남아시아계 환자들은 (의료 진료 기관인 A병원 환자들과 달리) 내국인 의사의 진단, 처방 등에 적극 저항하는 2차적 포지셔닝 모드보다 환자 본인의 요구를 명시함으로써 1차적 포지셔닝 모드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지셔닝 모드 특성은 아래와 같이 추적해 볼 수 있다. 우선, B센터가 무료 1차 진료 기관으로 일상 질환과 기본 약제만을 무료로 투약하는 기관이므로 그 대상 질환 논의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B센터 의사들이 타기관 의사들보다 때로 더 전문 용어를 더 구사(해서 환자를 타인-/상호작용적 포지셔닝을)하기도 한다는 점이나 유사한 무료 기관인 C병원의 환자들이 비교적 학술적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B센터의 남아시아계 환자들의 포지셔닝 특성은 오히려 해당 환자 중에 농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이 많다는 사실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대학원 유학생이 많아 비교적 학술적 용어로(특히 농이공계의 경우) 본인의 포지션을 밝히는 데에 익숙하고, 또 의사들도 비교적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기가 쉽다(실제로 B센터 의사들은 종종 환자의 대학원 재학 여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연령 면에서 비교적 건강한 청장년층이고 질환 면에서 감기, 두통, 소화 질환, 피부 질환 등 단기 경증 일회성 질환자가 많으므로 매우 전문적인 의료 논의까지는 대체로 필요가 없다는 점도 비교적 학술적이긴 하지만, 매우 전문 의료적이지는 않은 상호 포지셔닝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과 토론

본 발표는 무료 진료 기관인 B센터에 내원하는 남아시아계 환자들과 내국인 환자들 사이의 진료 담화에 나타나는 포지셔닝을 예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우선, 문화간 진료 담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포지셔닝 모드들을 간략히 정리하였고, 농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이 많은 B센터 환자들이 비교적 학술적 용어 등을 통해 자기-포지셔닝을 취하거나, 직접적 2차적 포지셔닝보다 환자 본인의 요구를 명시하는 1차적 포지셔닝을 활용함을 포착하였다.

물론 초기 관찰이고 분석이어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자료가 소략하여 좀 더 자세한 유형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 2020. 이주근로자와 내국인 의사 진료의 비판응용언어학적 연구: 세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9.1, 295-329.
- Davies, Brownyn and Rom Harré. 1990. Positioning: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selve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0:1. 43-63.
- Pennycook, Alastair. 2001.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A Critical Introduc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 Langenhove, Luk and Rom Harré. 1999. Introducing positioning theory. *Positioning Theory: Moral Contexts of Intentional Action*, eds. by Rom Harré and Luk van Langenhove, 14-31. Oxford, UK: Blackwell.

A Focus on Serial Verbs

구 경 연 · 트 영 티 멘 · 마 요 니 가 택 인 다 · 주 마 백 크 즈 굴 잔 (계 명 대 학 교)

1. Indonesian Serial Verb Constructions

1.1. Tense Marking

Indonesian language uses lexical markers to mark ‘the time’ and more often than not drops the marker and relies solely on the context.

1.2. Negation

In Indonesian language, the word ‘tidak’ is typically used to negate ‘verbs’ (and adjectives). As serial verbs refer to closely related events, only one negative marker ‘tidak’ is needed.

1.3. Lack of conjunctions and prepositions

Verbs sequences in Indonesian lack conjunctions or prepositions meaning “to” or “for” in between, thus appearing side by side, while in English prepositions are required.

1.4. Serial verbs indicating single event

The actions expressed in V1 and V2 of the serial verbs take place rapidly and simultaneously.

1.5. Acting as putative complements

serial verbs in Indonesian language commonly act as putative complement and the V1 can be either commitment (e.g mencoba “try”, menolak “refuse”, berusaha “try”, mulai “begins”) or experiencer verb (e.g mau “want”, ingin “desire”, berhak “to have rights”, perlu “need”, suka “like (to do something)”, and bisa/tahu “know how to”)

1.6. Semantic relationship

Indonesian serial verbs encode four other relationships, i.e. manner, purpose, causation, and coordinated action.

1.7. Argument sharing

Argument sharing in Indonesian serial verbs includes partial and total sharing

2.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Kazakh

In Kazakh language Serial Verb Construction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and complex constructions

2.1. Tense marking

The tense is always expressed in the Verb 2 while the Verb 1 always has the suffix ‘p/yp/ip’. The tense is expressed with the help of special endings.

2.2. Negation

The negation is expressed with the help of the word ‘jok’ which means ‘no’ and it always goes after the Verb 2. In this case the Verb 2 changes its ending to ‘gan/gen’ and the negation word with the tense marking ending follows after it.

2.3. Argument Sharing

In complex constructions only total sharing is possible, while in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only partial sharing is possible

2.4. Honorifics

Honorifics are always expressed in the Verb 2

2.5. Meaning

In the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auxiliary verbs express the progression, application, result or repetitiveness. In complex constructions, the Verb 1 always expresses the manner of action and the Verb 2 always expresses the action itself

2.6. Sequence of actions

In the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the sequence of actions is perceived as a single action, while in complex constructions the sequence is also simultaneous but it is perceived as two actions.

2.7. Separation

The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cannot be separated, while the complex constructions can be separated, i.e. the object can sometimes be put between the Verb 1 and Verb 2.

3. Vietnamese Serial Verb Constructions (SVCs)

3.1. Tense marking:

Unlike in English or Korean, where tense is typically expressed by changing the verb form, in Vietnamese, we just need to use specific tense marking particles or words before verb. In the case of Vietnamese SVCs, only one tense marker is placed before the first verb to express tense for the entire construction, rather than placing a tense marker before each verb separately.

3.2. Negation:

Similarly, negation in Vietnamese SVCs is expressed by placing the word “không” before the first verb of SVC, rather than negating each verb separately.

3.3. Verbs in SVCs share the same argument:

SVCs involve sharing the same argument(s) in the sentence. This can involve partial sharing, where either the subject or object in a sentence is shared, or total sharing, where both subject and object are shared.

3.4. SVCs tend to force the single event reading

The sequence of actions or events is perceived as a single complex event rather than a series of separate events.

3.5. SVCs involve no coordinating conjunction: no coordinating conjunctions between verbs in SVCs

3.6. SVCs can be formed with 3 or even more than 3 verbs,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intended meaning.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수요자 요구 조사

김 광 수 (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33만5천596명이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월보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은 122만1천685명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감소 현상을 늦추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의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다문화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혜택은 많지 않다고 김재욱(2012)이 문제 삼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2023년 3월 말 발표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중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전문인력, 단순 기능인력, 관광취업)’ 468,018명,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 외국인(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870,846명과 방문취업자(H-2) 105,007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61.8%가 취업 현황이다. 이 통계에서 빠진 기술연수 등 D-3~9 자격자 80,095명과 불법체류자 414,045명을 포함하면 체류 외국인 총 인원은 1,938,011명으로 83%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 지원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고,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수요자 요구조사를 분석·검토하여 이들에게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노동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2.1.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전 한국어 교육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후, 고용노동부령에 의거하여 취업 교육 총 20시간의 교육 시간 중 한국어 교육 4시간과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2시간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한국어 교육이 전부이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4시간의 교육은 부족하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종교 단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사설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단체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어 교육이 제일 목표가 아니다. 이들은 주로 평일에 야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요일에만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회사에서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어 교육 강화를 마련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진행되는 이 같은 교육은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2022.12.20.)는 외국인 2만 명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상주 인구 기준)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모든 부분에서 ‘매우 잘함’이 가장 많으며, 듣기(33.8%), 말하기(32.7%), 읽기(30.4%), 쓰기(2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로 한국어(48.7%), 본국어 또는 모국어(25.9%), 한국어와 한국어 이외 언어를 함께 사용(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학습 경험 유·무 및 학습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있음’이 67.2%이며, 학습기관은 본국 또는 한국 이외 국가(32.3%),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22.1%) 순이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3년 이상(38.3%), 1년~3년 미만(25.8%), 6개월~1년 미만(17.1%) 순으로 많고 평균 학습 기간은 21.9개월이다. 한국에서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는 ‘없음’(41.4%)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29.5%),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 또는 상담’(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8.8%)이고,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32.4%),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교육’(20.9%) 순으로 많았다(〈표 1 참조〉).

〈표 1〉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

(단위: %)

	받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국어 교육	29.5	27.1	32.7	38.8	42.4	34.0
한국사회 이해 교육	13.5	12.9	14.2	18.1	18.4	17.7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20.4	21.0	19.6	13.2	14.4	11.7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14.1	14.0	14.3	20.9	22.2	19.2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11.0	11.9	9.8	32.4	33.3	31.2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3.3	3.6	2.8	10.5	10.8	10.0
통번역서비스	3.0	3.5	2.4	5.7	6.5	4.6
사회활동지원서비스	2.9	2.8	3.0	5.5	4.7	6.6
임신 출산 및 가족관련 지원 서비스	3.4	1.0	6.4	3.8	2.2	5.8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서비스	2.6	1.2	4.4	8.6	4.9	13.4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	9.7	10.5	8.6	19.9	18.8	21.5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3.4	4.3	2.3	16.5	15.4	18.0
기타	0.7	0.9	0.4	0.1	0.1	0.2
없음	41.4	43.7	38.3	1.6	1.8	1.4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급수를 취득한 경우는 19.8%이고 4급(20.7%) 취득이 가장 많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 한국어 의무교육이 4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개별 단체가 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꾸준한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3.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수요자 요구조사

3.1. 수요자 요구조사 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수요자 요구조사를 위하여 경상남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담당부서와 서부경남 거점인 경상국립대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사)마하, YWCA,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진주선교센터와 고용노동부 관할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사랑의 집,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무 회사를 방문하여 협조요청을 통하여 회사 및 축산업 근무자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설문조사에 익숙하지 않으며, 한국어 해석력이 많이 떨어져 나라별 본국어로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남 62명(51.2%), 여 59명(48.8%)이고, 국적별로는 베트남 57명, 네팔 36명, 필리핀 12명, 중국 11명, 몽골 4명, 방글라데시 1명이다.

〈표 2〉 국적별 조사대상자 현황

구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몽골	네팔	계
인원	57	1	12	11	4	36	121
비율	47.1	0.8	9.9	9.1	3.3	29.8	100

3.2. 수요자 요구조사 내용

3.2.1. 교육 정도 및 한국 거주 기간

조사대상자들 중 ‘고등학교 졸업자’ 69명(57%)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 재학/졸업’(19.1%), ‘대학원 재학/졸업’(6.6%)로 고학력자가 전체 조사자의 82.6%로 조사되었다. 한국 거주 기간은 ‘5년~10년 미만’(47.2%), ‘10년 이상과 1년~3년 미만’이 각 22.3%로 조사 되어 대체로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한국 거주 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인원	5	5	27	57	27	121
비율	4.1	4.1	22.3	47.2	22.3	100

3.2.2.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3개월 미만’(33.1%)이 제일 많았고, ‘6개월 미만’(11.6%), ‘1년 이상’(17.3%), ‘1년 미만’(11.6%) 순으로 조사 되었다(〈표 4〉). 또한, ‘한국어 공부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물음에 ‘민간 사설학원’(65.3%)이 제일 많았고, ‘혼자서 공부’(16.5%), ‘공부하지 않았다’(14%), ‘종교기관’(1.7%), ‘세종학당’(2.5%)로 조사되어 한국 입국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혼자 공부한 경우가 30.5%로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국에서 배운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문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38%), ‘도움이 되었다’(27.1%), ‘많이 도움이 되었다’(16.5%)로 나타나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공부하지 않았다’(19.0%)로 조사되고 있어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입국 후에 더 강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4〉 입국 전 한국어 공부 기간

구분	공부하지 않았다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계
인원	23	40	23	14	21	121
비율	19.0	33.1	19.0	11.6	17.3	100

3.2.3.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의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부하고 않다’(51.2%), ‘혼자서 하고 있다’(40.5%)로 조사되어 91.7%가 교육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서는 ‘시간이 없어서’(45.5%), ‘교육기관과 거리가 멀어서’(33.0%),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19.8%)로 98.3%가 조사되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에 〈표 5〉와 같이 직장과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기 위한 의견(88.4%)으로 대다수가 한국에 오래 있기를 원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 원만한 생활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표 5〉 한국어를 배운다면 그 이유는?

구분	직장에 필요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때문	다른 이유	계
인원	48	35	24	6	8	121
비율	39.7	28.9	19.8	5.0	6.6	100

3.2.4. 한국 생활 중 한국어 사용 정도

한국어 교육이 한국 생활(직장 생활)의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고 있다’(31.4%), ‘많이 도움이 되었다’(26.4%), ‘조금 도움이 되었다’(27.3%)로 85.1%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

어 사용을 일주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표 6>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주일에 사용하는 빈도가 '보통 이상'으로 말하기는 46.3%, 듣기는 52.9%로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사용자를 포함하면 84.3%와 82.6%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38.9%)와 '가끔 사용한다'를 포함하면 60% 이상으로 많이 부족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 정도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보통이다	자주 사용한다.	항상 사용한다.	계
말하기	19(15.7)	46(38.0)	31(25.7)	16(13.2)	9(7.4)	121(100)
듣기	21(17.4)	36(29.7)	30(24.8)	26(21.5)	8(6.6)	121(100)
읽기	47(38.8)	29(24.0)	30(24.8)	12(9.9)	3(2.5)	121(100)
쓰기	47(38.9)	35(28.9)	29(24.0)	5(4.1)	5(4.1)	121(100)

4. 논의 및 결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가능한 오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수요자 요구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어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71%가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이 6개월 미만으로 교육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한국 입국 후 교육도 4시간 밖에 안 되어 너무 부족하다. 이주노동자의 입국 전 교육과 입국 후 교육까지 모든 단계마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의 협조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시간을 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손해를 보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 발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환책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중요과제로 채택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의 맞춤형 교재 개발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자국민의 다문화 이해 수준이 '다름과 틀림'이 포용화될 때 비로소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영숙. (2001).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 293-342.
김명광. (2008). 이주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89-508.

- 김정은. (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자료분석, 이중언어학, 30, 77-112.
- 구민숙. (201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숙. (2018). 창원지역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실태분석,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유인. (2018).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연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 정현경. (2022). 이주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나타난 학습과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조상식. (2008)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응교육'의 실태와 대안 탐색-분석비판,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주철수. (2013). 김해지역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만족도에 근거한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남선. (2015). 진주지역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A Contrastive Analysis of Compliment Responses in English and Turkish

Gurel Buse Simge · Lee SangChe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1. Politeness Principle (PP)
 - 1.1. Leech's Politeness Theory
 - 1.2. Brown's Politeness Theory
2. Compliments of Turkish
3. Compliments of English
4. Similarities & Differences in Turkish and English
5. Conclusion

POLITENESS PRINCIPLE LEECH'S POLITENESS MAXIM

The politeness principle (PP) is formulated according to Leech(1983:81) as follows :

1. Minimize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expression of impolite beliefs. (negative form)
2. Maximize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expression of polite beliefs. (positive form)

Politeness Maxims	Examples
Tact Maxim Minimize cost to other (maximize benefit to other) The first aspect of the tact maxim accords with Brown and Levinson's negative politeness strategy of minimizing the imposition, and the second aspect represents the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of attending to the hearer's interests, wants, and needs.	*Lend your book. *Could you lend me your book?
Generosity Maxim Minimize benefit to self (maximize cost to self) Generosity maxim by contrast with the tact maxim focuses on the speaker and says that others should be put first instead of the self.	*You must have another cup of coffee.
Approbation Maxim Minimize dispraise of other (maximize praise of other) The first aspect of the maxim avoids disagreement; the second aspect intends to make other people feel good by showing solidarity. It is normal they say "I enjoyed the dinner you cooked", while if you did not like it, you would either keep quiet about it or convey the fact more indirectly.	*You are the best cook in the world.

<p>Modesty Maxim Minimize praise of self (maximize dispraise of self) The modesty maxim may lead someone to reject a compliment which had been paid to them.</p>	<p>* A: What a bright girl you are! You are always getting good scores! B1: Thank you. I have good teachers. B2: Thank you. The exam questions are not that hard. B3: Thank you, but I am not the only one in the class that gets good scores. B4: Yes, I am, don't I?</p>
<p>Agreement Maxim Minimize dis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maximize 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It is not being claimed that people totally avoid disagreement. It is simply observed that they are much more direct in expressing agreement, rather than disagreement.</p>	<p>A: I don't want my son taking level B2 class, I want him to take level A1. B: Yes Mrs. Johnson but he is already received Level A1 level.</p>
<p>Sympathy Maxim Minimize antipathy between self and other (maximize sympathy between self and other)</p>	<p>* I a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illness.</p>

BROWN & LEVINSON'S POLITENESS PRINCIPLE

Their theory leads back to the term of "face" introduced by the sociologist Ervin Goffman and focuses on how and why we are polite to others. "Politeness" is the word we use to talk about a speaker's intention to threaten or save face of a hearer. "Face" is our self-image that we attempt to show the world. The concept of politeness describes the wish of every member of a community to guard his or her face from possible damage through social interferences.

Face Threatening Acts (FTAs)	Face Saving Act (FSA)
<p>An utterance or tone that damages the face of the addressee or the speaker by acting in opposition to the wants and desires of the other.</p> <p>*Positive FTAs Can be damaging to both the speaker and the hearer</p> <p>*Negative FTAs Can be damaging to both the speaker and the hearer.</p> <p>*There are politeness strategies that speakers can employ to achieve different level of FTAs</p> <p>Politeness Strategies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ld on-record 2. Positive Politeness 3. Negative Politeness 4. Off-Record (indirect) 	<p>An indirect speech act in the form of a question removes the assumption of power.</p> <p>If some actions might be interpreted as a threat to another's face, the speaker can say something to lessen the possible threat or to maintain a good self-image, this is called face saving self (FSA).</p> <p>Kinds of Face savings are negative and positive face.</p> <p>Negative face is the need to be independent to have a freedom of action and not to be imposed by others.</p> <p>* Your friend ask for a ride to bus stop. (You think, this is not favorable, I don't feel like driving to the airport, I have other stuff that I could be doing. like sleeping, or saving the gasoline in my car. He can find his own ride Goffman, 1967)</p> <p>Positive face is the need to be accepted, even liked by others, to be treated as a member of a group and to know what his or her wants are shared by others.</p> <p>* Your friend ask for ride to bus stop (You think, I better take her because I want her to like me, and I want a reputation of being a reliable person Goffman: 1967)</p>

Politeness Strategies	Examples
<p>Bald On-Record No attempt to minimize the threat to hearer's face- can cause shock and embarrassment. Brown & Levinson suggest that Bald On-record politeness strategies tend to be used between people with a close relationship or during times of urgency. You can minimize the threat of bald on-record demands just by the nature of the demand.</p> <p>Positive Politeness The speaker attempts to reduce threat to the hearer's face by dressing up the utterance. Strategies include statements showing unity or belonging in some way.</p> <p>Negative Politeness Directed towards the hearer's negative face and really tries to avoid imposition on the hearer. A few ways to do this includ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Being pessimistic 2-Minimizing the imposition 3-Apologizing 4-Plural nouns <p>Off-Record (indirect) Not actually saying what you mean but implying it to avoid the hearer losing face.</p>	<p>* "Shut up!" * "Turn off the lights." * "get out of the way!" * "Come hang out with me." - "Come on in!"</p> <p>* So, because we are such a close friends, would you mind driving me to the bus terminal?</p> <p>1-I know this is a terrible favor for me to ask... 2-I have a tiny favor to ask you... 3-I'm sorry, but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4-We at the institution regret to inform you...</p> <p>** "Boy, I'm hungry." (Make me a sandwich ASAP,honey)</p>

Compliments of Turkish	Compliments of English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mpliment responses in Turkish are crucial in social interactions, and are influenced by various sociolinguist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social status. 2- Turkish speakers tend to use indirect compliment responses, such as denial or downplaying, agreement, and thanking, in order to mitigate the face-threatening nature of compliments. 3- Compliment responses in Turkish reflect the complex cultural norms and values of Turkish society, and include elements such as wishes to God, belief in the evil eye, and the use of sarcastic utterances and negatively loaded words. 4-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urkish compliment responses, with the most comprehensive studies conducted by Razi (2006) and Sakıralı Cuhacıoğlu (2013). 5-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urkish compliment responses, with the most comprehensive studies conducted by Razi (2006) and Sakıralı Cuhacıoğlu (2013). 6- Sakıralı Cuhacıoğlu's study focused on the use of strategies such as agreement, acceptance, and deflection in compliment response by Turkish speakers, and found that these responses a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social status. 7- In Turkish culture, compliment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al interaction and are used to express admiration, appreciation, and respect for othe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mpliments are often used as set formulas in American English speech. 2- The speech act of complimenting involves ascribing positive feelings to someone about their possession, characteristic, or skill. For a speech act to be felicitous, it must satisfy a certain set of felicity conditions, including intimacy and nature of tenderness. 3- Speaker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sarcasm or irony to differentiate between compliments and jokes. 4- Personal appearance and possession, as well as ability, are common topics for complimenting. Women receive more compliments, and they are mostly explicit; generally, males are not complimented. 5- Complimenting creates or reinforces solidarity by expressing appreciation or approval. 6- Two verbs, "like" and "love," account for 86% of compliments that include positive verbs. 7- Compliments in American and New Zealand English are formulaic in terms of both meaning and form.

SIMILARITIES & DIFFERENCES IN TURKISH AND ENGLISH

- Turkish has unique structural features, such as the use of subjunctive/conditional moods with cultural dimens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subjunctive/conditional and imperative moods.
- Turkish compliments are less stereotypical than English ones in terms of grammar and vocabulary, and they contain structures that are not present in English, such as the use of constructively negative sentences.
- Compliments in Turkish often include prayer and wishes from God to protect against the concept of the evil eye, which is the belief that positive things can be damaged by negative energy.
- Some animal names in Turkish are used as compliments through joking use of famous people or objects, while negative and violent words are used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evil eye.
- Compliments containing negative words or sarcastic jokes are more common in Turkish than in English, which may be due to the concept of the evil eye in Turkish culture.
- Turkish compliments use more inflected verbs than English, which is due to the agglutinative nature of Turkish.

- Turkish has unique structural features, such as the use of subjunctive/conditional moods with cultural dimens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subjunctive/conditional and imperative moods.
- Turkish compliments are less stereotypical than English ones in terms of grammar and vocabulary, and they contain structures that are not present in English, such as the use of constructively negative sentences.
 - 1) A: "Shall I cut this beauty?"
"Ben bu güzelliği yiveyim mi?"
(-mi questions and imperatives can form compliment structures in Turkish, similar examples are rarely seen in English. This again shows that compliments are structurally less stereotypical in Turkish than in English.)
- Turkish compliments use more inflected verbs than English, which is due to the agglutinative nature of Turkish.
- Some animal names in Turkish are used as compliments through joking use of famous people or objects.
 - * man (adam/ using as a compliment because of patriarchal structure of Turkey; Woman is not complimented as a "woman")
 - * Lion (aslanım/ because of lion's power, means that you're powerful)
 - * Lamp (kızım/ means you are cute, specially used for female)
- Compliments in Turkish often include prayer and wishes from God to protect against the concept of the evil eye, which is the belief that positive things can be damaged by negative energy. Compliments containing negative words or sarcastic jokes are more common in Turkish than in English, which negative and violent words are used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evil eye.
 - 1) "God forbid!"
"Allah kazaasın" (It is for prevent the person or object being complimented from being harmed by the "evil eye".)
 - 2) You are so ugly!
"Çok çirkinisin sen!" (It is basically to protect the person or object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mpliment from the negativities that the evil eye can cause.)
 - 3) A: "Such a beauty cannot exist."
"Böyle bir güzellik olmaz." (negative sentence compliment)

In Turkish culture, compliment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al interaction and are used to express admiration, appreciation, and respect for other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give compliments in Turkish, and the choice of words and expressions depends on the situ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person being complimented.

- A: Sen çok güzel giyinmişsin.
'You are dressed very nicely.'
(Compliment about someone's appearance or fashion sense.)
- B: Sizin işinizde gerçekten çok iyisiniz.
'You are really good at your job.'
(Compliment about someone's professional skills or expertise.)
- C: Yemeklerin harika olmuş, ellerine sağlık.
'The food was great, health to your hands.'
(Compliment about someone's cooking, using the common Turkish expression "elinize sağlık" which means "health to your hands.")
- D: Mağallah, çocuğunuz çok akıllı.
'Mashallah, your child is very smart.'
(Compliment about someone's child, using the Turkish expression "mağallah" which is often used to express admiration for someone's success, talent, or beauty.)
- E: Çok başarılı bir sunumdu, tebrik ederim.
'It was a very successful presentation, congratulations.'
(Compliment about someone's presentation or public speaking skills.)
- F: Sizinle çalışmak gerçekten keyifli, enerjiniz çok pozitif.
'It's really enjoyable to work with you, your energy is very positive.'
(Compliment about someone's personality or interpersonal skills, using the Turkish expression "pozitif enerji" which means "positive energy.")

- G: Bu çizimleri sen mi yaptın? Harika olmuşlar.
'Did you make these sketches? They are great.'
(Compliment about someone's artistic skills or creative work.)
- It has been revealed that women mostly give compliments focused on intimacy or relationship building in Turkish language.
- "my pasha" (**pasam**)
"whose brother" (**kimin kardesi**)
- And words such as "brother (**Kardes**)" or "Mr. (**beyfendi, bey**)" are used for making distance between a person. It is also used as a conversation starter or discourse marker.
- Turkish has the ability to form an inflected structure even as a single word. Even if it is made with a single word, the person suffix contains a clearer meaning about who or what the compliment is made to.
- pasam** (my pasha)
Kuzum(my little sweet lamp)
bebisim (my baby)

CONCLUSION

- Complimenting is considered a universal politeness strategy, but the form, frequency, and function of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can var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 This thesis aimed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Turkish compliment responses.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speech acts and politeness principles, as well as comparative cross-cultural studies on complimenting behavior, this study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compliments and their function as a politeness strategy.

REFERENCES

- Söğüt, C. (2011). A comparative study of compliments responses in Turkish and American English regarding form and function.
- Durkhalak, F. (2017).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Turkish and American English : A contrastive pragmatic study of a Facebook corpus.
- Ruh, (2006). Politeness in compliment responses: A perspective from naturally occurring exchanges in Turkish. *Pragmatics* 16(1) 43-101
- Söğüt, C. (2011). A comparative study of compliments responses in Turkish and American English regarding form and function.
- Durkhalak, F. (2017).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Turkish and American English : A contrastive pragmatic study of a Facebook corpus.

Study on Epistemic Modality: Korean EFL Learner Corpus and Native Speaker Corpus

Youn-Kyoung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ed at examining how Korean EFL writers used epistemic modality in comparison with native speakers. For the study, the learner corpus (LC) and native speaker corpus (NSC) were created.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ategories: the overall frequency of epistemic modality, grammatical distributions, and semantic catego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overall frequency of epistemic modality in two corpora was similar, overlapping 6 top ten items. However, the close look at each frequency showed that Korean EFL writers employed a more restricted range of items, relying on the expressions of certainty and possibility. With regards to grammatical distributions, each group exhibited different ranges and frequencies of devices: while native speakers preferred adverbs, Korean EFL writers tended to favor modal verbs. Regarding semantic categories, Korean EFL writers preferred firmer assertion with the expression of certainty. Nevertheless, native speakers tended to favor more tentative expressions with the expressions of probability and doub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finally discussed.

Analysis of EFL Learners' Argumentative Writing Using the Adapted Toulmin Model

이 정 원 (충남대학교)

1. Introduction

The current exploratory study aims at investigating structural features of EFL university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using an adapted version of the Toulmin model (1958, 2003) with the argument structures—primary claims, primary data, counterclaims, counterclaim data, rebuttals, and rebuttal data—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quality of argumentative writing and the use of Toulmin elements. To fulfill these pur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1. Does the adapted Toulmin model explain the quality of EFL university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2. Are there relationships between the overall quality of EFL university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and the elements of the adapted Toulmin model?

2. Literature Review

As a six-part model of argument introduced by British philosopher Stephen Toulmin, the Toulmin model has been used as a tool for developing, analyzing, and categorizing arguments (Toulmin, 1958). Researchers who have special attention to structural features of argumentative prose have mostly incorporated the Toulmin model (Toulmin, 1958, 2003) for their research and instruction. The Toulmin model suggests two groups of elements that consist of an argument: the fundamental (or main) elements are claim, data, and warrant, while the secondary (or additional) ones are qualifier, backing, and rebuttal (Crammond, 1998; Qin & Karabacak, 2010; Toulmin, 1958). As for the fundamental elements, the claim is the conclusion, assertion, or opinion of a disputatious argument in response to a problem; the data is supporting evidence, grounds, or premises for the claim; and the warrant provides the reason that establish the link between data and claim. Among the secondary elements, the qualifier is a modal term, representing the probability of the claim; the backing provides supports or justification for the warrant; and the reservation (or rebuttal) specifies conditions or circumstances in which the claim would not hold (Toulmin, 1958), or a response to a potential opposing position to a claim (Troyka, 2004). These secondary elements

can be used to strengthen the argument.

3. Research Design

3.1. Participants

For the study, the argumentative writing samples were collected from 46 EFL college freshmen who enrolled in a compulsory English course—42 males (91.0%) and 4 females (9.0%). Before they were asked to write an argumentative paper, a brief survey was administered to get the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ir TOEIC scores in order to ascertain their general English proficiency. The average TOEIC score was 768 ranging from 430 to 980, which means they were approximately at an intermediate–high level.

3.2. Writing Task

All 46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an argumentative essay in English based on the following prompt: “Nowadays smart phones are indispensable in our lives. Some people think smart phones bring us much convenience, while others argue they make serious trouble. Which opinion do you agree on? Take one position and write an essay to persuade an audience to agree with you.” They were encouraged to use their personal experiences or background knowledge related to the topic in order to support their argument. They were not allowed to use any resources including a dictionary. They were given 40 minutes to complete writing an argumentative essay.

3.3. Coding and Scoring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essays were coded using argument categories following Nussbaum and Kardash (2005) and Qin and Karabacak (2010) adapted from the Toulmin model (Toulmin, 1958, 2003). First, the participants had to choose one position on the issue of smart phone use, which was named as the final claim. Then the reasons they presented to back up the final claim were termed as primary claims. These primary claims were mostly supported by some reasons, called primary data. If they provide any possible opposing views to one of the claims, these views were termed as counterclaims; and the counterclaims could be supported by counterclaim data. Finally, they could also present any rebuttals that are responses to the possible opposing views (i.e. counterclaims) to one of the claims along with rebuttal data to support their rebuttals. Three elements of warrant, backing, and qualifier from the Toulmin model were not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because the elements hardly took place in the participants' essays. The overall

quality of the participants' argumentative essays was assessed on a 5-point scale scoring rubric based on Nussbaum and Kardash (2005) and Qin & Karabacak (2010).

4. Results

Descriptive analyses were carried out as in Table 1 to investigate how the Toulmin model with the six adapted elements explain the participants' argumentative writing quality. The final claim was not included in further analysis because taking a position on the issue of smart phone use was an obligation to write the argumentative essay based on the prompt, though two out of 46 participants failed to clarify the final claim.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oulmin Elements in English Argumentative Writing

Toulmin elements	Min.	Max.	<i>M</i>	<i>SD</i>
Primary claims	1	5	2.64	.91
Primary data	0	7	2.79	1.37
Counterclaims	0	3	.85	.84
Counterclaim data	0	2	.30	.43
Rebuttals	0	2	.59	.67
Rebuttal data	0	2	.29	.54
Overall quality of writing	2	5	3.50	1.00

On average, the participants presented at least two primary claims related to one final claim—whether smart phones bring us convenience or make trouble—and at least two primary data; however, they used less than one counterclaim, counterclaim data, rebuttal, and rebuttal data in their essays. Four out of 46 participants failed to present primary claims, primary data, or both, whereas the other 42 participants had at least two primary claims and relevant primary data. Considering a claim and its data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n argument structure, the majority of them appears to clearly understand how argument writing is organized with the basic elements (Cooper et al., 1984; Crammond, 1998; Qin & Karabacak, 2010).

When it comes to the use of counterclaims and counterclaim data, 24 out of 46 participants used counterclaims to refute the final claim or primary claims, and only 6 presented counterclaim data to back up the counterclaims. Concerning the use of rebuttals and rebuttal data, 23 participants used rebuttals to refute counterclaims, and only 8 of them presented rebuttal data to support the rebuttals. Such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that the participants used much fewer secondary Toulmin elements, such as counterclaims, counterclaim data, rebuttals, and rebuttal data, corroborates Qin and Karabacak's (2010) results. The insufficient use of the secondary elements is probably because it takes high cognitive load to use them (Coirier, Andriessen, & Chanquoy, 1999) and because students' argument writing proficiency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o some degree in which they can perceive appropriate use of them as an important tool to increase

persuasiveness of their arguments (Nussbaum & Kardash, 2005).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quality of English argumentative writing and the use of the six adapted Toulmin elements,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s were administered as in Table 2.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oulmin Elements and Overall Quality of Writing

	PC	PD	C	CD	R	RD
Overall quality of writing	.16	.19	.28*	.34*	.32*	.32*

* $p < .05$

Note. PC: primary claims, PD: primary data, C: counterclaims, CD: counterclaim data, R: rebuttals, RD: rebuttal data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English argumentative papers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whereas it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econdary elements, such as counterclaims, counterclaim data, rebuttals, and rebuttal data (Qin & Karabacak, 2010). It is quite understandable that the two fundamental elements (primary claims and primary data) failed to reveal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quality of writing possibly because almost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fully aware of the effect of using the fundamental elements to develop argument structures in their essays.

As for the secondary elemen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he overall quality of writing and the four elements. The use of the four secondary elements appears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enhancement of persuasiveness in their arguments (Qin & Karabacak, 2010; Wolfe & Britt, 2008). It can be assured to address that the quality of argument in argumentative papers hinges largely on the presence of the secondary Toulmin elements since texts strewn appropriately with counterclaims and rebuttals are considered more persuasive (O'Keefe, 1999).

5. Conclusion

On the basis of 46 college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sample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presented primary claims related to one final claim and primary data in their essays. Considering a claim and its data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n argument structure, the majority of them appear to clearly understand how argument writing is organized with the basic elements (Cooper et al., 1984; Crammond, 1998; Qin & Karabacak, 2010). On the other hand, fewer used counterclaim, counterclaim data, rebuttal, and rebuttal data in their essays. It suggests that they lack well-developed elaboration in constructing an argumentative structure in their papers, one of the crucial features found in expert writers'

argumentative texts (Cooper et al., 1984; Qin & Karabacak, 2010).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quality of English argumentative writing and the use of the adapted Toulmin elements was not significant for the fundamental elements, while significant in the secondary elements. Generally speaking,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fully aware of the effect of using the fundamental elements to develop argument structures in their essays, and the secondary elements play a crucial role to discriminate the ability of constructing persuasive arguments in argumentative writing (Qin & Karabacak, 2010; Wolfe & Britt, 2008).

Works Cited

- Coirier, P., Andriessen, J., & Chanquoy, L. (1999). From planning to translating: The specificity of argumentative writing. In G. Rijlaarsdam, E. Espéret, J. Andriessen, & P. Coirier (Eds.), *Foundations of argumentative text processing* (pp. 1–28).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Cooper, C. R., Cherry, R., Copley, B., Fleischer, S., Pollard, R., & Sartisky, M. (1984). Studying the writing abilities of a university freshman class: Strategies from a case study. In R. Beach & L. S. Bridwell (Eds.), *New directions in composition research* (pp. 19–52).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Crammond, J. G. (1998). The uses and complexity of argument structures in expert and student persuasive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15(2), 230–268.
- Nussbaum, E. M., & Kardash, C. A. M. (2005). The effects of goal instructions and text on the generation of counterarguments during writing.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97(2), 157–169.
- O’Keefe, D. J. (1999). How to handle opposing arguments in persuasive message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effects of one-sided and two-sided messages. In M. E. Roloff (Ed.), *Communication yearbook* (pp. 209–249). Sage, CA: Thousand Oaks.
- Qin, J., & Karabacak, E. (2010). The analysis of Toulmin elements in Chinese EFL university argumentative writing. *System*, 38, 444–456.
- Toulmin, S. E. (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ulmin, S. E. (2003). *The uses of argument* (update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oyka, L. Q. (2004). *Quick access: Reference for writers* (2nd ed.). Toronto: Pearson.
- Wolfe, C. R., & Britt, M. A. (2008). Locus of the myside bias in written argumentation. *Thinking & Reasoning*, 14, 1–27.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오류 분석

문 경 민 · 김 수 연 (세종대학교)

1. 서론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사한 문법 구조와 어휘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모국어의 부정 전이로 언어권별 오류 패턴이 다름에 따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화 중 가장 많은 오류율을 차지하는 비음 오류를 분석하였다. 일본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류를 유도한 스크립트를 읽은 데이터와 질문에 답하는 자유 발화 데이터를 비교하여 어절의 모든 위치에서 구현된 비음 종성 연속 환경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에서의 오류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 배경

2.1. 한국어와 일본어 종성 비음

한국어와 일본어는 음절 구조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어는 음절 내 종성(coda)의 실현이 가능한 폐음절 언어(CVC 언어)인 반면, 일본어는 음절 내 종성 실현을 허용하지 않는 개음절 언어(CV 언어)이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예외적으로 특수 음소 /N/(ㄴ)가 후행 음절의 초성의 영향을 받아 앞선 음절의 종성의 변이음으로 구현된다.

〈표 1〉 특수음소 /N/의 변이음

	후행 초성 자음의 조음 위치	실현 변이음
/N/	양순음 [m], [p], [b]	양순음 [m]
	치경 [n], [t], [d], [s], [z]	치경 [n]
	연구개 [ŋ], [k], [g]	연구개 [ŋ]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각각의 음소로 존재하는 종성 비음 /m/, /n/, /ŋ/이 일본어에서는 후행음에 따라 변이음으로만 존재하여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종성 비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위 오류 환경은 종성 비음 음절이 어중에 위치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어말 위치의 비음 종성의 경우, 후행하는 초성이 없거나 휴지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 초성의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2.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분석

이전의 일본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연구들에서는 어중 종성 비음 구현 패턴에 대해 바로 따라오는 초성의 조음 위치에 따라 이음이 결정된다고 하였고(박기영, 2001; 강봉식, 2006; 정현숙, 2014), Maekawa(2021)는 어중에 국한하지 않고 어말에서도 앞선 음절의 모음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38시간 25분 50초 분량의 실제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든 위치의 종성 비음 발화 패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비음 종성 오류 중 음절의 비음 종성이 연속할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데이터 및 결과

3.1. 연구 데이터

본 실험에서는 2021년 수행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제를 통해 수집된 총 80개국 외국인 학습자 1,911명의 한국어 발화 데이터 총 4302.5시간 중 가공 및 선별된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총 40명의 일본어 학습자의 발화 데이터를 가공한 총 38시간 25분 50초의 분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18시간 49분 33초 분량의 읽기 데이터와 14시간 58분 분량의 자유 발화 데이터를 합한 분량이다.

3.2. 데이터 구축 방법

읽기와 자유 발화 녹음에 모두 참여한 40명의 일본어 학습자들은 총 5개 세트로 구성된 녹음 방식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15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스크립트를 읽고 75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김수연 · 민효민 · 최혜원, 2022). 5개의 세트는 난이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축된 스크립트와 질문을 활용하였다. 스크립트의 경우, 각 언어권별로 모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류를 유도할 수 있는 어휘들로 구성되었다. 스크립트의 난이도에 따라 어휘의 난이도 또한 반영되었다.

3.3. 오류 주석 및 데이터 분석

난이도별로 제작된 총 5개 세트 중 난이도가 낮은 두 세트의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두 세트의 데이터는 작업자를 선별하여 철자 전사를 기반으로 음성을 듣고 발음 전사와 오류 판정 과정을 거쳤다. 작업자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한국어 모국어 작업자들이 전사 교육에 참여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사 및 검수 작업을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검수가 완료된 데이터는 구글 코랩(Google Colab)을 활용하여 오류 유형 분포를 확인하였고 한마루 2.0을 통해 음절과 자소 단위로 분류하여 오류율을 확인하였다.

3.4.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 데이터는 철자 전사 기준으로 읽기 데이터 112,246어절과 자유 발화 데이터 65,601어절로 총 177,847어절이다. 음절과 자소 단위로는 읽기 데이터 422,463음절과 자유 발화 데이터 243,783음절로 총 666,246음절, 읽기 데이터 761,885음소와 자유 발화 데이터 435,868음소로 총 1,197,753음소이다.

전체 오류 분석 결과, 예상대로 본 연구의 초점인 비음 오류가 일본어 학습자의 여러 오류 패턴 중 가장 많았다(최혜원 · 김수연 · 고건희, 2022). 비음은 철자 전사 기준으로 전체 비음 음소 구현 환경에서 10.08%의 오류율을 보였다. 비음 오류율은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에서 각각 10.84%와 8.83%의 오류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소 단위의 비음 오류율은 읽기 데이터 10.84%, 자유 발화 8.83%로 읽기 데이터가 더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언어권별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오류를 유도하는 어휘들로 읽기 스크립트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표 2〉 자소별 출현 횟수 대비 오류율

자소	철자 출현		오류		비율(%)	
	읽기	자유 발화	읽기	자유 발화	읽기	자유 발화
ㄴ	66,480	41,768	7,182	3,972	10.8	9.51
ㅁ	24,102	14,186	2,658	1,126	11.03	7.94
ㅇ	86,420	52,694	9,350	4,500	10.82	8.54
합계	177,002	108,648	19,190	9,598	10.84	8.83

읽기 데이터에서 오류율은 ㅁ(11.03%) > ㅇ(10.82%) > ㄴ(10.8%) 순으로 높았고, 자유 발화 데이터에서 오류율은 ㄴ(9.51%) > ㅇ(8.54%) > ㅁ(7.94%) 순으로 높았다. 해당 오류율은 비음 초성과 종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지만, 비음 종성 오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음 오류율에 비음화를 미적용한 오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발화자들이 음운 규칙을 몰라서 구현된 오류인지, 규칙은 알지만 적용을 못해서 구현된 오류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후 비음화를 적용하지 못해 생긴 오류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에서 해당 오류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및 결론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시 발생하는 여러 오류 패턴 중 비음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비음 종성 오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음 종성이 포함된 음절의 오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해당 음소를 탈락하거나 다른 음소로 대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비음 종성 오류 예시

탈락: [가까운]→[가кау], [건강에]→[건가에], [생김새]→[생기새]

대치: [시간이]→[시강이], [꼼꼼히]→[꼰꼬니], [명동에]→[면도네]

이러한 경우는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비음 종성 포함 음절이 어절의 중간이나 끝에 위치했을 때, 후행 음절 초성의 영향을 받거나 바로 앞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음 종성 오류 중, 비음 포함 음절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 따른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의 오류는 각각 1698개와 636개였다. 오류 패턴 구분은 반복된 비음 종성 중 하나 이상을 탈락한 경우, 하나의 비음 음소로 반복한 경우, 다른 음소로 대치한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¹⁾

- (2) 비음 종성 반복 구현 오류 예시
 탈락: [신혼여행]→[신호여행]
 반복: [영양제]→[연안제]
 이음화: [여동생]→[여동센]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 내에서의 비음 종성이 반복된 음소를 포함한 철자 개수는 각각 5,724개와 2,302개였다. 그 중, 발생한 오류는 읽기 데이터에서 탈락 389개, 반복 617개, 이음화 699개였고 자유 발화 데이터에서 탈락 143개, 반복 212개, 이음화 282개였다.

〈표 3〉 비음 종성 연속 구현 오류

구분	오류율(%)	
	읽기	자유 발화
탈락	6.8	6.21
반복	10.78	9.21
이음화	12.21	12.25

비음 종성 반복 오류율은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에서 모두 이음화, 반복, 탈락 순으로 높았다. 이음화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차지한 것은 비음 종성 반복 환경 내에서 하나의 음소가 후행 초성 또는 바로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오류가 포함된 것이다. 철자를 보고 따라 읽은 데이터와 질문에 답한 자유 발화 데이터의 비음 종성 반복 구현 오류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을 통해 비음 종성을 포함한 음절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철자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로 인한 오류보다는 모국어의 특수음소 /N/의 구현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중 음절 단위의 비음 종성 구현 오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중 혹은 어말 위치에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비음 오류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모든 위치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살펴보고 특히 비음 종성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 읽기 데이터와 자유 발화 데이터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오류 패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휘 내에서 비음 종성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 발화에 끼치는 영향은 철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비음 종성의 구현 환경에 따라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1) 각 오류 패턴 구분을 탈락, 반복, 이음화로 칭한다.

참고문헌

- 강봉식. (2006).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에 관한 한일 양 언어의 음운학적 고찰연구. 어원연구, 7, 137-150.
- 박기영. (2001).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일고찰 - 특히 공명 자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 冠嶽語文研究, 26, 225-245.
- 정현숙. (2014). 초급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발음 오류 연구 - 오류 환경 및 철자 오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민효민·최혜원. (2022).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외국인의 한국어 발화 음성 데이터 구축 방안. 언어과학연구, 100, 63-88.
- 최혜원·김수연·고건희. (2022). 한국어 말하기 자동평가를 위한 발음 오류 분석 -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화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9(1), 221-247.
- Maekawa, K. (2021). Production of the utterance-final moraic nasal in Japanese: A real-time MRI stud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53(1), 189-212.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베트남 빈을 중심으로

김혜정 · 응옌티프엉 (광주여자대학교)

1. 서론

요즘 베트남 영어교육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영어는 그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 학부모 역할은 자녀의 언어 능력과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guyen Thi Ngoc Anh, 2014). 김진철 외(2003)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영어 학습을 해야 할 태도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사, 부모, 친구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가정환경의 요인은 학교 나 사회 환경의 변화보다도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가정환경의 차이는 학업 성취도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박명희, 2005). 이외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초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어 수업 교실 환경을 벗어나면 학부모의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영어 학습 환경이 조성되거나 혹은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인식이 자녀의 영어 학습 효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선택이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거나 스스로 영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학교와 부모가 배우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환경에서는 학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정호진, 2000).

현재 베트남의 많은 부모는 초등영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영어가 꼭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하여 영어교육에 더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이 증가하면서 세계와의 관계가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어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996년 초부터 많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5학년까지 선택과목으로 영어가 포함되었지만 2018년 1월 19일 고시한 새로운 일반교육 프로그램 초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단계에서 영어가 모두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3~12학년은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베트남 교육부 2018). 따라서 영어 수업이 개설되었고 학부모들도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과 영어 교재도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과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후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 학습의 영향 요인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로 학습자가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학습자가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동기, 그리고 학습자의 문화적 경제적 여건 등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주체자인 초등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학습에 임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부모들이 영어 학습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졌는지, 초등 영어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에 따른 근거를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발전에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장유진, 2007).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초등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1.1 외국어 학습과 학부모 태도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표출되는 교육에 관한 태도와 신념, 예를 들어, 부모가 제공하는 학습 환경의 유형에서 격려, 기대 및 참여를 통해 함께 학습하는 가정 분위기와 자녀의 학습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Hong & Ho, 2005; Hung, 2007; Hung & Marjoribanks, 2005; Phillipson, 2010). 자녀 교육과 학업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서 적당한 부모의 기대는 학습의 성취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Fan & Chen, 2001; Hung, 2007; Hung & Marjoribanks, 2005; Phillipson, 2010). 학부모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부모가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 성과는 향상된다(Phillipson & Phillipson, 2007, Phillipson, 2010). 또한, 베트남 연구자 (Nguyen Thi Ngoc Anh, 2014)의 연구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최적화 된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베트남의 상황에서 대부분 아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없으며 부모의 열망과 교육과정 선택에 따라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Ngo Thi Hue, 2014).

그러므로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자녀에게 격려를 해주면 자녀는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Dronkers(1993)에 따르면, 학부모는 집에서 독서 등과 같은 학습 활동에 함께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좀 더 나은 학업 성취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하여 더욱 큰 자존감을 학생 스스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어린이 영어 학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베트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여기에서는 베트남의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베트남 교육부, 2018).

2.2.1 베트남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

베트남에서의 초등교육은 1학년부터 5학년 말까지 5년 동안 실시되며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나이는 6세이고 년 단위로 학년이 올라간다. 베트남 교육부가 2018년 1월 19일 고시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단계에 영어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3~12학년은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실시하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트남 초등학교 영어는 모든 학년이 주당 4교시로 동일하게 배정된다. 한 학기 동안 영어 능력 시험은 4번 있고 시험 결과를 학적부에 기록한다. 영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언어 지식을 의사소통 기술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술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의 2가지 기술을 우선으로 하여 영어로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음성, 어휘, 문법을 포함한 영어에 대한 기본 및 최소 지식과 영어를 통해 영어권 국가와 전 세계 다른 국가, 사람 및 문화에 대한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형성하여 향후 다른 외국어 학습의 기반을 마련한다.

2.2.2 베트남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특징

베트남에서 3학년년부터 12학년까지 영어는 기초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회화 능력의 개발뿐 아니라 영어 학습의 과정에서 영어를 통한 공통 역량의 형성 및 개발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학습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의 학문으로서 영어 과목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국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여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도와준다. 첨단 과학 기술, 문화 이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 구축에 기여하고, 포용성 있는 인격을 형성하며 국제적인 자질과 역량 개발 및 세계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한다. 또한 영어 학습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일반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인 영어는 영어 자체만이 아니라, 문학/베트남어, 자연과 사회, 역사와 지리와 같은 다른 많은 주제/교육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며 예술, 체육, 정보학, 체험 활동 등 다른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수학과 자연과학의 학습에 영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베트남 교육부 2018). 이와 같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특징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해하고 그 특성에 기초하여 매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베트남 응에안(Nghe An)성 빈(Vinh)시 헤르만 그 마이 너 빈 (Hermann Gmeiner Vinh) 초등학교 3학년(8세) 자녀를 둔 학부모 10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에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은뢰(2020)의 중국과 한국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학

부모들의 실태 연구 논문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설문지는 학부모에게 배포한 120부의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한 학부모 1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 도구는 초등학교 3학년(8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는 빈(Vinh)시 에 거주하는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간접적으로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은희, 2020)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설문지의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번호	문항 내용
I. 학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배경	1, 2 3, 4	학부모의 나이, 학력 자녀의 나이, 성별
II.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5 6 7	영어를 배우게 된 동기 영어를 배우는 이유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
III. 초등영어교육의 실태	8~19	초등영어의 문제점 영어교육의 학습 방법 자녀의 영어 흥미도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 영어교육 기간 한 달 영어 사교육 비용 영어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 영어 사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 영어 사교육기관의 만족도 영어 사교육기관의 효과 및 이유

3.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베트남 응에안(Nghe An) 성 빈(Vinh)시 헤르만 그 마이 너 빈 (Hermann Gmeiner Vinh) 초등학교 3학년(8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문항 간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방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응답으로 설계된 문항을 다중응답분석(Multiple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응답은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는 문항에는 문항 당 1점씩 부여하여 총점을 나타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베트남 학부모의 나이를 살펴보면 36세~40세 학부모가 가장 많은 61명(59.2%), 그다음으로는 41세~45세 학부모가 30명(29.1%), 30세~35세 학부모는 7명(6.8%), 46세 ~50세와 30세 미만 학부모는 각각 3명(2.9%), 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학부모의 학력은 4년 대졸 38명(36.9%), 3년 대졸 32명(31.0%)으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졸 21명(20.4%), 대학원 졸 12명(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나이는 전월 8세 103명(85.8%)이다. 베트남 학교의 규정에 따라 8세가 되어야만 초등학교를 입학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학년 별로 나이가 정해져 있다.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61명(59.2%)이고 여학생은 42명(40.8%)으로 나타났다.

4.2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베트남에서 영어를 배우게 된 동기 "학부모의 권유"가 42명(40.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는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31명(30.0%)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영어를 배우는 이유로는 "자녀의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가 72명(7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와 "꼭 필요하다"가 85명(82.5%)으로 학부모들이 응답했다.

4.3 초등영어교육의 실태

학부모들은 초등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진다."가 51명(49.5%)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뒤로는 "자녀의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가 38명(36.9%)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법으로는 "영어학원"이 42명(40.8%)으로 응답했고, 다음은 "초등학교" 37명(35.9%)이며 세 번째는 "개인 과외"가 14명(15.5%)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흥미도는 흥미 있다가 63명(61.1%)으로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였고,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로는 3학년부다가 59명(57.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입학 전 20명(19.5%)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베트남의 한 달 영어 사교육 비용은 "10만 원 미만"(2백만 동)이 83명(80.6%)으로 응답 중 가장 많았고,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는 "부담이 있다"가 59명(57.3%)으로 응답하였고, 영어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가 59명(57.3%)으로 응답하였고 사교육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부실"과 44명(42.7)과 "원어민 강사의 지도 능력 부족"이 39명(37.9%)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베트남 빈시의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서 초등영어교육이 발전하기 위해 모든 영어학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영어를 지도해 줄 수 있게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 영어교육 방법에 대하여 안내 및 홍보 등이 정부 또는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이나 해당 학교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 베트남 응엔에안성 빈시에 영어교사의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하므로 충분한 수의 교사와 그에 대한 질적 양적 지원이 필요하고 영어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교사 연수를 받게해야한다.

참고문헌

- 김진철 외 5인(2003). 초등영어 교수법. 서울: 학문출판(주).
- 박명희(2005). 초등학교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 분석. 숙명여자대학교학. 석사학위논문.
- 베트남 교육부(201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Nghe An. 신문지.
- 베트남 교육부(2021). 초등학교 교육과정. Tuyen Quang. 신문지.
- 은퇴(2020). 중국과 한국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실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2007). 현행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진. (2000). 어머니의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참여가 어린이 영어의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영어언어 과학시리즈, Vol.4. 한국영어언어과학학회.
- Dronkers(1993). The Causes of Growth of English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Class or Internationalisation?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28, No. 3, Cross-Cultural Competence in a Changing World (1993), pp. 295-307 (13 pages)
- Fan & Chen,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https://link.springer.com/journal/10648> 13, pages1-22.
- Hong & Ho, (2005). Direct and Indirect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ing Across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32-42.
- Hung & Marjoribanks, (2005).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s school outcomes: a Taiwanese study. *Educational Studies* Volume 31, 2005 - Issue 1.
- Hung, (2007). Family, schools and Taiwanese children's outcomes. *Educational Research*, 49(2), 115-125.
- Phillipson & Phillipson, (2007) Academic Expectations, Belief of Ability, and Involvement by Parents as Predictors of Child Achievement: A cross-cultural comparis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Psychology* Volume 27, 2007 - Issue 3.
- Phillipson(2010). Modeling Parental Role in Academic Achievement: Comparing HighAbility to Low and AverageAbility Students. *Talent Development & Excellence* Vol. 2, No. 1, 2010, 83103.
- 노티회(Ngo Thi Hue)(2014).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자녀에게 부여하는 학부모의 역할 조사 연구. 베트남 하노이국립 대학교(Hanoi National University) 언어 및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응엔티억아잉(Nguyen Thi Ngoc Anh)(2014).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연구. 베트남 하노이국립 대학교, (Hanoi National University) 언어 및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Enjoyment in English learning among Chines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Miaoqing Wang (전북대학교)

1. Introduction

Over the past decade, the positive psychology (PosPsy) movement has received remarkable attention in SLA, evidenced by a growing number of articles, special issues, books, and conferences (Dewaele & Li, 2018). This movement has begun to move away from an exclusive focus on FLA (Foreign Language Anxiety) and advocated for a holistic view of emotions related to academic learning experienced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y FL learners (Jiang & Li 2017; Dewaele & MacIntyre, 2014). Among all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studied in this emerging research trend,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FLCA) and foreign language enjoyment (FLE)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central experienced affective variables driving FL learning (Piniel & Albert, 2018). Defined as “the feeling of tension and apprehension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second language contexts, including speaking, listening, and learning” (MacIntyre & Gardner, 1994, p. 284), Foreign Language Anxiety (FLA) proposed by Horwitz et al. (1986) has been widely studied and recognized. The construct has been commonly measured by the 33-item, five-point Likert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 and covers three sub-dimensions: communication apprehension, test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contrast to FLCA, Dewaele & MacIntyre (2014, 2016) began their exploration by identifying Foreign Language Enjoyment (FLE) as a dimension independent of FLCA and conceptualizing it as “complex emotion, capturing interacting dimensions of challenge and perceived ability that reflect the human drive for success in the face of difficult tasks” (p. 216). They further developed the Foreign Language Enjoyment Scale, based on 21-item Likert scale ratings, which has become the main instrument for measuring FLE subdivided into FLE-social and FLE-private.

Numerous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CA and language learners' achievement (Zhang & Liu, 2013; Wang, 2017; Gkonou, 2014; Gopang et al., 2017; Horwitz, 2016; Liu, 2018a, 2018b),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LE and learners' achievement (Piniel & Albert, 2018; Jin & Zhang, 2018; Guo, 2021; Wei et al., 2019). In the recent development, some researcher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FLCA, FLE, and FL achievement simultaneously (e.g., Dewaele et al., 2018; Dewaele & Alfawzan, 2018; Yang, 2021; Dong et al., 2022; Su, 2022). For example, Dewaele & Alfawzan (2018) reported FLE influenced FL learning

more than FLCA did. Some have also found that their subjects' FLCA and FLE were dynamically related and fluctuated overtime, influencing their language outcomes (Dewaele & Dewaele, 2017; Elahi & Taherian, 2021; Boudreau et al., 2018; Jiang & Dewaele, 2019; Li et al., 2020). In addition, many scholars have applied qualitative studie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FLCA and FLE (Liu, 2018a,b; Li et al., 2020; Gopang et al., 2017; Guo, 2021; Yang, 2021; Dong et al., 2022).

Although some authors have also examined the interactions between FLCA and FLE (Jiang & Dewaele, 2019), they all used linear methods such a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which can hardly captur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FLCA, FLE and their sub-dimensions. Therefore, this study decided to us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 a multivariate technique that can simultaneously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sub-divisions (Stevens, 1986; Tabachnick & Fidell, 2007; Thompson, 1984) and also explains the shared variability between subscales within a given set of variables (Sherry & Henson, 2005) to better analyze the complex relationship.

In order to embellish and interpret quantitative results in more depth, several researchers have included qualitative research in the collection of articles after the quantitative phase. Thus, this study decided to adopt the methodology of narrative frames to obtain some qualitative data. According to Barkhuizen & Wette (2008), narrative frames provide participants with guidance and support for narrative structure and content and allow for the collection of a small corpus of narratives in a short period of time for making broader generalizations. Over the past decade, empirical narrative research has proliferated in TESOL (Xu, 2014; Xu & Liu, 2009).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LCA, FLE and FL proficiency in more meaningful ways,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formulated:

1. What is the canonical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FLCA and FLE among Chinese senior high school EFL students?
2. How much variance in the oral English proficiency of Chinese senior high school learners of English can be explained by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sub-dimensions of FLCA and FLE?
3. What are the causes, effects and strategies of Chinese senior high school EFL students' FLCA and FLE perceived by the subjects?

Works Cited

- Al-Saraj, T. M. (2014). Revisiting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 The anxiety of female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Saudi Arabia. *L2 Journal*, 6 (1).
- Arnaiz, P., & Guillén, F. (2012). Foreign Language Anxiety in a Spanish University Setting: Interpersonal

- Differences//La ansiedad en el aprendizaje de una lengua extranjera en contexto universitario: diferencias interpersonales. *Revista de psicodidáctica*, 17(1).
- Ashraf, T. A. (2019). Strategies to Overcome Speaking Anxiety among Saudi EFL Learners. *Language in India*, 19(10).
- Aydin, S. (2008). An Investigation on the Language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mong Turkish EFL Learners. Online Submission.
- Bailey, K. M. (1983). Competitiveness and anxiety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ooking at and through the diary studies. *Classroom 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5), 67–102.
- Barkhuizen, G., & Wette, R. (2008). Narrative frames for investigating the experiences of language teachers. *System*, 36 (3), 372–387.

A Study of Chinses undergraduates' motivation to learn L2 English and L3 Korean

Lin Su · Jaewoo Shim · Heechul Le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Along with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population migration, Global English becomes lingual franca, and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people learning additional languages. Additional language competence is traditionally identified as an attribute that can help learners earn an edge in the competitive globe job market (Graddol, 2006; Ushioda, 2017; Henry, 2017). Literature survey shows that recent studies tend to extend this instrumentalist view and hold language learning as a process to explore and expand the accessible linguistic and cultural resources. In this vein, learning several languages simultaneously is a heuristic human being cultivation process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separate linguistic skills or competence of a single language (Ushioda, 2017; Henry, 2017).

Motivation is considered a significant and influential predictor of language learning achievement. Dörnyei's L2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 holds to understand language learners' motivation from self-based perspective, and it aids in the exploration of second language (L2) learning motivation in greater depth (Dörnyei, 2019; Dörnyei & Al-Hoorie 2017; Ushioda, 2016; Henry, 2017). This theory, which supports that learners' mental imagery of a desired future as the threshold of learning behavior, consists of three prominent factors of motivation: the ideal L2 self, the ought-to L2 self and the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Dörnyei, 2009). L2MSS has been used to explore motivation to lear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Empiric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re are separate motivational self systems to learn L2 and L3 (Dörnyei & Chan, 2013; Ushioda, 2017).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showing that English learning provides a reference yardstick for learning additional languages or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LOTEs). And usually, it is considered that English learning will exert negative impact on motivation to learn LOTEs (Henry, 2017; etc.); at the same time, the influence of L3 learning on L2 learning has also been investigated (Huang et al, 2022). Through literature survey, it is found that there are few studies examining simultaneous language learners' intended effort to learn an L2 and an L3. Thus, adopting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 this study aims to study what variables in L2MSS could influence L2 English and L3 Korean learning effort.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are the levels of variables ideal L2/L3 self, ought-to L2/L3 self, L2/L3 positive learning experience and L2/L3 negative learning experience?

(2) What variables in L2MSS can influence simultaneous language learners' L2 and L3 intended learning effort?

Works Cited

- Dörnyei, Z. (2009). Individual differences: Interplay of learner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environment. *Language learning*, 59, 230–248.
- Dörnyei, Z. (2019).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2 Learning Experience, the Cinderella of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9(1), 19–30.
- Dörnyei, Z., & AL-HOORIE, A. H. (2017). The motivational foundation of learning languages other than global English: Theoretical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1(3), 455–468.
- Dörnyei, Z., & Chan, L. (2013). Motivation and vision: An analysis of future L2 self images, sensory styles, and imagery capacity across two target languages. *Language learning*, 63(3), 437–462.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Vol. 62). London: British council.
- Henry, A. (2017). L2 motivation and multilingual identiti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1(3), 548–565.
- Huang, T., Steinkrauss, R., & Verspoor, M. (2022). Learning an L2 and L3 at the Same Time: Help or Hi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9(4), 566–582.
- Li, M., Zhang, L., & Tsung, L. (2022). L2 and L3 motivational systems and their interactions: a study of Tibetan–Chinese–English trilingual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25(8), 2866–2885.
- Ushioda, E. (2016).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through a small lens: A research agenda. *Language Teaching*, 49(4), 564–577.
- Ushioda, E. (2017). The impact of global English on motivation to learn other languages: Toward an ideal multilingual self.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1(3), 469–48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의 양상 -학문목적 학습자의 교재를 중심으로-

오 수 연 (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시 및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사용한 한국 문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문학 교육이 언어 능력, 문화 이해 및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중심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춘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언어 습득 및 학습 동기부여와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한국 문화를 활용한 교수법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화교육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 문화와 문학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교재의 단계별 구성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서울 소재의 12개 대학의 한국어교재와 초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현대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한 문화요소를 활용하여 시를 문화요소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시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문화요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은 한국어교육의 수요층의 다변화와 다양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교육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이나 기관마다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이 운용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에 세계 각국들은 표준화된 교육

과정으로 자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통용 가능한 한국어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은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2016년 3단계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2017년 4단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가 제출되었다.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이 되면서 ‘표준’의 의미를 최소화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요목, 평가, 교재 등을 개발하는 데에 공통 기반 마련을 목표로 두고 가상의 교육과정 모형구축에 한정하여 표준의 의미를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시를 텍스트로 삼아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시를 문화요소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요소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통일성 있는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을 하게 된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의 수요층이 다변화되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도 의사소통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목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체계(교수, 학습, 평가 등)는 지역별,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실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는 국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의 통일성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용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은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및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가, 2016년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를, 마지막으로 2017년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단계에서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으로 문화 교육의 범주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정의와 개념, 문화 내용의 교육적 특성 등을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고, 2단계에서는 문화 항목의 설계 원리와 방향,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문화 영역의 내용 기술을 상세화 하였다.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을 정보 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문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방법론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등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또한 각 문화 요소에 교육 가능 등급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2단계를 대부분의 기준으로 4단계의 세부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2010년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이 시작되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별, 기관별로 운영되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체계(교수, 학습, 평가 등)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한국어교육에서도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교육과정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인다. 이

에 따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으로 문화 교육의 범주를 제시했으나, 연구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문화 항목의 설계 원리와 방향,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등을 추가하여 상세화했다. 또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4단계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등을 교육 가능 등급으로 표기하였다.

2.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문화요소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문화요소는 대분류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로 분류되며, ① 한국인의 생활, ② 한국사회, ③ 한국의 예술과 문학, ④ 한국인의 가치관, ⑤ 한국의 역사, ⑥ 한국의 문화유산, ⑦ 외국인의 한국생활로 분류된다.

2.1.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의 문화의 세부 기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언어생활, 가정 생활, 학교생활, 직장 생활
가치관	사고방식, 정서, 종교, 가치관의 변화
역사	시대, 인물, 역사적 사건
풍습	명절과 절기, 관혼상제
정치	정치 제도, 남북 관계, 국제 관계, 정치 문제
경제	경제 제도, 경제 정책, 경제 문제
교육	교육제도와 교육 문제
사회	사회정책, 사회문제, 질서 기후, 지형, 지역, 교통
과학·기술	산업, 정보통신
예술	음악, 미술, 공연, 문학, 영화·드라마
문화유산	문화재와 국가 상징물

2.2. 한국현대사

3. 한국어 교재 분석

3.1. 분석 대상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학문목적의 학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로 한정하였고, 서울 소재의 대학교 한국어교재 중에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를 갖춘 12곳으로 분석대상을 삼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수가 높은 대학교의 한국어교재도 포함되어 있다.

분석 대상의 교재는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의 『함께 배워요 한국어』,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의 『함께 배우는 건국한국어』, 경희대학교의 『경희 한국어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서강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의 『100시간 한국어』²⁾,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이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재미있는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한양대학교의 『한양 한국어』이다.

한국어교재가 개편되기 전에는 1-6권의 6권의 한국어교재와 6권의 워크북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대부분 권을 두 권으로 나누어 '1-A, 1-B' 또는 '1-가, 1-나'로 바뀌었다. 고급에 포함되는 5권과 6권은 분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고 분철된 경우도 있다. 예외가 아니라면 초급은 '1-A, 1-B' 또는 '1-가, 1-나', '2-A, 2-B' 또는 '2-가, 2-나'로, 중급은 '3-A, 3-B' 또는 '3-가, 3-나', '4-A, 4-B' 또는 '4-가, 4-나'로, 고급은 '5', '6' 또는 '5-A, 5-B' 또는 '5-가, 5-나', '6-A, 6-B' 또는 '6-가, 6-나'로 바뀌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학교별 한국어교재는 20-24권으로 다양하고 한국어교재에 해당하는 워크북 전권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워크북 또한 20권에서 24권으로 다양하다.

3.2. 분석 방법 및 절차

분석 대상의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현대시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한국어교재에 해당하는 워크북도 포함하여 현대시를 선별하였다. 다작 작가와 다수 수록 시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3. 문제점

한국어교재에서 현대시를 수록한 목록을 정리한 결과 40명의 작가, 55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다작 작가로는 김춘수 7편, 정호승 6편, 김소월과 윤동주가 각각 5편씩, 천상병 4편, 도중환 3편, 정현종 3편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현대시는 김춘수의 「꽃」으로 7번 수록되었고,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4번, 천상병의 「귀천」이 3번, 도중환 「흔들리며 피는 꽃」과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 각각 2번씩 수록되었다.

작품	작가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횟수
꽃	김춘수			1	1	4	1	7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1	2	1		4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1					1	2
산유화					1		1	2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연세 한국어』에는 현대시 수록이 한편도 없으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의 『100시간 한국어』에는 현대시가 수록되어 있다.

4. 한국 문화요소

4.1. 선정기준

4.2. 작품선정 목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2019), 『함께 배워요 한국어』 5A, 동국대학교출판부.
-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교재 편찬위원회(2018),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하, 중앙대학교출판부.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17), 『함께 배우는 건국한국어』 6, 건국대학교출판부.
- 이정희 외(2014), 『경희 한국어 읽기』 3, 4, 5, 하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6, 하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6 workbook,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6), 『서강 한국어』 4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3), 『서강 한국어』 5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2005), 『100시간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2010), 『연세 한국어 읽기』 4, 5, 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 한국어』 1-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 한국어』 1-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 한국어』 2-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 한국어』 2-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 3-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 3-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 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이화 한국어』 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5,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5 workbook, 교보문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2B,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3B,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5B,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6A, 투판즈.

Maximizing Student Engagement i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with Nearpod

Jongbum Ha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1. Introduction

While the influence of technology on various aspects of life has been immen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eature of Nearpod that enables students to share their answers with the class and observe other students' answers, which may increase thei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class. The study identifies potent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Nearpod and suggests solutions to overcome them, which can be useful for educators and instructors intending to integrate technology into their face-to-face classes.

2. Review of Literature and Research Questions

1.1. Multimedia technolog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enhancing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Computers are an excellent educational tool that can facilitate diverse and interesting learning experienc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utilizing multimedia computers for learning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it is believed that such utilization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finitional realm of language education and ultimately promote language learning acceleration.

1.2. Nearpod-assisted second language class

The studies (e.g. Ha, 2022; Moon & Ahn, 2022; Musa & Momani, 2022; Putra, Arafik, & Pratiwi, 2021) show that Nearpod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interactivity,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large classes, language learning, online learning, and distance learning. Additionally, the studies provide insights into the effective use of Nearpod for creating interactive and engaging learning experiences, improving student engagement, enhancing language education, and creating a stimulating learning environment.

1.3.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perception of students towards using Nearpod in face-to-face classes?
2. What are the potential challenges and solutions associated with using Nearpod technology in face-to-face English classes?

3. Methods

3.1.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46 participants who completed a questionnaire out of a total of 58 students who took two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taught by the researcher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2022 at a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classes were mandatory for all first-year students at the university.

3.2. Materials and Instruments

The course materials were developed by the four professors at K university and included straightforward English texts, exercises to test content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activities to arrange words to be a sentence, and assignments to practice paragraph writing. To promote student engagement during class, Nearpod, an online platform that facilitates students' interactive participation, was employed. Whil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bring their own laptops, they were also permitted to use their smartphones.

3.3. Procedures

Classes were conducted face-to-face for two hours per week, aimed at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English passages, written expression, and translation skills from Korean to English. Course activities included identifying key words in passages, suggesting English expressions as writing models, completing word order exercises, and translating Korean sentences using given English vocabulary. The final stage of each lesson centered around practicing English paragraph writing on a predetermined topic.

During the course, the researcher selectively utilized Nearpod for various activities such as passage comprehension, model acquisition, and writing. Nearpod offers a diverse range of activities, but the researcher specifically used an Open-ended Question activity for passage comprehension and writing, and a Collaborate Board activity for model acquisition. Additionally, Fill in the Blanks and Web Content activities were utilized sparingly as needed. This allowed the students to observe and evaluate their peers' work while catering to the specific needs of the course.

3.4.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Data collection primarily involved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via school talk message as necessary. In addition to demographic information such as their year and gender,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self-rated effectiveness and affective aspects of using Nearpod in class. If their satisfaction was skewed in one direction, they were asked to provide reasons for this. The effectiveness questions in the survey covered a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identifying key words in passages, suggesting English expressions as writing models, and practicing English paragraph writing on a specific topic. Affective aspects questions covered engagement, interest, motivation, confidence, satisfaction, and anxiety relief. The closed-ended questionnaire items all exhibi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t a reliable level (Cronbach's alpha = .881).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5.0 for Windows.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year level and gender,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ngagement, motivation, interest, confidence, satisfaction, and anxiety.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calculate the mean (M) and standard deviation (SD) for each item, and one-way ANOVA and independent T-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After the analysis of variance, Scheffe's post-hoc test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power of the t-test results, the effect size was examined, and Cohen's d value was calculated. The responses to the narrative questionnaire were thematically analyzed and present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4. Results and Discussions

4.1. Students' Perception Towards Using Nearpod in Face-to-Face Classes

4.1.1. Self-rated Effectiveness of Using Nearpod in Face-to-Face Classes

The mean scores of self-rated effectiveness for passage comprehension, model acquisition, and paragraph writing were found to be 4.30, 4.52, and 4.57, respectively. These scores indicate a high level of self-rated effectiveness for the use of Nearpod across all activities, although activities related to model acquisition and paragraph writing appeared slightly more effective than the passage comprehension activity.

To further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the survey also included a question asking the students to identify the most useful activity facilitated by Nearpod.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perceive writing as the most useful activity facilitated by Nearpod among the three examined (i.e. writing, passage comprehension, and model acquisition).

4.1.2. Affective Aspects for Using Nearpod in Face-to-Face Cla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an scores for affective aspects, including engagement, motivation, interest, confidence, satisfaction, and anxiety, were 4.70, 4.48, 4.39, 4.17, 4.52, and 3.57, respectively. These scores demonstrate a high level of affective aspects for the use of Nearpod across all aspects, except for anxiety. Specifically, Nearpod was found to help students engage in class, enhance their motivation to learn, increase their interest in the class subject, and boost their confidence in their skills, ultimately leading to higher satisfaction level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some students may still experience anxiety when submitting their ideas through Nearpod. Regarding the results with anxiety, the students may have had concerns about the accuracy of their answers or about being judged by the professor as I promised not to publicize the names of the students whose answers are not correct.

4.1.3. The Perceived Optimal Mode for Using Nearpod

24 students (52.2%) indicated that there was no discernible difference between using Nearpod in an offline or online mode. On the other hand, 12 students (26.1%) believed that a face-to-face classroom setting would be the ideal mode to utilize Nearpod, while 10 students (21.7%) thought that an online class would be more optimal for the platform.

4.2. Potential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Using Nearpod in Face-to-Face English Classes

4.2.1. Analyses Based on Students' Feedback

It takes too long a time, so students should have been prepared in advance.

I think it would have been helpful if the questions had been presented in written mode, as I was sometimes confused about what to do.

It's frustrating when I can't come up with an answer.

Please make it anonymous.

Honestly, it's a bit bothersome.

I struggle with writing simple sentence structures, so it was burdensome to write them down and submit them. Even after finishing, I didn't fully understand because the feedback focused on students who wrote well.

When writing long essays, I sometimes fail to submit my answers in time.

The wifi in the classroom isn't good.

4.2.2. Analyses Based on the Final Grad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ivation, interest, confidence, satisfaction, and anxiety scores among the thre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gagement scores. This initially suggested that students who performed better academically were more engaged in

the Nearpod activities. However, upon conducting a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on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gagement scores between students in Group A and those in Group C, with average scores of 4.89 and 4.00, respectively.

The survey collected data on the frequency with which each student's responses were shared with the class, along with feedback and comments from the researcher.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who earned higher grades had a greater number of opportunities for their responses to be shared with the class. This finding, along with the earlier discovery of a connection between grade and affective factors, suggests that students who performed better academically were more likely to submit thorough answers during the Nearpod activities, and as a result, the researcher may have been more inclined to select their responses for sharing over those of other students. In light of the previous finding, it would be beneficial for the instructor to offer extra guidance and support to students who encounter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basic sentence structures.

4.2.3. Analyses Based on Gender

According to the survey, female students exhibited better preparedness for writing prompts in class as they tend to think about what to write beforehand, while male students tend to do so less frequently.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female students are better prepared for their classes overall. Without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to gather their perspectives on this matt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any possible gender differences in this area.

5.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Nearpod is a versatile tool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in face-to-face classes, such as writing, passage comprehension, and model acquisition. Writing was found to be the most useful activity facilitated by Nearpod among the three examined, as collaborating with their professor and peers through Nearpod helped students gradually build their confidence, receive constructive feedback, submit real-time answers in class, and refine their use of appropriate words and expressions in writing. Nearpod also enhanced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increased their interest in the class subject, and boosted their confidence in their skills, ultimately leading to higher satisfaction levels. However, some students may still experience anxiety when submitting their ideas through Nearpod. The majority of students perceived that Nearpod could be effectively utilized in both online and face-to-face class modes, although some students mentioned advantages of the online class mode, while others preferred face-to-face class mode due to the disadvantages of online classes. Higher academic performance is associated with more opportunities for responses to be shared with the class, and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be better prepared than males.

Works Cited

- Ha, J. (2022).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video and untact realtime hybrid classes: Focus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rough the use of Nearpod.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5(2), 255-284.
- Moon, Jihye, & Ahn, Kyungja. (2022).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English lessons using the online learning platform, Nearpod.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6(3), 167-188.
- Musa, A. A. M., & Momani, J. A. A. (2022).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Using Nearpod Application in Distanc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 and e-Learning Research*, 9(2), 110-118. DOI: 10.20448/jeelr.v9i2.4030
- Putra, A. P., Arafik, M., & Pratiwi, I. (2021). Use of Nearpod to Enhance Student Engagement in Online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2021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Technology (ICET).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

임진아 (전남대학교)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

임진아(전남대학교)

연구목적

✓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VOT, F0)를 분석하여

첫째, 한국어 폐쇄음 구분 주요 음향 단서인 VOT와 F0가 지역, 세대,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

둘째, 공식적·통시적인 한국어 폐쇄음 변화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향단서 제시

한국어 폐쇄음

- **한국어 폐쇄음 구분 주요 음향 단서 : VOT, F0**
 - 1960년대 이전 : 주로 VOT로 폐쇄음을 구분
 - 1960년대 이후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F0가 주요 음향단서가 됨
- **Lisker & Abramson(1964)**
 - VOT : 격음(91ms) > 평음(28ms) > 경음(7ms)
- **Han & Weitzman(1970), Cho et al.(2002)**
 - VOT : 격음 > 평음 > 경음
 - F0 : 격음, 경음 > 평음

선행연구

- **한경임(2014)**
 - 20대 화자를 대상으로 제주 방언과 대구 방언의 폐쇄음 VOT 비교
 - 제주 방언 VOT가 대구 방언 VOT보다 짧음(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방언 간 차이 없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 있음
 - 대구 화자들에 비해 제주 화자들이 서울 방언에 더 가까운 발음을 구사함
(여성 화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Kang(2014), Bang et al.(2018)**
 - 1930~1980년대에 태어난 서울 남녀의 산출 코퍼스 음성 분석
 - 평음과 격음 간 VOT 차이 값은 작은 반면, F0 차이 값이 크게 나타남
(여성 > 남성 / 젊은 세대 > 나이 든 세대)
- **Bang et al.(2018), Byun(2016), Kang(2014), Oh(2011)**
 - 본래 평음에 비해 격음의 VOT값이 컸으나 최근 그 차이 값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임
(여성 > 남성 / 젊은층 > 노년층)

선행연구

- **Silva(2006)**
 - 1940년대~1980년대 서울 화자의 연령대에 따른 VOT의 실현 양상 조사
 - 산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격음의 VOT가 짧아 평음과 격음의 VOT의 근사한 음성적 구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F0값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인지: 연령대에 따른 VOT 변별력 차이는 있지만, F0 변별력 차이는 없음
- **김지은(2017)**
 - 20-25세 남성을 대상으로 틀문장, 정보를 주는 글 읽기와 정서표현의 글 읽기에서의 폐쇄음 발음의 VOT와 f0를 측정하여 분석
 - 틀문장: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있음, 평음과 격음의 F0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있음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정서를 전달하는 글: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 틀문장 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정서 표현의 글에서 더 적음
(평음과 격음 구별 시 f0 의존도가 더 큼)

선행연구

▪ **Kang(2010)**

-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와 F0 변별력 파악
-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하여 F0의 변별력이 더 큼

▪ **Kong(2012)**

- 20-30대 청년층 청자를 대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와 F0 변별력 파악
-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김제홍(2020)**

-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음과 격음 변별력 파악
- 모든 집단에서 VOT와 F0가 평음과 격음을 변별하는 데 사용(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성별과 연령의 차이에 따른 F0 변별력 없음
- VOT의 경우 청년 여성 집단에서 가장 낮은 변별력을 보이고, 노년 남성 집단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보임

산출실험

▪ **실험자료**

단어	파다, 타다, 카다, 바다, 다다, 가다, 빠다, 따다, 까다
틀문장	“나도 _____를 읽어요.”

▪ **피실험자**

지역 \ 세대 및 성별	10대-20대		30대-40대		50대-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어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전남어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경남어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제주어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선행연구

▪ **Kang(2010)**

-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와 F0 변별력 파악
-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하여 F0의 변별력이 더 큼

▪ **Kong(2012)**

- 20-30대 청년층 청자를 대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와 F0 변별력 파악
-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김제홍(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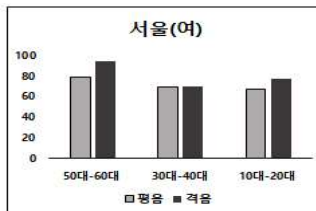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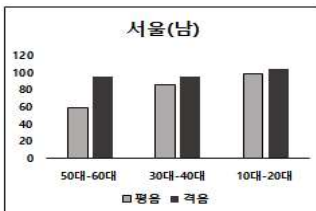
-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음과 격음 변별력 파악
- 모든 집단에서 VOT와 F0가 평음과 격음을 변별하는 데 사용(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큼)
- 성별과 연령의 차이에 따른 F0 변별력 없음
- VOT의 경우 청년 여성 집단에서 가장 낮은 변별력을 보이고, 노년 남성 집단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보임

실험방법

- 녹음: 방음처리가 된 공간에서 녹음
- 틀 문장: '나도 _____ 를 읽어오'
- 총 토큰 수: 1,944개(9개 단어×3번 반복×72명 화자)
- 음성 분석: Praat 6.0.43을 이용하여 음성 녹음 분석
- 통계 처리: R_lme4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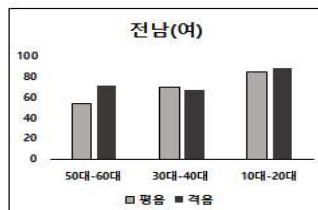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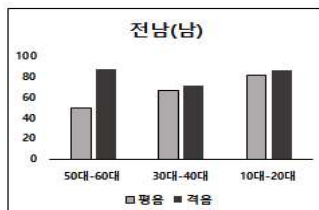
V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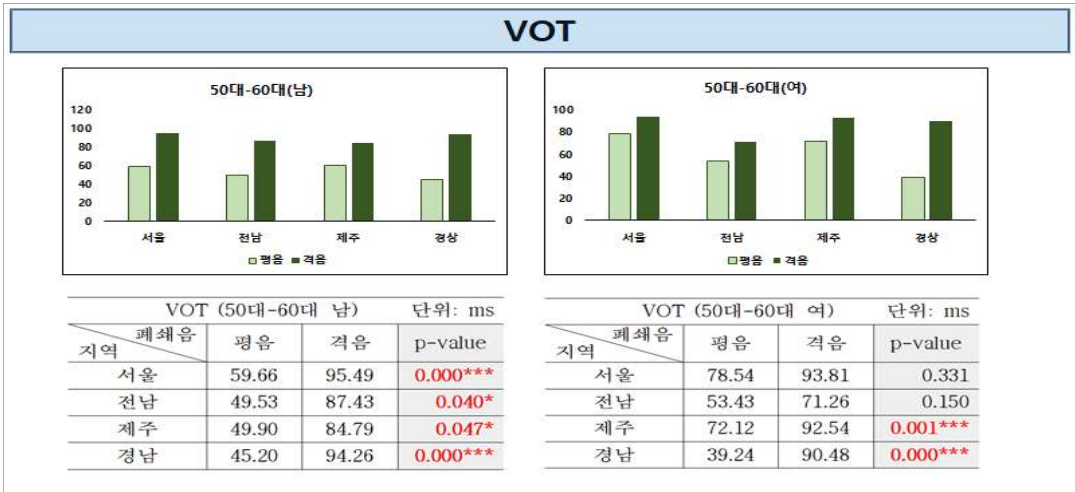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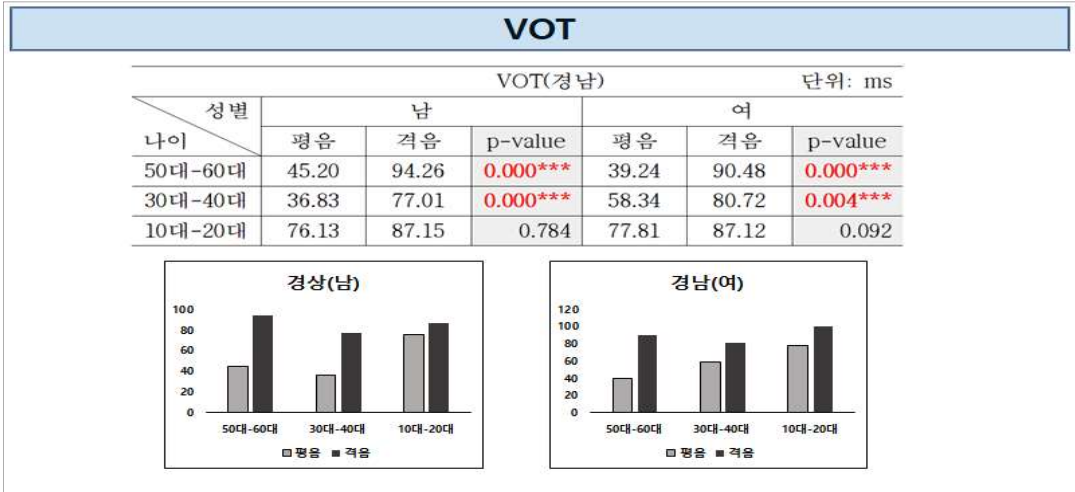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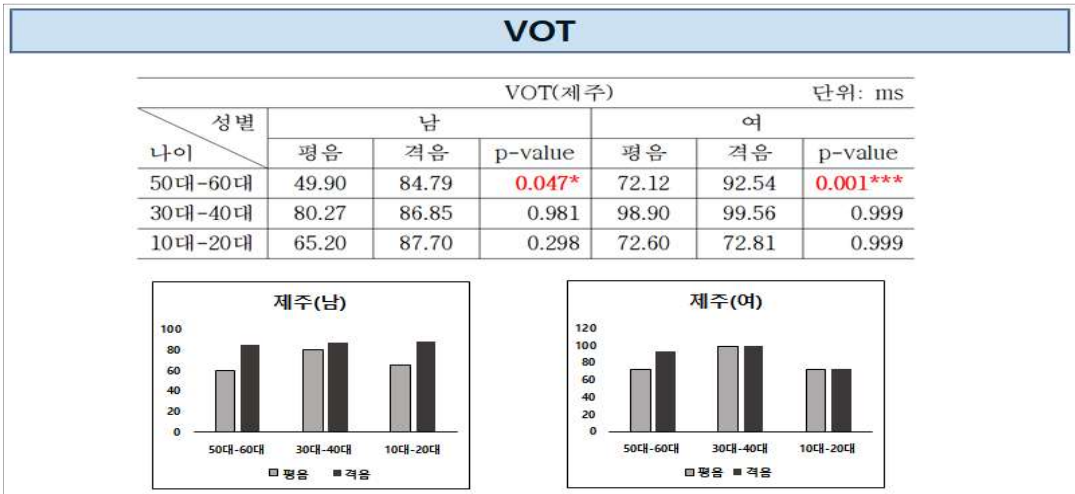
		VOT(서울)			단위: ms		
나이	성별	남		p-value	여		p-value
		평균	격음		평균	격음	
50대-60대		59.66	95.49	0.000***	78.54	93.81	0.331
30대-40대		85.85	95.13	0.390	69.26	69.52	0.999
10대-20대		98.57	104.70	0.966	67.71	77.63	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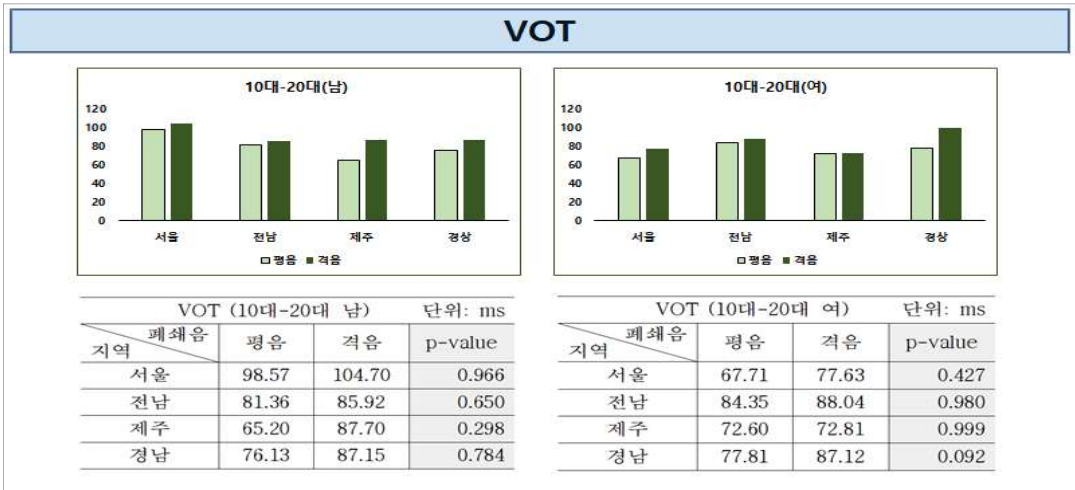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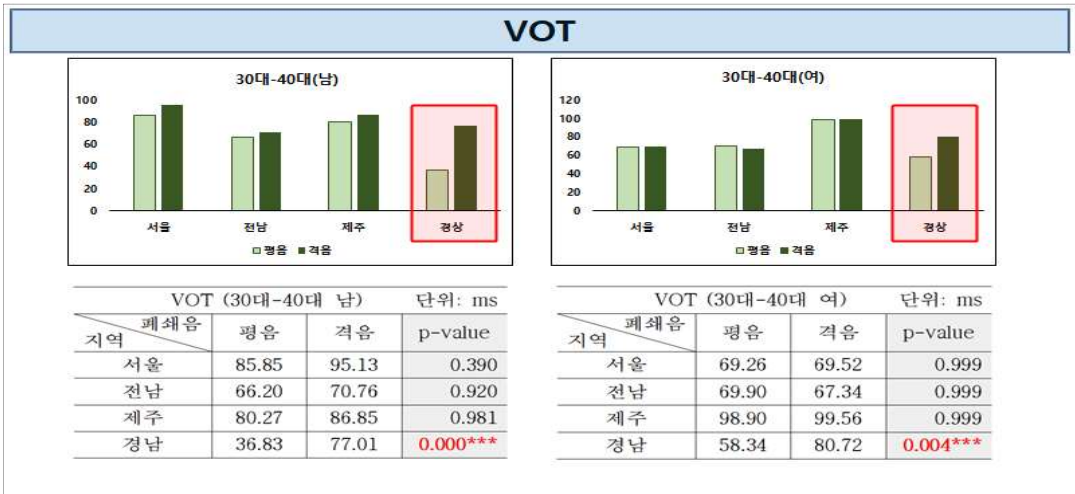


V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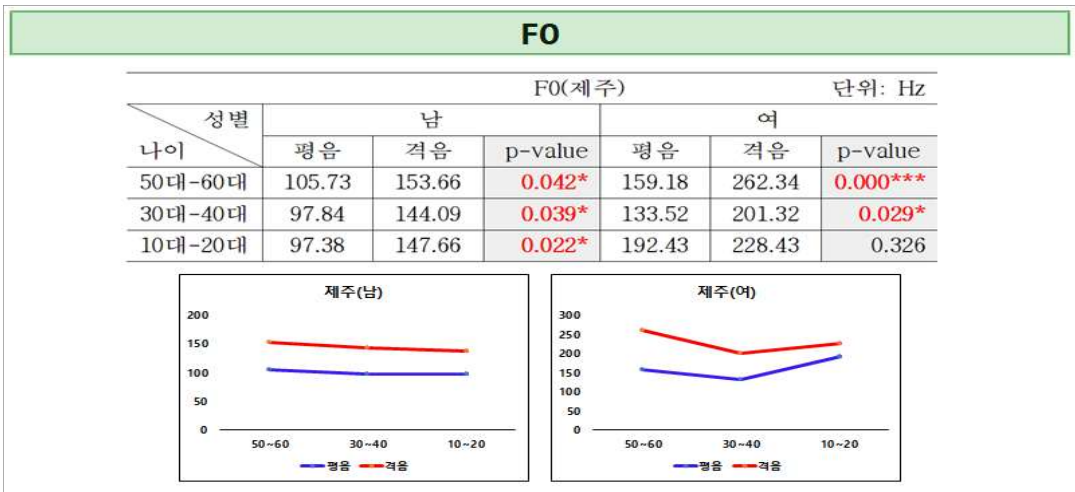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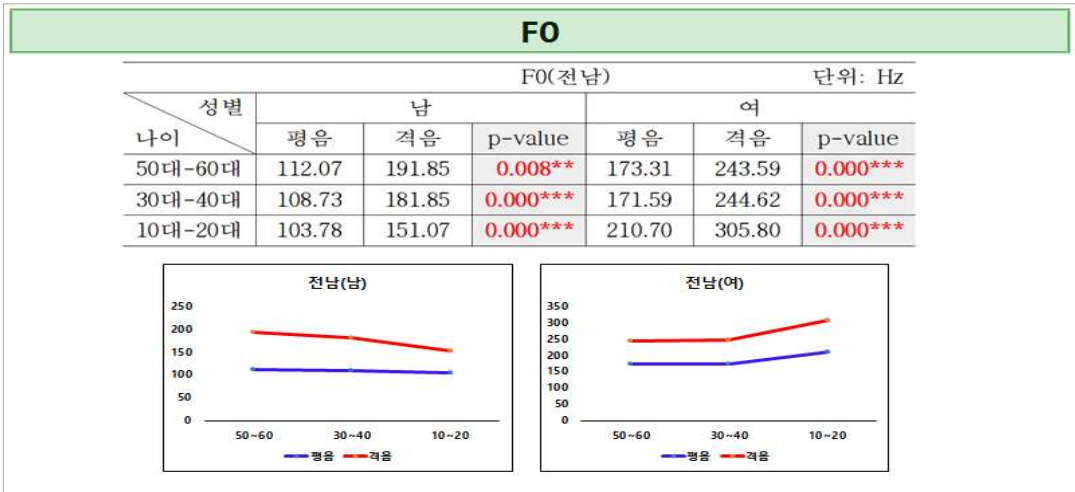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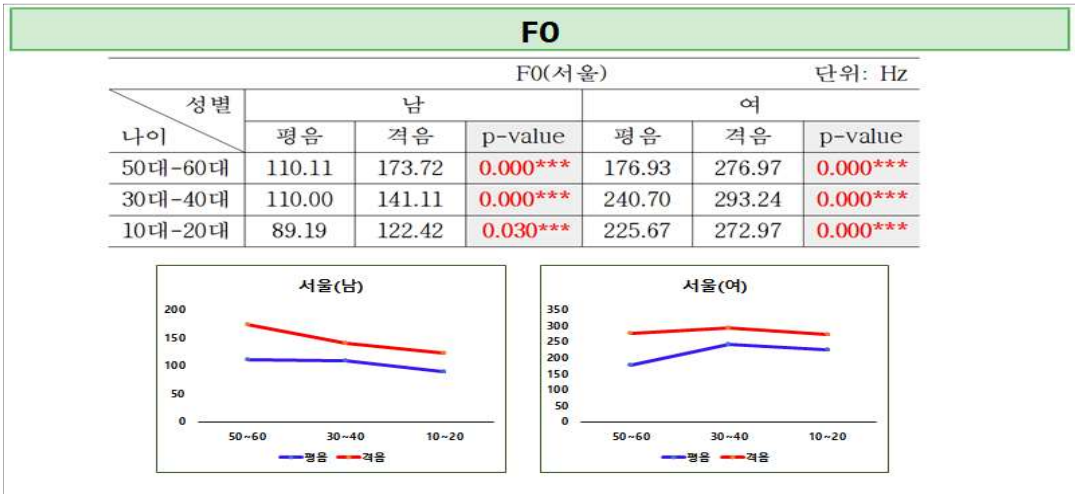
		VOT(전남)			단위: ms		
나이	성별	남		p-value	여		p-value
		평균	격음		평균	격음	
50대-60대		49.53	87.43	0.040*	53.43	71.26	0.150
30대-40대		66.20	70.76	0.920	69.90	67.34	0.990
10대-20대		81.36	85.92	0.650	84.35	88.04	0.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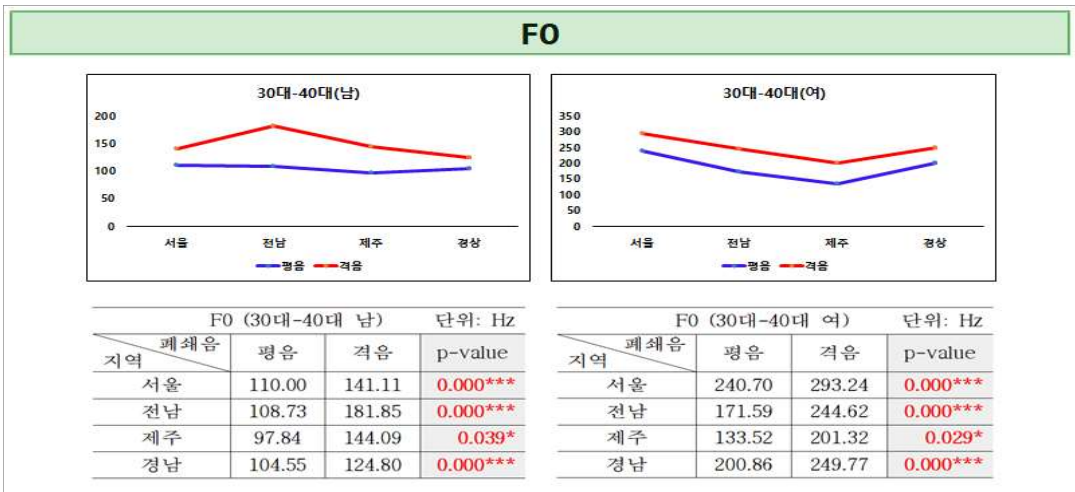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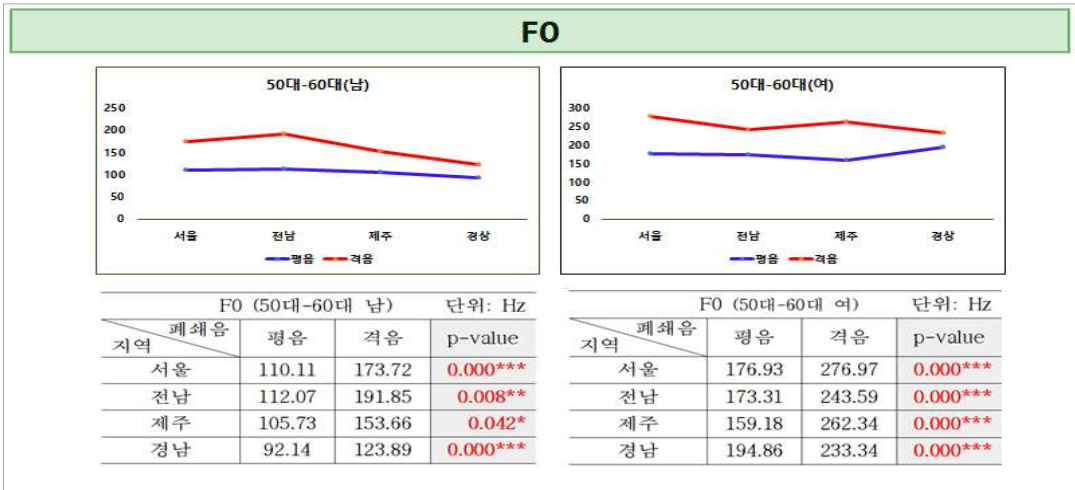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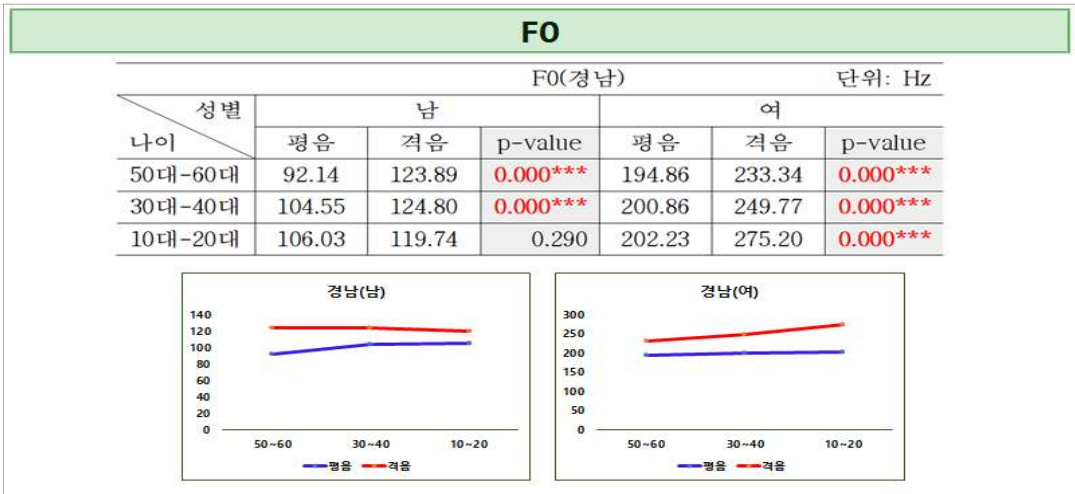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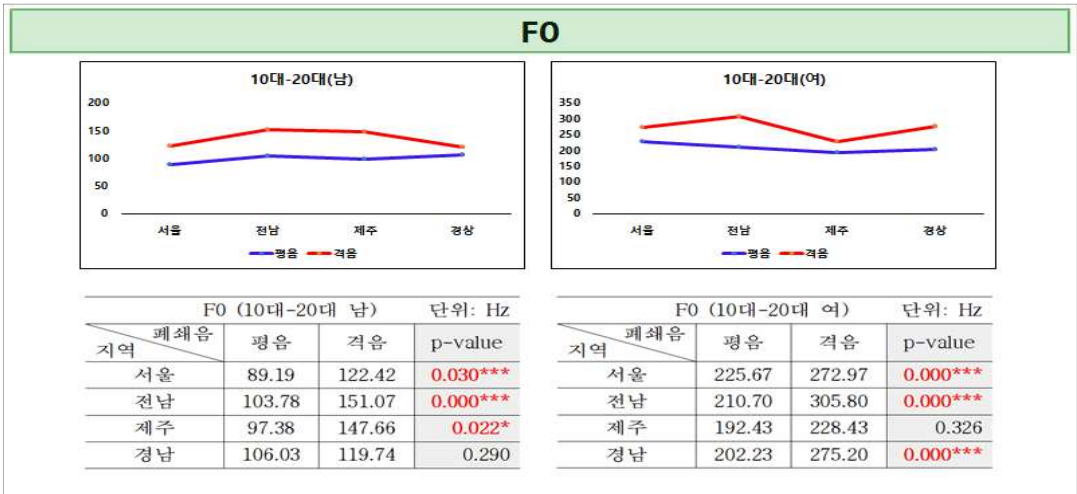




- ### VOT
- **지역**
 - 서울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50-60대 남 제외)
 - 전남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50-60대 남 제외)
 - 제주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50-60대 제외)
 - **경남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있음(10-20대 제외)**
 - **세대**
 - **50-60대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있음(모든 지역)**
 - 30-40대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경남 제외)
 - 10-20대 :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없음(모든 지역)
 - **성별**
 - **남자가 여자보다 평음과 격음의 VOT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F0
- 지역
 - 서울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모든 세대)
 - 전남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모든 세대)
 - 제주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10대-20대(여) 제외)
 - 경남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10대-20대(남) 제외)
 - 세대
 - 50-60대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모든 지역)
 - 30-40대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모든 지역)
 - 10-20대 : 평음과 격음의 F0 차이 있음(경남(남), 제주(여) 제외)
 - 성별
 - 남자와 여자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VOT와 F0

50대-60대 남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음	격음
서울	VOT		59.66	95.49
	F0		110.11	173.72
전남	VOT		49.53	87.43
	F0		112.07	191.85
제주	VOT		49.90	84.79
	F0		105.73	153.66
경남	VOT		45.20	94.26
	F0		92.14	123.89
				p-value
				0.000***
				0.000***
				0.040*
				0.008**
				0.047*
				0.042*
				0.000***
				0.000***

50대-60대 여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음	격음
서울	VOT		78.54	93.81
	F0		176.93	276.97
전남	VOT		53.43	71.26
	F0		173.31	243.59
제주	VOT		72.12	92.54
	F0		159.18	262.34
경남	VOT		39.24	90.48
	F0		194.86	233.34
				p-value
				0.331
				0.000***
				0.150
				0.000***
				0.001***
				0.000***
				0.000***
				0.000***

- 50대-60대
 - 4개 지역(서울, 전남, 제주, 경남) 모두 VOT와 F0 둘 다 사용하여 평음과 격음 구분 (서울(여), 전남(여) 제외: VOT보다는 F0를 사용하여 평음과 격음 구분)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VOT와 F0

30대-40대 남					30대-40대 여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균	격음	p-value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균	격음	p-value
서울	VOT		85.85	95.13	0.390	서울	VOT		69.26	69.52	0.999
	F0		110.00	141.11	0.000***		F0		240.70	293.24	0.000***
전남	VOT		66.20	70.76	0.920	전남	VOT		69.90	67.34	0.999
	F0		108.73	181.85	0.000***		F0		171.59	244.62	0.000***
제주	VOT		80.27	86.85	0.981	제주	VOT		98.90	99.56	0.999
	F0		97.84	144.09	0.039*		F0		133.52	201.32	0.029*
경남	VOT		36.83	77.01	0.000***	경남	VOT		58.34	80.72	0.004***
	F0		104.55	124.80	0.000***		F0		200.86	249.77	0.000***

■ 30대-40대

- 서울, 전남, 제주 화자: 남녀 모두 VOT보다는 F0를 사용하여 평균과 격음 구분
(경남 화자 제외: 남녀 모두 VOT와 F0 둘 다 사용하여 평균과 격음 구분)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VOT와 F0

10대-20대 남					10대-20대 여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균	격음	p-value	지역	폐쇄음	음향단서	평균	격음	p-value
서울	VOT		98.57	104.70	0.966	서울	VOT		67.71	77.63	0.427
	F0		89.19	122.42	0.030***		F0		225.67	272.97	0.000***
전남	VOT		81.36	85.92	0.650	전남	VOT		84.35	88.04	0.980
	F0		89.19	122.42	0.030***		F0		210.70	305.80	0.000***
제주	VOT		65.20	87.70	0.298	제주	VOT		72.60	72.81	0.999
	F0		97.38	147.66	0.022*		F0		192.43	228.43	0.326
경남	VOT		76.13	87.15	0.784	경남	VOT		77.81	87.12	0.092
	F0		106.03	119.74	0.290		F0		202.23	275.20	0.000***

■ 10대-20대

- 남녀 모두 VOT보다는 F0를 사용하여 평균과 격음 구분 (경남(남), 제주(여) 제외)

결론

✓ 한국어 폐쇄음 구분 음향단서

- 지역
 - 서울: F0 사용, 전남: F0 사용,
 - 제주: F0 사용(10대 제외), 경남: VOT와 F0 둘 다 사용
- 세대
 - 노년 층: VOT와 F0, 젊은 층: F0
 - VOT차이: 젊은 층 < 노년 층
- 성별
 - 남자: VOT와 F0 모두 사용하여 폐쇄음 구분
 - 여자: F0를 사용하여 폐쇄음 구분

주요 참고문헌

- 한경임 (2014). 한국어 폐쇄음 VOT; 제주방언과 대구방언 비교. *코기트*, 75, 157-176
- 김제홍, 김소안, 안주희, 남기준, 최지연 (2020). 한국어 서울 방언의 평음과 격음 변별 지각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12(4), 1-8.
- Kang, K. & Guoin, G., (2008). Clear Speech Production of Korean Stops : Changing Phonetic Targets and 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24(6), 3909-3917.
- Kang, Y. (2014). Voice onset time merger and development of tonal contrast in Seoul Korean stops: *A corpus study*. *Journal of Phonetics*, 45, 76-90.
- Kong, E. & I. Yoon. (2013). L2 proficiency effect on the acoustic cue-weighting pattern by Korean L2 learners of English: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stop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5(4), 81-90.
- Oh, E. (2011). Effects of speaker gender on voice onset time in Korean stops. *Journal of Phonetics*, 39, 59-67.
- Silva, D. (2006). Acoustic evidence for the emergence of tonal contrast in contemporary Korean. *Phonology*, 23, 287-308.

The Impact of Korean Nasalization on English Production by Korean EFL Speakers: Examining Nasal and Vowel Duration

Hyung Ji Ha (Dongguk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L1(first language) interference from Korean phonological rules, specifically Korean nasalization processes, influences English speech by Korean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peakers. This study has chosen this area of investigation since typical errors are frequently observed in English production by Korean EFL speakers. The three types of Korean phonological rul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 nasalization triggered by nasal(N-triggered nasalization); (b) nasalization triggered by lateral([l]-triggered nasalization); and (c) [n]-insertion triggered by high front vowel. The research particularly focuses on acoustic factors such as nasal and vowel duration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nasal and vowel duration when nasalization processes occur and when they do not occur.

2. Theoretical Background

2.1 N-triggered Nasalization

- (1) examples of N-triggered nasalization in Korean
 - a. /ap.nal/ [am.nal] ‘future’
 - b. /nat.mal/ [nan.mal] ‘word’
 - c. /kuk.min/ [ku ŋ .min] ‘the nation’
- (2) examples of Korean N-triggered nasalization in English speech
 - a. [sʌbmərin] [sʌmmərin] ‘submarine’
 - b. [kætnæp] [kænnnæp] ‘catnap’
 - c. [bʊkmark] [bʊ ŋ mark] ‘bookmark’

2.2 [l]-triggered Nasalization

- (3) examples of [l]-triggered nasalization
 - a. /pəp.ljə ŋ / [pəm.njə ŋ] ‘legislation’
 - b. /kal.koth.li/ [kal.kon.ni] ‘the name of the place in Korea’

- | | | | |
|-----|---|------------|--------------|
| | c. /kyək.li/ | [kyəŋ.ni] | 'separation' |
| (4) | examples of Korean [l]-triggered nasalization in English speech | | |
| | a. [ʌploʊd] | [ʌmnoʊd] | 'upload' |
| | b. [lɪmətɫəs] | [lɪmənɫəs] | 'limitless' |
| | c. [blækɫɪst] | [blæŋɫɪst] | 'blackli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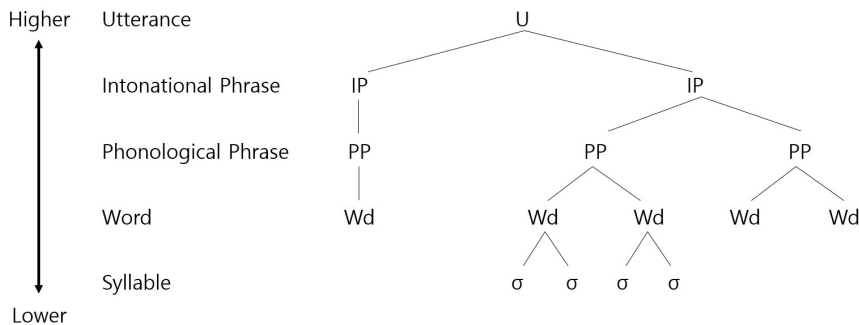
2.3 [n]-insertion

- | | | | |
|-----|---|--------------|------------------------|
| (5) | examples of [n]-insertion | | |
| | a. /ki.ʌp.joŋ/ | [ki.ʌm.njoŋ] | 'for business use' |
| | b. /hoth.i.pul/ | [hon.ni.pul] | 'a single-layer sheet' |
| | c. /pu.ʌkh.il/ | [pu.ʌŋ.nil] | 'kitchen work' |
| (6) | examples of [n]-insertion in English speech | | |
| | a. [ʃɪpjɑrd] | [ʃɪmnjɑrd] | 'shipyard' |
| | b. [boʊtjɑrd] | [boʊnnjɑrd] | 'boatyard' |
| | c. [bækjɑrd] | [bæŋjɑrd] | 'backyard' |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llable contact constraint (Vennemann 1988; Davis & Shin 1999) to explain how the rules described in section 2.1 work. According to Vennemann (1988), the codas of preceding syllables should be weaker than the onsets of following syllables and he suggested a syllable contact law.

- (7) Syllable contact law (Vennemann 1988: 40)
 A syllable contact A\$B is the more preferred, the less the consonantal strength of the offset A and the greater the consonantal strength of the onset B.

2.4 Prosodic Structure



3. Method

3.1 Subjects

Group Nat: 4, Group KH: 10, Group KL: 10

3.2 Materials

e.g. English stops (/p/, /b/ in /v_/) in N-triggered nasalization

	(U) If you do not have a <u>map</u> , <u>memorize</u> the route.
/p/	(PP) She is the <u>top</u> <u>model</u> in the world.
	(Wd) The <u>private</u> <u>security</u> was <u>topnotch</u> .
	(U) If you want to work in this <u>lab</u> , <u>mail</u> me at the following e-mail address.
/b/	(PP) The <u>club</u> <u>members</u> have their own talents.
	(Wd) There are <u>abnormal</u> levels of sugar in the blood.

4. Results

Table 1.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rosodic domains

		Nasal duration		Vowel duration	
		Nas	Non-nas	Nas	Non-nas
N-triggered nasalization	Nat	-	U > PP > Wd	-	U > PP > Wd
	KH	U = PP = Wd	Wd = PP > U	U > PP = Wd	U > PP > Wd
	KL	U = PP = Wd	Wd = PP > U	U > PP > Wd	U > PP > Wd
[l]-triggered nasalization	Nat	-	-	-	U > PP > Wd
	KH	U = PP = Wd	-	U = PP = Wd	U > PP = Wd
	KL	U = PP = Wd	-	U = PP = Wd	U > PP > Wd
[n]-insertion	Nat	-	-	-	U > PP = Wd
	KH	PP > Wd = U	-	U > PP = Wd	U > PP > Wd
	KL	PP = Wd > U	-	U > PP > Wd	U > PP > Wd

Table 2. Correlation between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rosodic domains when nasalization processes do not take place

			Correlation		
			N	r	p
N-triggered nasalization	Nat	U	96	.132	.201
		PP	96	.220	.031*
		Wd	96	.335	.001**

*p<.05, **p<.01, ***p<.001

Table 3.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voicing

		Nasal duration		Vowel duration	
		Nas	Non-nas	Nas	Non-nas
N-triggered nasalization	Nat	-	Vd > Vl	-	Vd > Vl
	KH	Vd > Vl	Vd > Vl	Vd > Vl	Vd > Vl
	KL	Vd = Vl	Vd > Vl	Vd > Vl	Vd = Vl
[l]-triggered nasalization	Nat	-	-	-	Vd > Vl
	KH	Vd = Vl	-	Vd = Vl	Vd > Vl
	KL	Vd = Vl	-	Vd > Vl	Vd > Vl
[n]-insertion	Nat	-	-	-	Vd > Vl
	KH	Vd > Vl	-	Vd = Vl	Vd > Vl
	KL	Vd = Vl	-	Vd = Vl	Vd = Vl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voicing when nasalization

			Correlation		
			N	r	p
Nat	Vd	144	.269	.001**	
	Vl	144	.500	.000***	
N-triggered nasalization	KH	267	-.275	.000***	
	Vl	244	-.239	.000***	
KL	Vd	240	-.180	.005**	
	Vl	198	-.104	.146	

processes do not take place

*p<.05, **p<.01, ***p<.001

Table 5.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lace of articulation

		Nasal duration		Vowel duration	
		Nas	Non-nas	Nas	Non-nas
N-triggered nasalization	Nat	-	Bil = Alv = Vel	-	Bil = Alv = Vel
	KH	Bil = Alv = Vel	Bil = Alv = Vel	Bil = Alv = Vel	Bil = Alv = Vel (Alv > Bil)
	KL	Bil = Alv = Vel (Alv > Bil)	Bil = Alv = Vel (Alv > Vel)	Bil = Alv = Vel (Alv > Vel)	Bil = Alv = Vel
[l]-triggered nasalization	Nat	-	-	-	Bil = Alv = Vel
	KH	Bil = Alv = Vel	-	Bil = Alv = Vel	Bil = Alv = Vel

					(Vel > Bil)
	KL	Bil = Alv = Vel	-	Vel > Alv > Bil (Bil = Vel)	Bil = Alv = Vel
	Nat	-	-	-	Bil = Alv = Vel
[n]-insertion	KH	Bil = Alv = Vel	-	Bil = Alv = Vel (Alv > Bil)	Alv > Bil = Vel
	KL	Bil = Alv = Vel	-	Alv = Vel > Bil	Bil = Alv = Vel

Table 6. Correlation between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lace when nasalization processes do not take place

			Correlation		
			N	r	p
Nat	Bil	96	.397	.000***	
	Alv	96	.274	.007**	
	Vel	96	.506	.000***	
N-triggered nasalization	Bil	152	-.166	.041*	
	Alv	186	-.265	.000***	
	Vel	173	-.291	.000***	
KL	Bil	125	-.116	.197	
	Alv	168	-.154	.047*	
	Vel	145	-.130	.120	

*p<.05, **p<.01, ***p<.001

The correlation between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was observ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as analyzed by prosodic domains, and the voicing and place of the final stops. For prosodic domains, this study found that Group Nat shows cumulatively increasing when a position moves up in the prosodic hierarchy both in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whereas Group KH and Group KL show prosodic strengthening only in vowel duration. For Group KH and Group KL, the nasal duration in the lower domains are statistically longer than those of the higher domain, U. Also, it turned out that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rosodic domains were weakly correlated. For voicing, both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voicing were found to be longer before voiced stops than voiceless stop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voicing were more strongly correlated when nasalization processes are not realized than when they are realized. For place, this study found that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lace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However,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by place of the final stops were found to be strongly correlated. Moreover, this study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as particularly more noticeable when nasalization processes are

not realized than when they are realized. In addition, it also found that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in Group Na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nasal duration and vowel duration in the Korean speaker group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orks Cited

- Vennemann, Theo. 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and the Explanation of Sound Change*.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Davis, Stuart and Seung-Hoon Shin. 1999. The syllable contact constraint in Korean: 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 285-312.

운율구조와 통사구조의 상호작용 - 사동구문과 피동구문을 중심으로 -

김기유·엄홍준 (계명대학교)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사동-피동 동형동사 구문(homomorphic causative/passive verbs structure)을 통해 ‘협어의 통사부(narrow syntax)와 음성부의 운율과의 접합면(syntax-phonology interface)’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방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산출 실험(production test)과 인지 실험(perception test)을 실시하여 이들이 사동-피동 동형동사 구문을 해석하는 지각 단서(perceptual cues)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사와 운율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커다란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 통사로부터 운율이 도출된다는 논의(Selkirk 1984, 1993, 1995, 2005, Jung 2010, 2012, 2013, 2014, Hwang 2011, 그 외 다수)와 운율이 통사적 정보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Beckman-Pierrehumbert 1986, Jun 1998, Zubizarreta 1998, Szendrői 2001, Arregi 2002, Dobashi 2003, Ishihara 2003, Vicente 2005, Richards 2006, 2010, 김용하·엄홍준 2020 등 다수)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논의는 ‘통사와 운율의 연관성’이라는 동일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언어 문법 모형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와 운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엄홍준(2021)에서는 사동-피동 동형동사 구문을 녹음한 뒤, 경북방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여기에 더하여 경북방언을 비롯한 동남지역에서는 두 구문의 술부 억양 패턴을 달리 실현하는 것으로 사동과 피동이 구분(최명옥 1982, 김대현 1984, 정원수 1996, 1997, 주상대 1997 등 다수)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남지역의 화자들이 사동과 피동의 해석을 위한 지각 단서로 통사 정보와 운율 정보를 모두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엄홍준(2021)에서는 경북방언의 억양이 사동-피동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엄홍준(2021)에서는 사동의 텍스트와 피동의 텍스트가 미리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통사적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율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통사적인 정보에 의해 운율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무리 운율이 중요하다고 해도 통사적 정보가 미리 그것을 예측하게 한다면 여전히 통사가 운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엄홍준(2021)의 실험을 보완하고자, 사동-피동 동형동사 구문들을 대상으로 산출실험과 지각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결과

이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성장해 온 32명(10대-20대: 11명, 30대-40대: 12명, 50대-60대: 9명)을 대상으로 산출 실험과 인지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발화 실험은 아래의 (3)의 문장들을 각자의 맥락에 맞추어 발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사동·피동 동형동사 발화 실험' 개요
 - a. 사동문 발화
 - 발화(1): 철수가 가-한테 눈을 감겼다.
 - 발화(2): 민호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았다.
 - 발화(3): 훈련사가 사냥개한테 장갑을 뜯겼다.
 - 발화(4): 엄마가 아-한테 젖을 물렸다.
 - 발화(5): 영희가 철수한테 손을 잡혔다.
 - b. 피동문 발화
 - 발화(1): 철수가 가-한테 눈을 감겼다.
 - 발화(2): 민호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았다.
 - 발화(3): 훈련사가 사냥개한테 장갑을 뜯겼다.
 - 발화(4): 엄마가 아-한테 젖을 물렸다.
 - 발화(5): 영희가 철수한테 손을 잡혔다.
 - c. 표본 크기: 총 10가지 맥락×3회 반복×32명=960개

이 연구의 발화 실험에서 사용한 구문은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난다. 사동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구문은 타동 구문이 주동이 되는 구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피동에서는 소위 '목적어 있는 피동'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정택 2003, 남수경 2005, 송창선 2009, 김용하 2014, 최형강 2017 등 다수) 즉, 동일한 형태의 구문이 사동과 피동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고, 경북방언을 비롯한 동남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술부의 운율로 인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발화 실험은 (1)의 구문들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을 제시한 뒤,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 맥락에 부합하는 발화를 요청하였다. 사동과 피동의 맥락을 하나씩만 제시하면 아래의 (2)와 같다.

- (2) a. 사동의 맥락
 - 맥락: 민호는 평소에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어서 이발소에 방문했다. 민호는 이발사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똑같이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 이때, “민호가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도록 시켰다.”라는 의미로 아래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화해주시시오.
 - 발화: “민호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았다.”
- b. 피동의 맥락
 - 맥락: 민호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간단히 다듬고만 싶었다. 그런데, 이발사의 실수로 민호의 머리가 보기 흉할 정도로 썩둑 잘려 버렸다.
 - 이때, “민호가 이발사에게 머리가 깎이는 피해를 당했다.”라는 의미로 아래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화해주시시오.

발화: “민호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았다.”

우리는 ‘발화: “민호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았다.”’ 부분을 ‘주어(민호)’, ‘주격조사(가)’, ‘부사어(이발사)’, ‘부사격조사(한테)’, ‘목적어(머리)’, ‘목적격조사(를)’, ‘어근(깎-)’, ‘접사(-였-)’, 그리고 ‘어미(-다)’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파수 값을 측정하였다. 이들 각 영역의 최대주파수(maximum pitch)와 오른쪽 경계 주파수(right-edge pitch)를 측정하였다.

참고 문헌

- 김대현. 1984. 남후지역어의 사동화와 피동화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하. 2014. 이른바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27, 7-24.
- 김용하·엄홍준. 2020. 한국어 Wh-구문에서의 통사론과 음운론의 접합영역-경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6, 69-93.
- 남수경. 2005. 조사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에 대하여. 『어학연구』 41, 79-99.
- 송창선. 2009. 피동문에 나타나는 ‘을/를’의 문법적 기능. 『한글』 284, 103-131.
- 양병곤. 2003. 「프라트를 이용한 음성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만수출판사.
- 이정택. 2003.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관한 연구. 『배달말』 32, 211-227.
- 정원수. 1996. 경북 방언 사동사의 성조. 『언어』 17, 209-229.
- 정원수. 1997. 경북 방언 피동사의 성조. 『어문연구』 29, 443-464.
- 주상대. 1997. 피동-사동 접사의 음운현상. 『수련어문론집』 23, 1-20.
- 최명옥.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형강. 2017.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대한 재고. 『어문학』 138, 215-238.
- Arregi, K. 2002. Focus on Basque Movements. Doctoral dissertation, MIT.
- Beckman, M. E., and J. Pierrehumbert.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255-309.
- Dobashi, Y. 2003. Phonological Phrasing and Syntactic Der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Hwang, H. K. 2011. The Interaction of Accent and Wh-Question Intonation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Research* 47, 45-70.
- Ishihara, S. 2003. Intonation and Interface Condi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 Jun, S.-A. 1998. The Accentual Phrase in the Korean Prosodic Hierarchy. *Phonology* 15, 189-226.
- Jung, Y.-J. 2010. Syntax-Phonology Interface of Wh-Ques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 549-576.
- Jung, Y.-J. 2012. On the Nature of Wh-Prosody and Its Syntactic Dependenc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 417-444.
- Jung, Y.-J. 2013. A New Perspective on How Syntax and Phonology Interplay for the Prosodic Interpretation of Wh-questions. In *Proceedings of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159-188.
- Jung, Y.-J. 2014. On the Syntactic Grounding of the Prosodic Interpretation of Wh-Ques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4, 105-131.
- Richards, N. 2006. Beyond Strength and Weakness. ms. MIT.
- Richards, N. 2010. *Uttering Tree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Cambridge, MA: MIT Press.

- Selkirk, E.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Selkirk, E. 1993. *Modularity in Constraints on Prosodic Structure*. Paper Presented at the ESCA Workshop on Prosody, Lurid.
- Selkirk, E. 1995.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rasing*. In J. Goldsmith (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550-569. Oxford: Blackwell.
- Selkirk, E. 2005. *Comments on Intonational Phrasing in English*. In S. Frota, M. Vigario, M. J. Freitas (eds). *Prosodies*, 11-58. Berlin: Mouton de Gruyter.
- Szendrői, K. 2001. *Focus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Vicente, L. 2005. *Word Order Variation in Basque as Non-Feature-Driven Movement*. ms. Leiden University.
- Zubizarreta, M. L. 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A: MIT Press.

The Semantics of Biscuit Conditionals in English

Mean-Young Song (Dongguk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semantic analysis of the biscuit conditionals (henceforth BC), which is not properly treated in terms of the semantics of (normal) conditionals.

- (1)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Biscuit Conditional)

Compare (1) with a normal conditional like (2):

- (2) Water vaporizes, if it boils.

Unlike the antecedent clause in (2), the antecedent in (1) functions to express a condition for the speech act performed in uttering the consequent clause. A conditional sentence like (1) is dubbed a biscuit conditional which is named after Austin's example in (1).

2. Some Properties of Biscuit Conditionals (BC)

- (3) a. If you are hungry,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Biscuit)
b. If you need anything else later, my name is Oscar Wilde. (Biscuit)
c. There are biscuits on the refreshment table at the conference, if they have served them. (Normal)
- (4) a. The truth values of the consequents are not dependent upon the antecedents in biscuit conditionals like (3a–b) (DeRose et al. (1999) Predelli (2007), Siegel (2006), and Goebel (2017) among others).
b. The truth values of the consequents are dependent upon the antecedents in normal conditionals like (3c).

To see what (4a) says, consider the following conversation:

- (5) A: There are biscuits in the cupboard, if you want some.
B: That is not true!

In (5B), B denies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that is conveyed by the apodosis, rather than

that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the protasis – i.e. B denies that there are biscuits in the cupboard, instead of denying that B wants some biscuits. Given this, biscuit conditionals are not subject to the truth condition for normal conditionals which is stated as this:

- (6) The conditional $p \rightarrow q$ is true iff q is true in every p -world.

3. Previous Studies

- (7)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f BCs have traditionally concentrated on speech acts, more precisely illocutionary acts performed in uttering the consequent clauses (Austin (1957), Searle (1975), DeRose et al. (1999), von Stechow (2011), Predelli (2007), Siegel (2006), and Goebel (2017))

Two main analyses of biscuit conditionals:

- (8) a. the Performative Theory (Comrie (1986), Iatridou (1991), Lakoff (1972), Ross (1970), Sadock (1974), and Sweetser (1900))
b. the Assertion Theory (Bach (1999), Bach and Harnish (1979), Geis (1995), and Horn (1989))
- (9) a. The performative hypothesis argues that BCs are derived from deep structures which contain performative verbs like say, ask, and order etc. in the apodosis.
b. The assertion hypothesis claims that BCs are involved in assertions of the apodosis according to which the operator ASSERT applies to the apodosis, hence conveying the illocutionary force ASSERTION for the BCs.
- (10) If you are hungry,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 (11) Example of the Performative Theory
If you are hungry, I say to you there's pizza in the fridge.
- (12) Example of the Assertion Theory
If you are hungry, ASSERT(there's pizza in the fridge).

Krifka (2004) and Siegel (2006) note that if a sentence is compatible with an expression like hereby, it is a performative sentence. However, the following BCs are not compatible with hereby:

- (13) a. *If customers ask your name just in case they need anything else later, your name is hereby Oscar Wilde.
b. *If customers ask your name just in case they need anything else later, I hereby say to you that your name is Oscar Wilde.

Sentences like (13a–b) suggest that the performative hypothesis is not on the right track.

What about the Assertion theory?

The question arises from (12) as to how it is possible for the ASSERT operator to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antecedent clause in BCs, even when it does not fall in the scope of the operator.

(14) As the term speech act suggests, an action is performed via the utterances.

Given (14), the Assertion theory would have to make the following predict about (12), contrary to fact:

(15) (12) is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speaker is certainly performing the assertion act at the time of the utterance of (7), but not at a time at which the listener gets hungry, since the apodosis, not the protasis, falls in the scope of the operator.

To remedy the problem with the Assertion theory in (15), Siegel (2006) proposes a revised version of the Assertion theory:

- (16) a. BCs are interpreted to convey not a literal act but rather what she calls a potential literal act of assertion that the utterance by S may possibly bring about when a certain condition is met (see also Bach and Harnish (1979)).
b. The potential literal act in Siegel's sense counts as a presupposed relevant or salient act of assertion in a given context.
c. BCs are interpreted as an existential quantification over potential literal acts of relevant assertion via existential closure (Heim (1982)).

(17) Siegel's Analysis of a BC like (10):
If you're hungry, $\exists a \exists p[a = \text{relevant/salient assertion of } p \text{ and } p = \hat{[}\text{there is pizza in the ridge}]\text{]}$, where a is a variable over potential literal acts of assertion and command etc., and p is a variable over propositions.

As we can see in (17), the introduction of an existential quantification over a relevant act of assertion into the semantics of BCs has the effect of including the protasis in the scope of the ASSERT operator, which can avoid the problem with the assertion hypothesis addressed above. As a result, the representation in (8) indicates that the assertion of the protasis will be a relevant assertion only if the apodosis is true (i.e. the addressee gets hungry).

Limitations of Siegel (2006)

Recall that the analysis of BCs proposed by Siegel (2006) is marked by the existence of a contextually presupposed relevant or salient act of assertion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apodosis. Siegel

claims that the following dialogue demonstrates that presupposition is indeed involved in the interpretation of BCs:

- (18) A: If you are hungry,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B: That's not true! Rebecca ate it all this morning. (Siegel (2006: 179))
- (19) Situation
Suppose that A utters a BC sentence like (9A) to B, who is hungry now and B denies A's utterance by saying (9B).
- (20) Given (19), the protasis of the BC sentence in (18A) is true, while the apodosis of the BC is false. Therefore, the whole conditional comes out false.
- (21) However, Siegel claims, however, that the BC in (18A) is not false but rather weird, due to the presupposition failure – i.e. the presupposition of relevant assertion is not satisfied owing to B's denial. This is because the relevance of assertion in the apodosis is not asserted but presupposed.
- (22) Siegel's conclusion:
Due to the presupposition failure, the use of the BC in (18A) is not false but rather weird or inappropriate in the situation (19).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Siegel's conclusion is problematic, since presupposition is inherited in the negative context.

- (23) a. It stopped raining. | Presupposition It had rained before.
b. It didn't stop raining. | Presupposition It had rained before.
- (24) a. The president of the USA has a daughter. | Presupposition There is a president in the USA.
b. That's not true! He has no children. | Presupposition There is a president in the USA.

The presuppositions in (23a) and (24a) still survive in (23b) and (24b) respectively.
Let's go back to (18):

- (25) Given (23) and (24), B's utterance in (18B) indicates that he or she denies that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the consequent in the BC, not the presupposition itself.

Predelli (2007)

Predelli (2007) claims that unlike normal indicative conditionals, the apodosis of a BC is truth-conditionally affected, while the protasis is not. Based on this, he offers the truth conditions for BCs as follows:

- (26) A biscuit conditional $p \textcircled{R} q$ is true w. r. t a context c iff q is true.
- (27) The truth conditions in (26) shows that the truth values of the protasis make no contribution to the truth values of the whole BC. Due to this, Predelli (2007) argues that the protasis is interpreted pragmatically, rather than semantically.
- (28) BCs are pragmatically involved in the speaker's speech act, more precisely the assertoric speech act. In this sense, Predelli's (2007) proposal of BCs is taken to be another line of the assertion hypothesis.

Following Davison (1983), Dijk (1979), DeRose and Grandy (1999), Predelli argues that the assertoric use of BCs is felicitous in a given context only if the assertoric speech act is conversationally relevant under an appropriate context – i.e. only i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be met.

- (29) a. an appropriate property (i.e. whether a sentence is appropriately used in a given context)
b. an appropriate effect (i.e. something like perlocutionary acts)
- (30) For any BC form $p \textcircled{R} q$, a context $c \hat{I} \text{CRU}(p \textcircled{R} q)$ iff the agent of c utters ' $p \textcircled{R} q$ ' at the time and in possible world of c under appropriate condition A and relevance R and $c \hat{I} q$, where CRU stands for conversationally relevant use.

Note that the truth conditions in (30) are a combination of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and R is relevant if a BC has appropriate effects – i.e. the perlocutionary act is performed.

- (31) There are biscuits on the cupboard, if you want some.
- (32) Scenario #1
I utter (13)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you want some biscuits.
- (33) Scenarios #2
I utter (13)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you don't want biscuits right now.
- (34) According to (30), (31) is true in scenario #1 as long as there are biscuits on the cupboard (you probably eat some of them).
- (35) However, (31) is semantically true in scenario #2 as long as there are biscuits on the cupboard, but it is pragmatically infelicitous, since you don't want biscuits (probably you may not eat some of them ► the condition in (29b) is not satisfied).

Problems with Predelli (2007)

The problem that arises from Predelli's analysis of BCs is closely related to the appropriate effect condition in (29b).

- (36) There are biscuits on the cupboard, if you want some later.
- (37) If you need anything else later, my name is James.

The occurrence of later in BCs like (36) and (37) indicates that the appropriate effects do not take place at the utterance time. Thus, Predelli's analysis would have to predict that the use of the BCs in (36) and (37) is not conversationally relevant, even if the apodosis is true, indicating that they are pragmatically anomalous, contrary to fact.

4. BC Tests

- (38) A conditional is a BC iff i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e apodosis is independent of the protasis.
 - b. The speaker of a BC should be talking to the second person – i.e. the second person should appear either in the protasis or in the apodosis.
 - c. The present tense occurs in the apodosis.
- (39)
 - a. If you're hungry,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 b. There is biscuits on the cupboard, if you want some.
 - c. If they ask you how old you are, you are four.
 - d. If you need anything else later, my name is James.

The sentences in (39a–d) are BCs, since they satisfy the three conditions for BC in (38). However, the following conditionals are not BCs.

- (40)
 - a.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no one has eaten them. ((38a–b) not met)
 - b. If John is hungry,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38b) not met)
 - c. If you were hungry, there would be pizza in the fridge. ((38c) not met)

5. Preliminary

Three properties of BC Considered:

A. BCs are involved in a variety of speech acts (or illocutionary forces) including assertion,

request, command, suggestion etc., depending on the context of use.

(42) A: Are you hungry?

B: No.

A: If you are hungry later,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Assertion)

(43) A: I am starving!

B: If you are hungry, there is pizza in the fridge. (Suggestion)

(44) Situation: Children under 5 get a free admission to the amusement park.

A: (to his six-year-old son) If they ask how old you are, you're four.

(Command his son to tell a lie)

(45) A: (Looking at B making a desk)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B: O.K. there is a power drill in the toolbox, if you want to help me. (Request)

B. Independence

The meaning of apodosis is independent of that of the protasis in BCs, as illustrated in the above

examples.

C. The speech act of BCs is performed at the same time as the utterance time.

6. Toward the Solution

(46) The notion of independence

Two propositions are independent in a context c iff learning the truth-value of one of the propositions

is not enough to determine the truth-value of the other proposition. In other words, two propositions

p and q are independent in a context c iff neither A determines B , nor B determines A , according to the

law-like principles or normality (or conventional rules)).

(47) If it rains, John stays at home.

Convention rule or habitual behavior: the apodosis and the protasis are factually dependent.

In order to define the notion of independence formally, we introduce Common Ground and a Context set proposed by Stalnaker (1978).

(48) Common Ground (CG)

A set of propositions that are commonly accepted to be true by every participant in a conversation.

(49) Context Set

A set of possible worlds where every proposition in CG is true – i.e. $\cap CG$.

(50) Force (Revised version of Veltman's (2005) notion of forcing)

A context c forces a proposition p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iff for every world w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c \subseteq w$ and $w \in p$.

(51) Determinance

A proposition p determines another proposition q iff the context c in p -world forces q -world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52) Factual Independence

Two propositions p and q are factually independent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iff

- i) neither p determines q , nor q determines p , and
- ii) $p \cap q = \emptyset$ (or c in $p \cap c'$ in q).

(53) Presupposition may be defined in terms of the CG (Zanuttini and Portner (2003))

A sentence S presupposes P iff S cannot be felicitously asserted unless P is entailed by the common

ground.

Note that every proposition in CG is already known to the participants in a conversation, which can make a presupposition felicitous.

(54) Given this, BCs presupposes the independence of the protasis and apodosis.

A BC $p \rightarrow q$ presupposes that p and q ar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in CG.

A conditional $p \rightarrow q$ is defined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iff (i) p and q do not determine each

other, and (ii) $p \cap q = \emptyset$.

(55) When this presupposition is met, we can process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a conditional as a BC.

Otherwise, we can interpret the semantics as a normal conditional.

What (55) says is something similar to pragmatic coercion (Partee and Borshev (2000)).

(56) Interpretation process of a conditional: $p \textcircled{R} q$ (whether it is a normal or biscuit conditional)

a. $CG + p = CG \cap p = CG'$

b. $CG' + q = CG' \cap q = CG''$

(57) When a conditional $p \rightarrow q$ is defined as in (54):

a. $CG + p = CG \cap p = CG'$

b. $CG' + q = CG' \cap q = \emptyset$ (since p and q are independent)

(58) When (54) is satisfied, a conditional must be interpreted to convey a BC meaning.

(59) Semantic interpretation of BC

$[p \rightarrow q] CG, w, u, g = 1$ iff for every world w' in $\cap CG' (\langle w, t, a \rangle)$ where p is true,
 $[\exists sa[sa = (q \vdash ILF(q)) \ \& \ sa(sp, h)] CG', w', u, g = 1$. where sa , ILF , sp and h are
 a speech act,

illocutionary force function, a speaker, and a hearer respectively.

In (59), the illocutionary function gives the most salient speech act in a context. (59) says that a BC $p \rightarrow q$ is true with respect to CG , a world w at the utterance time u , a variable assignment function g , iff for every world in $\cap CG'(\langle w, t, a \rangle)$, there a relevant speech act sa that holds at the utterance time such that q supports the most salient illocutionary force (i.e. request, command, assertion etc.) implicated by q .

7. Conclusion

(60) The Advantage of the Current Framework

(59) can successfully deal with a BC like (44) where the apodosis is definitely false.

Recall that the previous analyses present the truth conditions for BCs that state that the apodosis is true in a given context.

Works Cited

- Austin, J. L. 1956. *Ifs and Can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42, 107–132.
- Bach, K. 1999. *The Myth of Conventional Implicatur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327–366.
- Bach, K. and R. Harnish.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MA.: MIT Press
- Comrie, B. 1986. *Conditionals: A Typology*, in E. Traugott, A. ter Meulen, J. Snitzer Reilly, and C.A. Ferguson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99.
- Davison, A. 1983. *Linguistic or Pramatic Description in the Context of the Perfromadox*. *Linguistics and Philosopy* 6, 499–526.
- DeRose, K. and R. Grandy. 1999. *Conditional Assertion and “Biscuit” Conditionals*. *Noûs* 33(3), 405–420.
- van Dijk, T. A. 1979. *Pragmatic connectives*. *Journal of Pragmatics*, 3, 447–456.
- von Fintel, K. 2011. *Conditionals*, in von Heusinger, Maienborn and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Meaning vol 2*, 1515–1538.
- Geis, M. 1995. *Speech Acts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bel, A. 2017. *Laws for Biscuits: Independence and Dependence in Conditionals*. *Proceedings of SALT 27*, 277–396.
- Horn, L. R.: 2001.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 Iatridou, S. 1991. *Topics in Conditionals*,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Krifka, M. 2004. *Semantics Below and Above Speech Acts*. *handout of a talk given at Stanford University, Palo Alto, CA, April 9*.
- Lakoff, G. 1972.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in D. Davidson and G. Harmon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ordrecht: Reidel.
- Partee, B. and V. Borschev: 2000. *Possessives, Favorite and Coercion*, in A. Riehl and R. Daly (eds.), *Proceedings of ESCOL99*, CLC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pp. 173–190.
- Predelli, S. 2009. *Towards a Semantics for Biscuit Conditionals*. *Philosophical Studies*. 142(3), 293–305.
- Ross, J. R. 1970.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Sadock, J. 1974. *Towards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Siegel, M. 2006. *Biscuit Conditionals: Quantification over Potential Literal Ac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9(2), 167–203.
-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59–82.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lnaker, R. 1978. *Asser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vol 9*. New York: Academic Press, 315–332.
- Veltman, Frank. 2005. *Making counterfactual assumptions*. *Journal of Semantics* 22, 159–180.
- Zanuttini, R and P. Portner. 2003. *Exclamative Clauses: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Language* 79, 39–81.

한국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의 결손 주어

이 두 원 (한국교통대학교)

1. 서론

영어의 타동사 결과구문과 비능격 결과구문은 소절(*small clause*)로 통사상 보어(*complement*)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결과구문은 VP에 부가되는 부가어(*adjunct*)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는 타동사 결과구문과 자동사 결과구문, 즉 비능격 결과구문 둘 다는 형태소인 ‘-았/-었’이 쓰일 수 없는 비정형절 CP(*nonfinite CP*)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과구문에서 상태변화 형태소 기능을 하는 ‘-게’ 표현은 보문자로 결과구문을 CP로 쓰이게 한다(Kim and Maling 1998; Kang 2001; Sohn 1996, 1999; Yeo 2006). 한국어의 비대격 구문에서 ‘-게’는 ‘-히/이’ 유형의 어휘부사처럼 부사로 쓰인다. 신체일부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는 ‘-게’ 표현의 타동사 결과구문에 쓰일 수 있다. 비양도 소유물 (*inalienable possession*)은 신체일부(*body part*)나 사물의 부분을 말한다. 이것들은 (1a)에서 보듯 타동사의 결과구문의 영 주어인 *pro* 위치에 쓰일 수 있다(Shim and den Dikken 2009). 이것은 앞으로 논의할 Cardinaletti and Starke(1999)의 경제원리(*syntactic economy*)와 Sat 1 k(2022b)의 비정형절 주어의 경제위계원리(*economy hierarchy*)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어 타동사 결과구문의 주어 위치에 어떤 요소가 쓰이는지에 대한 비정형 이차결과구문의 주어 경제위계원리를 제안할 것이다.

영어에서 주절 동사의 유형에 따라 형용사의 이차술어가 쓰여서 결과의미를 갖는 결과구문은 다음 (2a,b,c)와 같다. 영어의 결과술어가 한국어에서는 부사형으로 표현된다. 본고는 위의 세 유형의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또한 (3)에서처럼 부가어인 타동사 결과구문이 경로가 있는 종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3a,b)의 ‘두드리다’는 종결성이 없는 동적동사(*activity verb*)로 Goldberg(1995)의 개념인 은유적 경로(*metaphorical path*)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태 변화 결과 술어인 각각 ‘납작하게’와 함께 쓰여서 종결성을 갖는다. (3)에서 시간 한도 부가어인 ‘5분 만에’의 쓰임이 이것을 말해준다. 이때 ‘납작하게’는 주절 동사가 야기하는 행위로 유발되는 은유적 경로를 내포한다. (3)의 ‘납작하게’의 ‘-게’ 표현은 경로가 있는 종결성을 갖는다.

- (1) a. 철수가 영화를 [팔이/*proi* 아프게] 때렸다.
b. 철수가 영화를 [?*그녀가/*proi* 아프게] 때렸다.
- (2) a. 타동사 결과구문(*transitive resultative*)
John painted the fence white. (Simpson 1983:153)
b. 비대격 결과구문(*unaccusative resultative*)
The pond froze solid.
c. 비능격 결과구문(*unergative resultative*)
Dora yelled *(herself) hoarse. (Levin and Rappaprt Hovav 1995:35)

- (3) 철수가 동근 쇠 뭉치를 5분 만에 납작하게/*평평히 두드렸다. (종결, 은유적 경로)

2. 한국어 이차결과구문의 조망

2.1. 부가어

영어에서 논항, 즉 보어는 부가어를 어순상 선행해야 한다(Jackendoff 1990; Radford 1988). (31a,b)의 문법성 대조가 이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32a,b)에서처럼 이들의 어순이 자유로운데 이것은 결과술어인 ‘하얗게’와 주어 묘사술어인 ‘발가벗고/알몸으로’ 둘 다 부가어라는 의미이다. 결과구문에 부분요소나 pro가 나타나는 (33)에서도 술어들이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데 이것 또한 결과구문이 부가어(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31) a. Peter₂ painted [the walls₁ white₁] naked₂.
 b. *Peter painted the walls naked white. (Legendre 1997:83)
- (32) a. Peter₂가 벽을₁ 하얗게₁ 발가벗고/알몸으로₂ 칠했다.
 b. Peter₂가 벽을₁ 발가벗고/알몸으로₂ 하얗게₁ 칠했다. (Lee 2016:347)
- (33) a. Peter₂가 벽을₁ [안쪽이/pro₁ 깨끗하게/깨끗해지게] [pro₂ 발가벗고/알몸으로] 칠했다.
 b. Peter₂가 벽을₁ [pro₂ 발가벗고/알몸으로] [안쪽이/pro₁ 깨끗하게/깨끗해지게] 칠했다.

Shim and Den Dikken(2009)에 의하면 한국어의 결과구문 (36a,b,c)는 영어로 (37a,b,c)의 의미이다. 홍기선(2011)이 지적하듯이,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통사적으로 영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에 대응되는 구문이 아니다. 즉 영어의 결과구문은 항상 실현된 결과만을 표현하며 통사적으로 보어이지만 한국어 결과구문은 부가어이다.

- (36) a. Jim은 목이 쉬게/쉬도록 울었다.
 b. Jim은 바닥을 하얗게 칠했다.
 c. Jim은 바닥을 지치게/지치도록 칠했다.
- (37) a. Jim cried for hours [Adjunct {until/so that/such that} he/his throat got hoarse].
 b. Jim painted the floor [Adjunct {until/so that/such that} it got white].
 c. Jim painted the floor [Adjunct {until/so that/such that} he/his right arm got tired]. Shim and Den Dikken (2009:349-350)

2.2. 강한 결과구문과 약한 결과구문

Washio(1997)는 결과구문을 강한 결과구문(strong resultative)과 약한 결과구문(weak resultative)으로 분류한다. 강한 결과구문은 (49a,b)에서처럼 동사가 어떤 상태의 변화나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데도 결과 의미를 갖게 되는 반면에 약한 결과구문에서는 (50a,b)에서처럼 완수 동사(accomplishment verb)나 달성 동사(achievement verb)가 상태의 변화를 야기한다. 강한 결과구문에

나타나는 smooth나 flat과 같은 형용사들은 상태의 변화를 야기한다. 나아가 강한 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인 형용사가 착점(goal)을 취하거나 경로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종결성이 나타난다(Wechsler 2005).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8a,b)의 ‘납작하게’와 ‘뺏뺏하게’가 보여주는 바이다. 즉 ‘두드리다’와 ‘다리다’는 어떤 상태의 변화나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데도 ‘납작하게’와 ‘뺏뺏하게’에 의해 각각 결과 의미를 갖게 된다(Son and Svenonius 2008). Goldberg(1995)는 (53)의 way는 주절 동사가 야기하는 행위로 유발되는 은유적 경로로 분석된다고 주장한다. (53)은 주어 연계 결과구문이다. Huang(2006)은 (54)의 중국어 예문에서 주어 결과구문에 나타나는 get/become 의미의 ‘-de’를 상태변화 형태소라고 칭하고 이것이 통사상 은유적 경로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 (49) 강한 결과구문
 a.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b.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 (50) 약한 결과구문
 a. John painted the wall red.
 b. I froze the ice cream hard.
- (51) John hammered the metal flat/smooth/*beautiful/*safe.
- (53) Willy jumped his way into Harriet’s arms.
- (54) Zhangsan tiao-de qichuan-runiu.
 Zhangsan jump-till panting-as-cow
 ‘Zhangsan jumped (so much that) [he] panted like a cow.’

이에 근거하여 이상근(2014)은 한국어의 주어 결과구문에 쓰이는 ‘-게’가 상태변화를 은유적 이동 경로로 나타내는 상태변화 형태소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에 더하여 한국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에서도 상태변화 형태소인 ‘-게’의 상태변화가 일종의 이동경로로 인식되어 그 경로에 대한 종결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나 형용사구로 종결성이 표시된다(Zubizarreta and Oh 2007). 김경학(2005)이 지적하듯이 영어의 비능격 구문인 (55)는 경로상 끝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인 to death가 쓰여 종결성을 갖는다. 시간 한도 부가어인 ‘in-전치사구’의 쓰임이 이를 보여준다. 타동사 결과구문도 (56)에서처럼 경로를 가질 수 있다. RP-PATH은 결과술어가 경로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57)의 한국어 타동사 결과구문도 ‘-게’ 표현에 의해 착점을 갖게되어 경로를 내포한 종결성을 갖게 된다. 즉 쇠 몽치가 둥근 상태에서 납작하게 되는 종결점과 은유적 이동 경로에 의한 경로를 내포하게 된다. 이때 (57)에서 보듯 ‘납작하게’는 Sat 1 k(2022b)의 개념인 결손 요소 ‘표면/pro’를 주어로 취하고 비정형 부가어절 CP-구조를 형성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과구문에서 상태변화 형태소 기능을 하는 ‘-게’ 표현은 보문자로 결과구문을 CP로 쓰이게 한다.

- (55) John drank himself [RP-PATH to death]. (*for a year/in a year). (김경학 2005:523)
- (56) a. John kicked the ball [RP-PATH away].
 b. He bang the ball [RP-PATH out of the floor]. (이복희 2012:274-275)

(57=8a) 철수가 동근 쇠 뭉치를 5분 만에 [CP 표면이/pro 납작하게] 두드렸다.
(종결, 은유적 경로)

2.3. 결손 주어

Cardinaletti and Starke(1999)는 (60)의 경제원리가 도출상 통사구조가 최소화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것은 더 작은 통사구조가 선택된다는 통사상의 경제원리(syntactic economy)이다. Sat 1 k(2022b)이 지적하듯이 쿠치구자라트어(Kutchi Gujarati)에서 결손 대명사인 pro가 (62a)처럼 정형/비정형 절에 쓰이지만 (62b)에서처럼 pro 대신 외현적 대명사, 즉 강한 대명사가 쓰일 수 없는 것은 통사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Cardinaletti and Starke(1999)의 (60)의 경제원리(economy constraint)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Sat 1 k(2022b)은 삽입절 주어의 경제위계원리(economy hierarchy)를 (61)과 같이 제안한다. 즉 (61)은 가장 선호되고 경제적인 주어 쓰임의 순서 원리이다. (61)에서 대명사가 약할수록, 즉 PRO쪽으로 갈수록 vP를 취하고 대명사가 강하면 즉 외현적 주격 대명사가 쓰이면 TP나 CP를 취한다. 이것이 보어절의 주어 위치에서 왜 he/she와 같은 대명사와 PRO가 서로 상보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즉 두 요소가 서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60) Economy of Representations

Minimize Structure

(61) Economy hierarchy: $\emptyset > PRO > Clitic > Weak pronoun > Strong pronoun$

(62) a. Gianni ha telefonato quando pro è arrivato a casa.

John has called when he is arrived at home.

b. *Gianni ha telefonato quando lui è arrivato a casa. (lui = strong pronoun)

John has called when he is arrived at home. (Sat 1 k 2022:6)

(66a)에서 보듯 신체일부나 pro는 결과구문내에서 ‘시’와의 일치를 이루지만 (66b)에서 보듯 상위 절 목적어 위치에 쓰일 수 없다. (66b)와 (67c)에서처럼 신체일부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는 ‘할아버지의 어깨를’과 ‘탁자의 표면을’과 같은 완전체로 쓰여야 한다. 결과구문에서 pro 위치에 나타나는 신체일부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는 의미상 직접 목적어와 연결된다. 따라서 직접 목적어없이 쓰일 수 없다. (65b)와 (67b)에서 보듯 대명사인 ‘그녀/그것’은 강한 대명사로 주절 타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쓰일 수 있지만 (65a), (66a) 및 (67a)에서 보듯 결과구문의 결손 주어 위치에 쓰일 수 없다. 비양도 소유물은 신체일부나 사물의 부분을 이루는 요소를 말한다. 이차결과구문의 결손 주어 위치에 쓰이는 신체일부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는 pro와 호환될 수 있다. 본고는 또한 Cardinaletti and Starke(1999)의 경제원리와 Sat 1 k(2022b)의 주어의 경제위계원리에 따라 비정형 이차결과구문에서 주어의 쓰임은 다음과 같은 경제위계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6) a. 영희가 할아버지를 [?*그가/어깨가/proi 시원하게] 주물러 드렸다.
b. 영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어깨를/*proi 시원하게 주물러 드렸다.

(68) 비정형 이차결과구문에서 주어의 경제위계원리:

∅ > 약한 성분(신체일부/사물의 부분 요소/pro) > 강한 성분(‘그녀/그/그것’과 같은 대명사)

(68)의 경제위계원리는 한국어의 이차결과구문의 주어 위치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68)에 의하면 이차결과구문에서 pro, 신체일부인 ‘팔/어깨’, 사물의 부분요소인 ‘표면’은 약한 성분이라서 강한 성분인 ‘그녀/그/그것’보다 그 쓰임이 더 경제적이다. pro와 ‘팔/어깨/표면’은 결손 성분, 즉 약한 성분이라서 호환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정형 결과구문의 주어에 강한 대명사와 결손 성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후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3. 결론

‘시원하다’와 같은 심리상태동사를 포함하여 특정사건을 지시하는 동사들은 ‘시’와의 쓰임이 가능하고 결과술어의 ‘시’는 존칭 주어와의 일치를 위해 pro가 필요하다. 어휘부사는 결과구문에서 ‘시’와 쓰일 수 없고 pro를 취할 수도 없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에서 비대격 결과구문의 ‘-게’ 표현은 ‘-히/이’ 유형의 어휘부사처럼 단순한 부사이고 타동사와 비능격 결과구문의 ‘-게’ 표현은 pro가 나타나지만 형태소 ‘았/었’이 쓰일 수 없는 비정형절 CP-구조로 VP에 부가되는 부가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고는 한국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에서 pro 위치에 나타나는 신체일부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는 연결 대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결손 pro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강한 대명사가 결손 범주인 pro 위치에 쓰일 수 없는 것은 통사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Cardinaletti and Starke(1999)의 경제원리(economy constraint)에 의한 것이다. 결손주어들은 Sat 1 k(2022b)의 경제위계원리에 의하면 강한 대명사보다 그 쓰임이 더 경제적이다.

Works Cited

- 이두원. 2023. 이차결과구문 다시보기: 타동사 결과구문의 결손 pro 위치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65(1), 185-216.
- Cardinaletti, Anna, and Michal Starke. 1999. The typology of structural deficiency: A case study of the three classes of pronouns. In van Riemsdijk, Henk (ed.), *Eurotyp. Volume 5/Part 1: Clitics in the languages of Europe*, 145-234. Berlin: De Gruyter Mouton.
- Huang, C.-T. James. 2006. Resultatives and unaccusatives: A parametric view. *Bulletin of the Chinese Linguistics Society of Japan* 253, 1-43.
- Sat 1 k, Deniz. 2022a.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of infinitives.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52. GLSA.
- Sat 1 k, Deniz. 2022b. An economy theory of PRO. <https://lingbuzz.net/lingbuzz/006833>.
- Shim, Ji Youngm and Marcel den Dikken. 2009. The tense of resultatives: The case of Korean.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38, 337-350.

Translating Humors between Chinese and English

양 신 건 · 이 상 철 (충남대학교)

1. Introduction

Verbal humor is a type of humor that relies on language and words to create a humorous effect. Verbal hum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human communication, social interaction, and emotional well-being. It is a creative and versatile tool that can be used to entertain, connect, and express ideas in a variety of contexts.

Studies on humor translation is necessary because humor is often deeply embedded in language, culture, and context, making it difficult for people from different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ranslating humor allows us to bridge these gaps and facilitat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Moreover, humor can also be an important aspect of cultural identity and heritage, and translating it can help preserve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By translating humorous texts, jokes, and stories, we can make them accessible to a wider audience and increase the reach of popular culture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languages. In addition, humor translation can have practical benefits, such as opening up new markets and expanding the reach of creative works. Translating humorous content can help creators and producers to expand their audiences and promote their work internationally. Overall, humor translation is necessary for facilitat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promoting diversity, challenging stereotypes, and enhancing communication. It is an important aspect of cultural exchange and can help us appreciate and celebrate the diversity of human experi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relevance theory to the translation of humor between Chinese and English, and to propose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an overcom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to humor transl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key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nslation of humor, and to propose transl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levance theory that can address these factors.

2. Interpreting Humor Translation in Relevance Theory

2.1 Relevance-Theoretic Analysis for Difficulties in Humor Translation

Translating humor is extremely difficult and poses numerous challenges, including cultural background differences, interlingual asymmetry, and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factors at play. Relevance Theory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translation and analysis of humor, but the process still requires a multi-faceted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uccessful humor translation demands accurate conveyance of the original text's content and adding a humorous element to it. This requires translators to employ various approaches to achieve the desired effect. The study of how to translate humor precisely has emerged as a crucial area of research in linguistics.

2.2 The Role of Optimal Relevance in Humor Translation

According to Sperber and Wilson's relevance theory, successful communication occurs when speakers produce utterances that are maximally relevant to their listeners while minimizing cognitive effort, and listeners use their cognitive resources to identify and interpret the most relevant information from what they hear. A translator's objective is to achieve optimal relevance in translation by aligning the writer's intentions with the target text readers' expectations, ensuring their meeting in the translation. Humor translation poses a considerable challenge due to the distinctive linguistic mechanisms between languages. The translator must ensure that each humorous aspect is conveyed in a manner that mirrors the original and evokes a similar response without requiring undue effort from the reader of the target text, ultimately possessing optimal relevance.

2.3 Humor Translation as a Double Ostensive-inferential Process

The Relevance Theory proposes that communication is an ostensive-inferential process, involving the communicator's assessment of the cognitive environment of the audience and conveying their intention through utterance. Translation, including humor translation, also involves two ostensive-inferential processes, with the translator acting as both a recipient and a communicator. The success of translation depends on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relevance, enabling target text readers to recognize the communicative intention without excessive processing effort. The humor translation process involves multiple steps, requiring optimal relevance between the source text and the translator's cognitive environment, and the target readers' cognitive environment. The translator i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the source text writer's intentions, making assumptions about the target readers' cognitive environment, and selecting the optimally relevant version of the translation. In summary, the translator plays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at the translation is relevant to the source text and appropriate for the target text readers.

2.4 Humor Translation as Inter-lingual Interpretive Resemblance

Translation is concerned with achieving interpretive similarity between two languages. The degree

of interpretive resemblance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texts can vary and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hared explicatures and implicatures. Interpretive resemblance is achieved when the utterance or text in the target language represents the original thought of the communicator, based on shared assumptions between the intended interpretations of the two utterances. The act of translation involves an interpretive use of language, with the aim of creating a target language text that closely resembles the original author's intended meaning, while also satisfying the expectations of the target readers. The translator's ultimate goal is to convey the same assumptions and ideas that the original author intended to communicate to the source readers,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linguistic, cultural, and contextu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However, when it comes to humor translation, the principle of relevance imposes significant limitations on its intended meaning and expression, particularly with cultural and linguistic humor. For a joke to be successful, it must rely on shared knowledge between the sender and recipient. Therefore, when determining how the translation should resemble the original, it must be relevant enough to the target audience to provide appropriate contextual effects, and the language must be expressed in a way that enables the intended interpretation without imposing unnecessary cognitive effort on the audience.

3. Relevance-theoretic approach of humor translation

3.1 Direct Translation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ranslation is to preserve the meaning and style of the original text. Direct translation is an approach that aims to achieve complete interpretive resemblance by focusing on linguistic resemblance. This method avoids explanatory interpolation and instead uses supplementary devices such as introductions, notes, or glossaries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for a full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context. For direct translation to be effective, the represented communicative clues must be natural and easily accessible to the target readers. This approach is particularly suitable for verbal humor translation as the target language receptors possess some knowledge of the original and expect the translation to conform to their preconceptions.

3.1.1 Literal translation

The author notes that direct translation is most effective when the communicative clues in the source text are natural and easily accessible to the target readers. The passage also discusses the use of literal translation in humor translation, which can be effective when there is a precise correspondence in structure and meaning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form, meaning, metaphor, and sentence structure of the original

in order to retain the humorous effect and achieve optimal relevance in the translated text.

3.1.2 Coincidence

The translation of puns can be a challenge, but it is possible to find an equivalent expression in the target language that reproduces the intended effect of the pun while conveying its meaning and function. Translators can search for related linguistic and cultural material in the target language to find a suitable replacement for the original pun. This can result in a relatively satisfactory and ideal translation of the pun.

3.1.3 Annotation

When translating humorous phrases that are deeply rooted in a particular culture, there can be a significant cognitive gap between the original author's understanding and that of the target readers. Relevance theory suggests that annotations can be used to expand the cognitive environment and maximize relevance during the understanding proces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lator to compensate for any lost contextual assumptions and enable the target readers to gain a similar cognitive environment to the original author. Annotations are an essential tool for translators to handle cultural elements such as idioms and customs, making them crucial in the translation process. Annotations can be an effective approach for translating humor, but it may not always achieve an identical humorous effect as the original. Nonetheless, in cases where cultural difference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humor translation, annotation remains a viable and optimal option.

3.2 Indirect Translation

To successfully translate a humorous text, the translation should closely resemble the original interpretation to offer relevant contextual effects to the target audience. Linguistic and cultural humor poses a greater challenge, leading to alternative methods such as indirect translation to maintain cognitive effects and propositional form. Indirect translation requires significant linguistic changes to the source text to achieve cognitive effects in the target language, while still remaining faithful to the relevant aspects of the original. It aims to expand upon the source text by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and accessible to the target audience, ensuring they retrieve the intended meaning in the context envisioned by the original communicator in the source language.

3.2.1 Substitution

The substitution strategy in translation involves replacing culture-specific terms or expressions with functionally equivalent counterparts in the target language when direct transfer is difficult due to linguistic or cultural differences. This is a form of free or functional translation that may result in the loss of certain linguistic properties but can still convey contextual effects if functional

equivalents are identified. The goal is to replace original images with more appropriate ones for the target language, preserving the contextual effects of the original text. Optimal relevance, based on processing efforts and contextual effects, is a key element of Relevance Theory, and substitution can help achieve it by matching the source language communicator's intention with the target language receptor's expectation. This strategy can improve readability and help target language receptors easily understand the humorous effect.

3.2.2 Paraphrase

The relevance theory suggests that in humor translation, the intention rather than the literal meaning is important. Paraphrasing and substitution are two strategies used to convey the humorous meaning of a jok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Both require the translator to understand the cultural context and linguistic nuances of both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to effectively convey the humor. Substitution involves replacing a specific word or phrase with a similar one that has the same humorous effect, while paraphrasing involves restating the joke in a different way. Substitution tends to preserve the original wording of the joke more closely, while paraphrase may involve more extensive rewording or restructuring to convey the same meaning.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convey the meaning and intent of the original text in the paraphrased version.

3.2.3 Supplement

Supplement is a humor translation strategy that involves adding extra information or punchlines to a joke to make it funnier or more understandable to the target audience. It is useful in resolving difficult translation scenarios, particularly when dealing with fixed idioms that are commonly used in verbal humor. However, supplementing information can be challenging as it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both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and cultural contexts. Annotation is another strategy that involves adding notes or explanations alongside the translated joke to clarify any cultural references or elemen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strategies is that supplement focuses on enhancing the original joke, while annotation focuses on clarifying it to the target audience. Skilled humor translators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to make the joke accessible to the audience while still preserving the original intent and humor of the joke.

3.2.4 Re-creation

In complex translation cases, some translators choose to re-create the original content to achieve the intended effect, particularly in verbal humor translation. This involves modifying or manipulating the original text to replicate the same humorous effect for readers of the target language. Annotation can be used to clarify cultural references but may not preserve the humor. The translated joke mentioned in the passage was successfully re-created to achieve a humorous effect.

4. Conclusions

The article discusses the importance of humor translation, particularly between Chinese and English, in bridging linguistic and cultural gaps, promot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It identifies the challenges of humor translation, such as cultural background differences, interlingual asymmetry, and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Relevance Theory is present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humor transl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chieving optimal relevance, interpretive similarity, and inter-lingual interpretive resemblance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texts. The study proposes translation strategies based on relevance theory principles to overcom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to humor translation. The study identifies the key factors that influence humor translation and suggests translation strategies that address these factors.

Works Cited

- Asimakoulas, D. 2004. Towards a model of describing humour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Greek subtitled versions of *Airplane!* and *Naked Gun*. *Meta*, 49(4), 822-842.
- Attardo, S., Raskin, V. 1991. Script theory revis (it) ed: Joke similarity and joke representation model.
- Baker, M. 2010. Linguistics and the training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Meaning in translation*, 427-436.
- Bassnett, S. 1998. Still Trapped in the Labyrinth: Further Reflections on Translation.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11), 90.
- Chiaro, D. 2006. *The language of jokes: Analyzing verbal play*. Routledge.
- Delabastita, D. 1994. Focus on the pun: Wordplay as a special problem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6(2), 223-243.
- Eugene, N. 1993. *Language, culture and translating*.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Shanghai.
- Grice,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t, E.-A. 2004. Challenges of metarepresentation to translation competence. *Translationskompetenz*.
- Gutt, E.-A. 2005. On the significance of the cognitive core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 11(1), 25-49.
- Gutt, E.-A. 1990. A theoretical account of translation-without a translation theory.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2), 135-164.
- Gutt, E.-A. 2014.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Routledge.
- Gutt, E.-A. 2000. Translation as interlingual interpretive us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376-396.
- Gutt, E. 1998. Pragmatic aspects of translation: some Relevance-Theory.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12, 41.
- Liang, X.-J., Lee, S. 2022. A Comparative Analysis of Xiangsheng and Stand-up Comedy.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2), 189-201.
- Lyttle, J. 2007. The judicious use and management of humor in the workplace. *Business horizons*, 50(3), 239-245.
- Ma, Z., Jiang, M. 2013. Interpretation of verbal humor in the sitcom *The Big Bang Theory* from the perspective

- of adaptation–relevance theory.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3(12), 2220.
- Newmark, P. 2003. *A textbook of translation*.
- Norricks, N.R., Spitz, A. 2008. Humor as a resource for mitigating conflict in 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40(10), 1661–1686.
- Sanderson, J.D. 2009. Strategies for the dubbing of puns with one visual semantic layer. in: *New trends in audiovisual translation, Multilingual Matters*, pp. 123–132.
- Sapir, E. 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207–214.
- Scheel, T., Gockel, C. 2017. *Humor at work in teams, leadership, negotiations, learning and health*. Springer.
- Sperber, 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iteseer.
- Wilson, D. 2012. 11 Metarepresentation in linguistic communication. *Meaning and relevance*, 230.
- Yus, F. 2016. *Humour and relevan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Yus, F. 2012. Relevance, humour and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More than understanding*, 117–145.

Functional Adaptation of Pragmatic Borrowings from English into Uzbek

Hazirdinov Ihtiyorjon · 이상철 (충남대학교)

Functional adaptation of Pragmatic Borrowings from English into Uzbek

Hazirdinov Ihtiyorjon (이튼)
Lee Sangche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agmatic Borrowings

- Pragmatically borrowed items carry not only word meaning, but also speaker attitudes, the speech act performed, discourse structure, information state, politeness, etc. (Anderson, 2014)
- They can facilitate or imped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borrowed expression.
- Speakers with higher proficiency in both languages are more likely to use and understand pragmatic borrowings (Kecskes & Papp, 2000).
- Anderson's (2014) analysis demonstrated how pragmatic functions can be forwarded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rough the concepts of functional stability, adaptation, narrowing, broadening, and switch.

Relevance theory

- Relevance Theory is a cognitive and pragmatic theory of human communication developed by cognitive scientists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in the 1980s.
- It claims, people look for information that is worth their attention and cognitive effort.
- Human communication and meaning interpretation depend on both content and individual's cognitive abilities.
- When a hearer receives an input which is relevant to him, and its assumptions revealed by the context. It yields cognitive effect and costs processing effort:
 - Many cognitive effects, but only one positive effect.
 - The smallest processing effort provides more relevant input.
- The evolution of the human cognitive system obtained the tendency to maximize relevance. (Sperber and Wilson, 1995, p260).
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 Human cognition tends to be geared to the maximization of relevance. (Sperber & Wilson, 1995, p. 260)
- Audience's attention is attracted by ostensive stimulus, which leads an audience to pay attention to an input that seems most relevant enough. Speakers formulate their messages in a way that makes them as optimally relevant as possible to their intended audience and the ostensive stimulus produced by the input is relevant enough to be worth processing.
- Every speaker expects her audience to presume that her stimulus is sufficiently pertinent for proper processing.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Every ostensive stimulus conveys a presumption of its own optimal relevance. (Sperber & Wilson, 1995, p. 260)

Comprehension procedure

- When a message is deemed relevant,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invest the necessary cognitive effort to process and understand it.
- 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 a. Follow a path of least effort in computing cognitive effects: Test interpretive hypotheses (disambiguation, reference resolutions, implicatures, etc.) in order of accessibility.
 - b. Stop when your expectations of relevance are satisfied (or abandoned).
- Audience follows the least effort and the most positive effect, thus resulting interpretation satisfies the hearer's expectations of relevance.
- Successful communication requires from speakers to adapt their messages to suit their intended audience, and from listeners to infer the meaning based o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peaker's words, context and background knowledge.

Functional words as Borrowing Words

- Discourse markers and Interjections are linguistic elements used to signal relationships between utterances, such as connecting them, introducing new topics, or marking transitions.
- Adoption of a word for pragmatic functional reasons.
- Better way to enrich the vocabulary, develop cross-linguistic contact, and enhance speaker abilities.
- When functional words are borrowed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ey can take on new meanings, functions, or connotations in the borrowing language, reflecting the influence of both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
- Pragmatic adaptation of borrowing words: Narrowing, Broadening and shift.
- English has had an influence on almost every language in the world in the modern era, including Uzbek language.
- This trend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areas of technology, science, and business, where the use of English terminology has become the norm (Khushmurodova, 2019; Makhmudova, 2017).
- Most of the research on the topic of borrowing words into the Uzbek language has primarily focused on borrowings from languages that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zbek language, with little attention paid to English borrowings, particularly pragmatic borrowings in the Uzbek language remains an unexplored area that requires additional investigation.
- Formal Uzbek language strictly adheres to purist methods, but borrowing words should be a commonly encountered phenomenon in everyday communication.

Comparison of the data on the perception of English Borrowed words in Uzbek

Table 1. The list of 21 selected connotations and their equivalents in Uzbek

Borrowed word:	Connotations	Uzbek equivalent
Okey	Affirmation	Mayib
	Neutral response	Yaxshi
	Express approval and admiration	Daxshat
	Affirmative response	Xa
yes	Reluctant agreement	Xa
	Irony	Xa
	Interjection expressing surprise	Xa!
	Functional broadened sense	Bor
Wow	Amazement	Vah
	Surprise	Voy
	Disbelief	Vah
	Irony	Voy
Thank you	Gratitude	Rahmat
	Politeness	Rahmat
	Formality	Rahmat
	Sarcasm	Rahmat
Sorry	Apology	Uzr
	Sympathy	Hamdardman
	Politeness	Uzr
	Excuse	Uzr
	Sarcasm	-

Table 2. Demography data by Age and Gender

Age/Gender	Males	Females	Total
20-29	47% (17)	53% (19)	60% (36)
30-39	67% (16)	33% (8)	40% (24)
Total:	55% (33)	45% (27)	

Table 3. English proficiency level of Respondents



Data analysis

Table 4. The frequency of using English Borrow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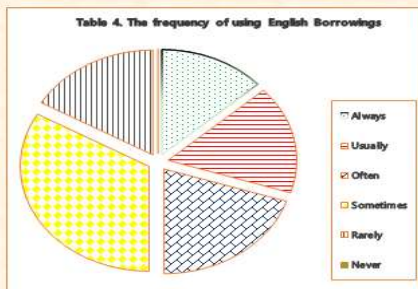


Table 5. The mean Percentage of selected answers for each word

	Okey	Yes	Wow	Thank you	Sorry
a) The sentence sounds almost natural.	56.7%	51.98%	64.18%	39%	41%
b) Meaning can be accessible, however the sentence is unnatural.	27.8%	33%	22%	32.6%	30%
c) The sentence is unnatural, meaning hardly accessible.	13.3%	10%	9%	15.4%	14%
d) The word is completely unknown in Uzbek.	2.2%	5.02%	4.6%	13.35%	15%

Table 6. Mostly selected options

Word (Connotation)	Percentage
Okey (Affirmation)	65%
Yes (Interjection expressing surprise)	68.2%
Wow (Amazement marker)	71.7%
Thank you (Express Gratitude)	53.3%
Sorry (Apology marker)	60%

Functional adaptations

- In the context of RL, changes observed as the functional adaptation happens.
- One of the specific meanings of multifunctional marker transferred into the RL context and it narrows down into certain sense.
- Most of the responders preferred certain meanings of the words as they are mostly aware of the particular sense:
 - Confirmation expression *okey*, Excitement expression *yes*, gratitude expression *thank you*, apology expression *sorry*, politeness expression *sorry*.
- Broader sense of meanings attached to some pragmatic borrowings.
- Apology expression word *sorry* entered Uzbek context as an apology marker and broadened in meaning and used to express various forms of apology.
 - Sorrylik ish qilmoq – he has done a job for sorry.
- Excitement expression *wow* entered Uzbek context as an excitement marker and broadened in meaning and used to express various forms of excitements.
 - Wow deb yubormoq – say wow
 - Wow dedirmoq – make someone say wow
- The adaptations happened as post hoc, and some borrowings may receive shift in the meaning, or usage or grammatical structure over time as they adjust into SL content.
- Metaphorical shift of apology marker *sorry*
 - Senga o'xshagan sorrilar ko'payib ketdi – The number of sorries like you has increased. (ex: people who say sorry)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 study of pragmatic borrowings from English into Uzbek provides insights into the ways in which languages evolve and adapt in multilingual societies.
- The use and adaptation of borrowed words and phrases are shap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needs of speakers and listeners, the availability of suitable words in the native language, and the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of communication.
- The proposed Relevance Theory framework provide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nd modification that occur in the adoption of pragmatic borrowings.



References

- Andersen, G. (2014). Pragmatic borrowing. *Journal of Pragmatics*, 67, 17-33. <https://doi.org/10.1016/j.pragma.2014.03.005>
- Haugen, E. (1950). The analysis of Linguistic Borrowing.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6 (2), 210-231.
- Hoffer, L. B. (2002). Language Borrowing and Language Diffusion: An overview.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XI (4).
- Kecskes, I., & Papp, T. (2000). *Foreign language and mother tongu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hushmurodova, Sh, Sh. (2019). Borrowings in the Uzbek and English languages. *Foreign Philology*, 1(70), 86-88.
- Rahmatullayev, Sh. (2006). *Hozirgi o'zbek adabiytili*. Universitet. Toshkent.
- Sperber, D., &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 S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Blackwell.
- Wilson, D., & Sperber, D. (2004). Relevance theory. In L. Horn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607-632. Blackwell.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Sun, Yaoyao · 이상철 (충남대학교)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Yao-Yao Sun, Sangcheol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 May, 2023

Content

1.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2. Relevance Theory
3. Relevance-theoretic analysis of English and Chinese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 3.1 Irony
 - 3.2 Metaphor
 - 3.3 Hyperbole
4. Conclusion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 **Indirect speech acts** are those in which the speaker communicates a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used.
- **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refer to the indirect speech acts people derived from the "**literal force**" of the sentence through a general derivation. The communicators are not conscious that they pay more attention to **the intended illocutionary force of the sentence**.
-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are those in which the meaning conveyed is not immediately apparent, and may **require contextual or cultural knowledge** to understand.
 - The hearers can not infer the speakers meaning from the **linguistic forms** mainly depend on the **mutual knowledge among speakers and hearers and the contexts**.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 "Could you pass me the cup of tea?"
 - This is a **request**.
 - The speaker is asking the listener to pass the cup of tea.
 - "I'm really interested in what you're saying, can you please keep talking?" (To indirectly request a conversation partner to continue talking.)
- "I'm sorry, I didn't mean to upset you."
 - This is an **apology**, not an admission of guilt.
 - The speaker is expressing **regret for having caused the listener to feel upset**.
- "That's a nice shirt you're wearing!"
 - This is a **compliment**, not a statement of fact.
 - The speaker is expressing **admiration for the listener's shirt**.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Chinese

- "你吃了吗?" (Nǐ chī le ma?)
 - "Have you eaten?"
 - It is **not** actually a question about **the listener's eating habits**, but rather a way of expressing **concern for their well-being**.
- "我有点事情想请教一下你。" (Wǒ yǒu diǎn shìqing xiǎng qǐngjiào yíxià nǐ.)
 - I have a little matter that I would like to consult with you about."
 - This is a polite way of **asking for help or advice**.
- "你太客气了!" (Nǐ tài kèqì le.)
 - "You are too polite."
 - This is a way of expressing **gratitude or appreciation**, often used in **response to a compliment or gesture of kindness**.

Relevance Theory

- **Relevance theory** i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communication works,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relevance in the interpretation of utteranc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text** and **relevance in understanding meaning**.
- According to Relevance Theory, people communicate in order to convey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listener's goals and interests**.
-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because they can convey information that i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words used.
- According to **Relevance Theory**,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volve the use of linguistic expressions to refer to **things or concepts that ar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language.

Relevance-theoretic analysis of English and Chinese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English Request:

- "Do you have the time?"
 - To ask someone to **tell you the time**,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quest.
- "It's getting hot in here."
 - To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or **adjust the temperature**,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quest.
- "Well, that's definitely one way to do it!"
 - The underlying message is that the employee need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without the boss having to explicitly state it.
 - Instead of saying, "You need to do better on this project."

Chinese Request:

- "你是不是没有时间帮我一下?" (Nǐ shì bù shì méiyǒu shíjiān bāng wǒ yíxià?)
 - "Don't you have time to help me?"
 - It implies a **request and invites** the other person to respond by **offering help**.
- "我家里有事。" (Wǒ jiā lǐ yǒu shì)
 - "I have a family matter."
 - **Declining an invitation or request**,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fusal.
- "我好渴啊!" (Wǒ hǎo kě a)
 - "I'm so thirsty!"
 - An indirect **request for water or another beverage**,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quest.

Relevance-theoretic analysis of English and Chinese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English Suggestion:

- "Why don't we go to the park instead?"
 - To make a suggestion **to go to the park**.
 - The literal meaning of the sentence is **a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going to the park** instead of some other place.

Chinese Suggestion:

- "要不我们去看电影怎么样?" (yào bù wǒmen qù kàn diànyǐng zěnmeyàng?)
 - How about we go watch a movie?
 - To make a suggestion **to go see a movie**.
 - The literal meaning of the sentence is **a question about the other person's opinion about going to see a movie**.

-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suggests an alternative** and **invites** the other person to consider it.

Relevance-theoretic analysis of English and Chinese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English Warning:

- "You might want to slow down before you get a ticket."
- To warn the other person about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ticket**, but the literal meaning of the sentence is a suggestion about **the other person's desire to slow down**

Chinese Warning:

- "你最好不要这么做，不然会有麻烦的。"
"(nǐ zui hào bùyào zhème zuò, bùrán huì yǒu máfan de.)"
- "You'd better not do it this way, otherwise there will be trouble."
- To give a warning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other person's actions**, but the literal meaning of the sentence is a suggestion about **the other person's preference to avoid trouble**.

➤ The relevance of the sugges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implies **a warning and invites** the other person **to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 In both English and Chinese,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rely on implicature, which is the meaning that is implied by the **speaker's intended meaning** rather than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 The speaker is using linguistic expressions to **refer indirectly to a request, suggestion, or warning** without explicitly stating it.
- This requires the listener to interpret the intended meaning based o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cultural norms and social expectations**.
- Relevance theor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text and the speaker's intentions** in determining the implicatures of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based on Relevance Theory

Irony in English:

- Irony is a type of non-conventional speech act in which the intended meaning is **the opposite of the literal meaning**.
- Irony is often used to convey a message that is **more relevant to the listener's goals or interests** than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used.
 - "Thanks a lot!"
- To **convey their displeasure** with something. (In a sarcastic tone)

Irony in Chinese:

- "你真是太有才了，连拼音都不会打" (nǐ zhēn shì tài yǒu cái le, lián pīnyīn dōu bù huì dǎ) - "You are so talented that you can't even type pinyin."
- **Fundamental skill** for Chinese: type pinyin
- **Creating a contrast** between **what is expected** and **what is actually said**.
 - Irony can also be used to **add humor or sarcasm** to a message, making it more **engaging and memorable** for the listener.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based on Relevance Theory

Metaphor in English :

- **Metaphors** are a type of non-conventional speech act in which **a word or phrase is used to refer to something else.**
- Metaphors are often used to convey a message that is **more relevant to the listener's goals or interests** than a literal description of the thing being referred to.
 - "Life is a journey."
- To convey the idea that **life has ups and downs** and that the **journey is the important thing.**

Metaphor in Chinese:

- "瞎猜莫如不猜，猜错不如不猜" (xiā cāi mò rú bù cāi, cāi cuò bù rú bù cāi)
- - "It's better not to guess blindly, guessing wrong is worse than not guessing at all."
- If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not relevant** or helpful to the listener, it is better **not to convey** it at all.
 - This **metaphor** can be used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relevance in communication** and the potential negative consequences of conveying irrelevant information.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in English and Chinese based on Relevance Theory

Hyperbole in English:

- **Hyperbole** is a type of non-conventional speech act in which **an exaggeration is used for emphasis.**
- Hyperbole is often used to convey a message that is **more relevant to the listener's goals or interests** than a literal description of the thing being described.
 - "I'm so hungry I could eat a horse"
To convey the idea that they are very hungry.

Hyperbole in Chinese:

- "我等了一辈子" (wǒ děng le yībèizi)
-"I have been waiting for a lifetime."
- **Exaggeration of the length of time** that the person has been waiting.
- To express **impatience or frustration with a situation**, and the exaggeration makes the message more **impactful and memorable.**
 - The use of **hyperbole** can **increase the relevance of a message** by drawing attention to a specific point or emotion, and making it **more memorable for the listener.** This can be **useful in communication**, as it can help ensure that important information or emotions are not overlooked or forgotten.

Conclusion

- **Non-conventional speech acts** in both English and Chinese can be used to convey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listener's goals and interests**, and are therefore important to **understanding how communication works** in these languages.
- In non-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s, the speaker intends to convey a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the literal meaning of their word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is meaning depends on **the context** in which the communication takes place.
- **Relevance theory** provides a **usefu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non-conventional speech acts in communication.

사회적 친밀감 조성/증대를 위한 담화전략으로서의 아이러니 사용과 그 원리, 그리고 적합성

김 대 영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의 목표

이 논문은 Sperber and Wilson(1981, 1995)의 ‘적합성원리(principle of relevance)’를 근간으로 하여, 1) 비유적 언어기제의 하나인 아이러니의 특징을 개관하고, 2)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우회적으로 꾸짖고, 비난하는 냉소적 아이러니 (sarcastic irony) 사용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상대방의 장점이나 성취를 유머러스하게 칭찬/격려하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강화시키는 비냉소적 아이러니 (non-sarcastic irony)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 목표로 둔다.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Bussman 1996: 596)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a rhetorical trope: the replacement of an expression that is meant by its opposite’라고 정의된다. 이에 덧붙여 Kreuz and Glucksberg(1989)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실제로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며, 이때 그 의미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책, 허물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 또는 조롱을 담는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공들여서 청소해 놓은 방을 장난꾸러기 아들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역시 내 아들은 언제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니까!”라고 비아냥대는 어조로 말하는 경우, 이것은 결코 화자의 아들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그 아들의 철없는 행동을 애둘러서 꾸짖거나 책망하는 전형적인 냉소적 아이러니 발화로 성립한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러니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비난, 조롱, 책망, 경멸하고자 하는 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상대방의 장점, 성취, 업적, 선행을 유머러스하게 칭찬하거나 격려 또는 감사하고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사이의 사회적 유대와 친밀감을 조성/강화시키고자 하는 비냉소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어느 날 Tom은 오랜 객지생활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직장동료 Jerry를 위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Jerry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기획한다. 그들이 Jerry 몰래 그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Jerry를 기다리다가 Jerry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함께 (1)과 같이 외치자 Jerry는 순간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하다 마침내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Tom and his colleagues: Happy birth day, Jerry! We always love you, and cheer up!
Jerry: Ah ... All you devils! How on earth can I take vengeance upon you for this?

Jerry가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자신의 친구들의 애정 어린 배려에 감사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1)에서 Jerry가 행한 발화 (“아, 이런 악마들 같으니! 내가 도대체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는 Jerry의 속마음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Jerry의 아이러니 발화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저주, 악담에 해당하는 의미를 띄고 있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책망,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 대한 감사와 행복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irony of non-sarcastic purpose)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아이러니 발화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추론양상을 규명하는 화용론적 연구는 주로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와 같이 ‘적합성(relevance)’을 지지하는 인지적 화용론자들(cognitive pragmaticists)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화용론자들¹⁾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perber and Wilson(1981, 1995)과 Wilson and Sperber(1992)에 의한 아이러니 연구는 주로 냉소적 목적(irony of sarcastic purpose)의 아이러니 사용을 설명하는 것에만 주력해왔을 뿐,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 (irony of non-sarcastic purpose) 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서 (1)에서 제시된 Jerry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러니는 반드시, 항상 누군가를 비웃거나 비난하는 냉소적 목적/동기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Barbe (1995), Jorgensen(1996), 그리고 Culpeper(1996, 2011)에서 논의되었듯이 화자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담화전략의 면모를 갖기도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시하여 적합성원리의 이론적 틀 속에서 비냉소적 목적의 아이러니 사용 역시도 ‘적합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합성이론(Relevance Theory, 이하 RT)의 설명력을 강화하고 그것의 이론적 확장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냉소적 아이러니 사용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 조롱 대신 그의 체면을 살리고, 그와의 사회적 친밀감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다음의 사례는 2002년도에 제작된 한국의 공익광고에서 제시된 것이다.

- (2) (혼잡한 출근 길 지하철 속에서 한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의 발을 밟았을 때)

남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앗!

여자: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해하며) 어머 ... 괜찮으세요?

남자: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화난 어조로) 또 밟으면 ...!

(곧 씩 웃으면서 장난스런 어조로)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여자와 주변 사람들: (유쾌한 분위기에서) 하하하 ~

¹⁾ 예를 들면 Curc6(2000), 이성범(2002), Kim(2013) 등등

나레이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교통문화의 푸른 신호등 -- 공익광고협의회²⁾

위의 (2)에 등장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 남자가 행한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라는 발화는 바로 앞서 논의한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증대하기 위한 비냉소적 아이러니 사용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혼잡한 출근 길 지하철 속에서) 한 여자가 실수로 엉겁결에 옆에 있던 남자의 발을 밟았을 때 어쩌면 그 남자는 굉장한 통증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직장/가정일 때문에 골똘하다 못해 심기가 불편하던 상황이었다면 그 순간 매우 짜증스런 기분이 들어서 그 여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그녀의 실수를 책망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비냉소적 아이러니를 구사함으로써 그녀의 체면 살리기(face-saving)를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자칫하면 어색하거나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반전시키고 있고, 이로써 상대방과의 사회적 친밀감을 조성/증대시키고 있다.

RT의 접근을 따라 이 경우를 재분석해보면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를 발화하는 남자는 청자인 그 여자가 자신과 동일한 인지적 환경에 속해 있다는 추정 하에 ‘타인의 발을 밟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실례이며 호감을 유발할만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세상의 상식이나 통념을 메아리적으로 언급하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이탈/분리시킴으로써 아이러니를 성립시킨다.

더 나아가 그 남자가 그냥 축어적으로 무덤덤하게 “괜찮아요” 또는 “(타인의 발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또 밟으면 ...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라는 식의 아이러니 발화를 한 까닭은 (RT의 이론적 틀에 따르면) 인지효과와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때그때 선택되는 화맥 속에서 적합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거나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최악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그 남자의 진짜 의도를 오해하고 “당신, 지금 나를 희롱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화자는 그 발화상황에 맞추어 선택되어진 맥락요소와 청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그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시적 자극(ostensive stimuli)을 내놓는다. 이에 화자가 내놓은 아이러니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청자가 누리는 인지효과와 그가 들이는 처리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최적의 적합성이 달성된다. 일단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 의해 제대로 파악이 되면 축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이 자칫하면 경직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양자 간의 친밀도를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효과 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화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며, 따라서 그 화자의 발화는 최적의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발화가 된다.

Works Cited

- Attardo, Salvatore. “Irony as Relevant Inappropriateness.” *Journal of Pragmatics* 32 (2000): 793–826. Print.
 Barbe, Katharina. *Irony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5. Print.
 Bussman, Hadumod, ed.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1996. Print.
 Culpeper, Jonathan. “Toward and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3(1996): 349–67.

²⁾ <https://www.youtube.com/watch?v=HOZUNX9ukOE>

- Print.
- _____. *Impoliteness: Using Language to Cause Off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rint.
- Curcó, Carmen. "Irony: Negation, Echo and Metarepresentation." *Lingua* 110 (2000): 257–80. Print.
- Dews, Selly, Kaplan Joan, and Ellen Winner. "Why Not Say It Directly?: The Social Functions of Irony." *Discourse Process* 19.3, 1995. 347–67. Print.
- Giora, Rachel. "On Irony and Negation." *Discourse Processes* 19.2 (1995): 239–64. Print.
- Grice, Herbert P. "Logic and Conversatio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Aloysius Martini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156–67. Print.
- Haverkate, Henk. "A Speech Act Analysis of Irony." *Journal of Pragmatics* 14 (1990): 77–109. Print.
- Jorgensen, Julia. "The Functions of Sarcastic Irony in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26 (1996): 613–34. Print.
- Kim, Dae-Young. "Verbal Irony as a Strategy for Practising the Virtue of Humility: A Pragmatic Perspectiv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9.1 (2013): 25–50. Print.
- Kreuz, Roger., and Sam, Glucksberg. "How to be Sarcastic: The Echoic Reminder Theory of Verbal Iron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8.4 (1989): 374–86. Print.
- Lagerwerf, Luuk. "Irony and Sarcasm in Advertisements: Effect of Relevant Inappropriateness." *Journal of Pragmatics* 39.10 (2007): 1702–21. Print.
- Leech, Jeffrey.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Print.
- Lee, Sungbom. *English Pragmatics*. Seoul: Hankuk Munwha-sa, 2002. Print.
[이성범. 『영어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 Seto, Ken-ichi. "On Non-Echoic Irony." *Relevance Theory: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Ed. Carston Robyn and Uchida Seiji.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239–55. Print.
- Sperber, Dan., and Deidre, Wilson. "Irony and Use-Mention Distinction." *Radical Pragmatics*. Ed. Peter Cole.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295–318. Print.
- _____.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95. Print.
- _____. "Irony and Relevance: A Reply to Seto, Hamamoto and Yamanashi." *Relevance Theory: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Ed. Carston Robyn and Uchida Seiji.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283–93. Print.
- Utsumi, Akira. "Verbal Irony as Implicit Display in Ironic Environment: Distinguishing Ironic Utterances from Non-Irony." *Journal of Pragmatics* 32 (2000): 1777–806. Print.
- Van Enschoot, Renske., Hans Hoeken, and Margot van Mulken. "Rhetoric in Advertising: Attitudes towards Schemes and Tropes in Text and Image." *Informational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 1 (2006): 141–62. Print.
- Wilson, Deidre., and Dan, Sperber. "On Verbal Irony." *Lingua* 87 (1992): 53–76. Print.

IV. 학술대회장 안내

Venue: Keimyung University (영암관)



ZOOM 정보:

<https://us02web.zoom.us/j/5158539642?pwd=WEh4RU1hb3pHSzd6YmM3NHgxaXpadz09>

회의 ID: 515 853 9642

암호: 2020

교통편

지하철노선도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신당동 1000-2)

출발지	구분		도착지
대구시내	지하철	동대구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대구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성서 캠퍼스
	버스	급행1, 달서3, 성서1, 성서1-1, 성서2, 425, 503, 527, 564, 655, 급행5, 달서1, 405, 250	
동대구역	지하철	동대구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버스	524	
대구역	지하철	대구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동대구고속 버스터미널	지하철	동대구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버스	425	
서대구고속 버스터미널	지하철	만평역 [3호선] → (청라언덕 환승) → 급행5	
서부정류장	지하철	서부정류장역 [1호선] → (반월당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버스	564	
동부정류장	버스	425	
북부정류장	지하철	만평역 [3호선] → (청라언덕 환승) → 계명대역 [2호선]	
서울 방면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진입 → 광주마산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으로 진입하여 약 3km 주행 → 성서IC에서 성주방면으로 빠져나온후 → 성서방면으로 약 2km 주행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방면		서울방면과 동일	
마산, 광주 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또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구88) 이용 →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후 → 성서방면으로 약 2km 주행	